

南

漢

江

남한강

유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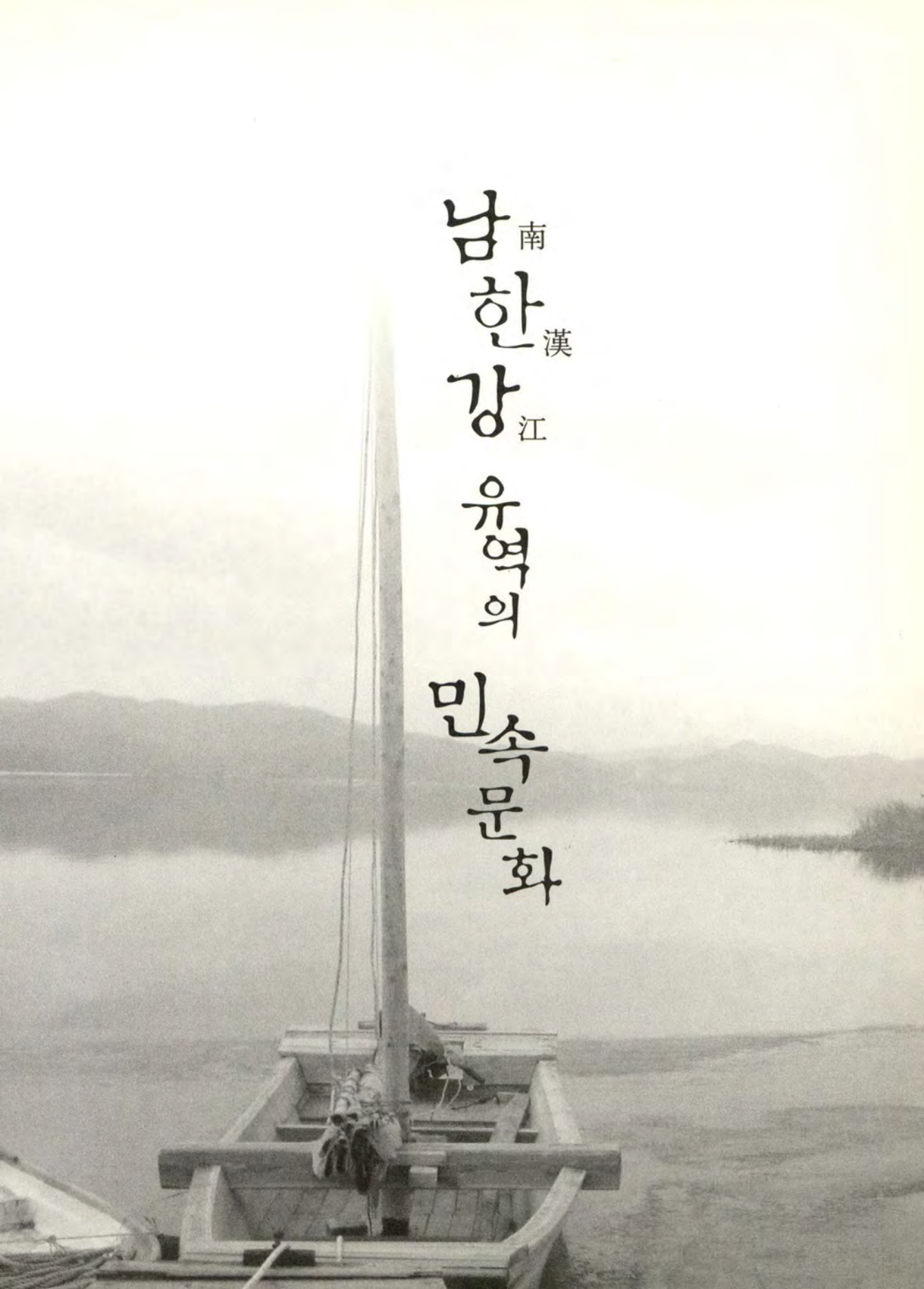
민속문화

삼국시대부터 한강과 삼각산을 지배하기 위해
신라 · 백제 · 고구려는 피나는 패권쟁탈전을 벌여왔다.
한국역사의 절반이 한강과 삼각산 쟁탈전으로
시간을 소모한 느낌이 들 정도로
산과 강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것이다.
남한강은 강원도에서 시작해서 충청도, 경기도,
서울로 이어져 한반도의 정치 · 경제 · 문화를 연계시키고
발전시키는 물줄기가 되었다.
한강은 '한민족의 강' 인 것이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남^南한^漢강^江
유역의
민속문화



발간사



이 땅에 우리 한민족이 정착해 살기 시작한 이래 우리 민족 생활의 터전이 되었고, 종교의 제장이 되었으며, 민속놀이의 장소가 되었던 한강, 그곳은 한 마디로 한민족의 젖줄이자 대동맥의 구실을 해 왔습니다. 남한강은 한강의 대지류로 태백산맥의 준령인 오대산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강원도 정선군 북면 나전리 부근에서 조양강과 송천을 합류, 정선을 지나 영월읍 남쪽에 이르게 되고, 여기서 동남류하는 평창강을 합류하고, 단양에 이르러서는 북서류하여 충주시 부근에서 북류하는 달천을 합류한 뒤 차령산맥을 끊고 횡곡으로 흘러서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합류하여 드디어 한강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삼국시대부터 한강과 삼각산을 지배하기 위해 신라·백제·고구려는 피나는 패권쟁탈전을 벌여 왔습니다. 한국 역사의 절반이 한강과 삼각산 쟁탈전으로 시간을 소모한 느낌이 들 정도로 산과 강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것입니다.

이번 '남한강 유역의 민속문화' 발간을 통해 남한강에는 북한강 유역과는 달리 평야지대가 전개되는 곳이 많아 풍농과 풍어, 뱃길의 안전을 기원하는 세시풍속과 놀이가 발달하였음을 찾을 수 있었고, 남한강 설화, 남한강 민요, 남한강 무가 및 고전시가 및 한시를 통해 고찰하는 의미있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경기도의 문화적 자산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작업들이 경기도의 미래적 자산인 문화창조력을 신장시키고 지역문화와 세계문화가 나란히 공존하기 위한 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남한강 유역의 민속 문화가 발간되기까지 책임을 맡아 진행해 주신 김선풍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12월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오용원

목차

1. 개관 / 10

2. 남한강의 시원지 / 16

- 1) 한국인의 산수관 / 16
- 2) 문헌에 나타난 남한강 / 22
- 3) 실록에 나타난 남한강 / 36

3. 남한강의 수운과 나루 / 44

4. 남한강 유역의 강마을 민속현장조사 / 52

- 1) 여주군 점동면 혼암리의 민속 / 52
- 2)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의 민속 / 64
- 3) 여주군 능서면 내양1리의 민속 / 67
- 4) 여주군 금사면 이포1리의 민속 / 73
- 5) 양평군 양서면 대심2리의 민속 / 88
- 6) 양평군 양서면 양수5리의 민속 / 92
- 7) 광주시 남종면 수청1리의 민속 / 105

5. 경기도 접경지역의 민속현장조사 / 116

1) 서울 노들나루의 민속 / 116

- (1) 노들나루의 민속배경 / 116
- (2) 노들나루의 국행제의 / 122
- (3) 노들나루의 산신제 / 129

(4) 노들나루의 용왕제 / 132

(5) 노들나루의 민속놀이 / 136

2) 충북 목계나루의 민속 / 140

(1) 목계나루의 민속배경 / 140

(2) 목계나루의 제당과 제의 / 141

(3) 목계나루의 민속놀이 / 143

6. 남한강 유역의 민속문화 / 148

1) 민속문화에 나타난 물의 상징 / 148

(1) 단군신화 속의 물 / 151

(2) 혁거세 · 알령신화 속의 물 / 154

(3) 무가 속의 물 156

2) 남한강 유역의 민속문화적 배경 / 159

3) 남한강의 설화 / 175

(1) 영웅 이야기 / 175

(2) 사찰 이야기 / 193

(3) 도깨비 이야기 / 203

(4) 용녀 이야기 / 211

(5) 투금 이야기 / 213

(6) 물 이야기 / 215

(7) 어사 이야기 / 219

(8) 지명 이야기 / 222

4) 남한강의 민요 / 238

(1) 아라리의 시원과 종착 / 233

(2) 아라리의 창법과 현장 / 239

(3) 아라리의 접변과 굴절 / 245

(4) 아라리 발생과 상황 / 247

(5) 한강의 민요 / 249

5) 남한강의 무가 / 271

(1) 한국무격의 위상 / 271

(2) 노들나루의 새남굿 / 275

(3) 한강의 무가 /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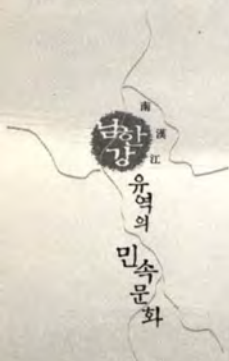
7. 남한강 유역의 시문학 / 312

(1) 한강과 시조 / 312

(2) 한강과 한시 / 317

8. 마무리 / 338

[참고문헌]



南

漢

江

남한강

유역의

민속문화

1. 개관



1. 개관

이 땅에 우리 한민족이 정착해 살기 시작한 이래 우리 민족 생활의 터전이 되었고, 종교의 제창이 되었으며, 민속놀이의 장소가 되었던 한강, 그곳은 한 마디로 한민족의 젖줄이자 대동맥의 구실을 해 왔다.

남한강(南漢江)은 한강의 대 지류로 태백산맥의 준령인 오대산(1,563m)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강원도 정선군 북면 나전리 부근에서 조양강과 송천을 합류, 정선을 지나 영월읍 남쪽에 이른다. 여기서 동남류하는 평창강을 합류하고, 단양에 이르러서는 북서류하여 충주시 부근에서 북류하는 달천(達川)을 합류한 뒤 차령산맥을 끊고 횡곡으로 흘러서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합류하여 한강이 된다.

총 길이는 375Km이며, 유역면적은 1만 2577km²에 이른다. 하천은 심하게 굴곡하는 곡류천을 형성하며, 상류는 비교적 높은 산악지대를 흐르는 급류천으로서, 특히 지류인 오대천(五臺川, 59Km)과 평창강(平昌江, 220Km)은 높이 1,000m나 되는 태백산맥의 준령 사이로 흐른다.

강원도 영월에서 시작되는 하류는 그 고도가 갑자기 낮아져, 평균 200m 내외의 구릉성 산지 사이로 흐르는 자유사행천의 성격을 띤다. 영월 부근에서 고도가 갑자기 낮아져 500m 내외의 구릉산지를 따라 크게 곡류하여 흐른다. 남한강은 상류부에 분포한 화강암 지역을 개석(開析)하며 동부에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퇴적암류 지역을 흐르

다가 단양에서 유로를 바꾸어 옥천계의 상부를 횡단하면서 좁은 충적층을 발달시킨다. 지질을 요약하면 편마암계, 대보 및 불국사 화강암계, 그리고 퇴적암계와 충적층으로 나눌 수 있다. 유역의 지형은 상류지역이 높이 500m 이상의 고원지대이나, 하류지역은 높이 500m 내외의 구릉지대에 속한다. 따라서 남한강은 하천 유로의 성격이나 유역의 토지이용도에 있어서 상류와 하류 간에 큰 차이가 있다. 상류는 내륙의 고랭지에 해당되므로 대체로 옥수수·감자·매밀 등의 작물재배가 성한 데 반하여, 하류는 우리나라 다우지의 하나로서 저평한 충적평야(충적대지)가 넓게 분포하여 미작이 성하고 채소·사과 등 원예농업이 크게 발달한 곳이기도 하다.

남한강은 조선시대에 충청·강원·영남 등 조미(粗米)를 서울로 수송하는 수로였는데, 한동안 수운이 두절되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서울과 충주 간에 수로를 이용하여 운하를 건설하는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¹⁾

한편 역사적으로 볼 때 삼국시대부터 한강과 삼각산을 지배하기 위해 신라·백제·고구려는 피나는 패권쟁탈전을 벌여 왔다. 한국 역사의 절반이 한강과 삼각산 쟁탈전으로 시간을 소모한 느낌이 들 정도로 산과 강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것이다.

각 나라가 한강을 거점으로 삼고자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첫째, 한강은 국가를 철용성으로 만들 수 있는 물길이 구비되었다는 점이 장차였으니 행주산성, 남한산성 등이 그 것이다. 둘째, 전라도의 모든 곡창지대의 곡물이나 정선·영월·여주·이천·충주 등의 곡물이나 땔감을 편리하게 한강으로 수송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셋째, 조선조에는 두모포(豆毛浦)에 동빙고(東氷庫)가 둔지산에 서빙고가 설치되었는데 특히 옥수동(玉水洞) 부근의 한강물이 무겁고 깨끗해서 얼음을 만드는 데 쓰였다. 이처럼 한강수는 식수용 이외에 제의에 쓰는 신성한 물의 기능도 했던 것이다.

한강을 일러 아리수(阿利水)라 하는데 이는 '성수(聖水)', '신성수(神聖水)', '신수(神水)'의 뜻이다.

다음과 같은 최남선의 학설은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광개토왕비에 아리수(阿利水)를 건너 백잔왕성(百殘王城)을 핏박한 구(句)가 있는데, 당시 백제의 국도(國都)는 남한(南漢) 방면인즉 아리수의 한강임은 분명하다(朝鮮歷史地理 第1卷 43頁 百濟 慰禮城考의 文 參照). 백제기(百濟紀) 개로왕(蓋鹵王) 21년의 조(條)에 보인 옥리하(郁里河)가 그것임도 의심없을 일이니, 한강의 고명(古名)에 또한 '얼'이 있음을 알 것이다. 한수(漢水)에 인(因)하여 한성(漢城)이 있는 것처럼, 위례성(慰禮城)의 명(名)이 옥리하에 인한 것이라 하는 진전씨(津田氏)의 설도 대체는 승인될 것이다. 그런데 《한서 漢書》 지리지(地理誌) 소견(所見)의 대수(帶水)가 또한 한강임

1) 오건환, '남한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pp. 486~487
국립청주박물관, 《남한강 문물》, 2001, p. 8

은 최근의 연구로 추정된 바요, 지방도 한강의 상류에 우통수(于筒水)의 명이 있고, 그 발원점(發源點)인 산명을 오대(五臺)로 일컬음으로써 우통의 명이 실상 오대산의 오대에 관계 있음을 설상(設想)할지니, 이것을 추연(推衍)하여 한수(漢水)의 일명(一名)에 오대(五臺·于筒) 비슷한 일명이 있어 한명적(漢名的)으로 축약할 때에 대수(帶水)의 형(形)을 얻은 것인데, 오대의 원형이 실상 엄체(淹遞) 엄체(淹滯)의 유어(類語)임을 상(想)함은 억지가 아닐 것이다. 이것도 ‘얼’ 수(水)의 성질과 및 그 음운변화 상태를 고찰하는 상(上)의 유력한 일자료(一資料)일까 한다.

경주의 동천(東川)을 알천(關川)이라 하니, 《삼국유사》 권 1 신라시조의 조, 알영정(關英井) 하(下)에 ‘일작아리영정(一作娥利英井)’이란 것에 준하여 알(關)의 〈얼〉로 독(讀)할 것임을 알며, 또 일본 재적(載籍)에 보인 아리나예하(阿利那禮河)란 것도(日本書紀 神功紀의 文 등) 필시 이 알천의 설화상 투영(投影)일 것이다. 그런데 이 알천에는 북천(北川)의 별명이 있고(東京雜記, 북은 북의 일형(一形)으로 볼 것) 또 그것이 성수(聖水)로 계욕지(禊浴地)·공의장(公議場)인 것은 삼국유사 신라시조의 조에도 나타나 있다. 요(要)하건대 ‘얼’이란 물의 설화적 지위를 나타낸 것들로도 볼 것이다.

경강(京江)이란 한강 중에서도 서울을 감도는 곳을 말하는데, 광나루에서 양화진까지를 말한다. 이 지역은 조선 후기에 해상교통의 중심지였다.

경강은 18세기 이전까지 3강으로 불리다가 18세기 중엽에는 5강으로, 18세기 후반에는 8강으로 불렸다. 그리고 19세기에 접어들어서는 12강으로도 불렸다. 이것은 경강의 상업중심지가 점차 확대되면서 나타난 변화였다. 3강은 한강, 용산강, 서강을 가리키는데, 남산 남쪽 한남대교 근처에서 노량진까지를 한강, 그 서쪽에서 마포까지를 용산강, 마포 서쪽에서 양화진까지를 서강이라 불렀다. 이들 3강은 조선 전기부터 경강수운의 중심지로서 조운에 의한 세곡 운송의 거점이면서 동시에 서울과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나루터로서 중요 교통로에 해당하였다.

지금의 한남대교 부근에서 노량진까지를 가리키는 한강지역에 속하는 두모포(옥수동)에서는 한강 상류에서 내려온 물자가 집하(集荷)되어 서울로 반입되었다. 두모포 아래에 위치한 한강진(국철 한남역 자리)은 경기도 광주로 건너갈 수 있는 나루터로서 서울의 물화(物貨)가 삼남지역으로 내려가는 중요한 길목이기도 했다.

노량진 서쪽에서 마포까지를 가리키는 용산강 지역은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등지의 세곡을 모아 한강 수운을 따라 상류에서 실어온 다음 부려 놓는, 내륙수운에 의한 조운의 종착점이었다. 한편 조선 전기에는 바닷물이 용산강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서해를 통해 올라온 조운선까지 모여들어 이곳은 조운의 중심지로서 조선 초기

부터 발전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용산강의 수위가 점차 낮아지고 강바닥에 진흙이 쌓여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게 되어 서해를 통해 올라 온 조운선 역시 용산강 하류인 마포나 서강까지만 들어오게 되었다.

한편 용산강의 하류에 위치한 마포는 서해안과 한강 상류를 연결하는 상업의 요지였다. 서강과 용산이 조세곡 운송의 중심지였다면, 마포에는 세곡이 아닌 일반 상품들이 집하되어 매매되었기 때문에 이곳은 어물과 상품유통의 중심지로서 변창하였다.

마포 서쪽에서 양화진에 이르는 서강지역은 바다를 통해 경강으로 반입되는 황해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등지의 세곡이 모이는 곳이었다. 서해를 거쳐 운송된 조세곡은 일단 서강에서 하역되었다가 배나 짐말, 짐꾼에 의해 다시 경강변이나 도성 안의 각 창고로 운반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조운선이 용산강까지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서강지역이 세곡운송의 중심포구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강, 용산강, 서강 등의 3강 외에, 18세기 중엽부터 5강으로 불린 경강지역은, 한강, 서강, 용산, 마포, 망원정이었고, 18세기 후반 이후의 8강에는 5강에 두모포, 서빙고, 독섬이 더해졌다. 19세기 전반의 12강은 위의 8강에다가 연서, 왕십리, 안암, 전농을 더한 것이었다.

경강포구의 기능이 조운을 통한 곡물집하에 집중되어 있던 조선 전기부터 발전해온 한강, 용산강, 서강지역은 일찍부터 3강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그러다가 18세기 이후 서울이 상업도시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확대되고 그에 따라 경강변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강지역은 상업중심지로 변창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는 세곡의 집하와 나루터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용산이나 서강보다는 일반상품의 유통 중심지인 용산강의 마포일대가 크게 번성하였다. 18세기를 지나면서 3강 외에도 여러 포구가 상업중심지로 발전하였고 이러한 상업발달의 양상을 반영하여 경강의 명칭도 5강에서 8강, 다시 12강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²⁾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남한강은 강원도에서 시작해서 충청도·경기도·서울특별시로 이어지는 강이지만 전라도·충청도 등 여러 도와 정치·경제·문화 등에서 밀접하게 접촉·접합 관계가 이루어진 강이다. 그러기에 한강은 '한민족의 강'으로 승화시키고 성역화 해야 할 대상일 뿐 어느 도에만 속한 강이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2) 허영란, '한강의 역사·역사의 한강', 《한민족의 젖줄 한강》, 국립민속박물관, 2000., pp. 132~133

여 백

南 漢 江
남한강

유역의

민속문화

2. 남한강의 시원지



2. 남한강의 시원지

1) 한국인의 산수관

한국의 문화는 산과 강을 중심으로 생성(生成)되었고, 국가 또한 산과 강을 떠나 존재할 수 없었다. 우선 태백산(백두산)을 예로 들어보자.

《금사 金史》 예지(禮志) 8에 보면 백두산은 ‘흥왕지지(興王之地)’이며, 흥망지지(興亡之地)라고 표현하고 있어 동북아 제 민족(諸民族)이 얼마나 이곳을 중요한 성지(聖地)로 여겼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실로 동북아시아 제 민족(諸民族)의 정신적인 축이기도 했던 백두산을 일러 육당(六堂)은 일찍이 《백두산근참기 白頭山觀參記》(권두)라는 글에서, “백두산은 천산성악(天山聖岳)으로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제도신읍(帝都神邑)으로 역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영원화병(靈源化柄)으로 ‘문화의 일체종자(一切種子)’였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곳에서 주목할 점은 ‘문화일체(文化一切)의 종자’라는 표현인데 이 말은 우리 문화의 근원이 태백산에서 시작했다는 말이 된다. 한국인의 고향은 하늘이다. 하늘나라의 뜻을 펴기 위해서는 산이 개국(開國)의 텃밭이 될 수밖에 없다.

어디를 가든 마을마다 진산(鎭山·主山)이 있고 그 진산에는 산신당(山神堂)이 자리 잡고 있다. 환웅이 태백산정에 하강하여 나라를 세운 것이나 가락국(駕洛國)의 김수로 대왕(金首露大王)이 개국한 구지봉정(龜旨峰頂)이나, 신라의 박혁거세(朴赫居世)가 태

어난 곳인 양산(陽山) 밑이나, 왕건이 정착(定着)한 송악산(松嶽山)이나, 조선조 태조가 의중에 두었던 계룡산(鷄龍山), 삼각산(三角山), 목멱산(木覓山), 북악산(北岳山) 등이다. 숭산사고법(崇山思考法)에서 나온 장소였던 것이다.

산은 한국인이 태어난 곳이에요, 영혼의 귀의처이기도 했다. 그곳은 우주산의 배꼽에 해당된다. 그러기에 우리 민족의 조국담(肇國譚)에서도 단군은 마지막에 장당경(藏唐京) 백악산(白岳山)으로 들어가 산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태백시에 자리 잡은 태백산은 어떤 위상을 지닌 민족의 영산일까.

《삼국사기 三國史記》에 다음과 같은 산천제(山川祭)의 기록이 나타나 있다.

삼산(三山)과 오악(五岳) 이하의 명산대천(名山大川)에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의 제사를 나누어 지냈다. 대사를 지내는 삼산은 나력(奈歷), 골화(骨火), 혈례(穴禮)였고, 중사를 지내는 오악은 동쪽 토함산(吐含山), 남쪽 지리산(智異山), 서쪽 태백산(太白山), 중앙 부악(父岳)이었다.…… 소사는 상악(霜岳), 화악(花岳), 감악(紺岳), 부아악(負兒岳), 월나악(月奈岳), 무진악(武珍岳), 서다산(西多山), 도서성(道西城), 동노악(冬老岳), 다노악(多老岳), 죽지(竹旨), 웅지(熊只), 우화(于火), 삼기(三岐), 휘황(卉黃)에서 지냈다.

신라의 삼산(三山)은 우리나라의 삼신신앙(三神信仰)³⁾에서 성립되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오악(五岳)은 있어도 삼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백제와 신라에 만 삼산이 있기 때문이다. 고구려의 삼산은 알 수 없으나 백제 삼산은, “우군중유삼산 일월산 오산 부산 국가전성지시 각유신인거기상 비상왕래 조석부절(又郡中有三山 日月山 吳山 浮山 國家全盛之時 各有神人居其上 飛相往來 朝夕不絕)⁴⁾”이라고 한 부여의 일산(日山), 오산(吳山), 부산(浮山)이다. 백제 때 이 삼산의 신들은 서로 날러 다녔다는 신산(神山)들이다. 일산의 위치는 미상하나 이병도(李丙巖)는 백마강(白馬江) 북안(北岸)의 울성산(蔚城山)으로 추정하고 있으며,⁵⁾ 오산은 부여의 남쪽 7리에 있고,⁶⁾ 부산은 고성진(古省津)의 북안에 있는데,⁷⁾ 이 삼산은 백제의 삼신산(三神山)으로 산신들은 백제왕도의 주변에서 호국(護國)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신라 삼산은 초기에는 《삼국사기 三國史記》 제사지(祭祀志)에 있는 나력(奈歷), 골화(骨化), 혈례(穴禮)의 삼산이 아닌 《동국여지승람 東國輿地勝覽》에 보이는 금강산(金剛山), 선도산(仙桃山), 함월산(含月山)의 삼악(三嶽)이었다고 생각되니⁸⁾ 그것은 《동국여지승람》에 있는 삼악이 《삼국사기》 제사지에 있는 삼산보다 왕도에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즉, 《동국여지승람》에,

3) 李丙巖, 《高麗時代의 研究》, 亞細亞文化社, 1980, p. 268

4) 《三國遺事》 卷2, 紀異2, 南夫餘, 前百濟, 北夫餘

5) 李丙巖, 《高麗時代의 研究》, 亞細亞文化社, 1980, p. 271

6) 《東國輿地勝覽》 卷18, 忠清道 扶餘郡 山川條

7) 《東國輿地勝覽》 卷18, 忠清道 扶餘郡 山川條

8) 이병도(李丙巖)는 명치산(明治山), 남산(南山), 선도산(仙桃山)을 원시형(原始形)의 삼산(三山)으로 보았다.

(《高麗時代의 研究》, 亞細亞文化社, 1980, p. 271.)

선도산 신라호서악(仙桃山 新羅號西嶽)

함월산 신라호남악(含月山 新羅號南嶽)⁹⁾

이라고 한 북악인 금강산, 서악인 선도산, 남악인 함월산이 삼악인데 금강산은 진한(辰韓)에 육촌(六村)의 하나인 고야촌(高耶村)의 시조가 하늘에서 하강한 산¹⁰⁾으로 금성(金城)의 북쪽 7리에 있고,¹¹⁾ 선도산은 본래 서술산(西述山)¹²⁾으로 선도성모(仙桃聖母)의 전설이 있는 산으로 서쪽 7리에 있으며,¹³⁾ 함월산은 남쪽 45리에 있으나¹⁴⁾ 역시 신라왕도 주변에 있는 호국의 신산이었다고 본다. 그런데 《삼국사기》 제사지에는 삼산은 나력, 골화, 혈레라고 기록되어 있다.

나력은 습비부(習比部)에 있는데 이병도는 경주의 진산인 낭산(狼山)으로 비정(比定)하고 있으나¹⁵⁾ 습비부는 본래 고야촌이므로 그 성산(聖山)인 금강산이라고 보고 싶다. 그것은 금강산이 신라의 삼악에서 북악이며 사령지(四靈地)의 하나로 왕도에서 가장 가까운 신라의 중심적인 신산이기 때문이다. 골화는 절야화군(切也火郡)에 있는데 조분왕(助賁王) 때 골화국(骨化國)의 성산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병도는 영천(永川)의 금강성산(金剛城山)으로 비정하고 있다.¹⁶⁾ 혈레는 대성군(大城郡)에 있는데 본래 유리왕(儒理王) 때 이서국(伊西國)의 솔이산성(率伊山城), 경산성(驚山城, 茄山縣) 조력산성(鳥力山城) 삼성과 구력성(仇力城)을 토벌하여 대성군이 되었으므로¹⁷⁾ 이서국의 성산이었다고 생각되나, 이병도는 청도(淸道)의 부산(甌山)¹⁸⁾으로 김상기(金庠基)는 경주의 단석산(斷石山)으로 비정¹⁹⁾하였고, 홍순창(洪淳昶)은 경주의 인박산(咽薄山)일 가능성을 시사²⁰⁾하고 있으나 부산의 설을 따르기로 한다.

이렇게 보면 신라의 삼산은 삼악에서 신라의 중심적 신산인 금강산은 그대로 두고 선도산과 함월산 대신에 신라의 초기에 정벌한 골화국과 이서국의 신산인 골화(금강산성)와 혈레(부산)로 삼산을 확대시켰다고 본다.²¹⁾

그런데 여기서 태백산은 이미 부족국가 시대부터 두 개의 축으로 이분화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일게 된다.

앞에서 필자는 백두산이야말로 '흥왕지(興王之地)'이며 왕조의 흥망성쇠(興亡盛衰)와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백두산의 정기뿐만 아니라 천지(天池)의 젖줄이 있어야 흥왕지지를 건설할 수 있듯이, 신라인은 태백산 정기와 황지(黃池)의 젖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데 박혁거세는 환웅(桓雄)의 환(桓)이 광명을 뜻이듯이 혁혁(赫赫: 光明)한 빛을 애초부터 타고났던 하느님의 아들이란 뜻이요, 알영정(閼英井)에서 태어난 용모신(龍母神), 곧 농신적(農神的) 존재란 뜻이 된다. 여기에서 천지의 융합(融合)이 이루어졌

9) 《東國輿地勝覽》卷21, 慶尙道 慶州府 山川條

10) 《三國遺事》卷1, 紀異1, 新羅始祖赫居世王

11) 《東國輿地勝覽》卷21, 慶尙道 慶州府 山川條

12) 《東國輿地勝覽》卷21, 慶尙道 慶州府 山川條

13) 《東國輿地勝覽》卷21, 慶尙道 慶州府 山川條

14) 《東國輿地勝覽》卷21, 慶尙道 慶州府 山川條

15) 李丙燾, 《韓國史》古代篇, 乙酉文化社, 1959, p. 360

고 한국적 음양사상이 싹트게 되었다.

류동식(柳東植)은 고대의 오방 산신제(五方山神祭)가 단적으로 그것이 ‘수호제(守護祭)’였음을 말하는 것이고, 신라의 산천제가 제천농경의례(祭天農耕儀禮)의 단순한 전승이라 하였으나, 필자는 농경의례나 기우제, 수호제(守護祭)로서의 기능은 부차적인 것이요 신라인의 원초적 의의와 ‘홍왕지지’를 건설하기 위한 수호제였을 것으로 믿으며 부여계(조선계) 신화소(神話素)라기보다는 삼한계(한계) 신화소가 지배적임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 민족의 천신사상(天神思想)은 급기야 숭산숭수사상(崇山崇水思想)으로 번지게 되었으니 숭산숭수사상의 요람지로서의 태백산을 북방계와 남방계로 분류해서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북 방 부 여 계		남 방 삼 한 계	
白 頭 山 + 天 池	//	太 白 山 + 天 潢(黃 池)	
山 神 + 龍 神	//	山 神 + 龍 神	
(陽 + 陰)	//	(陽 + 陰)	

인간은 사고하는 심적 동물이다. 그리하여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그 시대를 품미하는 사고의 틀은 늘 있어 왔다.

흔히 일반적인 사유에 반해 사상은 고급성, 시대성, 체계성을 더욱 강조하는 사고의 흐름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민족 문화적 수준에 따라 질량적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고유한 민간적 사상의 계승은 으레 선진문화의 흐름에 압도 당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면히 흐르는 민간의 보수적 사상의 흐름이 있었으니 산악숭배사상이 그 중에 하나이다.

하늘을 공경하는 경천사상(敬天思想)은 어느 민족에게나 있다. 그러면 한국인의 경천사상, 곧 숭산사상의 근본 뜻은 무엇이며 대상신은 무엇으로 잡았을까?

중국 문헌 《위지》 동이전 부여전에 보면 “은나라 역법(曆法)으로 정월에 하늘에 제사지내고 나라 사람들이 크게 모여 술을 마시고 먹고 노래하며 춤을 추었고, 형벌과 옥사(獄事)를 중단하고 죄수 무리를 풀어주었는데 이를 ‘영고(迎鼓)’라 한다.”고 했다. 이때 북을 치면서 새해맞이를 했다 했는데 맞이한 신은 바로 태양이 된다. 해를 맞이했다는 기록은 7세기 문헌인 《수서》 동이전 신라조에도 뚜렷이 나와 있다. “매년 정월초 아침에는 서로 경하(慶賀)하고, 왕이 연회를 베풀어 손님과 관원들이 모인다. 이날 일월신(日月神)을 배례한다.”

16) 李丙燾, 《韓國史》 古代篇, 乙酉文化社, 1959, p. 360

17) 《三國史記》 卷34, 雜誌3, 地理1

18) 李丙燾, 《譯註 三國遺事》, p. 2

19) 金庠基, 〈花郎과 彌勒信仰에 대하여〉, 《李弘植博士 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p. 10

20) 洪淳熙, 〈三山五嶽에 대하여〉, 《新羅民俗의 新研究》, p. 42.

21) 金榮振, 《韓國自然信仰研究》, 清州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85, pp. 2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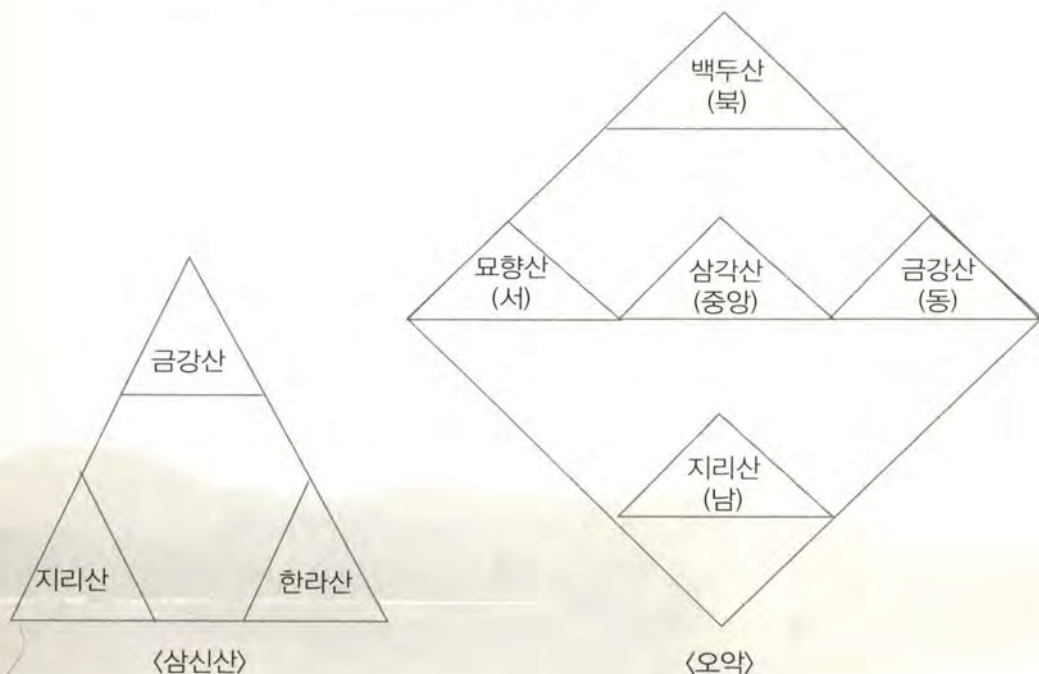
결국 천신은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산정에 하강한다.

환인은 환웅을 태백산에 내려보내 산정에 신시(神市)를 건설하였고, 이때부터 천신 사상은 숭산사상, 곧 산천사상이 움텄고, 산에서 들로 이동하면서 숭산사상과 지신사상(地神思想)이 공존하게 되었고 지상의 신인 단군 역시 그 숭산이 하늘에 잇대고 있는지라 사후에 산상(山上)으로 상승·회귀한다. 한 마디로 부족국가시대의 천산융합사상(天山融合思想)은 삼국통일 국가시대에 이르러서 산지융합사상(山地融合思想)으로 전이되었다가 고려·조선조로 넘어오면서 산수(山水)·지수융합사상(地水融合思想)까지 낳게 되었다.

이상에서 필자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 몽골·만주 등의 '우주산(세계산)'의 설정에 대해 살펴 보았다. 아시아인의 우주산인 태백산(백두산), 이 산은 시대마다 이동을 해 왔다. 그렇다면 조선조의 위상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조선 영조 때 이중환(李重煥)이 쓴 《택리지 擇里志》(일명 八域地)에 보면, 한국의 신앙적 종산을 예부터 3산, 곧 금강[蓬萊], 지리[方丈], 한라[瀛州]와, 5악 곧 북악의 백두산, 남악의 지리산, 동악의 금강산, 서악의 묘향산, 중악의 삼각산으로 잡았고, 전자를 삼신산(三神山), 후자를 오악(五嶽)이라 일컬었다.

삼산·오악·오진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우리는 굳이 산마저 삼신산과 오악·오진으로 나누어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어디에서 말미암음인가 상도(想到)해 볼 필요가 있다.

삼(三)은 삼원사상(三元思想)으로 귀결되고, 오(五)는 오방사상, 곧 오방지신(五方之神)이 중앙을 지키는 상을 의미한다.

과거 중국은 중심사고법적(中心思考法的) 세계관을 지니고 있었다. 소위 그들의 우월주의적인 중화사상은 중심에 중화가 있고 사이(四夷)가 사방에서 지켜 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그리하여 중앙은 황색으로 가장 존엄한 위치와 인격을 상징한다고 자부해 왔다.

아무튼 조선조가 설정한 삼각산의 위치는 사방의 네 산인 금강산, 묘향산, 지리산, 백두산의 정기가 집결된 중앙에 있어, 네 벽을 보호막으로 하여 왕조가 천국(遷國)할 만한 길지(吉地)로도 손색이 없었던 것이다.

우주산의 개념은 조선조로 넘어 오면서 진산사상(鎭山思想)으로 발전하게 된다. 한마디로 한 국가나 공동체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는 영산인 ‘진호국가산(鎭護國家山)’을 말한다.

〈도표〉에 나타난 대로 한양 서울은 백악산이 중진산(中鎭山)이 되고 사방의 오대산·구월산·속리산·장백산이 벽이 되어 웅위하고 있다. 국가의 진호국가산에는 임금이 몸소 친제를 거행하였으니 산제(山祭) 또는 산천제(山川祭)가 그것이다.²²⁾

신라 때는 삼산인 나력(奈歷)·골화(骨化)·혈례(穴禮)에서는 대사(大祀)를, 토함산·지리산·계룡산·태백산·부악 등의 오악에서는 중사(中祀)를, 그리고 상악·설악·화악·감악·부아산 등 24곳의 산에서는 소사(小祀)를 거행하였다.

산천제는 국행의례(國行儀禮)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왕이 아들이 없을 때 명산에 몸소 나아가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으니,

부여의 왕이 늙어서 자식을 두지 못하였다. 이에 산천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대를 이을 아들을 구하였다.(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는 기록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

왕후장상의 국행의례와 마찬가지로 민간에서도 산신을 믿어 ‘산제’, ‘도당제’라는 이름으로 산치성을 드렸으니 이 같은 습속은 삼한시절 이전부터 행해져 왔다고 믿는다.

고려왕조나 조선왕조에는 산에 가호(加號)를 하는 풍속이 있었다. 전쟁 때 국가를 진호(鎭護)했다거나 왕조의 기가 서려 있는 산이 그 대상이 된다.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온 태백산에는 신단수(神檀樹)가 있다. 신단수는 우주의 축(軸)을 가늠하는 곳이고 신이 강림하는 곳이기도 하다. 산이 신의 세계인 하늘과 인간의 세계인 땅 사이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그 두 세계 사이의 연결고리 노릇을

22) 삼국시대는 五鎭이 아니라 四鎭(온말근·해치야리·가야입악·웅곡악)이 있었다.
(《삼국사기》 권제 32, 잡지 제1 제사)

담당했을 때 우리는 우주산(세계산)이라고 부른다. 동시에 세계산이 된 성산(聖山)은 우주의 배꼽 역할을 담당하여 생명력이 모인 곳이고 미래의 성자(聖子)를 탄생할 장소임을 은유하고 있다. 배꼽은 중심으로 기가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성(性)과 연결되어 생산(출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왕조와 연결된 산악숭배사상을 거론하자면 가락국의 시조모(始祖母) 정현모주(正見母主)와 신라의 시조모 선도산성모(仙桃山聖母)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두 신은 우주의 생산신 자격으로 시조신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고려의 왕업 창조나 조선의 왕업 창조는 풍수도참설(風水圖讖說)과 불교, 도교식 산악숭배사상에 의존해 왔다. 그리하여 고려 시대나 조선왕조 시대나 산들의 음우가호(陰祐加護)로 나라를 일으켰음을 시가문학이나 사록에서 역설하고 있다. 이들 두 왕조 시기에는 삼산오악에서 국행제(國行祭)를 벌여 신에게 빌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중요 행사가 있을 때 가호를 내리기도 하였으니, 신호(神號)·덕호(德號)·훈호(勳號)·존호(尊號)·작호(爵號)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하여 물할미·산모신·지모신과 더불어 지역수호신으로서의 산신은 서낭신과 겹쳐서 동신, 곧 마을신으로까지 섬겨지면서 도당굿·서낭굿·별신굿·당산굿·동신제 등의 주신이 되어 민간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으로 부상하게 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동제가 아예 산신제로 관념될 정도로 인식되기도 한다.

종합적으로 한국인의 숭산숭수관이 역대를 거쳐 어떻게 변이되어 왔는지 도표화 해 보기로 한다.²³⁾

부여·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
백두산+천지(天池)	태백산+천황(天潢)	백악산 + ?	삼각산 + 우통수
…… 압록강	…… 낙동강	…… 예성강	…… 한강
산신 + 용신	산신 + 용신	산신 + 용신	산신 + 용신

2) 문헌에 나타난 남한강

《동호승람 東湖勝覽》 권2 시문 최신서유고(崔莘西遺稿)에 보면, “임영(臨瀛)의 땅에는 명승지가 많은데 산으로는 오대산이요 물로는 경호(臨瀛之地多名勝若山之五臺水之鏡湖).”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오대산이라는 산은 아름다운 경치 곧 미경(美景)이라는 단어를 넘어 불가적 숭고미(崇高美)가 숨 쉬고 있는 성산(聖山)으로 이해하는 게

23) 김선풍 외, 《태백산천제》, 태백시, 2009, pp. 26~32 보침

좋을 듯 싶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는 그 시대에 맞는 독특한 정치·경제·신앙체계가 존재했고 그 시대의 민간사고법을 생활에 적용해 왔다.

신라의 삼산·오악·사진의 산과 천이 조선조의 삼산·오악·오진의 산 천과 사뭇 다른 예가 호적례(好適例)라 하겠다.

한강의 원 줄기가 길고 멀고 산이 높고 낮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강의 시원점이 되는 곳에 어떤 신화소(神話素)가 있으며 그 신화소가 민간사고법과 왕조사고법에 어떻게 어울리고 조화되었는가가 중요했다고 본다.

필자는 본고에서 한국인이 삼산·오악·오진·사해를 설정한 신앙적 근거를 한국인의 산수관을 통해 살펴 보고, 어떤 이유로 한강 시원지를 우통수나 금강연으로 잡았는지 그 문헌적 측면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① 《삼국유사》 권제3, 탐상, 대산오만진신, 명주 오대산 보길도 태자전기

우통수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려 충렬왕 7년(1281) 일연에 의해 편찬된 사서(史書)인 삼국유사에 처음 나타난다. 삼국유사에서는 우통수를 한강의 발원지라고는 주장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우통수에 대한 기록과 우통에서 나는 물을 신령스러운 물로 기록하고 있다.

삼국유사의 우통수 관련 내용은 신라가 정치적으로 혼란할 때 오대산 서대의 수정암에 태자 2명이 숨어 들어와 살게 되는데 보길도태자와 효명태자가 그들이다. 그들이 매일 아침 부처님께 우통수 혹은 골짜기 물로 차를 다려 공양한다는 내용이다. 효명태자가 누구인지는 옛 문헌들이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32대 효소왕(三國遺事)이라는 해석과 33대 성덕왕(聖德王)이라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우통수의 해석도 삼국유사의 기록에는 “금우통수전차공양(汲于洞水煎茶供養)”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汲于洞水 煎茶 供養”으로 보아 “우통수의 물을 길어 차를 다려 공양하다.”로 해석하는 경우와, “汲于洞水 煎茶 供養”의 우통수(于洞水)의 우(于)를 목적격 조사, 혹은 어조사로 보아 “골짜기의 물을 길어 차를 다려 공양하다.”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바로 이어 나오는 “寶叱徒太子常服于洞靈水”를 보면 우통의 신령스러운 물은 어느 한 지점의 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조상들의 정서로 보아 신령스런 물이란 골짜기의 물 전체보다는 특정 지점의 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²⁴⁾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우통수에 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24) 전성호, 《한강발원지의 역사성 및 현대적 의미 고찰》, 《한강의 발원지와 강원도》, 강원개발연구원, 2000, pp. 10~11

형제 두 사람이 예의와 염불로 수행하고 오대에 나아가 공경하며 예배하니, 청은 동대의 만월 형의 산에 있으니 그곳에는 관음진신 일만이 상주하고, 남대의 기린산에는 팔대보살을 수반으로 일만 지장보살이 상주하고, 백색방인 서대의 장령산에는 무량수여래를 수반으로 일만 대세지보살이 상주하고, 흑색을 맡은 북대의 상왕산에는 석가여래를 수반으로 오백 대아나한이 상주하고, 황색자인 중대의 풍로산은 혹은 지로산이라고도 하는데 비로차나를 수반으로 일만 문수가 상주하고 진여원에는 문수대성이 매일 이른 아침에 삼십육형으로 나타나 보이었다. 두 태자가 함께 배례하고 매일 이른 아침 우통수(골짜기의 물)를 길어다 차를 달여 일만 진신의 문수에게 공양하였다.

이때 정신태자의 아우 부군(副君)이 신라에 있어 왕위를 다투다가 죽음을 당했다. 나라 사람들이 장군 4인을 오대산에 보내었는데 효명태자의 암자에 이르러 만세를 불렀다. 그리하자 오색의 채운이 오대산으로부터 신라에 이르러 칠일 칠야 동안 광채가 비쳤다. 나라 사람들이 그 빛을 찾아 오대산에 이르러 두 태자를 모시고 서울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보길도태자는 눈물을 흘리며 울고 돌아가지 않으므로 효명태자만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서 왕위에 올랐다. 재위 이십여 년인 신룡 원년 3월 8일에 비로소 진여원을 세웠다. 보길도태자는 항상 우통(洞中)의 영수(靈水)를 마시더니 육신이 공중을 날아 유사강(流沙江)에 이르러 울진대국의 장천굴에 들어가 도를 닦다가 다시 돌아와 오대산 신성굴(神聖窟)에 이르러 오십 년 동안 도를 닦았다. 오대산은 곧 백두산의 큰 줄기인데 각대에는 진신이 상주한다.

② 《양촌집》, 오대산 서대 수정암 중창기

오대산 서대 수정암 중창기는 현재의 우통수 옆에 수정암을 중창한 후 중창에 참여하였던 나암이 권근(權近, 1352~1409)에게 중창의 역사를 지어달라고 부탁하여 당시의 사실을 적은 기문(記文)으로 《동문선》 권 80에 같은 이름으로 전해 온다.

《양촌집 陽村集》에 수록된 〈오대산서대수정암중창기 五臺山西臺水精菴重創記〉의 우통수에 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강원도 경계에 큰 산이 있는데 다섯 봉우리가 나란히 솟아 크고 작기가 비슷하게 둘러섰으므로 세상에서 오대산이라 한다. 중앙의 것이 지로봉, 동쪽 것이 만월, 남쪽 것이 기린, 서쪽 것이 장령, 북쪽 것은 상왕이라 하여 드디어 다섯 가지의 성중이 늘 머물고 있다는 말이 있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많이 말하고 있으나 유가에서는 더 말하지 않는다.

서대 밑에서 함천(檻泉)이 솟아나서 빛깔과 맛이 보통 우물물보다 낮고 또한 무거운데 우통수라고 한다(色味勝常其重赤然曰于簡水). 서쪽으로 수백 리를 흘러가서 한강



이 되어 바다로 들어간다.

한강이 비록 여러 곳에서 모인 물을 받아들이나 우통수는 다른 물과 섞이지 않고 색과 맛이 변하지 않음이 중국의 양자강에 중령이 있음과 같고 한강이라는 이름도 이에서 비롯되었다(漢雖受中流之聚而于簡爲中冷色味不變若中國之有楊子江漢之得名以此). 우통수의 근원에 수정암이란 암자가 있는데 옛날 신라의 두 왕자가 이곳에 은둔하여 선을 닦아 도를 깨쳤기에 지금도 중으로서 중과를 닦고자 하는 이는 거처하기를 즐겁게 여긴다. 임신년 가을에 불탔는데 이때 조계종의 시 잘 하는 중 나암유공과 목암영공이 모두 명리를 버리고 이 산에 들어 왔다가 암자의 서까래가 잿더미로 변한 것을 보고 측은하게 여겨 비탄하며 다시 세우려고 화소를 가지고 곧 산을 나서 널리 권선하므로 시중 철성 이공 임과 그의 부인 홍씨와

권근의 기문에는 우통수가 다른 물과 섞이지 않는 무거운 물인데, 한강이란 이름도 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었다. 곧, '권근'은 '한강'의 '한'을 '무겁다(重)'는 뜻으로 해석한 것이다.

③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강원도 강릉

1481년 성종 12년에 편찬된 《여지승람》(50권)을 1486년 성종 17년에 이를 다시 정정하여 《동국여지승람》(35권)이라 하였다가 중종 25년 이행(李荇) 등이 증보하여 55권의 완성본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발간하였다. 본서는 조선 전기 지리지의 집성편으로 알려져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44 강원도 강릉조의 우통수에 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우통수는 강릉부의 서쪽 일백 오십 리에 있으며 오대산 서대의 아래쪽에 위로 솟아 오르는 샘물이 있어 이곳이 곧 한강의 근원이다. 권근의 기록에 서대의 아래에 위로 솟아오르는 샘이 있는데 무게 또한 그러하여 우통수라 한다. 서쪽으로 수백 리를 흘러 한강이 되어 바다에 들어간다. 한강은 비록 여러 곳에서 물을 받아들이나 우통이 가운데로 흐르고 색과 맛이 변하지 않는 것이 중국에 양자강이 있는 것과 같고 한강의 이름도 이와 같은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한강의 기원이 이곳 우통수에서 시작되며, 우통수의 색과 맛이 변치 않은 것이 마치 중국 양자강이 그러한 한 것과 비견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④ 《미수전집》, 기언 권28 하편 산천하

《미수전집 眉叟全集》은 17세기 강릉부사를 지낸 허목(許穆, 1595~1682)의 문집이다. 우통수를 한강의 발원지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우통의 물을 신령스런 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앞의 문헌들에 나오는 우통(于筒), 혹은 우동(于洞)이 우통수(于筒水)일 가능성을 높혀 준다.

미수전집의 우통수에 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한계령 동쪽은 설악이고 설악의 남쪽은 오대이고 산은 높고 크고 깊고 멀다. 산의 기가 가장 많이 쌓인 것이 다섯인데 이를 일컬어 오대라 한다. 최북은 상왕이고 산은 높고 험준하고 최고 봉우리는 비로봉이다. 동쪽의 두 번째 봉우리는 북대라 하고 감로정이 있다. 비로봉의 남에는 지로봉이 있다. 지로의 위는 중대이다. 산은 깊고 기는 맑고 새도 이르지 않는다. 불자들은 이곳에서 새벽에 상 없는 부처에 새벽 예를 올리는데 이곳이 가장 뛰어난 곳이다.

중대 아래 사자암이 있는데 태상신무왕(太上神武王)이 지은 것이다. 참찬 문하 근에게 명하여 사자암기를 지었다. 옥정(玉井)이 있어 아래로 흘러 옥계(玉溪)가 된다. 북대의 동남은 만월이 되고 그 북쪽이 설악이고 만월의 절정은 동대이다. 동대의 물은 청계가 되고 동대에 오르면 붉은 바다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상왕봉의 서남쪽은 장령이 되고 그 위는 서대가 된다. 서대에서는 신비한 우물을 길으니 그것을 우통의 물(于筒之水)이라 하는데 이는 한송선정(寒松仙井)과 더불어 신령스런 샘으로 불린다. 장령의 동남은 기린봉이고 그 위는 남대이다. 그 남쪽 기슭에는 영감사가 있는데 여기에 사서가 저장되어 있다.

상원사에서 좌측으로 약 2Km 지점에 서대(西臺, 念佛庵)가 앉아 있다. 허목은 우통의 물이 강릉 한송정의 우물처럼 신령스런 샘임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한송정을 한송선정이라 하여 선(仙) 자를 넣어 신선이 마시는 선수(仙水)임을 암시하고 있다.

⑤ 《택리지》 팔도총론, 강원도

《택리지》는 ‘팔역지’라고도 한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증환(1690~?)이 영조 27년(1751)에 현지답사를 기초로 하여 저술한 우리나라 지리서이다.

택리지의 우통수에 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강릉 서쪽이 대관령이고 영 북쪽이 오대산에서 우통의 물이 시작되어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이것이 한강의 물 근원이다.…….

이 시내에는 영월의 상동을 지나 읍 앞, 임계 서편 기슭으로 들어간다. 남쪽은 정선의

여량촌이 되고, 우통수(于筒水)는 북쪽으로부터 이 촌을 돌고 남으로 흐른다.
택리지(擇里志)에서는 한강지원(漢江之源)이 우통지수(于筒之水)라고 지적하고 있다.

⑥ 《연려실기술 별집》 권16, 지리전고(총지리)

조선 후기 실학자 이금익(1736~1806)에 의해 1776년경(영조 52)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조 역대 사실의 전말을 여러 책에서 뽑아 엮은 역사 서적으로 일언일구도 가필하지 않고 객관적 사관으로 편찬하였다.

《연려실기술 燃藜室記述》 별집의 우통수에 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서울의 한강은 옛날에는 한산하(漢山河)라 불리었고 고려시대에는 사평도(沙平渡)라 불리었다. 그 근원은 둘인데 충주 금천에서 흘러오는 것을 남강, 춘천 소양강에서 흘러오는 것을 북강이라 불렀다. 남강은 그 근원이 둘인데 하나는 강릉 오대산 우통수(于筒水) 금강연(金剛淵)이다. 한강은 비록 여러 물이 모인 것을 받아들이지만 우통수가 그 주류이다. 오대의 물이 두타산(頭陀山) 북쪽의 임계물과 삼척 죽현의 물을 합하여 남으로 흘러 정선 동쪽의 여량역을 지나 군북 쪽에 이르러 광탄진(廣灘津)이 된다.

본서의 기술방법은 체계적이면서도 합리적 지론을 가지고 편찬한 책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한강은 남한강과 북한강 등 여러 물을 받아 형성되나 우통수가 그 주류임을 비교적 실증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⑦ 《여지도서》 강원도, 강릉 산천

영조 36년 관에서 전국 읍지를 종합하여 정리한 책이다. 290개 읍에 관한 인문·사회·산업·국방·지리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여지도서 輿地圖書》의 우통수에 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오대산

오대산은 함경도 장백산의 한 줄기로 남으로 양양에서 설악산이 되고 강릉에서 오대산이 된다. 북서쪽 백사십 리에 동에는 만월봉, 남에는 기린봉, 서에는 장령, 북에는 상왕봉. 중에는 지로봉이 있어 빙 둘러 열을 지어 있는데 크기가 비슷하여 그 이름이 되었다.

금강연

오대산 월정사는 강릉부의 서쪽 백십 리에 있으며 사면이 모두 반석이며 거세게 흘러 돌아 금강연이 되는데 신룡이 있다고 전해 내려온다. 봄에 수많은 여행어가 무리를 지어 물을 거슬러 위로 올라 깊은 못에 도달하여 배회하다가 물소리를 내며 힘을 다해 뛰어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고 중간에서 돌아가는 것도 있다. 이것이 다하여 오대산의 발원이 된다.

우통수

우통수(于筒水)는 강릉부의 서쪽 백오십 리에 있는데 오대산의 서대 아래쪽에 위로 솟아오르는 샘이 있는데 이것이 곧 한강의 근원(漢水之源)이다.

본서에서는 우통수라는 샘이 한강의 근원이 되며, 우통수에서 흘러 내려 온 곳에 금강연이 있는데 그곳에 신룡(神龍)이 살고 있음을 지적하여 신수(神水)·용수(龍水)가 흐르고 있는 곳임을 강조하고 있다.

⑧ 《지행록》 지행부록, 오대

이만부(李滿敷, 호 息山, 1664~1732)에 의해 작성된 지지로 우통수를 신천(神泉)이라 하고 산중의 물과 합쳐 한강의 시원으로 기록, 한수의 원천이 되고 원천에 수정사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행록 地行錄》의 우통수에 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설악의 남쪽에 오대가 있는데 그 서쪽은 강릉부의 경계와 백 사십 리의 거리에 있으며 바닷가에 가서 산맥이 끝난다. 이 산은 흙이 많고 바위는 적으며 흙으로 된 언덕이 하늘 높이 솟아 올라 높고 험한 기운이 먼곳까지 뻗었다. 동쪽은 만월봉이며 남쪽은 기린봉이고 서쪽은 장령이고 북쪽은 상왕봉이고 중앙은 지로봉인데 모두 합쳐 오대산이라 한다.

상왕봉의 절정은 비로봉이고 동쪽에 감로정이 있다. 만월대에서 해가 뜰 때는 붉은 바다를 바라볼 수 있다. 그 물을 청계라 한다. 장령 아래에는 우통수(于筒水)라고 하는 신천(神泉)이 나온다. 그 물은 산중의 물과 합쳐 기린봉의 동쪽 골짜기에 모여 반야연과 금강연이 되고 한강의 근원이 된다. 그 근원에 수정사가 있다. 지로봉의 아래에 사자암이 있다. 태자 신무왕이 건축하였는데 참찬 문하에게 명하여 기록을 하게 했다. 남쪽으로는 상원암이 있으며 기린봉의 남쪽 기슭에는 영감사가 있는데 이곳에 사서를 소장케 하고 있으며 또 남쪽 십 리에 월정사와 관음사 두 개의 절이 있다.

《지행록》에서는 비로봉 동쪽에 감로정(甘露井)이 있는데 그 물을 청계(靑溪)라 하며, 장령(長嶺) 밑에는 신천(神泉)이라고 하는 우통지수(于洞之水)가 있는데 그 물은 여러 산중의 물과 합수되어 반야연·금강연이 되고 또 한강의 근원(漢水之源)이 됨을 기술하고 있다. 우통수를 ‘우통(于洞)’으로 쓰고 있는 점이 삼국유사의 기록과 같다.

⑨ 《동환록》 권3

철종 10년(1859년)에 윤정기(尹廷琦)가 지은 책으로 필사본이다. 우리나라의 지리·역사와 기타 많은 사항을 사전식으로 엮은 책으로, 내용은 방언·악부·방역·강역·역대제국·팔도주현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책에는 한강의 위치, 옛 이름, 오대산이나 한강의 유로에 있는 여러 지역의 고지명 등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동환록 東寰錄》의 우통수에 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한강은 곧 열수이다. 산해경주에서 이르기를 열수는 대방에 있으니 대방은 열구현에 있는데 열구현은 지금의 강화이다. 반고지탄열(班固地吞列)은 지금의 풍덕(豐德), 통진(通津)을 말하는데 이의 설명에서 열수가 여산에서 나오는데 여산은 지금의 오대산을 말한다. 팔백 이십 리를 가서 서쪽으로 점선에 도달하여 바로 들어간다. 점선지방은 강화의 옆에 있는 연안(延安), 백천(白川)의 옛 이름이다. 옛날에는 한강을 한산하로 불렀고 신라시대에는 북독이라 불렀다.

그 강은 강릉 오대산에서 나오는데 그 발원하는 곳은 우통수이다. 팔역지에서 이르기를 대관령 북쪽이 오대인데 우통의 물(于筒水)이 이로부터 나오니 이곳이 한강의 근원이다. 서쪽으로는 인제현의 물과 더불어 합쳐져서 춘천부의 북쪽에 이르러 소양강이 된다. 또 남쪽으로 산수(汕水: 지금의 홍천)의 물을 받아 용진(龍津: 지금의 양근)에 도달한다.

《동환록》은 《택리지》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여 우통수가 한강의 근원수임을 기술하고 있다.

⑩ 《증보문헌비고》 권20, 여지도8 산천

우리나라 상고로부터 대한제국 말기에 이르기까지의 문물제도를 분류 정리한 책으로 약칭은 문헌비고라 한다. 1977년 영조 46년에 홍봉한 등이 왕명에 의해 동국문헌비고란 이름으로 100권을 편찬하였다.

《증보문헌비고 增補文獻備考》 권20 여지도8 산천의 우통수에 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한강의 근원이 셋인데 그 하나는 오대산의 우통(于筒, 강릉)에서 나오고, 하나는 금강산의 만폭동(회양)에서 나오고, 하나는 속리산의 문장대(보은)에서 나온다. 그 우통

에서 나온 것은 남쪽으로 흘러 금강연이 되고 진부(陳富라고도 하였으니 상편을 보라.)의 서쪽으로 꺾여서 동쪽으로 흘러 왼쪽으로 횡계(橫溪, 근원은 강릉 대관령이다.)를 지나서(큰 물이 작은 물에 합치는 것을 지난다라고 하였으니 다른 것도 이와 같다.) 주천(紬川)이 되며 왼쪽으로 죽천(竹川)(근원의 나온 곳이 길고 멀면 별도로 본문 아래에 부록 하였으니 다른 것도 이와 같다.), 고천(蠡川, 근원은 정선 대지산(大枝山)의 신추에서 나온다.)을 지나 동강이 되고 정선의 서쪽을 돌아 오른쪽으로 벽탄(碧灘, 근원의 나온 곳이 매우 가까우면 근원을 쓰지 않았으니 다른 것도 이와 같다.)을 지나 꺾여서 남쪽으로 흘러 왼쪽으로 정암을 지나…….

《증보문헌비고》와 여타 문헌이 다른 점은 한강수의 근원을 세 곳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곧, 오대산의 우통수와 금강산의 만폭동, 그리고 속리산의 문장대를 한강의 근원으로 잡고 있는 점이 다른 설과 다르다.

⑪ 《관동지》 권10, 강릉(상), 강릉부읍지, 산천

《관동지 關東誌》는 1829~1931년에 강원감영에서 내린 수합령에 따라 수합된 읍지로 우통수는 10권에 기록되어 있다. 우통수를 한강의 발원지로 하고 있다.

《관동지》의 우통수와 금강연에 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금강연

오대산 월정사 앞에 있다. 사면이 모두 반석으로, 폭포가 10여 척을 흘러 모여 못을 이루었다.

세상에 전하기를 신령스러운 용을 감추고 있고, 봄에는 열목어 천 백 마리가 무리를 이루어 물을 거슬러 올라가 이 연못에 이르러 배회하며 부침하는데, 힘을 다해 위로 올라 감이 벼랑에 걸린 듯 한데, 혹은 올라가고 혹은 반만 올라갔다가 도로 떨어지는 것도 있다. 이는 대개 오대산에서 발원(發源)한 것이다.

우통수

부에서 서쪽으로 일백 오십 리 되는 곳에 있으며 오대산 서대의 아래에서 샘이 솟은 즉 한강의 원류(漢水之源)이다. 맛이 평범하지 않으며(味亦異常) 물결의 높이(流波高)가 1촌 정도이다.

이 문헌에서는 오대산의 발원지를 금강연으로 잡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한강의 근원은 우통수이고 물맛 또한 특이함을 강조하고 있다.

⑫ 《대동지지》 강릉

김정호에 의해 철종 14년(1863)에 편찬된 지리지로 각 관읍에 대한 현재적 파악이 중요 특징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우통수 부분에서 앞에 나온 지지들을 그대로 인용한 것임에 틀림 없다.

《대동지지 大東地志》의 우통수에 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우통수는 강릉부의 서쪽 일백 오십 리에 있으며 오대산 서대의 아래쪽에 위로 솟아 오르는 샘물이 있는데 색과 맛이 보통을 뛰어 넘으니 이곳이 곧 한강의 근원이다.

금강연은 강릉부 서쪽 일백 십리에 있으며 월정사 곁에 우통수가 있어 그 물이 밑으로 흐른다. 사면이 모두 반석을 돌아 골짜기 물이 세차게 흐른다. 봄에 수많은 여항어가 무리를 지어 물을 거슬러 위로 오른다.

《대동지지》의 기록에는 우통수의 거리와 물의 맛과 색, 그리고 금강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우통수가 상원사가 아닌 월정사 곁에 있다는 말은 오류다.

⑬ 《원문 증수임영지》(전, 산천

《원문 증수임영지 原文 增修臨瀛誌》에는 다음과 같이 우통수를 간통수로 적기(摘記)하고 있다.

간통수

강릉부 서쪽 150리 되는 곳에 있으며, 오대산 서대 아래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가 한강에 도달한다.

그러나 강릉부에서 《강릉지》를 축약·정리한 필자본 《임영지 臨瀛誌》(單)에는 간통수가 아닌 우통수(于簡水 : 出於五臺山西臺之下西流達于漢在府西一百五十里)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필시 편집자가 잘못 기록한 듯싶다.

⑭ 《조선의 산수》(동명사, 1947)

최남선은 그의 저서 《조선의 산수(山水)》의 〈조선의 강하〉에서 우통수에 대한 견해를 아래와 같이 피력하고 있다.

한강의 근원은 대개 둘이 있습니다. 남쪽 것은 오대산 우통(于簡)이란 데서 나와서 경기·충청 양도의 여러 물을 모아 가지고 차차 북으로 올라오고, 북쪽 것은 금강산 만폭동에서 나와서 강원도 영서와 경기 북부의 여러 물을 모아 가지고 남으로 내려오

다가 양평·가평·양주 3군의 교계에서 남북 양강이 합수하여 서으로 경성을 둘러서 교하(交河) 오두산하(龍頭山下)에서 다시 경기 북교(北郊)의 물을 모아 가지고 오는 임진강을 아울러 가지고 조강(祖江)이란 이름으로써 서해로 들어갑니다. 전유장(全流長) 514 킬로미터, 가항구간(可航區間) 합 330 킬로미터, 유역이 또한 광대하여 국경의 양강을 빼고는 조선 제일의 대강이 되며, 수량이나 배질하는 동안은 두만강보담도 낫다. 반도의 허리통으로 흐르고 또 경기의 혈관이니까, 한강의 지리적 또 정치적 중요성은 따로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런 이유 말고 다만 경제적 가치로써 말할지라도 한강은 당연히 조선에 있어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입니다.

발원지인 오대·금강 양산은 이르도 말고, 북한강에는 신연강(新淵江)·소양강(昭陽江), 남한강(南漢江)에는 속리산 줄기·여강(驪江) 등 지류가 있어 그것들이 낱낱이 허다한 명승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지류 전체에 승지 많기로는 압록강·대동강 할 것 없이 한강이 조선 제일입니다.

육당은 《조선의 산수(山水)》에서,

조선반도의 미는 진실로 높은 산과 고운 물이 날이 되고 올이 되어 짜낸 비단 무늬에 불외한 것입니다. 가만 있는 산과 움직이는 물, 높아진 산과 멀려서 물, 흔들리는 일 없는 산과 막혀지지 않는 물, 그렇게 빼어난 산과 그렇게 아름다운 물이 겹쳐 있는 곳에 비로소 원만 충족한 풍경미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산고수려하고 금수강산이라 하여, 산과 물을 반드시 짝지어 들추어 옴이 과연 그저 일이 아니던 것입니다.(조선의 산수, 조선의 강하, 동명사, pp. 61~62, 1947.)

라고 산수론을 펼치고 있다. 그는 산과 물의 조화에서 아름다움이 구현됨을 역설하고 있다. 한강 발원지를 오대산 이외에 금강산을 덧붙이고 있는 점이 종래의 발원지설과는 색다른 점이다. 즉, 한강의 근원을 남쪽 남한강은 우통수로, 북쪽 북한강은 금강산 만폭동에서 시작된다고 하였다.

⑤ 《시문독본》 24, 오대산 등척(登陟)

최남선은 그의 저서 《시문독본》(육당최남선전집 8, 별집Ⅱ, 현암사, 1973)에서 우통수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상원(上院)에서 조식(朝食)하고 등라(藤蘿) 엮힌 소경(小徑)으로하여 서대(西臺)를 찾아갈새 임초(林杪)에 은현(隱現)하여 사리각(舍利閣)이 뵈니 등척(登陟)하는 수고가 북대(北臺)에 견주어 반(半)이나 감(減)하더라.



얼마 아니하여 암(庵)에 이르니 회록(回祿) 지내고 고쳐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아니하므로 판옥(板屋)이 매우 정치(精緻)하고 위치가 또한 유수(幽邃)하여 좀 앉았으며 탄 정신이 나며 우통수를 찾아가니 한강의 발원이라 처(處)가 벽(僻)하고 색이 결(潔)하여 여러 샘 중에 가장 나으며 맛은 일반 감향(甘香)하더라.

다시 상원으로 돌아와 초로(初路)를 순(循)하여 내려오다가 사고(史庫) 지나서 학담(鶴潭)을 얻으니 수석(水石)이 자못 청아(清雅)하고 서(西)으로 절벽이 질렸으며 담(潭)에 임(臨)하여 제법 윤택(幽態)이 넉넉한지라, 동반(同伴)으로 더불어 물가에 앉아 물말이를 먹으니 운미(韻味)가 유장(悠長)하더라. 곧 월정(月精)으로 돌아와 각인(各人)의 행낭(行囊)을 터니 생물(生粟)도 나오고 전복(全鰓)도 나오고 병과지숙(餅菓之屬)도 나오는지라, 나누어 먹으면서 보고 온 경승(景勝)을 품평(品評)하니 운림(雲林) 천석(泉石)이 방불히 눈앞에 벌어지더라.

대개 이 산의 생김생김이 중후(重厚)하여 유덕군자(有德君子) 같고 조금도 경현(輕儼) 첨초(尖峭)한 태(態)가 없음이 일승(一勝)이요, 이런 미점(美點)이 있으니 이름이 금강(金剛)에 버금함이 마땅하며 만일 그 장처(長處)를 집어내어 저 초봉(峭峰) 장폭(壯瀑)에 비교하면 누가 갑을(甲乙)이 될지 알른 판단하기 어려우리라 하노라.

상기 저서에서 최남선은 그의 오대 등정기를 기술하고 있는데, 궁벽한 산간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우통수는 한강의 발원지로 물색이 깨끗하고 여러 샘 중에서도 가장 나으며 맛이 감향(甘香) 곧 물맛이 단맛이 나면서도 향기롭다고 극찬하기에 이른다.

⑯ 《태백의 산하》(최승순, 강원일보사, 1973)

최승순은 그의 저서 《태백의 산하》에서 적멸보궁 일대가 용의 혈(血)임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여기의 고도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오대산 주봉(主峰)이 1천 5백 미터를 넘으니 여기도 천 미터는 될 듯하다. 실개천 하나 없는 이 높은 곳에 샘이 난다.

눈에서 솟는 용안수(龍眼水)

용(龍)트림하고 있는 오대산 산세(山勢) 가운데 보궁당처(寶宮當處)는 용의 머리라 하고 보궁 옆 맑은 물이 샘솟는 이곳은 용의 눈에 해당된다 하여 여기서 솟는 샘을 용안수(龍眼水)라 한다. 언덕까지 산길을 허우적거리며 올라오다 맑고 차기가 비길 데 없는 이곳 샘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면 땀도 씻기우고 진상(塵想)도 가셔진다. 묘(墓)로 말하면 제절에 해당하는 보궁 앞 마당인 언덕은 잡초 하나 없는 금잔디다. 이 산중 고처(高處)에 윤기나는 금잔디가 이렇게도 많을 수 있을까 하고 의아가 갈 정도다.

용안수 옆에 구멍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용의 코라 한다. 낮에 이 구멍에 가랑잎을 하나 가득 채워 놓고 다음 날 와 보면 하나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밤새 용의 숨결에 의하여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다. 풍수에 밝다고 하는 승려의 말에 의하면 오대산의 주봉과 그에서 흘러 내린 지맥(支脈)이 천만 갈래로 구비치고 감돌고 솟구친 것이 다 이 보궁터 하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붓으로 그려도 이 이상 그릴 수가 없다고 한국 제일임을 강조한다.

풍수의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올라 잔디밭에 다리를 뻗고 연연(連連)하게 흘러간 산봉과 계곡을 내려다 보고 있으면 “참 좋구나.” 하는 말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흘러나오는 곳이다. 터가 이렇게 좋아서 예부터 이곳에 조상의 뼈를 가만히 묻어 보려고 찾아드는 사람이 펍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묘를 쓰려고 백골을 지고 이곳에 오기만 하면 날씨가 급변하여 뇌성이 일고 급수(急水)가 쏟아져서 수많은 사람이 찾아들기는 했으나 쓰지는 못했다 한다.…….

여기는 세 곳의 분수령(分水嶺)이다.

동쪽에 떨어지는 물은 동해로 들고 남쪽 골물은 정선 영월 단양 충주 여주로 가고 서북쪽 골물은 인제서 설악산 물과 합수하여 소양강으로 든다.

위의 보궁당처는 세존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寂滅寶宮)을 말한다. 적멸보궁은 용의 얼굴에 해당하고 그곳에서 용출하고 있는 샘물을 용안수(龍眼水)라고 하는데 용의 눈에서 나오기 때문에 만병을 치유할 수 있는 성수(聖水)의 기능을 한다.

⑰ 《진부면지》(평창문화원, 1993)

평창문화원에서 간행한 《진부면지》의 우통수에 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오대산의 줄기 장령봉(長嶺峰) 밑의 샘물 우통수(于筒水)가 우리나라의 젖줄인 한강의 꼭지물이라는 것은 알려진 지 오래다. 다시 말하면 이 우통수가 남한강의 발원지인 것이다. 남한강으로 흘러드는 물이 우통수뿐이라만 아니 오대산 내의 열의 열 골에서 흐르는 물이 우통수와 합수하여 남한강으로 흘러내리는 것이지만 우통수는 그 물들의 가장 윗물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여기 우통수 샘물을 시발로 서울을 꿰뚫는 일천 리 물굽이의 실타래를 생각해 보라. 장장 일천 리의 실타래, 흰 비단으로 연결된 일천 리의 물길 한강의 시작과 끝, 그것은 진정코 장엄한 서사시의 대장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한강에 안겨져 있는 우리 민족의 숨소리와 더불어 역사적 맥박을 더듬을 때 이 강줄기에 대한 생명성은 엄청난 것이며 그 중요도 또한 크고 크다. 그런 비중으로 보았을 때 그 시발이 되는 우통수인즉 얼마나 재조명되어야 할 지역인가를 깨우치게 한다. 물론 우통수는 스스로 솟아 스스로 흘러가는 것이지만 인간은 이에 대한 경외심을 다시 짚어 봐야 될 것 같고 관념적으

로나마 이 지역에 대한 보호 척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통수는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은 맛이다. 순수한 맛이 으뜸이 된다. 이 물로 차를 끓여 마시면 차미(茶味)가 독특하다고 한다.

②는 냉이다. 차기가 얼음보다도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얼지 않는다.

③은 빛깔이다. 아주 순수한 정수, 얼음보다도 강한 냉수가 만드는 빛깔은 색으로선 없는 그런 빛깔을 낸다. 흰색도 아니요 청색도 아닌 빛깔 그 합성의 빛깔이다. 그 합성의 빛깔도 아닌 그런 빛깔이다.

우통수가 차의 물로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이 좋아서 그러리라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역사적 근거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신라의 신문왕(神文王)의 태자 보천(寶川)과 아우 효명왕자(孝明王子)가 국란에 의하여 강릉을 거쳐 신문 원년에 오대산에 숨어 들었는데 이들이 우통수의 물을 길어 진여원(眞如院·上院寺) 문수보살(文殊菩薩)께 올려 공양하고 또 스스로도 이 물로써 차를 달여 마시곤 하였다고 한다(삼국유사).

한편 다른 면으로는 우통수가 차수(茶水)로 사용된 기록은 민지(閔漬)의 찬(撰)인 《오대산월정사적》에도 나타나 있는 것이다. 또 문헌상으로 보면 고려 말 조선기에 걸쳐 문장(文匠)이었던 기우자(騎牛子)(李衍)의 기록에 있어서도 차수의 첫째는 충주 달천(達川)의 물이요, 둘째는 오대산 우중수(牛重水, 于簡水)의 물이요, 세번째는 속리산 삼타수(三託水)의 물이라고 적고 있는 것이다. 순위는 그가 정했을 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단연 오대산의 우통수였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충주 달천보다는 오대산의 수질이 높이 평가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통수는 그 수질의 비교에 있어 중국의 중냉수(重冷水)에 버금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얼마나 양질의 물인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우통수는 한강의 시원점수(始源點水)라고 하는 것은 문헌상 《세종실록지리지 世宗實錄地理誌》, 《택리지 擇里志》 등에도 기록되어 있고 고산자(古山子)의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통수의 역사는 신라(물론 그 이전일 수도 있다.) 신문왕에서부터 오늘날까지 1,300년을 헤아려 오면서 조금도 변함이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있지만 근본이 되는 자연의 근간은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있다. 보천(寶川), 효명왕자로부터 시작하여 인걸(人傑)의 흥망성쇠는 끝없이 굴곡을 이루었지만 한 곳에 솟아오르는 샘은 1,000년을 하루처럼 보내고 있음이니 우주의 조화를 어찌 인간사에 비할 수 있을 것인가.

우통수에 대하여는 그 이름의 변천이 있었으니 처음 보천, 효명이 입산하여 이 장령산 밑 수정암(水精庵·獅子庵)에 자리 잡아 있을 때는 우통수로 통하였다. 그러던 중 이 물이 차수로 쓰이고 수질이 아주 좋다는 평에 따라 좋은 물은 사실 무겁다는 사실적 근거가 있고 보니 이 물을 한층 높이는 이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우통수(于簡水)는 우중수(牛重水)로 부르게 되니 우

중수란 소처럼 무거운 물이란 뜻으로 결국 좋은 물이란 표현이었다. 그 다음은 다시 변하여 원 이름을 찾자는 데 의하여 우통수로 되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권근이 《동문선 東文選》에 적고 있다.

이상에서 밝힌 바 우통수는 이렇게 역사적인 물굽이를 타고 있고 조금도 변질 없는 1,300년의 세월을 안고 있지만 우통수 자신은 풀숲에서 냇쪽 석판(石板)에 고개를 괴고 언제까지나 우통수로 그리고 한강의 원류로 존재하고 있다. 인간들이야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관계 없이 말이다.

《진부면지》에서는 우통수를 '소처럼(소만큼) 무거운 물' 곧 우중수(牛重水)로 풀이하고 있다. 한수(漢水)의 '한'이 원래 크다, 많다 등의 뜻 외에 '무겁다'는 뜻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이 해석하고 있는 민간어원설도 일리가 있다 하겠다.

3) 실록에 나타난 남한강

한강의 근원지를 우통수와 금강연으로 잡은 최초의 기록은 조선세종실록지리지이다. 우통수와 금강연이 어째서 한강의 원천인지를 맛과 색 그리고 무게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조선 《세종실록지리지 朝鮮世宗實錄地理誌》에 수록된 우통수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통수

지리지/강원도/강릉 대도호부

명산(名山)은 오대(五臺)이다. 부(府) 서쪽에 있다. 봉우리 5가 고리처럼 벌려 있는데, 크기와 작기가 고른 까닭에 오대산이라 한다. 서대(西臺) 아래 수정암(水精庵) 옆에서 우리샘[檻泉]이 솟아나는데, <물의> 빛과 맛이 여느 물과 다르고, 그 무게도 또한 그러하므로 우통수(于筒水)라고 하며, 곧 금강연(金剛淵)은 한강물의 근원(漢水之源)이 된다. 봄·가을에 그 고을 관원으로 하여금 제사지내게 한다. 한강물이 비록 여러 곳의 물을 받아 흐르나, 우통수가 중심이 되어 빛과 맛이 변하지 아니해서 중국의 양자강(揚子江)과 같으므로, 한(漢)이란 이름이 이로 인하여 되



었다. 【영인본】 5책 675면

대천(大川)으로 말하면, 한강(漢江)은 그 근원이 강원도 오대산(五臺山)으로부터 나와 영월군(寧越郡) 서쪽에 이르러 여러 내를 합하여 가근동진(加斤同津)이 되고, 충청도 충주(忠州)의 연천(淵遷)을 지나서 한결같이 서쪽으로 흘러 여흥(驪興)을 지나 여강(驪江)이 되고, 천녕(川寧)에서 이포(梨浦)가 되며, 양근(楊根)에서 대탄(大灘)이 되고, 또 사포(蛇浦)와 용진(龍津)이 되었으며, 〈한 줄기는〉 인제현(麟蹄縣)이 이포소(伊布所)로부터 나와 춘천(春川)에 이르러 소양강(昭陽江)이 되고, 남쪽으로 흘러 가평현(加平縣) 동쪽에서 안판탄(按板灘)4886 이 되고, 양근(楊根) 북쪽에서 입석진(立石津)4887 이 되며, 또 〈양근〉 남쪽에서 용진도(龍津渡)가 되고, 사포(蛇浦)로 들어가서 두 물이 합하여 흘러 광주(廣州) 경계에 이르러서 도미진(渡迷津)이 되고, 〈다음에〉 광나루[廣津]가 되었으며, 서울 남쪽에 이르러 한강도(漢江渡)가 되고, 서쪽에서 노도진(露渡津)4888 이 되며, 서쪽에서 용산강(龍山江)이 되었는데, 경상·충청·강원도 및 경기 상류(上流)에서 배로 실어 온 곡식이 모두 이곳을 거치어 서울에 다다른다. 강물이 도성 남쪽을 지나 금천(衿川) 북쪽에 이르러 양화도(楊花渡)가 되고, 양천(陽川) 북쪽에서 공암진(孔岩津)이 되며, 교하(交河) 서쪽 오도성(烏島城)에 이르러 임진강(臨津江)과 합하고, 통진(通津) 북쪽에 이르러 조강(祖江)이 되며, 포구곶이[浦口串]에 이르러서 나뉘어 둘이 되었으니, 하나는 곧장 서쪽으로 흘러 강화부 북쪽을 지나 하원도(河源渡)가 되고, 교동현(喬桐縣) 북쪽 입석진(黃石津)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니, 황해도에서 배로 실어 온 곡식이 '모두' 이곳을 거치어 서울에 다다른다. 하나는 남쪽으로 흘러 강화부 동쪽 갑곶이나루[甲串津]를 지나서 바다로 들어가니, 전라·충청도에서 배로 실어 온 곡식이 모두 이곳을 거치어 서울에 다다른다. 【영인본】 5책 614면

금장강(錦璋江)은 그 근원이 오대산동(五臺山洞) 금강연(金剛淵)에서 시작하여 진부역(珍富驛) 수다사골[水多寺洞]을 지나 정선군(旌善郡)에 이르러 광탄(廣灘)이 되고, 고을 남쪽에 이르러 대음강(大陰江)에 들어가 두 물이 합하여, 흘러서 가탄(加灘)에 들어가고, 평창군(平昌郡) 동쪽에 이르러 연화진(淵火津)이 되며, 영월군(寧越郡) 동쪽에 이르러 금장강이 된다. 가근동진(加斤同津)은 그 근원이 강릉 영서(嶺西) 죽원(竹源)과 금천(金川) 등지에서 시작하여 향며촌(向?村) 방림역(芳林驛)을 지나 평창군 북쪽에 이르러 용연진(龍淵津)이 되고, 영월군 서쪽에 이르러 가근동진이 되며, 고을 남쪽에 이르러 금장강과 합하여 충청도 영춘현(永春縣)을 지나 충주에 이르러 연천(淵遷)이 된다. 【영인본】 5책 675면

실록에는 오대산 상원사에서 지낸 수륙재(水陸齋)와 법석(法席)에 관해서도 기록되어 있다. 실록에 기록된 법석과 수륙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태조 14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8월 17일(경신) 1번째 기사
천변지괴 때문에 오대산 상원사와 금강산 표훈사에 법석을 베풀다
천변(天變)과 지괴(地怪)가 있으므로, 법석(法席)을 오대산(五臺山) 상원사(上元寺)와 금강산(金剛山) 표훈사(表訓寺) 등의 절에 베풀었다.

르다

- 태종 2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10월 2일(정사) 1번 째기사
수륙재를 오대산 상원사에서 베풀다

수륙재(水陸齋)를 대산(臺山)의 상원사(上元寺)에 베풀었으니, 천재(天災)를 없애기 위하여 빈 것이었다. 【영인본】 1책 214면

세조는 조선왕조에서 불교를 가장 사랑했던 임금이다. 또한 그는 명산대천과 악진해독의 제사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다. 1466년 오대산 상원사·월정사·서수정사를 거쳐 오면서 “아아! 우리 부처의 변화와神通력의 묘함은 직접 눈으로 보고 징험한 것이 이와 같으니, 더욱 감동하여 여러 신민(臣民)들과 더불어 뛰고 기뻐하여, 드디어 크게 사유(赦宥)하여 큰 자비(慈悲)를 널리 펼칩니다.”라고 경탄한 언사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

- 세조 3권, 2년(1456 병자 / 명 경태(景泰) 7년) 3월 28일(정유) 3번째 기사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의 춘추 대사·오경·문묘 종사·과거·기인 등에 관한 상소

악진해독(嶽鎭海瀆)입니다. 대개 일대(一代)의 흥(興)함에는 반드시 일대(一代)의 제도가 있었으며, 본조(本朝)의 악진해독(嶽鎭海瀆), 명산대천(名山大川)의 제사는 모두 삼국과 전조의 구제를 의방해서 한 것이므로 의논할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 세조 38권, 12년(1466 병술 / 명 성화(成化) 2년) 윤3월 28일(기해) 3번째 기사
뇌영의 사자편에 일본 국왕에게 글을 부치다

돌아옴에 미쳐서는 낙산사(洛山寺)·오대산(五臺山)·상원사(上院寺)·월정사(月精寺)·서수정사(西水精寺)·미지산(彌智山)·용문사(龍門寺)를 거쳤는데, 상원사 총림에서 사리·우화(雨花)·감로(甘露)·이향(異香) 등의 상서가 다시 전과 같았으며, 서울에 이르자 또 사리·감로·

수타미(須?味)의 상서가 함께 이르러서 전후에 얻은 것이 총 7천 8백 17매(枚)였습니다. 아아! 우리 부처의 변화와神通력의 묘함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이 이와 같으니, 더욱 감동하여 여러 신민(臣民)들과 더불어 뛰고 기뻐하여, 드디어 크게 사유(赦宥)하여 큰 자비(慈悲)를 널리 펼칩니다.

명종14년(1599)에는 오대산이 성소이기 때문에 금렵(禁獵)이란 뜻을 뜻하여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였고 산삼을 캐지 못하도록 금표(禁標)를 붙이기도 하였다.

금렵과 금표에 대한 사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명종 25권, 14년(1559 기미 / 명 가정(嘉靖) 38년) 2월 17일(기미) 2번째 기사
지평 유승선이 산랑·천택·어진·시장의 폐단의 내용을 아뢰다
지평 유승선이 아뢰기를,

고기잡이를 금하는 진은, 강릉부(江陵府) 서쪽에 오대산(五臺山)이 있고 산 아래에 내(川)가 있는데, 신이 그 도의 도사로 있을 때 마침 구황의 명을 받고 편복 차림으로 순행하다가 우연히 해가 저물어 월정사에 투숙하였더니, 절 아래 긴 못말 위에 ‘금렵(禁獵)’이라 쓰여 있기에 신이 이상히 여기고 물어 보니, 야로(野老)들이 “이 내는 근처 주민이 이전부터 고기를 잡아먹고 살았는데, 중들이 절 안에 비린내가 풍길까 염려하여 이를 금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는 신이 직접 본 사실입니다.

- 강원 감사 윤수민이 실록을 봉안하기 위해 오대산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다

“실록(實錄)을 봉안할 곳의 지세를 살피는 일로 건각 차사원(建閣差使員) 정선 군수(旌善郡守) 이여기(李汝機)를 거느리고 오대산(五臺山)에 들어가 간심(看審)하였는데, 금년 수재에 이 산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어 곳곳이 무너져 내렸으므로 평탄한 곳이 없었습니다. 오직 상원사(上院寺)가 동구(洞口)부터 30리에 위치하였는데 지세도 평탄하고 집이 정결하므로 임시 봉안하기에는 아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막중한 선왕의 실록을 사찰(寺刹)에 소장하는 것이 또한 미안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해조(該曹)로 하여금 요량하여 결정하게 하소서.”

- 인조 50권, 27년(1649 기축 / 청 순치(順治) 6년) 2월 3일(임진) 1번째 기사
원주 목사 정치화가 제색군과 장인의 무리한 충정과 오대산 화전민으로 인한 폐단을 상소하다

내국(內局)2259)에서 어공(御供)에 쓰는 약삼(藥蓼)은 반드시 오대산(五臺山)에서 나는 것이라야 좋다고 하는데, 근래 이웃 지경의 백성들이 앞다투어 일찍 들어와 미리 캐므로 법대로 깨끗이 말려도 그 품질이 좋지 않으며, 또 화전(火田)이 늘어난 뒤로는 갖가지 약초가 모두 귀해졌습니다. 먼저 화전을 금하고 지경을 넘어 들어가거나 제철이 아닌 때에 일찍 캐는 자가 있을 경우 일체 엄금하기 바랍니다.”

세조 때 시작된 오악·오진·사해에 대한 신화적 관념은 고종 때까지 이어져 동진(東鎭)을 오대산으로 잡고 있다. 사록에 기록된 오악·오진·사해는 아래와 같다.

• 고종 43권, 40년(1903 계묘 / 대한 광무(光武) 7년) 3월 19일(양력) 2번째 기사
다섯 방위의 큰 산, 진산, 바다, 큰 강을 봉하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세기(金世基)가 아뢰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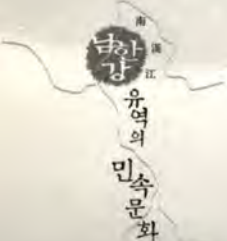
“지난번에 조칙(詔勅)을 받들어 보니, ‘천자(天子)만 천하의 명산(名山)과 대천(大川)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 오악(五嶽)·오진(五鎭)·사해(四海)·사독(四瀆)을 아직까지도 미처 봉하지 못하여 사전(祀典)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장례원(掌禮院)에게 널리 상고하여 제사 지낼 곳을 정함으로써 짐(朕)이 예(禮)로 신을 섬기려는 뜻에 부응하게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오악·오진·사해·사독으로 봉해야 할 산천(山川)을 참작해서 마련하여 별도로 개록(開錄)해서 들이나, 사전과 관련된 소중한 일이어서 본원(本院)에서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품처(稟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별단(別單)]

오악(五嶽) 중 중악(中嶽)은 삼각산(三角山)【경기(京畿)】, 동악(東嶽)은 금강산(金剛山)【강원도(江原道) 회양군(淮陽郡)】, 남악(南嶽)은 지리산(智異山)【전라 남도(全羅南道) 남원군(南原郡)】, 서악(西嶽)은 묘향산(妙香山)【평안 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북악(北嶽)은 백두산(白頭山)【함경 북도(咸鏡北道) 무산군(茂山郡)】이다.

오진(五鎭) 중 중진(中鎭)은 백악산(白岳山)【경성(京城)】, 동진(東鎭)은 오대산(五臺山)【강원도(江原道) 강릉군(江陵郡)】, 남진(南鎭)은 속리산(俗離山)【충청 북도(忠淸北道) 보은군(報恩郡)】, 서진(西鎭)은 구월산(九月山)【황해도(黃海道) 문화군(文化郡)】, 북진(北鎭)은 장백산(長白山)【함경 북도(咸鏡北道) 경성군(鏡城郡)】이다.



사해(四海)는 동해(東海)【강원도(江原道) 양양군(襄陽郡)], 남해(南海)【전라 남도(全羅南道) 나주군(羅州郡)], 서해(西海)【황해도(黃海道) 풍천군(豐川郡)], 북해(北海)【함경북도(咸鏡北道) 경성군(鏡城郡)]이다.

위에서 필자는 오대산의 우통수가 한강의 시원이라고 기록된 지지와 사록·향토지 등을 통해 문헌적으로 살펴 보았다.

- ① 신화적 상징성으로 보아 오대산 우통수는 사독(四瀆)이라 하여 4대 강에 바치는 제사인 고려의 불가적인 팔관제, 조선의 자연신앙인 산천제까지 연결된 물로 인식된다.
- ② 세조가 몸을 씻고 병이 난 곳인 관대거리는 우통지수와 중대의 물이 합수되는 곳으로 약수신앙(藥水信仰)이 점철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③ 한강의 시원을 높낮이 고도나 장거리·단거리로 설정하는 것은 한국의 문화사를 이해하지 못한 소치이다. 한강의 시원은 한국 정신문화의 시원을 의미한다. 조선 초기 '세조와 문수동자'의 설화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왕권의 의지도 있었지만 멀리 보면 불가의 호국용사상과 그 맥을 잇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 ④ 원래 월정사(月精寺)는 월정사(月正寺)였다. 다섯 대(臺)가 달 밑에 우뚝 설 수밖에 없는 사연이 정(正)자의 획수에서 나온다.
- ⑤ 우통수를 한강의 시원으로 설정한 선인들의 의지 속에는 물의 신화적 원형성이 그대로 스며 있다. 신의 성수인 한강은 생명의 모태로서 그 물을 마심으로써 신화적 생명이 태어나고 재생이 된다고 믿게 하는 인간적 무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 ⑥ 조선조의 세조는 무거운 물·큰물·신의 물이라고 하는 우통수와 용의 얼굴과 눈에 해당하는 곳인 적멸보궁에서 용출하는 용안수(龍眼水) 덕택에 피부병이 나았고, 만과봉에서 과거를 치러 수도까지 이곳으로 옮기려 했다는 설화가 전한다. 이로 볼 때 한강물인 '아리수'는 '신수(神水)'의 뜻을 알 수 있다.

여 백

南 漢 江
남한강

유역의

민속문화

3. 남한강의 수운과 나루



3. 남한강의 수운과 나루

조선시대에는 한양지역의 한강을 ‘경강(京江)’이라고 불렀다.

당시 경강상인의 근거지인 5강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업도시적 모습을 갖추며 발전해가던 용산, 마포, 서강, 양화진, 한강진 등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한강 변에는 노량진, 동작진, 서빙고, 두모포, 뚝섬, 송파진, 삼전도 등지의 포구도 자리를 잡으며 유통기지로서 주목되어 가고 있었다.

경강상인은 원래 나룻배 주인으로서 출발하여 주막을 경영하면서 점차 장사에 손을 댔다. 나루터 주변에는 뱃사공과 뗏꾼들, 장사꾼들로 항상 북새통을 이루었고 이들을 상대하는 술청거리가 형성되고 있었다. 나루터에 각지의 물산이 집결되면서 나룻배 주인은 그 물화(物貨)를 처분함에서 거간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물화의 일부를 구입하여 이익을 붙여 다시 처분하는 등 소상인(小商人)으로 활약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부자가 된 선인(船人)들 중에는 커다란 선박을 여러 척 소유하게 된 경우도 나타났다.

경강상인이 자본을 축적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정부의 세곡이나 재경지주(在京地主)의 소작료를 서울까지 운반해 주고받는 대가를 통해서이며, 둘째는 전국의 포구 및 내륙 강변을 연결하면서 전개한 선상(船商)활동으로 얻는 이윤을 통해서이다.

선박을 이용하여 상품의 생산지로 다니면서 물화를 구입한 경강상인들은 그 물화를 다른 곳에서 처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용산, 마포, 서강 등 한강 연변에서 처분하였다. 원래 한강 연변에는 조선 전기부터 미전(米廩), 염전(鹽廩), 어물전(魚物廩), 시목전(柴木廩) 등이 생겨나고 있었는데, 그들은 독자적인 경우도 있었고 성내의 시전과 깊은 관련을 가진 분전(分廩)과 같은 경우도 있었다.

경강상인들의 상품은 미곡, 소금, 생선, 건어물, 목재, 시탄, 직물 등 다양하였다. 이들의 상업 활동은 지역적으로 다소 전문화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용산과 서강은 세곡의 집산지였으므로 미곡의 거래가 활발하였다 한다. 그런데 용산은 미곡뿐 아니라 조선초기부터 목재의 집산지였고, 시목전(柴木廩)이 유독 용산에만 있었음을 볼 때 목재와 시탄의 거래도 성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마포의 경우에는 새우젓장사의 후예라는 별명을 요즘도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젓갈, 소금, 생선, 건어물 등 해산물의 집산지로 유명했다.

경강상인은 미곡뿐만 아니라 시탄과 목재 및 제빙업(製氷業)에 있어서도 비교적 대규모의 도고활동(都庫活動)을 펴고 있었다. 서울 시내에서 소비되는 가정용 시탄과 건축용 목재는 모두 강원도 산악 지방에서 벌채되어 선박 혹은 뗏목으로 독섬, 용산 등 한강에까지 운반, 판매되었는데 이 역시 경강상인들이 매점하여 이익을 취하였다. 특히 시탄은 도시 사람들이 자급할 수 없는 생활 필수품이었다. 시탄은 용산과 독섬에서 주로 거래되었다. 용산은 조선초기부터 목재의 집산지였고 유일한 시목전(柴木廩)이 있던 곳이며, 독섬의 신탄도고(薪炭都賈)는 예부터 유명하여 당시 강원도 삼림 지대에서 배로 운반되어 온 신탄(薪炭), 즉 숯이 여기에서 대부분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원래 동빙고가 있던 오늘의 성동구 옥수동 강가의 두모포 역시 경강상인의 터전이었다. 그곳은 한강 상류 지방에서 오는 각종 물자, 특히 고추, 마늘, 감자, 고구마 등과 목재·시탄의 집산지였다. 이곳에 근거지를 둔 경강상인들은 시탄과 목재를 매점하여, 정조 15년(1791)에는 서울 시내의 시목(柴木)이 3일 간이나 품절된 때도 있었다.

남한강 수운을 이용한 교역의 으뜸 생활 품목은 단연 소금이었다. 대개 서울의 마포, 용산, 서강을 비롯한 남한강 하류 지역인 광주, 여주, 이천 지역에서는 서해안 소금이 유통되었지만, 남한강 중상류 지역인 원주, 영월, 정선, 평창, 목계 등지에서는 동해안 소금이 유통되었다.

《택리지》에 수록된 충청도조와 강원도조의 기록을 살펴 보기로 한다.

원주는 영동과 경기 사이에 끼어서 동해의 어염·인삼, 관곽(棺槨), 궁전의 재목을 운수하여

도내의 도회(都會)가 되었다.²⁵⁾

탄금대(彈琴臺)의 서쪽에 목계가 있는데, 이곳은 강을 내려오는 어염선이 정박하여 세를 내는 곳이다. 그리고 동해의 생선 및 산간의 화물이 대개 이곳에 모이며 주민들은 모두 장사를 하여 부자가 된다.²⁶⁾

전 세계적으로 소금은 화폐의 대용품으로 이용되었거니와 《중종실록》에도 “만약 소금만 있다면, 비록 곡식이 없어도 채소와 더불어 함께 먹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죽음에 다다르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기아를 극복하는 방법을 말함이다.

이익은 생활 속에서 “반드시 유통되어야 하는 것은 오직 소금과 철이다.”라고 하여 소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조선사회에서는 양반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명태를 포로 만들어 조상께 올렸기 때문에 소금의 수요가 급증하였던 것이다.

《도담행정기》(1823년 4월 14일)를 예화로 들어 당시 사정을 살펴 보기로 하자.

강가에서 아이가 생선 4마리를 파는데, 값이 12전(錢)이라 하므로, 사서 아침을 먹고, 뱃사공이 일이 있어서 해가 한낮이 되어서야 비로소 10리를 가서 월계천(越界遷)에 이르렀는데, 두 강가 기슭의 돌길이 험하고 험하고 어려워서 두미천과 서로 비슷하다.

얼마 가지 않아 대탄(大灘)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는데 이곳이 곧 상류의 가장 험한 여울인데 이제 순풍을 얻어 돛을 달고 바로 올라가니 바람과 물이 서로 부딪쳐 물결이 드세다.

여울 가운데에 큰 돌이 가로 막고 있는데 이것을 세속(世俗)에서 차일암(遮日巖)이라고 하여 물이 넘치면 보이지 않고 물이 얇으면 물결이 부딪쳐서 그 아래로 지나는 조선(漕船)들이 가끔 뒤집히기도 했다.

오후에 상심리에 도착했는데 우리들이 탔던 배는 여기서 그쳤다. 선주를 물었더니 서진사(徐進士)라고 한다. 그는 이미 진사에 올랐으니 분명 이는 사족(仕族)이요, 성이 서씨라고 하면 대개 현달(顯達)한 문벌인데 시례(時禮)에 종사하지 않고 오직 이익을 쫓아 배를 사서 강에 띄워 나무와 숲을 실어 사 가지고 갔다가 팔고 오니 죽히 탄식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를 버리고 여러 시간 머물다가 다시 탄 배를 끌어다가 탔다. 그 배는 충청도 청풍군(淸風郡)의 배였다.

동쪽 산골에는 소금이 귀하기 때문에 그 배가 올 때에는 나무와 숲·콩과 담배 따위를 싣고 경강(京江)에 도착하여 팔고, 돌아갈 때에는 소금과 젓갈을 많이 싣고 가는 것이 통례이다.

저녁 무렵에 제탄을 지나 저물게 물말독촌에 배를 대고 배에서 내려 원씨성(元氏姓)의 사람의

25) 李重煥·朴齊家, 盧道陽·李錫浩 譯, 《擇里志·北學議》, 대양서적, 1972, p. 113

26) 李重煥·朴齊家, 盧道陽·李錫浩 譯, 《擇里志·北學議》, 대양서적, 1972, p. 152

주점에 묵었다. 이날은 20리를 갔다.

그러면 여주군 지역의 나루에서 서울로 들어온 생활 교역품은 대강 어떤 것들이었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여주 평야에서 나오는 쌀, 콩, 고구마 등의 품질 좋은 농산물이 남한강 물길을 타고 서울의 각처로 운반되고, 인천에서 생산된 소금과 마포의 새우젓과 기타 생활필수품들이 여주를 거쳐 경기도, 강원도 각처로 운반되었다.

여강의 동북지역은 산지가 많지만, 남쪽 지역은 전형적인 여주평야가 펼쳐져 있고 넓은 들과 야산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 지역에는 해방 이후에 실시된 토지 개혁 이전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대지주들의 땅이 많아서 지주의 권한을 위임받은 마름을 두고 소작농과 도지를 관리하였다. 그래서 수확기가 되면 곡식의 수량을 파악한 후 배를 사용하여 곡식을 수송하곤 하였다.

수운(水運)뿐만 아니라 남한강은 풍요로운 수산 자원으로 여주 군민들의 경제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강마을 주민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농사일이 끝나면 배를 타고 강으로 나가 주낙과 그물로 쏘가리, 납자루, 빠가사리, 잉어 등을 잡아 만만치 않은 부수입을 올리기도 하였다.

다음은 남한강 유역의 나루 중 경기도권에 있는 몇 개의 나루를 사례로 그 교역 물품을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창남나루는 여주군 점동면 삼합리 대오마을과 창남마을에 있는 나루로, 건너편은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창말로 흥원창이 있던 지역이다. 조선조까지 이 흥원창에 집결된 강원도의 세곡은 남한강 물길을 타고 서울로 수송되었다.

대오마을과 창남마을은 섬강과 남한강이 합수하는 지역에 위치하는 마을로 해방을 전후한 시기까지 강원도의 물산과 경기도의 물산이 교역되던 중심지였다. 한때는 원주에서 장호원으로 이동하는 소가 하루에 30여 마리 이상씩 묶어갈 정도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곳이었다고 한다.

브라우나루는 수심이 깊고 흐름이 완만하여 소금배가 정박하고 장호원의 물자가 집산하였다 하나, 마을에서 부리는 짐배는 없었고, 뗏목이 묶어 가지도 않았다고 하지만, 영월, 정선 쪽의 뗏군들의 제보에 따르면 브라우나루는 때가 쉬어가는 꽤 큰 나루였는데, 뗏군들이 뗏바닥에 몰래 숨겨온 개줄가리(땔감으로 쓰는 작은 원목)들을 사려는 사람들이 수원 등지로부터 와 있어 이곳에서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곤 하였다고 한다.

우만이나루는 여주군 여주읍 우만리에 있는 나루이고 건너편은 강천면의 적금리이다. 우만이나루는 우만리와 먹곡리 사람들이 강천면으로 땔나무를 하러 갈 때 주로 이

용하였고 건너편에서는 적금리, 굴암리, 가야리 사람들이 여주장을 가거나 학생들이 여주읍에 있는 학교로 통학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했다. 원주장에서 소를 사서 여주장과 장호원장까지 이동하는 소장수들이 이 우만이나루를 경유하기도 하였다.

조포나루는 북내면 천송리에 위치한 나루인데, 조선조 기록에 호포진 혹은 조포진이란 기록이 보여 유래가 오래된 나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을에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주라 했는데, 뱃사람을 몇 명 부리며 여주의 양곡을 싣고 서울로 가서 소금과 새우젓 등 젓갈류와 교환해서 가지고 오곤 하였다.

영월 등지에서 내려오는 뗏목도 자주 지나다녔는데, 여주 대교 근처의 마암대와 영월루 근처에는 판섬여울 등 물살이 빠른 곳이 있어 밤에는 위험하여 내려가지 못하고 쉬어 갔다.

그래서 주막도 번성하였는데, 색시는 없었고 숙식만 제공했다. 신록사와 텃골 사이에 생골이라고 있었는데 저기가 예전의 주막자리이다. 충주댐이 생긴 후 영월에서 오는 뗏목은 없었지만 충주에서 내려오는 미루나무 뗏목은 있었는데, 용도는 나무젓가락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호나루는 여주군 강천면 이호리(배미리, 배암리)에 있는 나루이다. 조선시대의 기록에 이호진이라는 이름이 보이므로 유래가 오래 된 나루임을 알 수 있다.

이호나루는 영월에서 내려오는 뗏목도 많이 쉬어 가고, 서울서 올라 오는 뚝배도 자주 왕래했다. 이호 나루는 인천과 강릉을 연결해 주는 주요 교통의 요지였고, 서울에 거주하는 지주들도 이곳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인천, 서울 등지에서는 소금과 새우젓 등을 싣고 올라오고, 물물교환이나 도지로 받은 곡식들을 싣고 내려갔는데, 운용되는 뚝배도 200가마를 실을 정도의 큰 배들이었다.

대신면 천남리에 있는 천남나루에는 주막집도 하나가 있는데, 간혹 뗏목과 소금을 실은 뚝배가 쉬어 가던 곳이었기 때문이라 한다. 뗏목이 내려올 때는 뗏꾼들이 미리 연락을 취하는데, 그러면 주막에서는 돼지도 잡고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대기하곤 했다. 천남나루와 여주나루 사이에는 '제비여울'이라는 물살이 빠른 곳이 있어 뗏목이 파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양화나루는 여주군 능서면 내양리 양화동과 대신면 초현리와 당산리 사이를 건너는 나루이다.

양화동에는 땔감을 벨 수 있는 적산 임야가 106정보가 있었다. 이 산판에서 베어진 나무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강배들이 많이 드나들기도 했는데, 이 배들은 모두 타지에서 나무를 싣기 위해서 들어오는 배들이며, 산판은 목상이 관리했다.

또한 마포에서 소금, 새우젓배가 매일 들어오다시피 하였으며 마을에서 부리는 짐배



도 곡식을 싣고 내려 가서 소금, 새우젓을 사오기도 하였다.

이포나루는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에 있는 나루로 천양 혹은 천령나루, 배 나루, 배개 나루라고도 한다.

이포나루는 예전부터 남한강의 4대 나루에 속하는 커다란 나루이며 항구였다. 그래서 소금배와 짐배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고, 뗏목들의 왕래도 빈번했다. 특히 이포의 경우는 전문적으로 배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다.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이포의) 백애촌은 주민이 오로지 배로 장사하는데 힘을 써서 농사에 대신하는 바, 그 이익이 농사하는 집보다 낫다.”고 하였다.

이포에는 일제 때 인근 지역에 금광이 두 군데나 있었는데, 아랫범실과 상호리 사이에 있는 광산에는 지금도 굴이 남아 있다고 한다. 당시 외지에서 ‘금쟁이’들이 많이 모여 들기도 했고 한때는 2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래서 예전 이포에는 뱃사람, 뗏꾼, 금쟁이, 장들이 등이 끊임없이 출입하였기 때문에 시장터에 주막과 술집이 즐비하였다.

이포에는 통나무로 만든 뗏목이 주로 영월에서 내려 왔다. 정선에서 묶은 뗏목은 장마 때에나 내려왔다. 뗏목이 내려갈 때는 사람들이 “조밥 먹고 돼지우리나 지어라.”라고 욕하며 놀려대곤 했다. 떼가 여울에서 돌면 둥글게 말렸다가 결국은 끊어지고 산산조각이 나게 된다. 뗏꾼들은 주막에서 15전에 잠을 자고 떼를 고쳐 매고 간다. 술거루도 있었는데, 주모가 배를 가지고 가서 고기와 술을 뱃사공과 뗏꾼들에게 파는 것이다. 가끔 뗏꾼들이 밥을 먹다 돈이 없으면 떼에 싣고 가던 나무 한 토막을 풀어서 주기도 했다.

이포나루의 여울 지역에 물이 줄면 주민들이 가래로 물 밑의 흙을 파서 배나 떼가 지나가게 골을 판 다음 통행세를 받는데 이를 ‘여울세’, ‘봣세’라고 한다.²⁷⁾

필자가 조사한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있는 두물머리나루와 광주시 남종면 수청리에 있는 청탄나루의 교역 물목과 운송과정을 사례로 들면 다음과 같다.

청탄나루의 경우, 마포에서는 소금을 싣고 영월로 가서 팔을 교환하였는데, 장마가 저서 물이 풍부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팔을 가지고 마포로 내려가 되팔았다. 이를 ‘바꾸미’라고 하는데 여기서 당시 뱃사람들의 끈질긴 삶의 역정을 읽을 수 있다.

두물머리나루에서는, 뗏목으로 운송했던 화목(火木)은 겨울철에 해놓는데 겨울이라 강물이 적어 배가 내려오기 힘들므로 조금씩 내려오다가 목계나 그 밑에 와서 대놓는다. 강원도 영월과 춘천 쪽에서 내려오는 배들은 능내 두명소 쪽에 정박하였고, 남한강 쪽은 두물머리나루터에 정박하였다. 해가 지면 불법으로 화목을 싣고 가는 배는 늦은 밤에 떠나지만, 허가받은 배는 인두로 화목에 도장을 찍는데, 이 배는 낮에 일찍 뚝

27) 이정재, 《남한강 수운의 전통과 민속》, 남한강답사보고서, 2002, pp. 32~45

섬이나 마포로 내려가 목상들에게 나무를 팔았다.

남한강의 나루는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조사 정리된 바가 없으므로 그 수를 명확하게 헤아리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손낙기가 조사 정리한 남한강의 나루는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 바, 대략 90여 개에 달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포, 용산삼계, 가칠목, 검은돌, 서빙고, 보광리, 한강, 무수막(무쇠마) 압구정, 뚝섬, 숯골(청담동) 백구지, 새내(신천동) 송파, 광나루, 우미내, 바우절리, 토막나들이, 가래울, 미음, 둔치, 청구, 덕소, 동막골, 당쟁이, 바댕이, 창모루, 뿔미, 봉암, 숯막구미, 마재, 정자구미, 소내, 고랭이, 두머리(두물머리), 돌터미, 쟁이울, 검단내, 청탄, 구름개, 한여울, 상심리, 옥천, 양근, 서라우, 양덕, 개군, 이포, 여주, 우만, 혼암, 삼합리, 목계, 가금, 탄금대, 목행리, 동양, 꽃바우, 상진, 삼봉, 단양, 영춘, 영월, 아우라지, 장열, 나진, 애산리, 진펄, 세대, 노미, 귀리벌, 광하, 굴하, 뒷대벌, 수미, 가탄, 해미, 고재벌, 수동, 점치, 갈벌, 소골, 제장, 바새, 연포, 가정, 문희, 진탄, 고무, 난지, 섭새, 목골, 둥굴바우, 덕포²⁸⁾

그런데 실제 물화를 운송하는 거룻배는 필요에 따라 염창, 행주까지 내왕하기도 하였다.

南

漢

江



유역의

민속문화

4. 남한강 유역의 강마을 민속현장조사



4. 남한강 유역 강마을의 민속현장조사

1) 여주군 점동면 혼암리의 민속

■ 마을 개관

여주군 점동면 혼암리는 남한강 유역에 있는 마을로 원래 '흔바우'라고 불렸으며 '흔바우나루'가 있다. 강 건너편은 강천면 굴암리이며 양쪽 마을 사람들이 나룻배로 내왕하였다. 혼암리 사람들은 이 배를 이용하여 섬에 땅콩 농사를 지으러 넘어갔고, 굴암리 사람들은 혼암리에 불일이 있을 때 나룻배를 이용하였다.

혼암리는 2개 부락으로 강中间的 아랫말과 위쪽 웃말로 되어 있다. 가구 수는 과거에 65~67호 정도였는데 현재는 60여 호이다. 1972년 장마 때 집이 여러 채 떠내려가서 흔바우 웃말은 현재 50호 정도가 살고 있다.

생업은 논농사와 밭농사이다. 예전에는 강 건너에 가서 땅콩농사를 많이 지었으나 지금은 짓지 않는다. 나룻배가 없어진 뒤 굴암리에 가는 일은 별로 없다.

이 마을에서 장은 여주장을 보았는



혼암리 나루터

데 장에는 걸어서 갔고 때로는 동네 배로 많은 짐을 싣고 가서 장을 보기도 하였다.

흔바우나루 근처 언덕 왼쪽에는 오래된 화나무(회화나무)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너른 밭이 있는데 이곳에서 거줄다리를 한다. 나루가 번창하던 시절 나루터 입구 오른 쪽에는 예전에 술집(주막)이 두 집 있었는데 6·25 이후에 없어졌다.

예로부터 흔암리 두레는 점동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그런 까닭에 쌍룡거줄다리와 같은 거대한 민속놀이의 전승이 가능했다고 본다. 흔바우마을 사람들은 농악을 잘하고 힘 좋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 체육대회에도 이어져 점동면에서 가장 강한 곳이 흔바우마을 사람들임을 보여 주고 있다.

■ 나루와 생활

흔암나루는 '흔바우나루' 라고도 불렀다. 나루 건너편은 강천면 굴암리이며 나룻배로 왕래하였다. 흔암리에는 나룻배와 작은 배가 각각 한 척이 있었다.

이 나루에는 수운을 이용해 짐배인 황포돛배가 다녔는데 이 돛단배에는 쌀을 100여 가마 실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 쌀은 안성·평택에서 마차에 싣고 이 마을 고살래길로 와서 배에 싣고 서울로 내려가서 팔았다. 그리고 강원도 영월에서 오는 배는 뗏목을 싣고 지나간다. 뗏목이 지나갈 때는 아이들이 짓궂게 장난을 치기도 하였다. 강 근처 산 잔등이로 올라가면 뗏목이 오는 것이 보이는데, 미리 큰 돌을 끌고 올라가서 뗏목이 보이면 큰 돌을 내려 굴린다. 뗏목이 강 가운데로 오다가 오후에 강 쪽에 대기 좋게 붙는데 이때 아이들이 돌을 굴려 내린다. 그러면 뗏군이 화가 나서 대들기도 한다. 이런 장난은 동네 중늬은이들이 가르쳐 주었다. 또한 아이들이 뗏군들을 보고 “돼지우리간이나 저라.”고 놀려대면 뗏군들이 “너 이놈의 새끼들! 돼지우리 저 놓고 네 에미 아버지나 처넣어라.” 하고 화를 내었다.

뗏목은 굵고 가는 나무를 칠닝쿨로 엮어서 만들었고, 이는 건축과 화목(땔감)으로 사용하였다.

나루 근처 편편한 언덕배기에는 술집이 두 집 있었는데 낮에 내려가는 배에서 술을 달라고 하면 주막집에서 술을 가지고 가서 팔았다. 뗏목이



흔암나루 부근의 옛날 주막집이 있던 곳

내려가고 짐을 싣는 날에는 보통 소를 한 마리씩 잡았는데 이는 장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그만큼 혼바우나루가 번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쉬(수령)에 빠지면 여주 혼암리가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전에 혼바우나루는 유명하였고, 당시 “여주 혼암리를 모르면 건달축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나루터는 1950년대 후반에 없어졌고, 짐배는 해방 전후까지 다녔다.

■ 민간신앙

- 뱃고사 : 정월 보름날 아침이나 낮에 강에서 간소하게 지낸다. 창호지를 깔고 북어와 술만을 놓고 지내며, 소지는 한 장만을 올린다.
- 어부숨 : 어부숨은 정월 보름날의 세시풍속으로 새벽에 깨끗한 새 종구리(조그마한 바가지)에 새로 지은 밥을 식구 수대로 술갈로 떠서 강에 버리는 일종의 액막이이다. 이러한 신앙은 새해가 시작되는 정월에 용신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한 해의 액을 강에 띄워 보낸다는 의미가 있다.
- 서낭고사 :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서낭당에 가서 고사를 지낸다. 고사를 지낸 뒤에는 떡시루를 얹어 놓고 그 위에 북어 한 마리와 10원짜리 동전을 올려놓는다. 그러면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이라 아이들이 미리 알고 지키고 있다가 떡을 먹고 돈도 주으려고 서낭당에 가기도 하였다.

■ 세시풍속

1월

[설날]

설날 아침에는 차례를 지낸 뒤 세배를 하고 차례음식으로 아침식사를 한 뒤 산소에 성묘를 간다.

- 차례 · 차례상 : 설날 차례는 종가집에 모두 모여서 한다. 설날 차례상에는 보통 흰밥 대신 떡국을 올리는데 조상 숫자대로 놓는다. 차례음식은 제사 때와 비슷하나 흰밥 대신 떡국을 올리고, 기제사 때와 달리 조기는 올리지 않는 점이 다르다.

차례상차림을 보면, 배 · 사과 · 대추 · 밤 · 감 등 과일과 산자, 숙주 · 도라지 · 고사리(또는 싱검초) 등 나물류, 전 · 적으로 소고기 또는 돼지고기적, 녹두빈대떡, 갈랍(동그랑땡), 북어포, 탕(1탕 또는 3탕), 편(녹두편, 인절미 등), 떡국, 술 등으로 되어 있다. 갈랍은 고기나 버섯, 숙주나물 등을 다져서 동글납작하게 만든 것이다. 탕은 무 · 두부 · 다시마 등을 넣고 끓이며 다시마 위에 소고기를 올려놓는다. 그리고 떡국 속에는 만두를 넣는다. 술은 예전에는 직접 담가서 용수를 박아 거른 맑은 술을 사용했으나

요즘은 청주를 사다가 쓴다.

- 성묘 : 성묘는 현재 설과 추석에 하나 예전에는 주로 설에 많이 했다. 성묘 때에는 간단히 주·과·포를 가지고 간다.
- 세배 : 예전에는 일가친척과 이웃 어른들께 세배를 다녔으나 요즘은 거의 세배를 다니는 사람이 없다. 과거 여자들은 보름 안쪽에는 세배를 다니지 않았다.

[정초]

• 걸립·고사반 : 정초 보름 사이에 동네사람들이 농악대를 꾸며 집집마다 다니면서 농악을 쳐주고 그 집의 해운을 좋게 해달라고 빌어 주는 것을 '걸립'이라 한다. 농악대가 각 집을 방문하면 주인집에서는 마당이나 대청에 쌀 한 말을 부어 놓은 말이나 그릇을 놓고 그 위에 실타래, 손가락, 청수(정한수), 북어 등을 올려놓는데 이를 '고사반'이라 한다. 이렇게 고사반을 올리면 농악대가 대청, 부엌, 장독대, 우물, 뒤꼍 등 집안 곳곳을 다니면서 고사반을 쳐주고 마당에서 한바탕 신명나게 논다.

이와 같이 여러 집을 돌면 쌀이 여러 가마니씩 모이는데 이 쌀은 동넛돈으로 이장의 잡비와 동네 행사 등에 쓴다. 이처럼 정월 한 달은 걸립패들이 크게 노는데 이들은 다른 동네에 가서 놀기도 한다.

흔암리는 다른 마을에 비해 잽이들이 많아 잘 놀았다. 흔암리 두레는 점동면에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강하고 힘 좋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다.

- 용날 : 용날 칼질하면 안 좋다고 한다.

[열나흔날]

• 더위팔기 : 정월 열나흔날 아침에 친구에게 "아무개야!" 하고 부를 때 대답을 하면 "내 더위 사가라."고 하여 더위팔기를 한다.

• 벼섬만두 : 정월 열나흔날 아침에는 벼섬만두로 만둣국을 끓여 먹는다. '벼섬만두'란 만두를 크게 빚은 것으로 만두 속에는 김치, 두부, 숙주, 당면, 고기(돼지고기) 등을 다져 넣는다. 벼섬만두는 돼지와 소에게도 준다. 이는 일 잘하고 풍년들게 해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

• 오곡밥·아홉 번 먹고 아홉 번 일하기 : 열나흔날 저녁 일찌감치 조·기장·쌀·콩·팥 등 오곡으로 밥을 해서 먹는다. 이날 밥을 아홉 번 먹으면 좋다고 하고 또 나무 아홉 짐을 해야 좋다고 한다. 예전에는 저녁에 남의 집 밥을 훔쳐다가 나물비빔밥을 해서 먹었다.

- 용알뜨기 : 열나흔날 깊은 밤에 동네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데 이를 '용알뜨기'

라 한다. 용알뜨기를 한 뒤에는 먼저 왔다갔다 표시로 또아리(파리)를 물에 띄우고 온다. 어떤 이는 용알뜨기를 한 뒤 일할 때마다 들에 소나기가 와서 나중에는 물을 떠 오지 않았다고 한다.

- 잠안자기 : 열나흔날 잠을 자면 눈썹이 센다고 하여 일찍 못 자게 하였다.
- 널뛰기 : 열나흔날 널을 많이 뛰었는데 남녀 모두 다 뛰었다.

[대보름]

- 어부숨 : 정월 보름날 새벽에 깨끗한 새 종구리(종구라기 : 조그마한 바가지)에 새로 한 밥을 식구 수대로 손갈로 떠서 강에 버리는데 이를 어부숨이라 한다.
- 아침밥 : 보름날 아침에는 흰밥에 미역국, 나물, 김 등으로 아침식사를 한다. 이날 아침에 김치는 먹지 않는데 김치를 먹으면 살빼기(여름에 나는 피부병의 하나로 가렵고 따끔거림.)가 인다고 한다. 이것은 김치의 고춧가루가 붉은 색이기 때문에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 쥐불놀이 : 보름날 짚으로 새끼를 꼬아 둘둘 말아서 불을 붙여 논두렁을 태우는 것을 쥐불놀이이라 한다. 해방 뒤에는 깡통에 나뭇개비를 넣고 불을 붙여 돌렸다.
- 망우리 : 보름날 안산 잔등에 달맞이를 하는 것을 망우리라고 한다. 짚을 아이 나이 수대로 새끼로 묶어 달이 뜨면 불을 붙이고 절을 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빈다.
- 흙전 : 대보름 무렵 달밤에 혼암리 아랫마을과 웃말이 편을 갈라 서로 흙을 던지며 싸우는 놀이이다. 주로 스므 살 밑 청소년들이 놀았다. 놀이방법은, 양쪽 마을에서 중간지점을 정해 놓고 양편에서 서로 흙을 던지며 싸운다. 흙덩이를 맞으면 아파도 크게 심하게 다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중부지방에서 대보름에 행했던 석전, 즉 돌싸움과 같은 놀이인데 돌 대신에 흙으로 던져 돌로 인한 심한 부상을 막을 수 있었던 것 같다.

- 척사대회 : 예전에는 정월 보름에 척사대회를 했었으나 지금은 사람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젊은 층이 거의 없어 하지 않는다. 척사대회를 안한 지 10여 년 된다.

[달귀귀신날] (1월 16일)

- 신발감추기 : 정월 16일을 '달귀귀신날'이라 하여 이날 밤에는 신발을 들여놓는다. 밤에 놀다 들어와서 신발을 방에 들여놓는데 이는 달귀귀신이 신발을 신어 간다고 하기 때문이다.
- 달귀귀신쫓기 : 달귀귀신날 목화씨 · 머리털 · 마른고추를 태워 귀신을 쫓는다. 이것들을 태우면 냄새가 독해 귀신이 도망간다고 한다. 만일 심심하게 태우면 귀신이 돌

아온다고도 한다.

[말날]

• 장담그기 : 정월 말날에는 장을 담근다. 장독 안에는 숯과 대추, 고추 등을 띄워 넣는데 고추는 안 넣기도 한다. 장을 담글 때는 원새끼를 꼬아 장항아리에 감아 놓고, 창호지로 버선 모양을 만들어서 장독에 거꾸로 붙인다.

1월

남자아이들은 자치기, 여자들은 종지놀이, 옷놀이는 남녀 모두 하였는데 특히 이 마을에서는 보리옷놀이가 특징적이다.

2월

[초하룻날]

• 닭장문 늦게 열기 : 2월 초하룻날에는 닭장문을 일찍 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 나이떡 : 2월 초하룻날에는 나이떡을 해먹고, 이날 남의 집에 일찍 가지 않는다. 나이떡은 쌀을 숟갈로 식구들 나이 수대로 떠서 송편을 해먹는다. 이를 '나이송편'이라 하는데 나이송편은 조그맣게 만들며 속에는 주로 팥을 넣는다.

[죤생이날]

• 죤생이보기 : 2월 초엿새를 죤생이날이라 하는데 죤생이별이 내 머리 위에 오면 햇곡을 먹는다고 한다. 즉 농사가 잘 된다는 뜻이다.

[월내]

• 장담그기 : 정월 말날과 같이 2월에도 장을 담근다.

3월

[한식]

• 묘제·개토 : 한식은 2월에 들기도 하고 3월에 들기도 한다. 한식에는 산에 가서 묘제를 지낸다. 지금은 묘제를 지내지 않고 개토(改土)만 한다.

[월내]

• 뱃놀이 : 혼암마을에서는 봄에 모내기 전에 마을사람들이 모여 뱃놀이를 하였다.

마을에는 3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나룻배가 있었는데 이 배를 내어 술과 쌀, 반찬, 생선 등 음식을 준비하여 배에 싣고 강천, 자산, 합수머리까지 올라가서 배에서 음식을 해먹고 하루종일 놀다가 내려왔다. 뱃놀이는 남녀가 따로 따로 놀았다.

- 천렵 : 천렵은 어른들이 뱃놀이를 할 때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하였다. 쌀 두 되 정도로 견고 된장, 고추장 등을 준비해서 산속 냇가에서 음식을 해먹고 놀다 온다. '아홉살이' 라는 곳에 가재가 많았는데 그곳에서 가재를 잡아 산속 냇가에서 준비해온 재료들을 넣어 끓여 먹고 놀다가 온다. 천렵은 주로 3~4월에 하였다.
- 해점치기 : 해가 빨갛게 보이면 가물고, 하얗게 생기면 '물먹는다'고 한다. 이는 해를 보고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것으로 주로 3~4월에 하였다.

4월

[초파일]

- 절가기 : 초파일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절에 가는데 신록사에 가는 사람도 있다. 이날 절에서는 법당에 올린 절편이나 인절미를 신도들의 점심 비빔밥에 한 쪽씩 놓아 주기도 한다.

5월

[단오]

단오에는 그네뛰기, 창포에 머리 감기, 약쑥 뜯기, 대추나무 잎물로 세수하기 등의 풍속이 있다. 이날 씨름은 하지 않았고, 떡도 해먹지 않았다.

- 그네 : 단오에 중간마을 참나무에 그네를 매고 남녀 모두 그네를 뛰었다. 그네는 남녀 모두 뛰었다. 그넷줄은 젊은이들이 짚을 엮어서 동아줄을 틀어 만들었으며 단옷날 매었다. 줄은 단오가 지나도 끊지 않고 그대로 둔다. 그러나 그네를 뛰다가 사고가 나면 줄을 없애 버린다.
- 창포물에 머리감기 : 단옷날 창포를 베어다가 삶아서 그 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좋아진다고 한다. 혼암리에는 창포가 드문 편이라 그리 많이 하지는 않았다.
- 대추나무 잎물에 세수하기 : 단옷날 대추나무잎을 훑어다가 저녁에 물에 띄워 놓았다가 건져낸 후 그 물을 떠서 세수한다. 그러면 얼굴이 고와진다고 한다.
- 약쑥뜯기 : 단오에 약쑥을 뽑아다가 잘라서 짚으로 엮어 응달에 걸어 놓는다. 단오의 약쑥은 여자들의 냉증에 좋다고 한다.

[월내]

과거 밀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5월에 밀 수확을 하여 장독대에 있는 터주항아리에 넣고 쪼주저리를 씌워 놓았다.

6월

6월에는 특정한 행사가 없다.

7월

7월에는 칠석과 백중 명절이 있는데 칠석에는 특정한 행사가 없다.

[백중]

- 백중장 : 백중날은 머슴날이다. 이날은 백중장이 크게 선다. 머슴은 백중 전에 새끼를 꼬아 멍석을 만들어 놓아야 하며, 백중날은 꼴도 일찍 베어 놓고 나간다. 주인은 백중에 머슴에게 중의적삼 한 벌을 해주고 노잣돈을 준다. 머슴은 이 돈을 가지고 여주장에 가서 술 먹고 노름하고 재미나게 하루를 놀다가 온다. 여주장은 혼암리에서 10km 정도로 걸어서 2시간이 걸린다.
- 씨름 : 백중장에서는 씨름과 난장판이 유명하였다.

8월

[추석]

추석에는 차례상에 햅쌀로 지은 밥이나 송편을 만들어 올리고 성묘를 간다. 여주나 이천과 달리 거북놀이는 하지 않는다.

- 차례 : 추석에는 미리 잘 익은 벼를 훑어다가 방아를 찌서 햅쌀을 준비한다. 이 햅쌀로 밥과 송편을 만들어 차례를 지낸다. 차례상에는 송편만 올리거나 송편과 메를 같이 올리기도 한다. 송편은 작고 가름하게 만들며 송편속으로는 팔과 콩 등을 넣는다.
- 성묘 : 예전에는 추석 성묘는 거의 안 갔으나 요즘은 추서에 성묘를 많이 한다.

9월

[중양·중구]

- 구절초 뜯기 : 음력 9월 9일 중양은 '구절초 뜯는 날'이다. 구절초는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 아홉 살 먹은 아이가 '아홉살이' 아홉 고개를 넘어가서 구절초 아홉 묶음을 해오면 약에 좋다고 한다. 이런 까닭에 서울에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 혼암리 '아홉살 이고개' 까지 구절초를 뜯으러 오는 일이 있었다. 구절초는 여자들의 냉증에 효험이 있

는 약초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못 낳는 부인네가 구절초를 뜯어다 먹고 아들을 낳은 일도 있었다고 한다.

10월

• 고사 : 10월 상달에는 농사를 모두 갈무리한 뒤 낱을 받아 고사를 지낸다. 고사는 시루떡을 시루 째 찌서 그 안에 정한수(정화수)를 떠놓고 대청마루에 놓는다. 특별히 빌지는 않고 그냥 그대로 놓아둔다. 부엌과 장독대, 소외양간, 광 등에는 떡을 한 쪽씩 떼어 접시에 놓아둔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 시루떡을 잘라서 집집마다 돌린다. 고사떡은 많이 해서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 10월은 날씨가 추울 때라 집집마다 떡을 돌리느라고 손이 시려 고생한 적도 있다.

11월

[동지]

• 동지팔죽 : 동짓날에는 팔죽을 끓여 먹는다. 흔히 애동지에는 팔죽을 끓여 먹지 않는데 지금은 가리지 않는다.

[월내]

• 연말총회 : 양력 12월 하순에 이장이 동네사람들에게 연말결산보고를 한다. 보고가 끝나면 점심을 장만해서 동네사람들이 함께 먹는다. 이장의 임기는 2년인데 이장의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이장을 선출한다.

[윤달]

• 절돌기 : 윤달 든 해 절 세 군데를 다니면 좋다고 한다.

■ 민속놀이

• 쌍룡거줄다리기

여주군 점동면 혼암리에서 전승되는 쌍룡거줄다리기는 제2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민속놀이이다.

쌍룡거줄다리기의 명칭은 원래 ‘거줄다리기’였으며,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나가면서 쌍룡거줄다리기로 이름이 바뀌었다.

줄다리기는 3년마다 다렸으며, 놀이의 목적은 당시 물길로 다니므로 수운(水運)의 안

녕을 위한 것이다. 즉, 일종의 물고사를 지내는 것과 같다고 한다.

거줄다리기의 역사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오랜 옛날부터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줄다리기를 하는 시기는 정월 보름날 밤, 저녁 식사 후에 시작하였는데, 현재는 낮에 한다.

줄의 제작은 정월 대보름 사흘 전, 즉 음력 1월 12일부터 시작하여 보름날까지 한다. 줄의 재료인 짚은 각 집에서 추렴하며, 줄은 혼암리 아랫



혼암리 쌍룡거 줄다리기 장소

말, 웃말에서 각각 하나씩 만드는데 웃말은 암줄, 아랫말은 숫줄을 만든다.

줄을 만들 때는 두레패들이 크게 놀았는데 정월 초이튿날부터 마을을 다니며 놀았다. 이때 여자들은 음식 준비를 하는데, 줄다리를 할 때는 돼지를 잡는다.

줄 만드는 방법은, 나무를 삼각형 형태로 매달아 세우고 가로목을 질러 놓고 새끼로 묶어 양쪽에 세워 놓는다. 밑에서는 사람이 꼬는 대로 잡아당긴다. 한 사람이 짚을 주면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꼬고 한쪽에서는 잡아당긴다.

완성된 줄의 크기는 양쪽을 모두 합하면 100m~150m에 이르고, 줄메는 사람이 360명 정도 소요되는 큰 줄이다. 줄을 다 끈 뒤에는 정월 보름날 아랫마을 해나무 밭에 모인다.

먼저 정월 보름날 아침에 줄고사를 지낸다. 가장 먼저 고산래고개에 있는서낭당(서낭목은 아름드리 향나무였는데 지금은 없음. 처리 사람이 서낭목을 벤 뒤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함.)에서 서낭고사를 드린다. 그런 다음 산등을 타고 내려와 동네 우물(당시 60호 이상 사람들이 모두 이 물을 먹었음.)에서 우물고사를 지낸다. 이 우물고사는 동네 평안과 물이 잘 나오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고사를 지낸다. 제물은 북어와 막걸리이며 소임(1년 동안 동네일을 하는 사람.)이 준비한다. 고사는 전반적으로 북어와 막걸리만 가지고 간단히 지낸다.

줄다리는 강가의 언덕의 회나무가 있는 널찍한 밭에서 다렸다. 줄다리를 하기 전에 양쪽에서 줄을 메고 서로 왔다갔다하면서 어르는데 중간에 쉬어가면서 계속한다. 이때 농악이 함께 어울려 논다. 암줄의 용머리가 도망가면 숫줄이 쫓아가고 하면서 서로 어르고 놀다가 암줄 용머리 속에 숫줄을 넣고 가운데 막대기를 쫓는다. 그런 뒤 소임이 “하나, 둘, 셋!” 하는 구령에 따라 줄을 당긴다. 여자들은 남자 편에 가서 못

당기게 떼어놓는 등 휘방을 한다.

줄다리기의 편제는 암줄과 수줄로 나뉘며 처리, 삼교리, 떡골리, 굴암리, 강천리 등 4·5개 부락이 참여하였다. 암줄은 여자와 20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수줄은 20세 이상의 바깥노인들이 당겼다.

승부는 3번 줄을 당겨 정하였는데 항상 암줄이 이겼다. 줄다리가 끝나면 여자들은 만세를 부르고 즐거워하였다. 줄을 당길 때도 농악을 치고 논다.

흔암리 거줄다리는 1987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현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후 시에서 500만원씩 보조금이 나왔다. 이후 거줄다리의 전승이 점동면 흔암리 마을의 여건상 지속하기가 어려워 여주군의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전승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여주대학에서 한 번 한 이후 전승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따라서 점동면에서 여주군으로 넘기려다가 현재는 줄의 규모를 줄여서 흔암리에서 전승하고 있으나 줄을 뭉칠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 전승이 어려운 실정이라 한다.

현재 거줄다리는 줄은 소규모로 만들어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정월 대보름이 되면 그 줄을 다시 꺼내어 흔암리 마을사람들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함께 줄다리를 하고 있다. 경비는 여주문화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고 있는데 전승이 어려운 상태이다.

• 종지놀이

여러 명의 부인네들이 둘러앉아서 앞치마 속으로 종지를 안 보이게 감추면서 돌리면서 술래가 알아맞히는 놀이이다. 종지 가진 것을 들킨 사람은 벌칙으로 노래를 한다. 종지돌리기를 할 때는 노래를 부르면서 돌린다. 이 놀이는 주로 정월달에 여자들이 모여서 놀았다.

• 보리웃놀이

‘보리웃’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법식도 없이 아무렇게나 던져서 노는 옷을 낫잡아 이르는 말”을 일컫는다. 대개 옷을 못 노는 여자나 어린아이의 옷을 보리웃이라 업신여기는데, 흔히 옷가락 4개를 다 높이 던져서 주로 걸이나 옷이 잘 나는 옷을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흔암리의 보리웃놀이는 일반적인 옷놀이와는 다른 색다른 방법의 놀이로 변형된 옷놀이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이 놀이는 주로 정월에 놓았다.

놀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 옷놀이와 마찬가지로 옷가락 4개를 던진다. 만일 ‘도’가 나오면 엎어진 나머지 옷가락 3개 중 하나를 짚어 젖혀진 1개의 옷가락을 쳐



제보자 황기분

서 넘겨 엮어진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옷은 ‘모’의 형태가 된다. ‘개’가 나오면 나머지 엮어진 옷가락 2개로 젖혀진 2개를 양쪽에서 쳐서 넘긴다. ‘걸’이 나오면 옷가락 2개를 엮어진 형태로 서로 엮갈리게 놓고(十자 모양) 그(위에 올려진 옷가락) 위에 한 개를 젖힌 상태로 올려놓는다. 그런 다음 나머지 한 개를 집어 젖혀진 옷가락이 올려 있는 옷가락의 반대편을 쳐서 넘긴다. 이처럼 젖혀진 옷가락이 엮어지면 점수를 따게 된다. 도는 1점, 개는 2점, 걸은 3점이다. 그런데 ‘옷’이 나오면 먼저 얻은 점수를 잃게 된다. 모가 나오면 가장 좋은 것으로 5점을 얻는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혼암리의 보리옷놀이는 던지는 방법은 일반 옷놀이의 형태와 같은데 젖혀진 옷가락을 다른 옷가락으로 쳐서 모든 옷을 ‘모’의 엮어진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 추가된 보다 재미있고 색다른 옷놀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 ‘보리꺾기’라 하여 옷을 한꺼번에 손을 돌려 꺾는 놀이가 있다. 이 놀이에 사용되는 옷가락은 일반 옷가락보다는 길고 가는 편이다.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열 번 놀기’ (10번 해서 승부 내기) 등과 같이 회수를 정해 놓고 놀며, 점수를 많이 내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이다. 지면 벌칙으로 노래를 하였다. 이 놀이는 주로 정월에 놀았다.



• 휴전

정월대보름 무렵 달밤에 혼암리 아랫마을과 옷말이 편을 갈라 서로 흙을 던지며 싸우는 놀이이다. 주로 스무살 밑 청소년들이 놀았다. 놀이방법은, 양쪽 마을에서 중간 지점을 정해 놓고 양편에서 서로 흙을 던지며 싸운다. 흙덩이를 맞으면 아파도 크게 심하게 다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중부지방에서 보름에 행했던 석전, 즉 돌싸움과 같은 놀이인데 돌 대신에 흙을 던져 돌로 인한 심한 부상을 막을 수 있었던 것 같다.

• 뱃놀이

흔암리 마을에서는 봄에 가래질을 해놓고 못자리를 끝낸 뒤 모내기 전에 뱃놀이를 하였다. 흔암리에는 나룻배 한 척과 강을 건너다니는 작은 배 한 척이 있었다. 나룻배는 30명 정도 탈 수 있는데 이 배를 내어 하루 종일 뱃놀이를 하였다. 술과 쌀, 반찬, 생선 등 음식을 준비하여 배에 싣고 강천, 자산, 합수머리까지 올라가서 배에서 음식을 해먹고 놀다가 내려온다. 올라갈 때에는 배를 조종하는 사람이 천천히 가고, 내려올 때는 빨리 내려오지 못하도록 닻을 달아놓는다. 배에는 놀 때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배 옆에 막대기로 얼기설기 망을 만들어 놓았다.

뱃놀이는 남녀가 따로 따로 놀았다. 처녀들은 가지 않고 젊은이들은 밥과 심부름을 하기 위해 같이 갔다.

뱃놀이를 할 때는 “에야로야노야 에야로나누 배 띄어라 뱃놀이 가잔다”와 같은 〈뱃노래〉나 〈정선아리랑〉 등을 불렀다.

흔암리 노인들은 뱃놀이 하던 때가 제일 재미있었다고 회고하며 다시 한번 옛날처럼 뱃놀이를 해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2)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의 민속

■ 마을 개관

여주읍 천송리는 신륵사 근처에 있는 마을로 과거에는 조포마을로 불렸으며, 이곳에는 조포나루가 있다. 이 마을은 과거에 20여 호의 작은 마을이었으며 농토도 적은 편이다. 주민들의 생업은 농사와 고기잡이, 절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선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가구 정도가 뱃일을 하였다. 그리고 나루터 주변에 주막이 두 곳 있었다. 성씨는 창씨가 많은데 이들은 신륵사 대처승의 후손들이다.

조포마을에는 6·25 전후하여 배가 3척 정도 있었다. 배로는 사람과 우마차, 트럭



제보자 박광식

등을 운반하였다.

현재 천송리는 100여 호인데, 60호 정도는 현지인이고 40호는 외지인이 들어와 주로 상업에 종사하고 있다. 장시는 주로 여주장을 이용한다.

현재 조포마을 강변에는 보트장이 있고, 과거 조포나루터 앞에는 황포돛배를 제작하여 체험관광상품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 나루와 생활

천송리 조포마을에는 조포나루가 있고 강 맞은편에는 여주나루가 있었다. 과거 조포나루와 여주나루는 남한강 4대 나루의 하나에 들 정도로 주요한 나루였다.

배는 상선과 도선이 있었다. 강원도 영월에서 오는 떼배는 6·25 전에 많았고, 1950년대까지도 떼배가 많이 다녔다. 떼배가 서울로 내려갈 때 조포나루 정자 부근 칼바위 있는 곳이 물이 잘 흐르지 않으므로 떼배를 놓고 쉬어 갔다. 여름에는 강 맞은편에 있는 영월루에서 뗏군들이 자고 가기도 하였다.

떼배가 조포나루 부근 제비여울(제비울, 연자탄)을 지날 때면 아이들이 “돼지우리간 저러.”고 뗏군들을 놀려 주곤 하였다. 실제로 조포에서 떼가 걸리면 떼를 풀어서 팔고 가기도 하였다. 떼배는 영월에서 비가 많이 와 수량이 풍부한 여름철에 띄웠으며 종착지인 마포나루에서 떼를 풀었다.

상선은 도자기를 싣고 가고 소금, 새우젓, 광목 등을 받아다가 충주에서 팔았다. 곡식 등 산지 물건은 서울에 가서 팔았다. 새우젓이나 쌀, 잡곡 등을 실은 배의 모습은 황포돛배와 비슷하였다.

조포나루를 중심으로 충주 방향으로 강천나루가 있고 마포 방향으로 여주나루가 있었다.

현재 조포나루터에는 과거 조포나루가 있던 곳에 표지석을 세웠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황포돛배와 조포나루

황포돛배는 황포를 돛에 달고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서해바다의 수산물과 내륙지방의 농산물을 수송하였던 장사배였으며 신륵사와 지평, 양동으로 통행하는 이곳 조포나루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남한강 상류의 전통배임.

또한 이곳 조포나루는 충주에서 서울까지 수운의 이용이 번성할 시기에는 신록사 하류에 보제원이 설치되어 통행자의 숙박을 제공하기도 하였던 조선시대 한강의 4대 나루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여주군에서는 잊혀져가고 추억 속에만 있는 남한강의 황포돛배를 전통기법으로 제작(길이 15m, 높이 1.7m, 폭 3.5m)하여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체험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다.



재현된 황포돛배

현재 남한강의 생태계는 충주댐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생겼다. 댐의 물을 위에서 빼어 주어야 하는데 밀구넉의 따뜻한 물을 내려 보내어 고기가 많이 사라졌다. 그리고 산란기인 5~6월에 댐 밑에서 찬물을 내려 보내어 생태계가 파괴되고 어종이 전멸하기도 하였다. 장마질 때 물이 따뜻하니까 고기는 모이는데 산란은 하지 못한다. 팔당댐이 준공된 뒤에는 바다에서 오는 장어, 참게, 송어가 사라졌다.

현재 어종으로는 눈치, 모래무지, 피래미, 붕어 정도가 있다. 어종의 증식을 위해서는 댐 옆에 고기가 다니는 어도(魚道)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댐의 의한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라 충주에서 댐 밑의 물을 빼서 내보내기 때문에 물이 차서 여름에 수영을 할 수 없어 관광객도 예전보다 많이 감소하였다.

그밖에 방생에 의한 강의 오염도 있다. 대보름 전날 방생을 하는 고기는 주로 수입 자라이다. 수입 자라는 따뜻한 물에서 양식한 자라이므로 수온이 맞지 않아 모두 죽게 되어 강만 오염시키고 있다.

■ 특산물

- 여주 잉어 : 예로부터 여주 잉어는 유명하여 임금님께 진상하는 고기였다. 어느 해 겨울에 날씨가 춥고 바람이 불어 여주에서 잉어를 잡아 올리지 않고 광나루에서 잡은 잉어를 진상하였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 맛이 이상하여 “이것이 어디 잉어나?”고 물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현대에 와서 5·16 이후에서 청와대에 여주잉어를 진상하였다고 한다. 그만큼 여주잉어는 맛이 좋기로 유명하였다.

■ 민간신앙

- 뱃고사 : 정월 보름 지나 얼음이 풀리면 뱃고사를 지낸다. 뱃고사는 돼지머리와 막걸리, 북어, 시루떡을 놓고 강에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원한다.
- 용신제 : 여주군과 문화원에서 용신제를 지낸다.

3) 여주군 능서면 내양1리의 민속

■ 마을 개관

여주군 능서면 내양1리는 '양화동'이라고도 부른다. 이곳 양화마을에는 양화나루터가 있다. 내양1리 강 건너편은 대신면 울촌리이며 과거에는 나룻배로 왕래하였다. 양화마을에서에서 여주읍까지는 대략 20리 길이다.

내양1리 양화마을은 6·25 전에는 50여 호였고 이후 40호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성씨는 모두 각성바지이며 토박이는 현재 8가구 내외가 있는 정도이다

생업은 농업이 대부분이다. 작물은 쌀과 밭작물로 조, 콩, 옥수수를 생산하였다.

과거에 양화마을에는 집배가 2척 정도 있었고, 배 하나에 5, 6명이 붙어 일을 하였다. 그리고 고기잡이 하는 집도 한 두 집 정도가 있었다. 따라서 배를 가진 사람은 적었고 나루에서 주로 잡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정도였다.

양화마을에서는 동제가 1960년대에 사라져 현재 동제를 지내지 않고 있으며, 주민의 90 정도는 기독교 신자이다.

장시는 마을에 양화장이 서서 이를 이용하였으며, 양화장 다음에는 흥천장, 이포장의 순서로 장이 섰다.

■ 나루와 생활

양화나루는 강 건너 대신면 울촌리로 내왕하는 나루터일 뿐만 아니라 영월에서 오는 떼배가 이곳에 배를 대어 놓고 주막집에서 쉬어 가는 곳이기도 하였다. 떼배는 1950년대까지 다녔으며 팔당댐이 생긴 뒤로 다니지 않게 되었다.

이곳 양화나루에는 충청도에서 곡물을 실은 집배가 오고, 영월 쪽에서는 뗏목만이 왔다. 떼배를 보면 아이들이 “돼지우리 저라, 돼지우리 저라.”고 놀려대곤 하였다. 이



양화 나룻길

나루터비의 밑에 새겨진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말은 돼지우리처럼 떼배가 망가지라는 뜻이다. 그러면 뗏꾼들은 화가 나서 아이들을 야단치지만 쉽게 떼배를 댈 수도 없기 때문에 배에서 화만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배가 올라올 때는 4~7일이 걸리는데 배를 밀고(끌고) 와야 하기 때문에 배 하나에 5, 6명이 필요하였다. 짐배는 30m 정도 크기이고 황포로 돛을 달았다.

내양1리 강변 입구에 소박하게 세운 양화

남한강가에 있는 교통의 요지로 여주읍까지 20리 이천읍까지 30리 거리에 있어 6·25 전만 해도 50집 남짓의 마을을 이루고 있었으며 팔당댐이 이룩되기 전까지 강원도에서 띄어 내리던 뗏목으로 사람이 머무르기도 했던 뱃길의 요충지였다.

■ 민간신앙

• 서낭굿 : 당굿은 3년에 한 번씩 윤달이 든 해 정월 보름쯤에 날을 받아서 크게 하였다. 당굿을 하기 전 먼저 부정을 가신다. 매년 고사는 지내지 않고 3년에 한 번씩 당굿만 해왔으나 1960년대에 사라졌다.

제수는 소를 잡아서 썼으나 나중에는 돼지로 대신하였다. 장승도 당굿을 할 때 깎아서 세웠다. 재질은 아카시아나무 중 좋은 것을 골라서 사용하였다. 아카시아를 쓴 것은 이 나무가 잘 썩지 않기 때문이다. 장승의 명문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라고 새겼다. 장승은 썩어 없어질 때까지 그냥 두었다. 장승의 위치는 이 마을 개울 쪽 옛날에 큰길이 있는 곳에 있었으며 그래서 이곳을 '장승백이'라 하였다. 이 또한 1960년대 당굿이 소멸될 때 함께 사라졌다.

• 강굿 : 양화나루 근처 앞강에서 매년 사람이 한 명씩 죽었다. 이는 귀신이 불러들여서 그런 것이라고 한다. 죽은 귀신이 때가 되면 하나씩 끌어들여야 자기(혼)가 물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늘 타곳 사람들이 놀러 와서 죽었다 한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집에서 뉘 건지는 강굿을 하곤 하였다. 1980년대까지 매년 익사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 도깨비불 : 양화나루에 나룻배가 있었는데 강 건너서 부르는 소리가 있어 갔더니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버덩에 불이 번쩍번쩍해서 이 불을 밤새도록 쫓아다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은 밤나무 썩은 것이 야광처럼 빛을 낸 것이라고 한다.

■ 세시풍속

1월

[설날]

설날에는 먼저 차례를 지내고 세배를 한 뒤 성묘를 간다.

• 차례(상)·세배 : 설날의 차례상은 보통 제사상과 같은데 떡국을 놓는 점이 다르다. 일반적인 차례음식은 떡국, 적(돼지고기), 조기, 숙주·고사리·도라지·고사리나물, 과일로 밤·대추·꽃감·사과·배, 그리고 산자 등이다. 떡국 대신 가정에 따라서 메(흰쌀밥)를 놓기도 한다. 그리고 떡국에 만두는 넣지 않는다. 가정에 따라서는 약밥을 해먹기도 한다. 그밖에 금기음식으로 콩나물은 차례상에 올리지 않는다.

• 세배 : 세배는 차례를 지내고 아침식사를 한 뒤에 하며 그 다음에 성묘를 간다. 지금은 세배를 다니는 사람이 없다.

• 성묘 : 설날에 성묘는 가정에 따라 간단히 주과포만 가지고 가기도 하고 준비해 둔 음식을 더 가지고 가기도 한다. 성묘할 때는 먼저 무덤의 오른쪽 적당한 곳에 가서 산신제를 지낸다. 산신제는 간단히 술 한 잔을 부어 놓고 절을 한 뒤 3번에 나누어 술을 뿌린다.

• 놀이 : 설에 하는 율놀이(를 비롯하여) 여자들의 널뛰기가 있고, 아이들놀이로는 짚공차기, 구슬치기, 자치기 등이 있다. 주로 보름까지 놀았다.

[정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에는 부시럼깨물기, 귀밝이술, 더위팔기, 오흥밥, 나무 아홉 짐하고 밥 아홉 번 먹기, 달맞이(달보기) 등의 풍속이 있다. 놀이로는 거북놀이, 쥐불놀이 정도가 있었을 뿐이고 줄다리기, 햇불싸움, 석전놀이 등은 없었다. 설에서 시작된 놀이들은 보름까지 하였으며 보름이 지나면 놀이를 하지 않는다.

• 흰밥먹기 : 보름날 아침에는 흰밥을 먹는데 김에 싸 밥을 먹는다.

• 김치 안먹기 : 보름날 아침에 김치는 붉은 고춧가루가 있어 먹지 않는다.

• 부시럼 깨물기 : 보름날 이른 아침에 호두, 밤, 땅콩 등 딱딱한 과일을 깨물어 던지는데 이는 부스럼을 앓지 않게 해달라는 뜻에서이다.

• 귀밝이술 : 보름날 새벽에 일어나 귀밝이술로 청주나 약주를 마신다.

• 더위팔기 : 보름날 아침에 더위를 파는데, 집밖에서 친구가 부르면 대답하지 않고 “내 더위 사가라.”라고 외쳐 더위를 판다. 만일 대답을 하게 되면 친구의 더위를 사게 되는 것이다.

• 나무 아홉 짐 하고 밥 아홉 번 먹기 : 정월 보름 전날에는 나무 아홉 짐을 하고 밥을 아홉 번 먹는 풍속이 있다. 이는 부지런해야 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 오곡밥 : 정월 보름날 오곡밥을 해먹는다. 오곡밥은 찹쌀·수수·조·팥 등 여러 가지 곡식을 넣어 지은 것이다. 오곡밥은 해 넘어가기 전에 일찍 지어 먹으며 이웃집을 불러서 같이 먹는다. 아이들은 밤에 몰래 오곡밥을 훔쳐서 친구들과 같이 먹으며 놀기도 한다.

• 거북놀이 : 거북놀이는 정초부터 보름 무렵까지 주로 동네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농악대를 꾸미고 거북이를 만들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을 빌어주며 놀았다.

거북이는 옥수숫대 이파리로 이엉을 엮어 만드는데, 몸체는 먼저 나무로 모형을 만든 다음 이엉을 둘러싸우고, 머리는 따로 만들어 몸체에 붙이고 눈썹은 이파리로 붙인다. 거북이가 완성되면 두 사람이 거북이 모형에 들어가는데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이 들어간다. 거북이는 마부가 끌고 간다. 1960년대 초까지 놀았으며 그 뒤 복원은 되지 않았다.

• 쥐불놀이 : 대보름날 아이들이 짚을 길게 묶어 자기 나이 숫자만큼 매듭을 지어 놓고 달이 뜰 때 불을 붙여 아래 위로 흔들며 노는데 이를 쥐불놀이라 한다. 지금은 강릉에 불을 붙여 논다.

2월

[2월 초하룻날]

• 나이떡 해먹기 : 2월 초하룻날에는 나이떡을 해 먹는다. 나이떡은 나이 숫자대로 송편을 조그맣게 만들어 먹는 것으로 송편 속에는 팥, 녹두 등을 넣는다.

• 금기 : 2월 초하룻날 여자들은 남의 집에 가면 좋지 않다고 하여 가지 않는다.

3월

[삼짇날]

3월 3일 삼짇날에는 특별한 풍속은 없고, 다만 '제비가 오는 날'로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4월

[4월 초파일]

• 불공드리기 :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초파일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주로 보통리에 있는 절에 많이 간다.

5월

[단오]

• 그네뛰기 : 단오날 동네에 있는 수백 년 된 고목에 그네를 매어 뛰었다. 그네는 남녀 모두 뛰었으며 멀리 나가기 내기를 하기도 하였다. 단옷날 그네를 매어 여름 때까지 뛰었는데 현재 고목은 없어졌다.

6월

[유두]

• 유두에는 행사가 없다.

7월

[칠석]

• 칠석에는 별반 특별한 행사가 남아 있지 않다.

[백중]

• 백중장·씨름대회 : 백중에는 장이 크게 섰다. 백중 무렵이면 동네 백사장에서 씨름대회를 하였고, 백중장이 서면 씨름대회에 참여하였다. 대신장, 여주장, 곡수장, 양평장, 흥천장에서 씨름대회를 하였는데 여주장이 제일 컸다. 우승자에게는 상으로 송아지, 광목 등을 주었다.

8월

[추석]

• 송편차레 : 추석에는 차레를 지내는데 설날 차레와 같으나 떡국 대신 송편을 올린다. 송편 외에 증편도 찌서 올리는데, 증편은 맨드라미꽃을 따서 꽃 모양으로 만들었다.

9월

[중구]

• 음력 9월 9일 중구에는 특별한 풍속이 없다.

10월

• 상달고사 : 추수를 한 뒤 10월에 낱을 받아 시루떡을 찌서 고사를 지낸다. 고사떡은 햅쌀을 절구에 빻아 시루에 팔과 함께 쪄켜이 넣고 찐다. 고사는 먼저 대청마루에 떡시루를 통째로 놓고 시루 가운데 물 한 대접(정화수)를 떠서 놓는다. 술은 작은 상에

막걸리를 한 잔 부어 놓는다. 이어 절을 하고 “우리 집안 무병장수하게 해 달라.”고 빈다. 그런 다음 떡을 썰어 모판에 쏟아 놓고 부엌, 광, 장독대에 썬 떡을 조금씩 가져다 놓는다. 가정에 따라서는 떡을 조금씩 떼어 울타리에 뽕 둘러가며 놓기도 한다. 이는 귀신에게 떼어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후 40~50분이 지난 다음 가져다 먹는다. 고사떡은 이웃집에 돌려 먹는 것이 상례이다.

지금도 내양리(양화동)에서는 10월에 고사떡을 해서 먹는 집들이 있다.

11월

[동지]

- 동지팔죽 : 동짓날에는 팔죽을 쑤어 먹는데 애동지(보름 안쪽에 든 동지)에는 팔죽을 쑤지 않고 주로 노동지(보름 이후에 든 동지)에만 쑤어 먹는다. 팔죽을 쑤어 집안 외벽에 둘러가며 뿌리며 “잡귀 물러가라, 너두 먹고 물러가라, 너두 먹고 물러가라, 다 물러가라!”고 소리를 한다. 외벽뿐만 아니라 문간에 뿌리기도 한다.

■민속놀이

- 거북놀이

거북놀이는 정월 정초부터 보름께까지 주로 동네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놀았던 놀이이다. 동네에서 농악대를 꾸미고 거북이를 만들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을 빌어 주며 놀았다.

거북이가 한 집에 도착하면 주인집에서는 술상을 차려 내온다. 놀이꾼들은 술을 한 잔 먹고 흥이 나서 노는데, 거북이는 몸을 흔들며 춤추고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하는 등 신명나게 놀았다. 1960년대 초까지 놀았으며 그 뒤 복원은 되지 않았다.

과거에 행해졌던 거북놀이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준비과정으로 거북놀이 도구를 만든다. 거북이는 옥수숫대 이파리를 따서 이엉을 엮어 만드는데, 몸체는 먼저 나무로 모형을 만든 다음 이엉을 둘러싸우고, 머리는 따로 만들어 몸체에 붙이고 눈썹은 이파리로 붙인다. 거북이가 완성되면 두 사람이 거북이 모형에 들어가는데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이 들어간다. 거북이는 마부가 끌고 간다. 거북놀이꾼들은 농악대와 함께 동네의 각 집을 방문하여 마당뽕이를 하며 돌아준다.

거북놀이 일행이 대문 앞에 도착하여,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르면 주인이 나오면서,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일행을 맞이한다. 이어 거북놀이꾼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들렀는데 먹을 것이 있으면 물 한 모금 주시오.”
 하면 주인이,
 “들어오십시오.”
 하면서 술상을 차려 내온다. 술상을 대접받은 거북놀이꾼은,
 “물 한 모금 먹으니까 배가 불러서 힘이 저절로 생기는데 우리 한 번 놀아보세.”
 하고 마당뽕이를 하며 한바탕 논다.
 그런 다음 거북놀이꾼은,
 “이제 실컷 놀았으니 다른 집으로 한 번 놀러가세.”
 하고 다음 집으로 간다.

4) 여주군 금사면 이포1리의 민속

■ 마을 개관

이포의 옛지명은 천녕(川寧) 또는 천양(川陽)으로, 이곳에는 남한강의 4대 나루의 하나인 천양나루, 곧 이포나루가 있다.

이포(梨浦)라는 명칭은 이곳을 지나는 상인들이 배나무꽃이 활짝 핀 것을 보고 배나무 ‘이(梨)’와 물가 ‘포(浦)’를 써서 ‘이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다른 이름으로 배개나루·배나루·배개 또는 이포진으로 불리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수구말, 천양, 근정리, 서원, 뒷골이를 병합하여 이포리로 불렀다. 지금은 수구말·큰말을 이포1리로, 근정리·뒷골·서원을 이포2리로 나누고 있다.²⁹⁾ 현재 이포리의 가구수는 이포 1, 2리를 합해 대략 400~500



이포나루터 입구에 세워진 비석

29) 국립문화재연구소, 《경기도 세시풍속》, 2001, p. 8



제보자 장태봉

호가 된다.

옛날에 여주는 읍이 여주읍과 천양읍 두 군데였는데, 과거의 천양인 이포는 민참판과 홍승지가 있어 그 세력으로 번창하였다. 이 고장의 땅은 거의 다 그들의 땅이었고 당시 민참판네 집은 99칸이었다. 이포의 천양최씨네와 남양홍씨네도 도선이 묘를 잡아준 곳에 묘를 쓴 뒤 집안이 번창하였다. 지금 이포에는 천양최씨 한 집만이 남아 있고, 홍씨네는 모두 떠나고 없다.

이포나루 건너편은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이며 나룻배로 내왕하였다. 이포에서 천서리에 갈 때는 주로 농사를 지으러 건너갔고, 천서리 주민들은 이포장을 볼 때 나룻배를 이용하였다. 이포에는 배 부리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1991년 이포대교가 완공된 뒤 강 건너에 농사짓는 사람들의 타격이 심했다. 교통이 불편하여 농토를 도지로 주거나 팔아버렸다. 현재 발작물로 땅콩, 참외, 그 외 조, 수수 등이 생산되고 있다.

이포리의 오랜 역사와 함께 마을의 가장 큰 행사로 치러지는 삼신당의 고창굿은 현재 기독인들이 많아 경비 추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 나루와 생활

이포나루는 조선시대에 세곡(稅穀)과 물화(物貨)를 싣고 풀던 큰 나루였다. 인근에 양화역(楊花驛)과 이천창(利川倉)이 있어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모아 서울로 내려 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포나루는 찬우물(홍천)에서 온 나룻배가 쌀, 보리쌀 등 곡물을 넘기고 갔고, 양평에서 해물을 실은 배가 이포나루에서 내리고 이천까지 갔다.

과거에 이포는 남한강 4대 나루의 하나일 정도로 큰 나루였다. 영월에서 떼(떼배)를 가지고 내려오면 반드시 이포에서 잤다. 떼배(뗏목)에는 아무것도 싣지 않고 떼, 곧 나무 자체를 영월에서 만들어 마포에서 풀었다. 장배는 충주 쪽에서 곡식 등을 싣고 서울로 내려가서 팔았다. 장배는 뱃머리가 높고, 여울을 내려갈 때는 뒤 노 젓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노를 저어 내려갔다. 뒤에 키가 있어 키로 방향 전환을 한다. 장배에는 떼배보다 사람이 많았다.

이처럼 이포나루는 수운의 중요 지점이어서 주막이 발달하였다. 또한 상호리, 하호리에는 금전판, 곧 금광이 있어 이곳에는 술집들이 많았다. 그래서 배꾼들은 투전이나

색주가로 돈이나 물건을 털리기도 하였다.

이포나루에서 목계 쪽으로는 양촌나루가 있고, 서울 방향으로는 개군나루(양덕나루)가 있다.

1960~1970년대 이포나루의 도강배는 입찰로 권리를 주었다. 뒤에 도선배에는 사람 뿐만 아니라 차도 싣고 다녔다. 1980년대 (1980?1989) 거룻배는 강 건너편에 줄을 도르래로 매어 사람과 차, 소를 운반하였다. 차는 배에 5대 정도 실었으며 소는 강



이포나루터 표지석

건너편 밭을 경작하기 위해 싣고 갔다. 1989년 당시 도강배의 운임은 차는 5000원, 사람은 200원이었다. 당시 밭에는 땅콩이 많이 생산되었고, 그 후 이포대교가 생긴 뒤에는 고구마를 7~8년 간 경작하였다. 1991년 이포대교가 완공된 뒤 거룻배는 사라졌다.

현재 이포나루터에 있는 '이포나루터 유래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 있다.

- 이포(梨浦) 나루터 유래(由來)

인류의 생존기반은 물이었으며, 그 물줄기를 따라 인류가 모여들고 생활 문화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였다.

여기의 이포나루는 삼국시대부터 남한강의 중요한 나루터로서 강원도 등 내륙을 오가는 행인과 생필품 운반은 물론 강의 유수를 이용한 뗏목 수송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이포리에서 머물며 상권이 조성되었으며 일제시대에는 인근 상호리에는 큰 금광이 있어 인부와 상인이 드나들어 주막과 여각이 즐비하여 한 시대 영화를 간직하던 곳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서울의 마포, 광나루, 여주의 조포나루와 함께 한강의 4대 나루터로 불리면서 경제 활동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조선조 6대 단종대왕이 숙부인 세조의 왕위찬탈에 의거 이곳을 지나 영월로 유배가시면서 한양을 그리워하며 통곡을 하시던 곳이었다.

또한 고종황제의 正妃인 명성황후께서는 고종 19년(1882)에 발생한 임오군란의 화를 피하기 위해 이곳 이포나루터에서 3일을 기거하신 후 재임성을 기다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 장호원으로 피신하였다는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6·25 사변 때는 치열한 격전지로 유명했으며, 1991년 이포대교의 준공으로 도

선 은행이 중단되면서 옛 이포나루의 추억이 우리 기성세대에게는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곳이다.

■장시

• 이포장(천양장)

이포장은 일명 '천양장'이라고도 하는데 과거에 이포는 '천양'이라고 불렸다. 이포장은 5일장으로 매달 1일과 6일에 장이 선다. 1일장은 천양, 2일장은 이천, 3일장은 양평, 4일장은 대신, 5일장은 여주에 장이 섰다.

과거에 이포장은 흥천, 대신, 상호, 도고 등지에서 주민들이 장을 보러 왔으며 금사면에서는 제일 큰 장이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동안 장이 없어졌다가 새로 생긴 지 10년이 채 안 된다.

■민간신앙

• 뱃고사

뱃일을 하는 집에서는 매달 음력 초하룻날 뱃고사를 지낸다. 제수는 간단히 막걸리와 북어만 쓴다. 뱃고사는 선주 혼자 지내는데 새벽에 이포나루에서 동쪽으로 제수를 놓고 절을 3번한다. 뱃고사를 크게 할 때는 가을에 낚을 잡아 팔시루와 돼지머리, 막걸리, 북어 등을 남한강 남쪽에서 동쪽으로 제사를 차리고 절을 한다. 고사는 대개 해지기 전 3~4시 경에 지낸다. 고사 때는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해달라."고 속마음으로 빈다. 가을 뱃고사 때는 무당을 데리고 가기도 했으나 나중에는 혼자 지냈다.

영월, 충주에서 비가 오면 물이 불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여 뱃고사를 정성껏 지냈다.

• 업할아버지 · 업할머니와 터주

업할아버지와 업할머니는 고 장석환씨 집에는 장독대 옆 대추나무 아래 소나무가지 덩불로 되어 있다. 터주는 신체는 없고 장독대에서 제만 지낸다.

• 안택고사

(1) 이포1리

햇곡식 수확에 대한 감사로서 시루떡을 찌서 고사를 지낸다. 시루떡은 찹쌀시루떡, 멥쌀시루떡, 무시루떡 등 세 가지를 찐다. 무시루떡은 무채를 넣어 찐 것이다. 이때의 안택고사는 정초의 고사와 마찬가지로 저녁식사 후에 아녀자가 성주 · 터주 · 장광 등에 시루떡을 올려 놓고 벼수확에 대한 감사와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하여 고사를

지낸다. 또한 고사를 지내기 전에는 잡귀와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문 앞에 황토흙을 세 군데 뿌려 놓는다. 고사를 지낸 후에 황토흙을 치워버린다.

(2) 이포2리

주로 정월 2일에 하는데, 모든 집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주로 정월 15일에 지낸다. 어떤 집은 절에서 날을 받기도 한다. 제물은 보통 막걸리·시루떡·북어를 올리는데, 형편이 좋은 사람은 돼지머리를 올리고, 술을 싫어하는 사람은 냉수를 올린다. 고사는 저녁식사 이후에 해가 떨어지면 지낸다. 고사를 지낸 후에는 이웃과 시루떡을 나누어 먹는다. 고사는 안방·성주·터주·변소의 순서로 지내는데,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다. 어떤 제보자는 시어머니가 마루 대들보(성주)에서 고사를 지낸 후 대문 앞에 시루를 떼어 놓고 절을 한 후에 집안으로 들어와서 시루를 모두 쏟아 놓고, 부엌·장독·변소·광에 각각 한 접시씩 올려 놓았다고 한다.(이포2리)

• 삼신당

금사면 이포리에 있는 마을 신당이다. 당의 유래는 이포에 홍역마마, 염병이 심해 천양최씨 서낭을 모시고 제를 지내게 되었다. 일제시대 때부터 지서장이 오면 여주읍에서 인사를 왔다고 한다.

당 안에는 서낭 내외와 용신을 모시고 있다. 용신을 모시는 것은 이포강에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시는 것이다. 당나무(서낭나무)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이다.

정자 밑에 고목나무 세 그루가 있는데 신 보는 사람이 보니 신이 울고 있었다. 왜 우느냐고 하니 신을 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하여 구한국시대에 당을 지어서 위하게 되었다.(이중선, 79세, 이포1리, 1996.5.12 조사)

현재의 삼신당(서낭당)은 왜정 때 서낭당 자리에 신사를 세우고 그 한쪽 귀퉁이에 서낭당을 옮겨 세웠다가 다시 제자리에 세운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계단은 신사를 세울 때 조성된 것이다. 왜정 때 신사를 짓기 위해 서낭당을 옮긴 뒤 일본인 문간의 아들이 익사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 이포 고창굿(삼신당굿)

이포 고창굿은 삼신당굿·삼신당제·삼신제 또는 '별신' 지낸다고도 한다. 이 굿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유명한 굿으로 현재까지도 전승이 되고 있다. 이포나루가 남한강 수운의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에 이포 고창굿이 더욱 이름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왜정 때 이전부터 오랜 동안 정성을 드렸다. 정성을 드리는 마을은 큰말·근장이·서원·뒷골·수구천(수구마을) 등 5개 마을로 이들 마을에서 추렴을 하여 제비를

충당한다.

삼신당제의 유래는 예전에 동네에 홍역마마 염병이 많아서 최씨서낭(전양 최씨)을 모시고 제를 지내게 되었다. 또한 배에 다니는 사람 뱃짐 싣고 잘 다녀오라고 드리는 정성이기도 하다.

이 곳은 3년에 한 번씩 음력 3월 초승에 날을 받아 3일 간 행해진다. 전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7일 간 하였다. 이 곳은 동네가 잘 되게 돌봐 달라고 신령님께 올리는 것이다. 기간은 3일 간인데 예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7일간 하였다. 해방 전에는 난장을 크게 트고, 삼현육각을 잡히고 여러 가지 놀음놀이를 하였다. 난장 판에는 광대 줄타기와 접시돌기기, 탈춤, 그네뛰기 등 여러 가지 놀음놀이를 하였고, 술과 음식을 팔고 투전패들이 도박도 하였다. 이때 각지에서 구경꾼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충청도에서도 구경을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해방 후에는 놀음놀이들이 끊어졌다가 1996년 고창굿 때 상쇠 문경남(1996년 당시 86세, 외평리)에 의하면 처음 줄을 탔다고 한다.(1996.5.12. 김선평·김이숙 조사)

1996년 당시 농악은 경노당 노인들이 맡았다. 농악대는 상쇠 문경남(당시 86세, 외평리), 부쇠 심창구(80, 이포리), 기발이 임창규(71세, 이포1리), 날라리 원일봉(82세, 북내면 지내리), 북 이구호(80세, 흥천면 문장리 450), 장구 정용욱(77세, 이포리 185), 징 문기성(83세, 이포2리) 등으로 구성되었다. 당굿은 주무 임춘수를 비롯하여 최주희, 안광자, 한진수 등이 참여하였다.

제물로 옛날에는 소를 잡았는데 현재는 돼지를 쓴다.

이포 고창굿의 진행은 부정풀이, 당굿(당맞이굿), 산바람(산거리), 군웅거리, 불사거리, 신장거리, 산대감거리, 장군거리, 대신·동자, 대감거리, 마당굿의 순서로 행해지고, 용왕굿(배굿)은 이포나루터에서 행해진다.

• 기우(祈雨)

여름에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면 마을에서 만팔이나 만며느리가 무쇠뚜껑(소당뚜껑)을 쓰고 강물에서 키에 물을 담아서 아래위로 까분다. 이날 남자들은 일절 참석하지 않는다. 기우(祈雨)하는 날을 받아서 저녁 무렵 강가에서 하는데, 제물은 없다. 복장은 평상시에 입는 치마저고리를 입는다. 마을에서 만팔과 만며느리를 모으면 사람 수가 적지 않다. 기우를 그렇게 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며칠 후에는 비가 온다. (이포2리)

• 성주풀이

성주풀이를 원하는 집에서는 고사반을 준비한다. 고사반에는 쌀 한 말, 대주 한 주

밭, 흰쌀 한 타래, 돈을 놓아둔다. 풍물패들은 고깔·상모·한복을 입고 팽과리·장구·북·소고 등의 악기를 치며, 깃대(농기)를 들고 농악놀이를 한다. 고깔을 쓴 사람이 축을 하는데, 축의 내용은 가정의 번창과 한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내용이다.

성주풀이에 사용하는 깃대는 삼선당에 모신 것으로 하얀색 천에 글자를 써 넣었고, 끝에는 꿩털을 달아 놓은 것인데, 두레기와 비슷하다. 풍물패들은 대개 집안에 들어오기 전에 문밖의 우물에서 먼저 우물굿을 하며, 성주풀이를 하러 가는 집에는 미리 통보를 한다.

풍물굿을 하는 순서는 먼저 대청마루(성주) 앞에서 시작하여 축원을 하며 마당에서 노는데, 이동하는 순서는 집집마다 다르다. 마을의 모든 가구가 성주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형편이 되는 집에서 한다. 집주인은 성주풀이의 댓가로 술과 안주 그리고 돈을 준비한다. 고사반에 올린 쌀을 풍물패들이 가지고 가는데, 그 쌀의 용도는 불분명하다. 그런데 성주풀이에 응하지 않는 집은 그 집이 망하라고 깃대를 거꾸로 들고 나간다고 한다.(이포2리)

■ 세시풍속

1월

[설날]

• 차례 : 차례는 집에 따라서 다르나 아침 7시경 지내며, 차례를 지낸 뒤 차례상을 치우고 세배를 한다. 성묘를 다녀온 뒤 일가친척과 동네 어른들께 세배를 다닌다.

설날 차례상에는 떡국, 인절미, 적(소고기나 돼지고기), 조기, 나물로는 시금치(또는 숙주), 도라지, 고사리 나물, 과일로 대추, 밤, 꽃감, 배, 사과와, 다식, 술 등을 놓는다. 집에 따라 떡국 대신 메(흰밥)를 올리기도 하고, 떡국 속에는 만두를 넣는다. 술로는 약주를 만들어 썼으나 현재는 정종으로 대신한다. 일반적으로 차례상에 올리지 않는 음식으로는 갈치, 콩치 등과 같이 '치' 자가 들어가는 생선과 콩나물 등이 있다. 근래에는 세배를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입춘]

• 입춘축 붙이기 : 입춘이면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대경(建陽多慶)' 등의 입춘축을 집안에 붙이는데 그 장소에 따라 입춘축의 글자 내용이 모두 다르다. 입춘축은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맞추어서 축을 썼으며, 작년의 축을 태워 불사르고 새로운 축을 붙이는 것도 시간에 맞추어서 했다고 한다. 또 다른 경우는 작년의 입춘축을 새벽 2시 쯤에 태워 버리라는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한 다음 새벽 2시 이후에 새로운 입

춘축을 붙였다고 한다.(이포2리)

• 삼재풀이 : 그해에 삼재가 든 사람이 이를 풀기 위해 입춘날에 절에서 삼재풀이를 한다. 삼재든 사람의 속옷을 하나씩 가지고 가서 그것을 태우면서 염불한다.(이포2리)

[정초]

• 고사반 : 정초부터 보름 전까지 고사반을 쳤다. 먼저 정초에 삼신당에서 농악을 치고 동네로 내려와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해 행운을 빌어준다. 농악대를 맞이하는 집에 서는 말에 곡식을 담고 그 위에 실과 돈을 놓아 상을 차렸다. 농악대는 고사반을 쳐주고 끝난 다음에는 다음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맨 끝에는 다시 삼신당에 가서 고한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거둔 쌀을 곳창굿(고창굿)을 할 때 경비로 쓴다.

• 삼신당제 : 매년 정초에 날을 받아 마을고사를 지내는데 평년에는 음력 3일에 날을 받아 고사를 지낸다. 제수로는 소머리(또는 돼지머리), 팔시루, 백시루 3개를 찌 올리고 무속인이 와서 징을 치면서 축언을 하며 간단히 지낸다.

• 복조리달기 : 복조리는 선달그믐에 상인들이 와서 집안 마당에 던져 놓는데, 성냥이나 초와 함께 던지지는 않고, 복조리만 던진다. 아침에 나가 보면 마당에 복조리가 떨어져 있는데, 복 들어오라고 그 속에 돈을 넣어 방문 위에 달아 놓는다. 상인들은 아무 날이나 와서 돈을 받아 간다.(이포2리)

• 용날·토끼날·말날 : 용날은 칼질을 금한다. 용날에 칼질을 하면 농사철에 일할 때에 비가 오기 때문이다. 토끼날은 '툽날' 이라고 하며 여자들이 남의 집에 가서 소변을 보면 재수 없다고 한다. 말날에는 장을 담근다.(이포2리)

• 엄나무 달기 : 정초에 액막이를 위해서 엄나무를 대문 앞 위, 방문 위에 매단다. 엄나무에 가시가 많기 때문에 귀신이 범접하지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엄나무 외에 다른 것을 같이 매달지는 않는다.(이포2리)

• 액막이연 날리기 : 정초에는 액을 막기 위한 액막이연을 날린다. 정초부터 연을 날리다가 2주가 되는 14일 낮에 연줄을 끊어 버린다. 그해 운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연에 쓰고, 그 사람의 액운이 멀리 날아가도록 연줄을 끊어버린다. 그 당시 연은 주로 방패연을 만드는데, 연의 살은 시장에서 구입한 대나무를 사용하고, 종이는 주로 부드러운 순지를 사용한다.(이포2리)

[14일]

• 빗섬만두 해먹기 : 정월 14일 아침에는 그 해의 풍농을 기원하기 위해서 빗섬만두를 빗어 먹는데, 빗섬만두는 보통 만두보다 크기 때문에 빗섬만두라고 한다. 만두 소

는 김치·두부·돼지고기·숙주·잡채 등을 넣는데, 보통 김치만두를 해서 벋섬만두를 먹는 것으로 생각한다.(이포2리)

- 오곡밥 : 대보름 전날에는 오곡밥과 묵은나물을 먹는다. 저녁 일찍 하거나 점심 겸 저녁으로 오곡밥과 묵은나물을 먹는다. 오곡밥은 쌀·팥·잡쌀·수수·좁쌀 등 여러 가지 곡식을 혼합하여 짓는다. 이날은 오곡밥을 많이 준비하고 밥을 묵혀가며 먹는다. 그리고 이날은 묵은나물은 아홉 가지를 먹어야 한다. 우거지나물(시레기나물), 취나물, 고사리, 호박고자리, 콩나물, 무생채 등 아홉 가지를 준비하여 오곡밥과 같이 먹는다.

밤에는 아이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오곡밥을 얻어먹거나 물래 재미삼아 훔쳐먹기도 한다.(이포1, 2리)

- 아홉 번 행동하기 : 이날은 무엇이든 아홉 번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래서 밥을 9번 먹고 나물도 9번 먹고 나무도 9짐을 해온다.

- 잠안자기 : 보름 전날 밤에 일찍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센다고 하여 아이들에게 잠을 못 자게 한다. 잠을 자는 아이가 있으면 눈썹에 밀가루를 칠해 놓고 눈썹이 세었다고 놀린다.

[대보름]

- 귀밝이술과 부럼 : 보름날 아침 일찍 일어나 호두, 잣, 밤 등 딱딱한 과일을 입으로 물어 깨트렸는데 이렇게 하면 부스럼이 안 난다고 한다. 그리고 귀가 밝아지라고 아침 밥을 먹기 전에 귀밝이술을 마셨다.

- 더위팔기 : 보름날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지 않고 '내 더위 사라' 고 하였다.

- 백반·맑은국·복쌈 먹기 : 정월 대보름 아침에는 흰쌀밥을 짓고 맑은국을 끓여 먹는다. 맑은국은 주로 무국이다. 그리고 흰쌀밥을 김에 싸먹는데, 이것을 복쌈이라고 한다.

한편 이날은 '살빼기가 인다'고 해서 김치를 먹지 않는다. 살빼기는 쇠기에 썬 것 같이 따금거리고 가려운 피부병이다. 살빼기에 걸려 굶으면 좁쌀처럼 피부에 빨간 반점이 생기는데, 대보름에 고춧가루가 든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여 먹지 않는다.(이포2리)

- 용알뜨기 : 대보름날 새벽에 아낙네가 일찍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오는데 이를 용알뜨기라 한다. 먼저 물을 떠온 사람은 용알을 건져왔다는 표시로 짚수세미를 던져놓고 온다.

- 고사반 : 정월 보름날 농악대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고사반을 하였다.

- 윷놀이와 척사대회 : 윷놀이를 척사라고 하는데 가정에서는 주로 정초에 놀았고,

대보름날에는 면단위로 금사면 척사대회를 장터에서 하였다. 척사대회 때는 돈을 주고 참가권을 사서 하였다. 놀이방법은 윷놀이 끝판에는 줄을 올리고 큰 장작웃을 넘겨 승부를 내었다.

- 농기세배 : 이포에서는 행사 때 농악을 많이 하였다. 명절에 놀 때 이포가 형님 마을이라 다른 마을의 인사를 받았다.
- 줄다리기 : 대보름날 마을 차원에서 줄다리기를 이포시장에서 한다. 양편을 청과 백으로 나누어 하지만 남녀 간의 편을 갈라서 하는 것은 아니다.(이포2리)
- 망우리 돌리기 : 대보름날 달이 뜨는 것을 보면서 망우리 돌리기를 하는데, 이때에 쥐불놀이도 같이 한다. 참깨단을 새끼를 이용하여 나이 수대로 묶는다. 나이가 쉰 살이면 쉰 개, 다섯 살이면 다섯 개를 묶어서 달이 뜨는 것을 보면서 불을 붙여 '달님 달님' 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한 해 소망을 달에게 기원하면서 액막이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정월 15일에 달(만월)이 뜨는 것은 아니다. 하루 이를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이포2리)

[달귀귀신날]

- 정 버리기(허재비 버리기) : 정월 대보름날 밤에 짚으로 사람의 형태를 만들고 거기에 동전을 꽂아 허재비(정)를 만들어 방안의 아랫목에 세워 두고 하룻밤 재운다. 정월 16일 달귀귀신날 바깥에서 허재비를 파는데, 정을 바깥에 내 놓으면 동네아이들이 정을 동네 삼거리로 가지고 나가서 땅바닥에 내리쳐서 밟으며 태우고, 허재비(정)에 꽂아둔 동전을 꺼내간다. 그러면 액이 날아간다고 믿는다.(이포2리)
- 신발감추기 : 허재비 버리기(정 버리기)를 한 후 정월 16일 밤에는 달귀귀신이 집에 와서 신발을 신어 보고 맞으면 신고 간다고 하여 신발을 마루 밑이나 방안에 감추기도 하고 신발을 엮어 놓기도 한다.(이포2리)
- 달귀귀신쫓기 : 달귀귀신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묵화씨 · 고추씨 · 쑥 · 왕소금 · 머리카락을 함께 태워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 집안 곳곳에 불을 흰하게 밝힌다. 이를 집집마다 태웠기 때문에 마을 전체에 냄새가 아주 지독하다.(이포2리)

[월내]

- 과일나무 장가들이기 : 그해 과일농사가 잘 되길 기원하면서 복숭아나무 가지 사이에 돌을 꽂아둔다. 지금도 과일나무 장가들인다고 해서 가지 사이에 돌을 꽂아두는 사례가 있다. 그리고 열매가 하나 열리든 열이 열리든 큰 가마니를 밑에 두고 탄다.(이포2리)

2월

[2월 1일]

- 나이떡해먹기 : 2월 초하루에는 나이떡이라는 송편을 빚어서 나이 수대로 먹는다. 노인들은 나이 수대로 먹을 수가 없지만, 청년들은 그렇게 먹곤 했다. 송편의 소는 주로 팔을 넣는다.(이포2리)
- 여자가 남의 집 출입하지 않기 : 2월 초하루는 큰 명절이다. 2월 1일 아침에 여자가 남의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짐승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남자가 먼저 들어간다. 제보자의 아버지는 초하루에 고사, 대보름에 고사를 지낼 정도로 고사를 충실히 지내는데, 특히 아침에 남의 집 여자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일 싫어했다고 한다.(이포2리)

[2월 6일]

- 쯔생이보기 : 2월 6일에 밤하늘의 쯔생이별을 보고 농점을 친다. 쯔생이별들이 달에 가깝게 가면 흉년이 들고, 멀리 떨어져서 가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밥을 이고 나가면 가난한 애들이 얻어먹으려고 쫓아오고, 배가 부른 어린이들은 멀리서 따라온다고 하여 가난한 아이와 부유한 아이의 동작을 흉년과 풍년으로 해석한 것인데, 밤이면 쯔생이별 보느라고 하늘을 쳐다보는 노인들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 2월 6일 날씨가 흐리면 노인들이 많이 서운해 한다.(이포2리)

3월

[삼진날]

- 나비점 : 3월 삼진날에 흰나비를 먼저 보면 그해 상복을 입는다고 하고, 노랑나비를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고, 제비를 보면 몸이 가볍다고 한다.(이포2리)
- 느티나무잎점 : 이포리 경로당 위쪽 야산에는 단오에 그네를 매는 느티나무가 있는데, 이 느티나무 꽃이 활짝 피면 그해 농사가 풍년이 든다고 하고, 그렇지 않고 부분 부분 꽃이 피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이포2리)
- 화전 : 삼진날에는 산에 진달래가 많이 피는데, 이것을 따서 '꽃전'이라는 부침개를 부쳐 먹는다.
- 애기머리 깎아주기 : 3월 삼진날에 애기 머리를 깎아 주면 머릿결이 좋아진다고 하여 할아버지들이 손자·손녀의 머리를 깎아 준다.

[한식]

- 차례 · 사초 : 한식에는 조상의 산소에 가서 차례를 지내고 사초를 한다.

[월내]

- 풀각시놀이 : 여자아이들이 보리풀을 가지고 각시를 만들어 지금의 인형처럼 가지고 논다. 보리풀을 뜯어서 소금에 살짝 절인다. 그것을 다듬어 정리하여 훌쩍 뒤집으면 반드르하게 늘어지는데, 여기에 비녀를 만들어 쪽을 찌서 풀각시를 만들어 놀다가 밤에는 처녀 죽은 귀신(손각시)이 된다고 하여 변소나 오줌독에 갖다 놓고 놀곤 한다.(이포2리)

4월

[초파일]

- 절가기 : 초파일에 절에 간다. 이포 1리에 있는 모현사에 많이 갔고, 궁리에 있는 대성사에도 많이 갔다. 절에는 절월, 초파일, 칠석, 가을(상달고사)에 주로 간다.

[월내]

- 고창굿 : 3년마다 음력 4월에 날반이를 하여 고창굿을 한다. 고창굿에는 많은 무당들이 참여하였으며 작두를 타고, 광대들이 와서 줄타기도 하였다. 이때는 투전도 하였고 술장사들도 많았다. 인근의 금사면 근방 흥천, 상호리 등지에서 구경꾼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제의 비용은 마을에서 각각 추렴하여 충당하였다.

5월

[단오]

- 약쑥뜯기 : 단오 무렵 약쑥이 많이 나는데, 집집마다 약쑥을 뜯어 엮어서 문에 달아 놓았다가 주로 산모의 산후조리에 사용하거나, 여름에 모깃불로 많이 사용한다. 또한 쑥은 초상날 때 시체가 나간 방의 네 귀퉁이에 고추씨 · 목화씨 · 소금과 함께 태우는데 사용하는데 그러면 시신의 방에 있던 혼이 모두 나간다고 한다.(이포2리)
- 익모초뜯기 : 단오 무렵에 익모초를 뜯어서 마늘을 넣고 찜은 후 천에 넣고 즙을 짠다. 그리고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장광 위에 올려놓고 하룻밤 이슬을 맞춘 뒤 먹는다. 속이 아프고 더위를 먹은 데는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맛은 굉장히 쓴데, 더욱더 고약한 것은 풀냄새이다. 그러나 그 약효 때문에 지금도 익모초즙을 먹는다.(이포2리)
- 창포물에 머리감기 · 창포잎 머리에 꽃기 : 마을 강변에 자라는 창포잎을 따서 그것을 삶은 물로 머리를 감는다. 머릿결이 곱고, 향이 좋아 아낙네들이 주로 감는다. 창포잎을 오래 삼지 않고 살짝 데쳐도 물이 푸른색을 띤다. 또한 창포로 머리를 감은 후에

는 창포잎을 머리에 꽂고 동네 나들이를 다닌다.(이포2리)

- 상추이슬로 세수하기 : 단오 아침에 상추잎에 내린 이슬로 세수를 한다. 깨끗한 물이라서 피부가 고와진다고 해서 아낙네들이 많이 한다. 단오 아침은 상추 잎의 이슬뿐만 아니라 단오 전날 배추잎을 따서 장광에 놓고 하룻밤 이슬을 맞힌 후 아침에 그 이슬로 세수를 한다. 이것 역시 미용에 좋기 때문에 많이 한다.(이포2리)
- 그네타기 : 단옷날 그네를 높이 뛰어서 나뭇잎을 물어 오면 그해 여름에 모기가 물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처녀와 아낙네들은 그네를 높이 뜀다. 그네는 이포리 경로당 뒤편 야산에 있는 느티나무에서 탄다.(이포2리)

6월

[유두]

- 밀국수 천신 : 6월이면 밀을 첫 수확했기 때문에 그 수확에 대한 의미로 밀국수를 만들어 천신을 하고 동네사람들과 나누어 먹는다. 안택고사와 마찬가지로 밀국수를 성주·대문·장광 등 곳곳에 놓아 두며 천신을 한 후 이웃과 같이 먹는다. 밀국수는 호박나물을 넣고 콩국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먹는다.(이포2리)

[월내]

- 참외밭고사 : 참외를 처음 수확하기 전에 참외밭에서 밀전과 술을 놓고 참외 풍년을 기원하는 천신을 한다. 여자가 월경을 하면 부정탄다고 해서 남자가 천신을 하고 여자는 참외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이포2리)

7월

[칠석]

- 부침개먹기 : 칠석날에는 부침개를 해서 먹는다.
- 칠성맞이 : 칠석날에는 주로 절에 가서 칠성맞이를 한다. 칠성맞이를 하는 이유는 자식의 번성을 기원하기 위해서이다. 이때 쌀, 양초, 돈을 가지고 간다.(이포2리)

[백중]

- 불공·차례 : 백중날은 부모나 자식이 죽은 경우에 이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절에서 불공을 드리고 차례를 지낸다.

[백중장에 가기]

백중날은 일꾼들 생일이자 호미씻이하는 날이다. 이날은 집주인이 일꾼들에게 옷을

새로 선물하고 용돈을 주면, 일꾼들은 백중장에 가서 백중놀이를 한다. 주로 백중장은 이포시장(1, 6일장)에 섰는데, 보통 난장은 3일 간 정도 선다. 이날은 모든 남자들이 백중장에 가기 때문에 명절과도 같다. 백중장에는 씨름판도 벌어지고, 풍악놀이, 투전 등 놀거리와 먹거리가 아주 다양하다. 그래서 일꾼들도 백중장의 난장이 3일 간 서는 만큼 3일 간 논다.

- 씨름대회 : 천양여관 앞이 우전거리인데 예전에 소시장이 크게 섰다. 백중 때 이곳에서 씨름대회를 크게 하였다.

씨름은 석장 파수까지 했다. 1장 파수는 1~5일, 2장 파수는 6~10일, 3장 파수는 11~16일로 15일 전후로 하였다. 씨름의 등급은 애기씨름, 중씨름, 상씨름의 3등급으로 하였으며, 결승전은 '서로 뺀다' (이기는 것을 말함)고 하였다. 최종 승자에게는 송아지 한 마리를 상품으로 주었다. 씨름대회 때는 농악놀이도 하였다. 1960년대까지 전승되다 중단되었다.

[월내]

- 복달임 : 주로 복날에는 개고기를 잡지만, 강가에서 개를 잡지 말라고 한다. 강물에 사람이 빠져 죽는다는 속신 때문이다.

8월

[추석]

- 차례 : 추석날에는 설날과 마찬가지로 차례를 지내는데 떡국 대신 송편을 메와 함께 놓는다. 집에 따라서는 송편만 놓기도 한다. 이곳 송편은 크기가 작고(전라도 송편의 반 정도), 송편 소로는 밤, 참깨, 팥, 녹두 등을 넣는다.

9월

[중양]

- 영릉참배 : 9월에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풍습이 없다. 그러나 이곳 인근에 세종대왕을 모신 능이 있는데, 9월 9일 중양절에 먼 차원에서 참배를 하러 간다.(이포2리)
- 국화떡 해먹기 : 중양절에는 절식으로 국화꽃으로 화전을 부쳐 먹는다. 밀부침개 위에 국화꽃을 예쁘게 놓는다.(이포2리)

10월

- 상달 고사 : 10월에는 추수를 모두 끝낸 뒤 집집마다 낱을 받아서 고사를 지낸다.

떡은 3~5말 정도의 쌀을 뿔아 팔시루 찰떡을 찌서 술과 함께 고사를 지낸다. 집안의 최고신인 성주님께서는 온시루를 올리고 부엌, 장독, 대문 등에는 조금씩 떼어서 가져다 놓는다. 떡을 놓기 전에 대문 앞에 3군데 황토를 갖다 놓고 금줄을 달기도 하는데 이는 부정을 막기 위한 것이다.

요즘도 농사를 짓는 집에서는 추수를 한 뒤 고사를 지내는 집들이 적잖이 남아 있다.

11월

[동지]

- 동지팔죽 : 동짓날에는 팔죽을 쑤어 먹는다. 동지가 일찍 드는 것을 애동지라고 하는데, 애동지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는다고 해서 꺼리는 까닭에 팔죽을 쑤어 먹지 않는다.

12월

[섣달그믐날]

- 묵은세배 : 섣달그믐에는 한 해의 안녕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묵은세배를 올린다.
- 불밝히기 : 섣달 그믐에는 한 해의 마지막이자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여 집안 곳곳에 불을 밝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거의 모든 집에서 한다. 부엌·방안·대문간 등 집 집 곳곳을 흰히 밝힌다.(이포2리)³⁰⁾

■ 설화

• 도선 설화

천양최씨가 아래(한강)에서 배를 타고 올라올 때 다른 배는 잘 올라오는데 그가 탄 배는 현 배라서 돛은 찢어지고 잘 올라오지를 못했다. 그러던 중 누군가 배를 태워달라고 하기에 태워 주었는데 그가 도선이였다. 먼저 배들은 도선을 태워 주지 않았다.

그런데 도선이 배를 탄 뒤로는 배가 쏜살같이 올라갔다. 한편 도선이 배 뒤에서 대변을 보는데 뒤에 오는 배가 보니까 고기가 막 몰려 내려가는 것이었다. 도선은 배를 태워준 보답으로 천양최씨의 묘자리를 잡아 주면서 이 길(이포리 길)에 말 굴레소리(차 지나가는 소리)가 나면 이곳을 떠나라고 일러 주었다. 그 뒤로 최씨네는 잘 살게 되었고, 지금은 천양최씨가 다 떠나고 한 가족만이 남아 있다.(장석환, 73세, 이포리, 1993.1.10 조사)

30) 이포2리의 세시풍속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간행한 《경기도세시풍속》에 수록된 조사자료를 보충한 것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경기도세시풍속》, 2001, pp. 808~822

• 무학대사 설화(1)

옛날에 무학대사가 배를 타고 오는데 뱃사람이 그가 거지인 줄 알고 고기를 잡아 자기네는 좋은 것을 먹고 무학대사에게는 대가리와 썩지만 주었다. 무학대사가 뒤(변)를 본다고 하였는데 (대변이)나오는 것이 모두 고기가 나왔다. 배 주인이 그제야 잘못했다고 빌었다. 천양최씨에게 말굽소리가 나면 이곳을 떠나라고 했는데 나간(떠난) 사람은 모두 잘 되었다. 무학대사가 왔다갔다하는 표시로 꽃은 나무는 잣나무이다. 그런 다음 신록사 터를 잡아 주었다.(상쇠 문경남, 86세, 외평리, 1996.5.12 조사)

• 무학대사 설화(2)

천양최씨가 이포에 터를 잡으려고 서울에서 배를 타고 오는데 무학대사가 타지에서 같이 오게 되었다. 무학대사는 천양최씨에게 산자리(묘자리)를 잡아 주면서 타지방으로 나가야 잘 산다 하여 모두 잘 되고 지금 한 집만 있다.(이중선, 79세, 이포1리, 1996.5.12 조사)

• 무학대사 설화(3)

무학대사가 이곳(천양)에 왔을 때 세 여인이 울고 있었다. 왜 우느냐고 물으니 “우리 집을 헐어서 집이 없어 운다.”고 하였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했더니 천양최씨였다. 그 묘를 무학대사가 잡아주었는데 말굽소리가 나면(발전이 되면) 이곳을 뜨라고 했다. 그 신이 느티나무에 운신하고 있었는데 그 나무를 천양 최씨가 때서 집이 없어졌다고 한다.(송희준, 75세, 경노당 회장, 1988.7.9 조사)

5) 양평군 양서면 대심2리의 민속

■ 마을 개관

양평군 양서면 대심2리는 ‘상심리’라고도 하는데 그곳에는 상심나무가 있다.

과거에 상심리에는 농토가 별로 없고 집집마다 배가 있었다. 고기잡이는 하지 않았고, 배에 나무를 싣고 가거나 새우젓, 소금 등을 받아다가 팔았다. 원주, 문막 쪽으로 다니기도 하였다. 새우젓, 소금 등은 주로 독섬에서 받아다가 홍천 쪽에 가서 팔았고, 나무는 독섬과 광나루에 가서 팔았다. 장작은 동나무(소나무 가지 친 것을 묶은 것을 동나무 단이라고 함.) 배에 싣고 가서 팔았는데 홍천, 인제 등지에서 나무를 해다 팔았

다. 6·25 이후 중공군이 들어온 뒤 배가 줄어들고 또 차가 생긴 이후 배가 사라졌다.

양평군 양서면 대심2리는 6·25 전에는 50호 정도이고 아랫마을인 대심1리 한여울 마을도 50호 정도였다. 지금은 토박이가 10호도 안 된다. 성씨 배판은 각성바지이며, 성씨 중 김씨네는 임금의 둘째사위인 김참판의 후손으로 인근에 땅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는 후손들이 떠나고 없다.



상심마을

대심2리는, 즉 상심리는 6·25 전부터 기독교 신자가 많다. 이 마을의 상심교회는 그 역사가 140년 이상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향으로 민속이 일찍 사라져 현재는 전하는 민속이 거의 없다. 심지어 농악도 없다고 한다.

양서면 대심리(현 2리)에서는 과거에 양평장과 양수리장을 보았다. 양평장은 3, 8일 장으로 대심리에서 20리였고, 양수리장은 15리였는데 양평장이 제일 컸다.

■ 나루와 생활

대심2리에 있는 상심나루를 중심으로 올라가는 길의 나루를 살펴 보면, 상심나루→한여울(대심1리, 대심2리의 아랫동네)→수청리→점단내→마재(두물머리와 내왕)→숙마구미(광주댐 막은 곳 위)→덕소(팔당댐)→밌나루→광나루→독섬→한강→마포→염창(웅기가 많았음.)나루가 있고, 내려가는 뱃길은 다루레기(옥천면)→양평(큰 나루)→이포(큰 나루)→여주 등이 있다. 때로는 문막까지 갔다고 한다.

상심마을 사람들은 서우에서 소금, 새우젓을 가지고 가서 팔아 곡식을 바꾸어 장마가 지면 내려왔다. 봄에 가서 장마가 지면 내려왔는데 기간은 몇 달씩 걸리기도 하였다. 영월 쪽은 때로 엮어 나무를 팔러 갔고, 이 때(뗏목)를 광나루에서 풀었는데 그곳에는 큰 종이공장이 있기 때문이었다.

여정은 대심리 상심나루에서 염창, 독섬, 광나루까지는 대개 왕복 일주일이 걸리는데, 순풍이 불면 하루만에 가기도 한다. 주로 독섬까지 많이 왕래하였고, 염창에는 웅기를 만들기 때문에 술가지를 많이 해서 가지고 갔다. 염창까지 바람이 좋으면 올 때 하루가 걸리고, 갈 때는 바람에 따라 3?4일 걸렸다. 올 때는 짐을 비우고 빈 배로 오기 때문에 하루만에 올 수도 있는 것이다.

배에 싣고 가서 파는 물건은 쪽고리와 오이썰 등이다. 쪽고리는 나무 장작 한 단으로

4개씩 하나로 묶은 것이다. 오이썰은 말죽거리에 오이가 많이 생산되어 잡목으로 썰을 만들어 팔았다. 토마토썰도 팔았다. 올 때는 예전에는 소금 등을 사서 싣고 왔지만 이 마을 제보자 최옥현씨 때는 소금이 있었기 때문에 빈 배로 오는 때가 많았다고 한다.

배 한 척의 크기는 기차 한 고(庫)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대략 30m 정도 되었다. 배는 3인이 다니는 세손배, 둘이 다니는 두손배, 혼자 다니는 외손배가 있다.

뱃일은 정월 보름께면 얼음이 녹기 시작하므로 2월 그믐께 뱃일을 시작했다. 옛날에는 강에 얼음이 석 자씩이나 얼었다.

■ 어로생활

남한강에 서식하는 물고기는 그 종류가 많았다. 예를 들면 잉어, 붕어, 쏘가리, 뱀장어 등이 많다. 복은 없었는데 팔당댐 때문에 복이 못 올라오기 때문이다.

남한강의 어업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3월 : 날씨가 추워 어로행위를 하지 않음.
- 3~4, 5월 : 모래무지, 참마지, 눈치, 잉어(잉어는 5월에 산란기라 못 잡게 함.)
- 6~7월 : 붕어
- 8월 : 동자게(메기 비슷한 노란색의 고기), 메기, 쏘가리
- 9~10월 : 눈치
- 11월 : 잉어(약간)
- 12월 : 날씨가 추워져 고기를 잡지 않음.

그 외 뱀장어는 여름에 주낙낚시로 잡음.

댐이 생긴 뒤 옛날처럼 얼음이 두껍게 얼지 않고 얇게 얼어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는다. 댐을 막기 전에는 고기가 많았고 맛도 좋았다. 물이 흘러가야 하는데 담수가 되어 고기 맛이 없어졌다고 한다, 산이 험려 토사가 많이 쌓여 강이 메꾸어지게 되어 그런 것이다. 10년 전 양평군어민회에서 치어를 강에 풀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또 예전에는 강물을 떠다 독에 두면 2~3일이 지나도 장구벌레가 생기지 않았는데 지금은 오염이 많이 되었다.

■ 민간신앙

• 뱃고사 : 정월 보름께 새벽에 배에서 뱃고사를 지냈다. 제물은 팔시루떡, 복어, 막걸리 등이며 고사상을 차려 놓고 절을 한 뒤 막걸리를 배 주위에 뿌린다.

• 어로금기 : 안개 낀 날에는 배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

■ 시가

• 노래집 : 대심2리 마을회관에는 노래 가사를 필사한 《노래집》이 소장되어 있다. 이 가사집은 찬송가와 대중가요, 동요 등의 노랫말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글쓴이는 김종한(80) 장로라고 한다. 그 중 관심을 끄는 노랫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1. 예수님 예수님 우리구주 예수님

날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하나님 크신사랑 변치않는 그사랑
예수님 한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2. 예수님 예수님 우리구주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모든병을 고쳐주마 주 말씀하셨네
예수님 한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3. 예수님 예수님 우리구주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우리네 인생살이 힘이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한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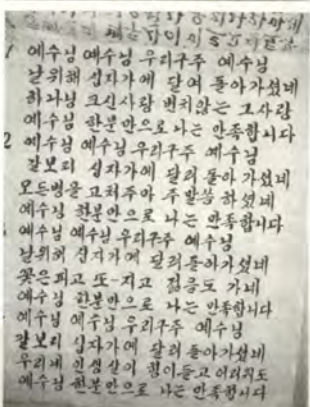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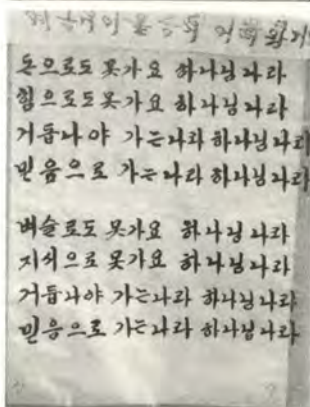
〈사례 2〉

1. 세상만사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높은집 문전옥답도
우리한번죽으면 일장의춘몽

2. 인생백년산대도 슬픈탄식뿐

우리생명무언가 운무로구나
유헛됨은그림자 지남갔으니
부생낭사헛되고 또헛되구나



3. 홍안소년미인들아 자랑치말고
영웅호걸열사들아 뽐내지마라
유수같은세월은 널재촉하고
저정막한공동묘지 널기다린다
4. 요단강물거스릴 용사업으며
서산락일지는해 막을자있나
하루가고이틀가 홍안이늪어
슬프도다죽는길 뉘막을소냐

위의 사례에서 이들 노래는 고풍스런 가사체나 창가체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는 노래로서 기독교적 내용을 포교하고 있다.

6) 양평군 양서면 양수5리의 민속

■ 마을 개관

양수리(兩水里)는 ‘두물머리’의 한자어로 남한강과 북한강의 두 물이 합쳐지는 곳이라는 뜻인데 예전의 두물머리는 별도로 있었다. 두물머리 나루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원래의 두물머리이며 현재 양수5리에 속한다. 두물머리는 과거에 약자로 ‘두머리’라고 하였다. 현재 양수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돌터미’라고 하며 예전에 그곳에는 몇 가구밖에 살지 않았다

두물머리나루터는 양서면 양수리 두물머리마을에서 강 건너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귀실마을로 건너가던 나루터이자 남한강 수운의 하항(河港)이었다.

양수리는 전체가 5개리로 대략 700세대 정도이다. 주민들은 대개 외지인들이 많아 토박이는 10가구도 채 안 된다. 두물머리 일대는 남한강의 기항지인 동시에 육로상의 교통의 요지로, 용문에서 두물머리까지 40리, 홍천에서는 80리 길로 아침에 출발하여 이곳에 도착하면 해가 넘어갔다. 그래서 이곳은 하루씩 묵어가는 곳이어서 예전에 기생이 많았다.



두물머리 산책로

성씨 배판으로 '두머리'에는 강릉최씨네가 많이 살았고, '돌터미'에는 손씨네가 많이 거주하였다. 1972년도 초반까지 40여 가구가 있었는데 현재 '두머리'만 22가구이다.

1970년대 두머리가 40여 가구일 때 이 동네사람들은 거의 뱃사람이었다. 당시 큰 돛단배(거룻배)를 가진 집이 7~8집 있었는데 이들 배가 3인용 또는 2인용 배이기 때문에 이 동네사람이 거의 뱃일에 종사한 셈이다. 그러다가 1972년 당시 장마에 집이 떠 내려가고 1973년 팔당댐 완공 후 별판이 침수되면서 하천부지로 수용되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은 원주민들은 거의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 대신 서울 등 외지인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두물머리는 거의 외지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주민은 3가구 정도이다.

생업으로 과거에는 보리, 조 농사를 지었고, 황포돛단배로 뿔감이나 물자를 실어 나르는 일을 하였다. 두머리 강 건너 귀여리에는 참외, 수박 등 밭작물을 재배하였는데 이를 실어다가 양수리에 내다 팔았다. 또 두물머리에는 산이 없으므로 귀여리에서 나무를 해왔다. 1960년대는 밭농사로 김장채소를 심었는데 팔당댐 완공 후 별판이 침수되어 하천부지로 수용되었다. 현재 농사는 거의 없고 외지인 몇 가구가 농사를 짓는 정도이다.

현재 두물머리 주변에는 마을 수호신인 도당할아버지 신목을 중심으로 두물머리나루터가 관광지화 되어 있다. 양수리 세미원과 두물머리 주변에 29,000평 규모로 조성된 '양평 연꽃단지', 두물머리 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강마을 특유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도당할아버지 신목



두물머리 나루터 표지석

■ 나루와 생활

두물머리나루는 과거에 남한강 수운의 마지막 정착지로서 크게 번창했던 곳이다. 원래의 위치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쪽자도(떠들어진 섬이라고 함) 부근에 있었다. 현재 이곳은 길이 막혀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두물머리나루는 주변의 산판에서 생산된 땔감을 중심으로 운반하였다. 예전에 땔목, 화목은 겨울철에 해놓는데 겨울이라 강물이 적어 배가 내려오기 힘들므로 조금씩 내려오다가 목계나 그 밑에 와서 대놓는다. 그러다가 여름 장마로 물이 풍부해지면 화목을 싣고 내려온다. 장작은 쪽고리라 하여 4개 또는, 6개, 8개씩 묶어 한 아름씩 만들어 배에 싣고 독섬이나 마포로 내려가서 목상들에게 팔았다.

강원도 영월과 춘천 쪽에서 내려오는 배는 능내 정약용 묘소 뒤쪽 두명소 쪽에 정박하였고 남한강 쪽은 두물머리 나루터에 정박하였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이면 배가 출발하였는데, 이는 서울로 내려가는 배 중에는 당시 불법으로 화목(火木)을 싣고 가는 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허가받은 배의 화목에는 인두로 도장을 찍어서 표시하였다. 그런데 미사리 쪽, 팔당대교 밑 당쟁이가 수심이 얕아 간신히 배가 하나 빠져 나갈 정도이므로 불법인 배는 해가 있을 때 나가 덕소에 배를 대놓고 밤에 가고, 허가받은 배는 낮에 일찍 독섬으로 갔다. 상인의 요청에 따라 마포, 행주까지 갔다. 올라올 때 배에는 마포에서 새우젓을 싣고 왔다.

돛을 이용하는 배는 서울에서 서풍이 불 때 떠났다. 짐을 많이 실은 때는 가마니를 대고 싣고 가다가 파도가 치면 가마니를 펼쳐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였다. 독섬에서 배를 타고 올라올 때 마파람이 불어 바람이 좋으면 두물머리까지 대략 5~6시간이 걸

린다. 가다보면 여울이 있는데 여울에서는 배를 끌고 올라와야 했다.

남한강에서 물자를 운송하는 배의 종류는 대체로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곧, 3인 1조의 세손거루, 2인 1조의 두손거루, 1인배의 엇거루가 있다. 세손거루와 두손거루는 장사 거룻배로 모두 돛을 단 배이다. 세손거루는 큰 돛단배로 GMC 자동차 2대 이상 실을 수 있는 규모이고, 두손거루는 물자를 많이 실을 때 배를 붙여서(연결하여) 싣는다. 엇거루는 돛을 안 단 배로 개인용 배이다 장마 때 물에 떠내려오는 나무를 건져내고, 심부름을 하거나 돛단배의 하역 역할을 하였다. 나룻배, 곧 도선배는 엇거루와 비슷하며 말, 소 등을 실어 나르며 농사를 지을 때 이용하였다.

나룻배는 귀여리와 내왕시 이용하였다. 두물머리에는 산이 없으므로 나룻배를 이용하여 귀여리에 나무를 하러 갔고, 귀여리에서는 참외, 수박 등 발작물을 양수리장에 내다 팔 때 이용하였다. 나룻배의 운영은 두물머리 사람들이 모두 뱃사람이므로 돌아가며 하다가 1980년대에는 허가를 받아 운영하였다. 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광복 이전에는 추곡을 받았는데 봄에는 보리 한 말, 가을 추수 때는 벼 한 말을 받았다. 그러다가 1995년 이전에는 250원에서 400원까지 받았다.

1965년경까지 짐 실은 돛단배가 다녔고, 도선배는 1995년까지 있었다. 양수5리 이장 이규현이 1995년 나룻배(도선업)를 그만 두면서 1998년, 99년경 우경선의 제작으로 황포돛단배를 재현하였다.

■ 어로생활

• 어촌계

두물머리마을의 어촌계원은 18명으로 현재 양서면 어촌계에 소속되어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허가권을 가진 사람만이 어로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구역에서는 모터를 단 배를 쓸 수 없고 무동력으로 노를 저어 어로작업을 한다. 원래 양평어촌계 소속이었는데 따로 나와 허가권만 가지고 있다가 1985년경 상수원보호구역이 별도로 갈라지면서 양서면 어촌계가 구성된 것이다. 어촌계의 회비는 정기적으로 내지는 않고 필요할 때 걷는다.

• 어로작업

1973년 팔당댐이 건설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강을 터전으로 한 다양한 낚시 풍속이 있었다. 즉, 탬질(첼낚)와 물이계, 물판 등이 그것이다.

전통 낚시인 '탬질' 또는 '첼낚'은 견지낚시로, 견지는 얼레와 같은 모양으로 아낙들

이 실을 감을 때 사용하던 도구로 이를 낚싯대로 이용한 것이다. 견지낚싯대는 요즘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져 나오지만 예전에는 대나무로 만들었고, 낚싯줄은 고래심줄과 칠줄을 사용했으며, 손잡이는 요즘 나오는 것보다 짧았다. 낚싯줄에 거는 바늘도 세 가닥으로 된 삼봉과 한 가닥으로 된 외봉 등 다양하다.

견지낚시는 사시사철 가능하고 낚시 형태도 다양해서 바위에 앉아 하기도 하고, 낚시질을 하기 위하여 만든 배인 '낚거루'를 타고 강에 나가서도 하지만, 직접 물속에 뛰어들어가 팔팔 뛰는 강고기를 낚아내는 여울 견지가 가장 재미있었다고 한다. 바위 밑에 있는 고기는 물에 들어가 작살로 찍어 올리기도 했다. 양평에서 많이 잡히는 고기는 쏘가리, 눈치, 피라미, 통가리, 살치 등이 있었다.

물이계는 겨울철 낚시풍속으로 5~15명의 계원으로 구성되며 우두머리를 '영좌'라 한다. 물이는 밤에 하는데, 저녁 7, 8시경 영좌의 지시를 받은 구성원들이 '쓰레'라는 도구로 사방에 얼음을 뚫고 그물을 뗏가지로 밀어넣고 반대편에서 끌어 그물망을 쳐놓으면, 물이꾼들이 커다란 '물이토막'에 새끼를 묶어 네 명이 얼음을 두드리며 고기를 몰아 그물망에 밀어넣어 건져 올리는 작업을 밤새 반복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어로작업은 무조건 닥치는 대로 고기를 잡아올리는 작업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규칙을 지키는 절제된 작업이었고, 낚시터도 몇몇 곳을 지정하여 최대한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진행되었다.

물판은 강물을 1000~2000평 정도 그물로 둘러쳐서 막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낚시나 작살질을 하게 하는 것이다. 주로 물판에서는 잉어를 많이 잡았는데 낚시꾼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주인이 판결을 내려주곤 하였다. 가령, 낚시에 걸린 물고기가 작살에 찢려 동시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면 서로 자기 것이라 싸움이 나곤 했는데, 그대는 낚시꾼의 것이라고 판결을 내려준다. 작살에 이미 찢린 고기가 낚시바늘을 물수는 없기 때문이다. 양평 강변지역의 물판은 1960년 전후 하여 사라졌다.³¹⁾

대개 강의 고기는 음력 보름을 기점으로 달이 밝을 때는 고기가 안 나온다. 날이 따뜻한 절기에는 고기가 위로 뜨고 추운 계절에는 고기가 가라앉는다. 그러므로 고기가 얇게 뜰 때 스티로폼을 달아서 뜰그물을 사용한다.

어로 현황을 보면, 근래에 불룩이, 베쓰 등 외국종을 강에 넣은 뒤 이들 고기들이 다른 물고기들을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또 번식력도 강하기 때문에 토종 고기들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이들 외래종을 1kg 5000원씩 수매하고 있다.

어종 고갈의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팔당댐으로 인한 것으로 장어 등과 같은 물고기가 사라졌다. 또 배가 다녀야 물을 흔들어주기 때문에 물이 살아나 수질이 보존되는데

31) 이정재, <남한강 수운의 전통과 민속·장터와 별신판을 중심으로>(2002년도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 인문사회분야), pp.17~18

그렇지 못하다. 팔당댐(1973) 건설 전만 해도 이곳 사람들은 강물을 길어 먹고 살 정도로 물이 깨끗하였다.

■ 장시

두물머리에서는 장은 양수리장을 본다. 양수리장은 5일장으로 매달 1일과 6일에 장이 선다. 인근의 장으로는 광주 분원장과 마석장이 크다. 양수리장과 분원장, 마석장, 홍천장 등은 우시장이 크게 섰다. 두물머리 마을에서는 양수리장과 분원장을 보았는데 주로 양수리장을 이용하였다.

■ 향토음식

• 해장떡

과거 뱃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 두물머리나루에는 해장떡이 유명하였다. 해장떡은 인절미의 하나로 보통 떡보다는 두툼하고 넓적하다. 해장떡을 만드는 방법은 먼저 팔을 미지근한 물에 담가 껍질을 벗겨낸다. 그 다음 거피한 팔을 살짝 삶아낸 뒤 찐다. 이렇게 거피하여 찐 팔을 인절미 위에 붙인 것으로 된장국에 넣어 먹는다. 이를 '해장떡'이라고 하여 저녁 때도 먹었지만 주로 아침, 새벽에 많이 먹었다. 해장떡은 시장한 뱃사람들에게는 든든한 요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전에 두물머리나루 길목에 해장떡집이 있었으며 근래에 이를 재현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해장떡은 목계나루에서도 조사된 바 있어 뱃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특별한 향토음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 민간신앙

• 도당제

도당제는 마을의 수호신인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에게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동제이다.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의 신체는 오래된 느티나무이다. 도당할아버지 나무는 현재 그대로 있으나 도당할머니 나무는 사라지고 없다. 도당할아버지 나무 밑에는 돌로 된 제단이 놓여 있다. 원래는 나무로 만든 제상이었는데 1972년 장마 때 제상이 떠 내려가게 되자 새마을사업 때 도당할아버지 신목이 있는 곳에 축대를 쌓고 넓적한 돌을 을 맞대어 제단을 만든 것이다.

두물머리 도당제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8월 그믐날 두물머리에 사는 아낙네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 남자들은 참석하지

않는데, 여자들의 정도 부정을 가리기 위한 회의이기 때문이다. 이날 부정이 없는 집을 가려 당주를 정하는데 당주는 남자이다. 이곳의 도당제는 제관이 별도로 없고 당주 혼자서 모든 일을 다한다. 당주로 정해진 집에서는 무속인에게 가서 택일을 한다. 택일한 후 동네에 해산할 사람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보낸다. 현재 도당제는 9월 초이틀 날로 날을 정해서 도당제를 지내고 있다. 제일을 고정시킨 것은 이곳에 오는 관광객들이 많아 부정을 가릴 수 없기 때문이다.

당주는 9월 초하룻날부터 새우젓 등 비린 음식을 먹지 않고, 부부관계를 금하고, 강물에 가서 찬물에 목욕제한다. 그리고 이날 당주집과 도당할아버지 나무에 금줄을 친다.

제비는 당주가 정해진 뒤 마을기금으로 충당하거나 부족할 때는 동네의 각 집에서 돈이나 쌀을 추렴한다. 그런데 부정이 있는 집에서는 제비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초상을 치른 집에서는 당제에 못 가며 제가 끝난 뒤 그 음식을 먹는다.

술은 당주가 도당할아버지 나무 옆에 세워진 돌 사이에 '조래 잡는다'고 하여 조그만 항아리에 밥을 식혜식으로 물을 자작자작하게 해서 넣고 그 위에 주저리를 씌워놓는다. 이 술은 당제날 걸러서 제주로 쓴다.

제물로 예전에는 소를 잡았는데 지금은 소머리를 쓴다. 다른 곳과 달리 돼지는 쓰지 않는다. 당제 때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 음식은 같은 제상에 차리되, 좌우로 구분하여 왼쪽에는 도당할아버지, 오른쪽에는 도당할머니 제수를 각각 따로 놓는다. 즉, 같은 제수를 2개씩 놓은 것이다. 제물은 소머리, 찰시루떡, 소고기적, 팔·콩·조, 통후추, 갈랍, 소고기적, 숙주나물, 북어찜, 사과·대추·감·밤·배 등이다. 숙주나물은 익히고, 후추·조·콩·팥은 생으로 그릇에 담아 창호지로 싸서 놓고, 밤·대추·감은 생것으로 쓴다. 찰시루떡 위에는 통북어를 실로 묶어서 놓고 그 옆에 정한수도 놓는다. 소머리와 시루떡은 한 개씩만 놓는다.

당제는 밤 11시경에 당주 혼자 지내는데 당주 부부가 참석한다. 제복은 원래 흰 두루마기를 입고 지냈으나 요즘은 도포를 입고 지낸다. 당제를 지내고 나면 대략 1시경이 된다. 제를 지낸 뒤에는 소머리의 볼뼈를 빼어 통북어와 함께 실로 묶고 조래 잡았던 벚짚(주저리)을 같이 묶어서 도당할아버지 잡수시라고 나뭇가지에 묶어 놓는다. 그런 다음 새벽 2시를 전후하여 노구메를 집에서 지어와 당주가 진메를 올리는 제사를 지낸다.

당제가 모두 끝나면 떡·과일 등 제물을 조금씩 종이에 싸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줄에게 나누어 준다. 제를 지낸 뒤 도당할아버지 나무 있는 곳에서 소머리국을 끓여 동네 주민들이 함께 먹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있는 집에는 소머리국을 갖다 드린다.

과거에는 도당굿을 하면서 당제를 지냈으나 도당굿은 광복 이전에 전승이 끊어졌다.

• 도당나무와 관련된 금기

①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의 신체는 오래된 느티나무 신목이다. 도당할아버지 나무는 현재 그대로 있으나 도당할머니 나무는 사라지고 없다.

과거에 도당할머니 신목은 장정 7인이 팔을 벌려 두를 정도로 컸으며, 혹이 크게 튀어나오고 속이 비어 있는 나무였다. 그래서 아이들이 밤에 바람이 불어 추우면 그 속에 들어가 있곤 하였다. 1966년경 팔당댐을 막는 바람에 침수가 되자 이 나무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잘라서 팔아버렸다. 그런데 그해 도당할머니 나무를 벤 사람과 중개 붙인 사람, 나무를 산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한다.

② 두물머리에서는 도당할아버지 나무를 신성하게 여겨 초상이 났을 때 상여는 도당할아버지 나무 위로는 지나가지 않고 도당할아버지 나무 밑으로 지나간다.

옛날에 선비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도당할아버지 나무 앞을 지나갈 때는 말에서 내려서 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말의 말굽이 붙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때는 소를 잡아서 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③ 도당나무는 매우 크고 무성한 고목이어서 웬만한 소나기가 와도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또 아이들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 새알을 갖고 줄기로 내려와도 나무가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 그래서 두물머리 아이들은 이곳을 놀이터로 자주 이용하고 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놀면서 신성한 도당나무를 함부로 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도당나무에 오줌 누면 고추가 비뚤어진다.’고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곤 하였다.

④ 도당나무는 가랑잎 하나라도 굵어다 때지 않는다. 도당나무의 가랑잎은 모았다가 당제 지낼 때 황덕불을 해놓는다.

⑤ 두물머리에는 뱀이 거의 없는데, 간혹 장마 때 떠내려 오는 적은 있었다.

어느 해인가 댐(팔당댐)이 건설되기 전 1960년대 이전에는 교통이 불편하여 당시 기차로 통행하던 시절이었다. 제보자(이규현)가 초등학교 여름 방학 때였는데, 기독교인들이 느티나무(도당나무) 밑에 가운데가 구멍 뚫린 몽골텐트를 쳤다. 텐트 안에서는 교인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뛰고 시끌벅적하였다. 그런데 굵은 뱀이 텐트 위에 꼬아리를 틀고 있었다. 이를 본 교인들이 놀라서 아우성을 치고 모두 도망간 것을 본 일이 있다.

⑥ 도당할머니 나무 있는 곳에서는 개를 못 잡게 했는데 서울 사람들이 그곳에서 개를 잡아먹었다. 제보자(이규현)가 어렸을 때 개고기나 얻어먹을까 하고 그곳에 갔다. 그런데 개고기를 먹은 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서울로 이송하였는데 죽었다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 용왕고사

배를 진수할 때 용왕신에게 드리는 고사는 다음과 같다.

〈용왕고사〉

유세차(떼사공, 하주) 감소고우
불계부정 택일하여 흥동백서 좌포우혜
외적내통 진설하고 소지발원 하나이다
동해갑을 용왕신 남방병정 용왕신
서방경신 용왕신 북방임계 용왕신
소례로 드린정성 대례로 받으시고
여울여울 굽이 지나 무사하강
용왕신께 비나이다

• 모탕고사

모탕고사는 배를 지을 때 드리는 고사이다.

〈모탕고사〉

(성씨) 편수가 배를 지을려고
모탕을 놓고 고사를 드립니다.
차린 것은 적사오나 소례를 대례로 받으시고
일이 끝날 때까지 무사이 되게 하옵소서
이 터전에 토지지신께 비나이다³²⁾

■ 세시풍속

1월

• 설

[설날]

설날 아침에는 떡국차례를 지낸 뒤 세배를 하고 아침식사를 한 뒤 성묘를 간다.

• 차례 · 차례상 : 설날의 차례는 떡국차례이다. 차례상의 음식은 제사음식과 거의 비

슷한데 떡국만 올리고 메는 올리지 않는다.

[초사흔날]

• 뱃고사 : 정월 초사흔날 뱃일을 하는 집에서는 팔시루떡을 하여 북어와 실을 놓고, 막걸리와 함께 배에 차려놓고 절을 하고 기원한다. 축원이 끝나면 떡을 조금씩 떼어서 노 젓는 곳과 돛대 있는 곳, 배 바닥 등에 떼어서 버린다. 술도 배의 군데군데 붓는다. 배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뱃고사를 지낸다.

[정초]

• 지신밟기 : 정초부터 보름까지 동네 각 집을 돌아다니며 지신밟기를 하였다. 현재 정초 농악은 하지 않는다.

[열나흔날]

• 보름밥 훑쳐먹기 : 보름 전날 밤새 잠을 안 자고 화투놀이 등을 하면서 놀다가 밤에 남의 집에 가서 밥을 훑쳐 먹는다. 그래서 집집마다 일부로 밥술에 밥을 담아놓았다.

[보름날]

• 어부심 : 정월 보름날 저녁에 바가지에 오곡밥과 시래기, 고사리 등 보름나물을 한 데 버무려서 강에 갖다가 끼었는데 이를 어부심이라 한다. 또 백설기를 찌서 시루째 강에 가지고 가서 빌고 떡은 떼어 던져놓기도 한다.

• 아홉번 먹고 아홉번 나무하기 : 이날은 무엇이든 아홉 번 해야 좋다고 하여 밥을 아홉 번 먹고 나무도 아홉 번 한다고 한다.

• 옷놀이 : 예전에는 마을 단위로 보름날 옷놀이를 하였는데, 현재도 마을단위로 척사대회를 한다. 양수리 돌담회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척사대회를 하는데 별도의 입장권은 없고 경품으로 전자제품을 준다. 옷은 장작옷을 깎아서 만든다.

• 액막이 : 조짚으로 화를 만들어 나이 수만큼 묶어 보름달이 뜨기 직전에 불을 붙이고 도당할아버지나무(느티나무) 뒤에서 액막이를 한다. 액막이는 남녀노소 모두 하는데 노인들은 손주들을 데리고 “달님 달님 절합니다. 달님 달님 절합니다.……” 하면서 액막이를 한다.

• 깡통돌리기 : 조짚에 불을 붙이고 액막이를 한 뒤 극성맞은 애들은 깡통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그 속에 나무를 잘게 잘라서 불을 붙이고 빙글빙글 돌리다가 나중에는 불쌈을 한다.

• 쥐불놓기 : 묵은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것을 쥐불 놓는다고 하는데 이는 해충을 죽이기 위한 것이다.

• 딱충놀이 : 개나리가 지나 북나무를 한 뼘 길이로 자르고 속을 뚫어 그곳에 딱 맞게 깎아 밀착되게 하여 쭈셔서 길이 반질반질 나게 한다. 그리고 공책 종이를 씹어 뭉쳐 지면 구멍 한 쪽을 묶어 또 한 쪽을 씹어 대고 한 쪽을 밀면 “땅!” 하고 나간다. 종이를 가지고 다니며 씹으면서 총알을 만들어 얼굴에도 쏘곤 하면서 놀았다.

• 그밖에 제기차기와 자치기도 하였다.

2월 · 3월

2월과 3월에는 조사된 자료가 없다.

4월

[초파일]

초파일날 불교를 믿는 사람은 절에 간다. 초파일부터 단오까지는 행사가 많았다. 이때부터 농악대가 동네 각 집을 돌아다니며 지신밟기를 하였다.

5월

[단오]

과거에 단오는 큰 명절로 쇠었다. 이날 도당에서 도당굿을 크게 하였고, 씨름을 하고 그네를 뛰었다.

• 씨름 : 단옷날 두물머리에 그네를 매어 뛰고, 씨름판은 양수리시장에서 열렸다.

• 그네 : 1960년대 초반에는 청년들이 새끼를 겹겹이 꼬아 엮어 도당할머니 나무(현재 없음)에 매어 주었는데, 이 나무는 언덕으로 뻗어나가 있었으며 그 밑으로는 비탈길이 있었다. 그래서 그네를 뛰면 낭떠러지 강쪽으로 왔다갔다하면서 전율을 느끼면서도 재미가 있었다. 그네는 남녀노소 모두 뛰었다.

• 지신밟기 : 4월 초파일부터 시작하여 단오 때까지 농악대가 집집마다 다니며 농사가 잘되게 해달라고 지신밟기를 하였다. 주인집에서는 답례로 쌀 등을 주었다.

6월

6월에는 조사된 자료가 없다.

7월

[백중]

• 씨름 : 백중에는 양수리에 백중장이 크게 섰으며 씨름판이 크게 벌어졌다. 씨름은 아이들이 거루는 애기씨름, 청소년의 중씨름, 어른들의 상씨름으로 구분하였고, 각처에서 씨름꾼들이 모여들었다. 승부는 3판 양승제로 이긴 사람이 계속 올라가는 토너먼트식의 승자진출전으로 하였다. 이곳 씨름의 형태는 왼씨름으로 살바를 손에 잡고 목을 상대방의 왼쪽에 대고 하였다. 장원에게는 상품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주었고, 그밖에 광목 등이 있었다.

• 농악 : 백중장 때 양수리 돌더미에서 농악대를 꾸며 놀았다.

[월내]

• 서리 : 두물머리에서는 광주 쪽에 참외와 수박이 많기 때문에 배를 타고 건너가 서리를 하곤 하였다. 한 사람은 배를 대고 기다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곳에 백사장이 있어 옷을 벗고 팬티만 입고 기어가서 수박을 담요나 포대기로 싸서 배에 싣고 왔다. 서리한 참외와 수박은 도당할아버지 느티나무 있는 곳에서 먹고 놀았다. 또 광주 쪽에 배 과수원이 많아 배서리를 많이 하였다. 날이 좋은 날에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안 가고 주로 비 많이 오는 날에 하였는데, 이런 날에는 주인이 안 나오기 때문이다. 배 2~3 자루를 서리해서 조발에 감췄다가 먹었으며, 주인에게 들켰을 때는 두물머리로 오지 않고 다른 동네로 갔다가 몰래 들어오기도 하였다.

8월

[추석]

• 송편차레 : 추석에는 송편차레라 하여 차레상에 송편을 올리고 메는 올리지 않는다. 차레를 지내고 아침식사를 한 뒤 성묘를 한다.

[그믐날]

• 도당제 당주 선정 : 도당제는 마을의 수호신인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에게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동제이다. 이 당제의 당주를 뽑기 위한 회의를 8월 그믐날에 하는데 여기에는 아낙네들만이 참여한다. 남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여자들의 정도 부정을 가리기 위한 회의이기 때문이다. 이날 부정이 없는 집을 가려 당주를 정하는데 당주는 남자이다.

9월

[도당제]

• 도당제 : 8월 그믐날 도당제의 당주를 선정한 뒤 음력 9월 초이튿날 마을의 수호신인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에게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동제를 지낸다. 원래는 날을 받아 지냈으나 두물머리에 오는 관광객들이 많아 부정을 가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정화시킨 것이다.

제물로 예전에는 소를 잡았는데 지금은 소머리를 쓴다. 당제 때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 음식은 같은 제상에 차리되 같은 제수를 2개씩 장만하여 각각 진설한다. 당제는 밤 11시경에 당주 혼자 지내는데 당주 부부가 참석한다. 당제가 끝난 뒤 소머리국을 끓여 동네 주민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다.

과거에는 도당굿을 하면서 당제를 지냈으나 도당굿은 광복 이전에 전승이 끊어졌다.

9월

9월의 세시행사는 조사된 것이 없다.

10월

• 상달 고사 : 10월 상달에는 집집마다 고사떡을 해서 고사를 지낸다. 10월에 날을 받아 팔시루떡을 찌는데 안시루와 바깥시루 2개를 찐다. 안시루는 작은 것으로 하고 바깥시루는 큰 것으로 한다. 안시루는 집안 곳곳에 있다고 믿는 가신에게 바치는 시루이다. 떡 위에는 정화수를 한 대접 올려놓는다.

제일 먼저 안시루를 안방 아랫목에 놓고 조금 있다가 그 시루를 상에 받쳐서 대청, 부엌, 장독, 외양간 그리고 대문을 열고 도당을 향해서 느티나무 쪽으로 놓는 등 시루를 물려가면서 놓는다. 큰 시루, 곧 바깥시루의 떡은 잘라서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

큰 시루 하나만을 할 때는 접시에 따로 담아서 집안 곳곳에 놓았다가 한참 지나서 서너 군데 떼어 던져놓고 나머지는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 두물머리에서는 지금도 고사떡을 하는 집이 적잖이 있다.

11월

[동지]

• 동지팔죽 동지가 일찍 드는 때를 애동지라 하는데 이때는 팔죽을 쑤지 않고 주로 노동지에 팔죽을 쑤어 먹는다.

12월

[양력 1월 1일]

• 두물머리 해돋이 축제 : 2004년 양력 1월 1일 두물머리 마을에서 당산나무 기원제와 용왕제로 구성, 해돋이축제를 시작하였다. 이 축제는 3회까지 두물머리 마을에서 개최하다가 이후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제6회 해돋이축제를 개최한 바 있다.

7) 광주시 남종면 수청1리의 민속

■ 마을 개관

광주시 남종면 수청1리는 청탄마을과 개목마을 2개의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다. 청탄마을은 큰청탄과 작은청탄으로 나뉘는데 큰청탄은 수청1리, 작은청탄은 수청2리이다. 개목마을은 큰청탄마을에서 외마로 떨어져 있다. 청탄마을 강 건너는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반장리)로 도선배로 왕래한다.

‘청탄(靑灘)’은 ‘물푸레 여울’이라고 하는데 이는 곧, ‘물 푸른 여울’이란 뜻으로 푸

를 청(靑), 여울 탄(灘) 자가 합쳐져서 된 말이다. 개목마을은 한자어로 개 구(狗) 자, 목항(項) 자를 써서 구항동(狗項洞)으로 불린다. 개목마을에는 셋강이 있었고 돌다리를 놓고 대하섬을 건너다녔다. 그 안은 저수지 모양으로, 개 안의 목을 건너다닌다고 하여 물가 포(浦), 목 항(項) 자를 써서 ‘포항(浦項)’이라고도 한다. 개목마을 앞에 있는 대하섬은 행정구역상 양평군 강하면 운심2리에 속하고 큰청탄의 앞에 있는 거북섬은 대심리에 속한다.

큰청탄 마을은 70호 정도이나 실제 사는 집은 45가구 정도이다. 이 마을은 ‘엄씨터전’이라 하여 입향조는 엄씨이고, 그 다음이 독립운동가 여운형(呂運亨, 1886~1947) 집안인 함양여씨(咸陽呂氏)이며, 이어 경주 정씨가 많이 살았으나, 지금은 각성바지인데 강릉김씨가 많은 편이다. 이 마을은 토박이가 35가구일 정도로 많이 살고 있다. 구항동은 원주민이 몇 집 안 된다.



청탄마을 전경



청탄나루의 수청호



청탄나루의 도선배

큰청탄마을의 가구 수는 호수로는 70호이나 실제 거주하는 가구 수는 45가구 정도이다. 생업으로 6·25 전에 이 마을에는 3인용 큰배에서 뱃일을 하는 사람이 많았고 자기 배를 가진 사람도 서 너댓 집 있었다. 거룻배(황포돛배)는 6·25 이후에 사라지고 그 후에는 외동이(1인배)만 다녔다.

농사는 벼농사와 밭작물로 호밀농사를 지었는데, 6·25 때까지 호밀농사를 많이 지었다. 이곳은 갯바닥이라 호밀농사만이 잘 되었다. 호밀은 먹기도 하고 사료로도 사용하였다.

이 마을의 특징적인 것은 청탄나루의 수청호이다. 이 나루는 현재 살아있는 나루로서 동력선 나룻배가 강 건너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반장리)를 오가고 있다.

■ 나루와 생활

수청1리 큰청탄마을의 청탄나루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고 조그만 컨테이너 건물에 '수청호 선착장'이란 표지판이 걸려 있다. 청탄나루는 경기도권 남한강 일대에서 유일하게 나룻배가 운항되고 있는 곳이다. 나룻배는 '수청호'란 이름의 동력선으로 강 건너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반장리)의 도곡나루를 오가고 있다. 강 건너 반장리에서는 청탄마을로 이 배를 타고 성묘하러 오기도 한다. 강이 얼어붙는 겨울철에는 수청호의 운항을 중지한다. 배의 운임은 1000원인데 남종면 사람들은 무료로 탄다. 이 배는 도와 시에서 관리·운영한다.

청탄나루는 과거에 큰 나루였다고 한다. 청탄마을 사람들은 양평장이나 양수리장을 보러갈 때라든지 서울로 갈 때 나룻배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다. 장을 보러 갈 때는 청탄나루에서 나룻배를 타고 반장리에 가서 건거나 버스를 이용하였다. 또 서울에 갈 때도 배를 타고 반장리로 가서 걸어서 국수리로 이동하여 기차를 타고 갔다. 또한 양평, 옥천 사람들이 서울로 갈 때 청탄으로 배를 타고 와서 나분리고개를

거쳐 귀여리로 빠져서 소내를 지나 배알미, 개내(신장리)를 거쳐 광나루로 갔다. 서울에서 아침에 떠나면 오후 4시경 서울에 도착하였다고 한다.

예전에 장삿배는 개목마을 앞에 있는 대하섬에 배를 대고 숯, 장작, 화목 등을 실어 서울로 내려갔다. 땔나무는 강하면 항금리, 동오리, 성덕리, 운심리 등지에서 싣고 개목마을에 와서 장마 때 실었는데 이 나무는 대개 독섬에 가서 팔았다.

영월에서는 떼배와 거룻배에 숯을 싣고 서울로 내려가다가 청탄나루에서 쉬어갔다. 배가 내려오면 술배가 가서 배를 붙이고 술과 음식을 팔았다. 나루 부근에는 주막이 3집이나 있었다.

마포에서는 소금을 싣고 영월로 가서 팔을 교환하는 ‘바꾸미’를 하였다. 영월에서 장마질 때까지 몇 달 동안 기다렸다가 바꾼 팔은 독섬이나 마포에 가서 팔았다고 한다.

청탄나루와 관련된 일화로 이 마을의 토성 중의 하나인 함양여씨 집안의 몽양 여운형이 청탄나룻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전복되어 사람을 구해낸 일화가 《여운형 연설집》(삼천리, 1936.1 부록) 중 〈상승군평양 축구단(常勝軍平壤蹴球團)을 천진원정(天津遠征)에 보내면서 - 체육(體育)과 경기(競技)에 전한다.

내가 한번 청탄나루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전복되었을 때 나는 배운 수영으로 의복을 벗어버리고 뛰어들어가 세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내가 수영술이 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좋다하고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어 그랬지 만일 자기가 살겠다고 나를 붙잡았으면 나도 죽고 그도 죽었을 것입니다.”

■ 어로작업

고기잡이로는 줄낚이 있는데 주로 건너편 반쟁이(도곡리) 사람들이 많이 했다. 줄낚시는 낚싯대 없이 낚싯줄 끝에 낚싯바늘을 맨 채로 고기를 낚는 방법으로 낚시에 미끼를 꿰어 물 밑에 던져두거나 미끼 없이 낚아채기도 한다. 어종은 쏘가리, 눈치, 잉어, 메기 등이 있고 뱀장어는 드물게 나온다. 눈치는 물이 맑은 데서만 산다.

■ 장시

큰청탄마을에서는 예전에는 주로 양평장과 양수리장을 보았다. 대개 양수리장은 교통이 편하고 양평장은 규모가 컸다. 때로는 백중 때 분원장에 가서 씨름판을 구경하기도 했고, 국수리장에는 떡방아간이 있어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이용하기도 했다.

양평장은 8일과 15일 양수리장은 1일과 6일에 장이 선다. 장을 보러 갈 때는 청탄나루에서 배를 타고 강 건너 반장리(도곡리)로 가서 건너 버스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요즘은 교통이 좋아져 주로 퇴촌장(5일, 10일)을 본다.

■ 민간신앙

• 산신제

청탄마을에서는 격년으로 산신제를 봄이나 가을에 택일해서 지낸다. 주로 봄 2월경에 많이 지내며, 해악산 줄기 산의 중턱에 있는 산제당에서 지낸다. 제당은 별도의 건물이 없는 자연 제당으로 산신나무만이 있다. 산신나무는 오래된 소나무이다. 예전에는 현재의 소나무보다 더 굵은 소나무가 있었는데 노인들이 6·25 때 묻어 놓은 지뢰를 터트리려고 산에 불을 놓아 타버리고 말았다. 다행히 그 곁에 있던 나무가 자라 현재의 산신나무가 된 것이다.

산신제를 지내는 것은 동네가 평안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데에 목적이 있다. 만일 산신제를 지내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 등 동네 우환이 생기기 때문이다.

먼저 산신제를 지내기 전에 제관은 부정이 없는 집에서 생기복덕을 가려 3명을 뽑는다. 제관으로 선정되면 부부 간에 동품(동침)도 안하고 오줌을 눌 때도 거기에 손을 안 대고 막대기로 부추기는 등 금기를 지켰다.

제사비용은 이장이 맡아서 동네돈으로 하되 모자란 것은 각 집에서 추렴한다. 제물은 예전에는 돼지를 잡아서 지냈는데 점백이는 안 쓰고 새까만 암돼지만 썼다. 현재는 돼지머리를 사서 쓴다.

산신제를 지내는 시간은 저녁 7~8시경으로 제관 3명과 일꾼을 합해 모두 5~6명이 제물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간다. 제물은 돼지머리와 삼실과, 약주 등으로 간단히 차려 제를 지낸다.

산신제를 지낸 뒤에는 제물을 동네사람들과 나누어 먹는다. 고기를 꼬챙이에 꿰 꿔미를 각 집에 돌리고 외지에서 들어온 장사꾼에게도 한 꿔미를 주었다.

■ 세시풍속

1월

[설날]

• 떡국차레·차레상 : 설날 아침에 차레상에 떡국을 올리고 차레를 지내는데 이를 '떡국차레'라고 한다. 차레는 보통 아침 8시 전후하여 지낸다. 상차림은 집안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메(흰밥)는 놓지 않는다. 차레음식은 떡국을 비롯하여 북어포, 식혜, 조기, 소고기적이나 돼지고기적, 북어적, 동태전, 갈랍, 고기전, 나물(고사리·숙주·무·시금치·도라지), 과일(대추·밤·배·감·사과), 옥춘(동그랗게 만든 빨간 과

자), 산자, 다식, 약과 등으로 구성된다. 상차림은 좌포우혜, 동두서미, 조율시이 등의 예법을 따른다.

떡국에 만두는 집에 따라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한다. 차례상에 올리지 않는 음식으로는 콩나물, 장어·메기 등과 같은 비늘 없는 생선, 복숭아와 같은 털 난 과일 등이 있다.

떡국차례를 지낸 다음 세배를 하고 차례상으로 아침식사를 한 뒤 성묘를 간다. 성묘를 다녀온 뒤 한가해지면 옷놀이나 화투놀이를 한다.

[정초]

- 고사반 : 동네마다 농악이 있어 '농사천하지대본'이라 쓴 깃대를 들고 농악대들이 정초부터 보름까지 집집마다 다니며 고사반을 쳐준다. 농악대가 방문하면 있는 집에서는 쌀 한 말을 내놓는다. 앞마당 한복판에 고사반 상을 차려놓는데, 떡시루를 시루째 얹혀놓고 쌀 한 말을 수북히 다라에 담아놓고 그 위에 실타래를 드린다. 상채집이 가 꿩과리를 치면서 축원덕담을 하는데 이를 고사반 드린다고 한다. 고사반은 동네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것이다.
- 남의집 안가기 : 정초에 상주가 남의 집에 가면 좋지 않다고 한다. 지금도 지키는 사람이 있다.

[14일]

- 아홉번 행동하기 : 보름 전날 새끼 아홉 발을 꼬아야 하고, 땔나무 아홉 짐을 하고 밥 아홉 번을 먹어야 좋다고 한다.
- 오탁밥 : 오탁밥은 잡곡밥으로 이날 오탁밥을 해서 이웃 간에 나눠 먹는다.
- 잠안자기 : 14일날 저녁 너무 일찍 자면 눈썹이 센다고 하여 일찍 자지 못하게 하였다. 일찍 자는 아이들에게는 노인들이 아이들의 눈썹에 밀가루를 하얗게 발라놓고 눈썹이 세었다고 놀리기도 하였다.
- 더위팔기 : 이날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아무개!" 하고 부르면 "내 더위 사가!" 하고 더위를 팔았다. 그러면 더위를 판 사람은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 신발감추기 : 14일날 밤에 신발을 밖에 벗어 놓으면 귀신이 집어간다고 하여 방에 들여 놓고 잔다.

[대보름]

- 뱃고사 : 보름날 아침에 배의 이물에서 뱃고사를 지낸다. 북어와 술로 간단히 제물

을 차려놓고 사고 없고 잘 되게 해 달라고 빌고 절을 한다.

- 척사대회 : 큰청탄마을에서는 대보름날 청탄나무 느티나무 있는 데서 옷놀이를 한다. 옷은 굵은 장작옷을 사용하며, 놀이 방법은 1m 정도의 높이에 줄을 매어 그 줄을 넘기는 것이다. 그리고 바닥에 금을 그어놓고 금 밖으로 나가면 낙판으로 판정한다. 이긴 사람에게는 상품으로 삼·팽이 등 농기구를 주었다.

- 달보고 소원빌기 : 역새풀을 베어다가 해를 만들어 나이 수만큼 지푸라기로 묶어서 저녁에 달이 뜨면 불을 붙이고 소원을 빈다.

달은 남보다 먼저 보아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저녁을 일찍 먹고 산에 올라간다. 달이 잘 보이는 해업산은 높아서 못 가고 마을 뒷동산에 올라가 달이 뜨기를 기다린다. “달이 뜨면 우리 아들 장가가게 해 달라”,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크고 공부 잘 하게 해 달라”, 결혼한 부부는 “아들 낳게 해 달라”는 등 각자의 소원을 빈다.

- 쥐불놀이 : 달이 뜬 후 깡통에 구멍을 뚫어 관솔이나 나무대기를 넣고 불을 붙여 돌리는 것을 쥐불놀이라 한다. 원래는 논두렁 밭두렁에 병충해를 없애기 위해 불을 붙여 태우는 것을 쥐불이라 하였는데 나중에 깡통에 불을 붙여 돌리는 것으로 바뀌었다.

2월

[2월 초하룻날]

- 나이떡 해먹기 : 2월 초하룻날은 나이떡을 해먹는 날이며, 이날은 명절날이라 일을 하지 않는다. 나이떡은 순가락으로 식구들 나이 수만큼 쌀을 떠서 송편을 만들어 먹었다. 송편 속으로는 주로 팥과 콩을 넣었다.

[월내]

- 산신제 : 음력 2, 3월에 날을 받아 산신제를 지낸다. 산신제는 2년에 한 번씩 지내는데 대개 저녁 7, 8시경에 산신나무 아래에서 제를 지낸다. 산신나무는 오래된 굵은 소나무이다. 제물로는 과거에 돼지 한 마리를 썼으나 현재는 돼지머리를 쓴다. 제관은 3명을 선출한다. 선출된 제관은 산신제 때까지 엄격한 금기를 지킨다. 산신제가 끝난 뒤 고기는 마을사람들이 나누어 먹는다.

3월

[한식]

- 성묘 : 한식에는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를 하고 사초를 한다. 산소에 과일, 포, 술(주·과·포)을 차려놓고 절을 한 다음 잡초를 뽑는다. 산소 개수나 보수 등 산소 단장

을 하기도 한다.

[월내]

- 진달래술 담그기 : 3월에 진달래꽃이 피면 꽃을 따다가 술을 담가 먹는다. 진달래 술은 약술로 쓰인다. 이곳에는 진달래꽃이 많아 아낙네들이 진달래꽃을 따다가 경동 시장에 팔기도 한다.

4월

[초파일]

- 절가기 :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절에 간다.

5월

[단오]

- 창포에 머리감기 : 단옷날 창포물에 머리를 감았는데 현재는 논두렁에 창포가 없다.
- 그네뛰기 : 단옷날에는 선착장 사정터 느티나무에 그네를 매고 뛰었다. 이날 씨름은 하지 않는다.
- 활쏘기 : 단옷날 큰청탄마을에서는 청탄나루 선착장 사정터에서 활쏘기를 하였다. 시합에 앞서 먼저 '고사반나무'라 불리는 사정터 느티나무(6·25 전에 없어짐.)에 떡 시루를 놓고 고사를 지냈다. 활쏘기는 느티나무 있는 데서 표적으로 돛을 걸어 놓고 돛에는 둥그렇게 과녁을 표시하였다. 큰청탄마을의 활쏘기 시합은 내기 활쏘기로 이때 기생들도 왔으며 명중하면 "지화자!"를 부르고 노래하였다. 활쏘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상품으로 광목 등을 주었다. 큰청마을의 활쏘기에는 인근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왔다고 한다.

6월

6월에는 특별한 행사나 풍습이 없다고 한다.

7월

[칠석]

- 부침개와 마구설기시루떡 먹기 : 칠석날에는 각 집에서 부침개와 마구설기 시루떡을 해서 이웃 간에 나누어 먹는다. 마구설기떡은 콩·팥·대추·감 등을 한데 넣고 만든 설기떡을 말한다.

[백중]

- 백중장가기 : 7월 15일 백중에는 양평장이나 분원장의 백중장을 구경하러 간다. 백중장에서는 농악을 하고 씨름판을 크게 벌리고 놀았다. 분원장까지는 걸어서 3~4시간이 걸린다.

8월

[추석]

- 송편차레 : 추석에는 햇곡식으로 송편을 만들어 차레상에 올리고 차레를 지내는데 이를 송편차레라 한다. 차레상에는 송편만 놓기도 하지만 집에 따라서는 메를 같이 놓기도 한다. 송편은 대개 자그맣게 만들며 그 속에는 팥, 콩, 고구마, 밤, 참깨 등을 넣는다.

과거에는 추석 무렵 재래종 올리인 자체벼를 훑어다가 디딜방아에 찌서 밥을 짓고 송편을 만들었다. 막걸리도 1970년대 초까지 집집마다 담갔다.

- 성묘 : 차레를 지낸 뒤 아침식사가 끝나면 산소에 성묘를 간다.

9월

[중구]

- 구절초뜯기 : 음력 9월 9일 중구에는 구절초를 뜯는다. 9월 9일 뜯는 구절초래야 특히 약효가 좋다고 한다.
- 국화주 : 중구에는 들국화꽃을 따서 국화주를 담가 먹는다.

10월

- 상달 고사 : 10월 상달에는 집집마다 날을 받아 떡시루를 해서 고사를 지낸다. 팔시루떡은 시루째 대청마루에 놓았다가 시루를 엮어 떡을 잘라서 안방 제석, 부엌의 조왕, 뒤꼍의 터주에 갖다 놓는다.

11월

[동지]

- 동지팔죽 : 동짓날에는 팔죽을 쑤어먹는데, 동지가 초승에 들면 '애동지라 하여 팔죽을 쑤어 먹지 않고 주로 노동지에 팔죽을 먹는다.

■ 민속놀이

• 활쏘기

청탄나루 선착장이 있는 곳에 느티나무 고목이 있는데 이곳이 사정터이다. 단옷날 느티나무 있는 데서 표적으로 돛을 걸어놓고 활쏘기를 하였다. 돛에는 둥그렇게 과녁을 표시하였다.

활쏘기 시합에 앞서 먼저 사정터 느티나무 옆에 떡시루를 놓고 고사를 지낸 다음 활쏘기를 하였다. 이 나무를 '고사반 나무'라고 하였는데 이 나무는 6·25 전에 없어졌다.

큰청탄마을의 활쏘기 시합은 내기 활쏘기로 이때 기생들도 왔으며 명중하면 '지화자'를 부르고 노래하였다. 활쏘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상품으로 광목 등을 주었다.

단옷날 활쏘기 시합에는 청탄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이 마을 사람 중에는 활쏘기 시합 때 화살을 주으러 갔다가 화살을 맞아 눈이 먼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큰청탄마을의 활쏘기는 강변에서 돛에 과녁을 표시해 걸어놓고 활을 쏘는 놀이로 강마을 민속에서 보기 드문 사례라 할 수 있다.

■ 제보자

- 송삼순 (여, 85세, 양평군 양서면 대심2리 47번지, 19세 때 양평군 용문면에서 양서면으로 출가함)
- 최옥현 (남, 69세, 양서면 대심2리, 부친이 뱃일을 하였음. 이 마을에서 옛집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은 최옥현씨 집뿐임.)
- 장순란 (여, 86세, 대심2리, 20세 때 양서면으로 시집옴.)
- 김종심 (여, 78, 여주군 금사면 이포1리)
- 박달순 (여, 78, 여주군 금사면 이포1리 185)
- 장태봉 (남, 1941년생, 여주군 금사면 이포1리 185, 4대째 거주. 이포 토박이로 1989년 이포대교가 생기기 전까지 약 10년간 도선업을 하였음.)
- 장석환 (남, 73, 금사면 이포리, 장태봉의 부친, 삼신당 당주, 작고)
- 최준락 (남, 67, 여주군 능서면 내양1리 54, 노인회 총무, 5대째 거주)
- 박순애 (여, 64, 여주군 능서면 내양1리 53, 최준락의 아내, 문막에서 시집옴.)
- 이웅 (남, 67, 여주군 능서면 내양1리 53, 농업, 2대째, 거주)
- 박광식 (남, 60, 여주읍 천송리 289-7, 식당업, 4대째 거주)
- 박상옥 (남, 71, 1939년생, 여주군 점동면 혼암리 17, 농업, 2대째 거주)
- 황기분 (여, 84, 여주군 점동면 혼암리 114, 46년 전 굴암리에서 시집옴. 남편은 고탁준옹으로 고사반에 능했음)

- 이규현 (남, 64,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702-2, 3대째 거주)
- 정윤희 (남, 84, 광주시 남종면 수청1리 23-21, 8대째 거주, 6·25 전 뱃일에 종사)
- 홍성남 (남, 73, 광주시 남종면 수청1리 구항동, 12대조 묘가 수청2리에 있다고 함.)

- 조사시기 : 2009. 8~12월

南

漢

江

남한강

유역의

민속문화

5. 경기도 접경지역의 민속현장조사



5. 경기도 접경지역의 현장민속조사

1) 서울 노들나루의 민속

(1) 노들나루의 민속배경

동작구(銅雀區) 하면 ‘동재기나루’가 연상되고 한강이 연상된다. 노들강(鷺江)이 곧 한강의 뜻이니, 길고 긴 한강 젓줄의 중심지도 노들이 되는 셈이다. 흔히 한강(漢江)·노들(鷺梁)·용산(龍山)·서강(西江)·마포(麻浦)·현호(玄湖)를 일러 오강(五江)이라 이른다. 이 중에서도 노들나루는 강원도 정선이나 인제 등에서 오는 뗏목배가 마지막으로 선착하는 곳이며, 유명한 정선아라리 민요권의 종착지도 이곳이었다.

그리하여 이곳에는 목재업과 조선업이 발달하였던 것이다. 그야말로 한강의 수로교통(水路交通)의 요충지였을 뿐 아니라 서해안과 한강하류를 통하여 호남·호서의 양호지방(兩湖地方)과 황해도·평안도의 양서지방(兩西地方)의 물자가 한양으로 운송되고, 한강의 상류인 남한강·북한강을 통하여 충청북도와 강원도의 물자가 한양으로 운송되었다. 더구나 한강은 그에 이어지는 낙동강과 아울러 조선시대 물산의 최대 생산지인 영남지방과 최대의 소비지인 서울을 연결하는 대동맥으로서 그 기능의 비중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한강 유역에는 광주(廣州)·여주(驪州)·충주(忠州)·원주(原州)·춘천(春川) 등 대도회지가 발달하고 있어 사람들의 왕래도 한강의 수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히려 과거에는 육로(陸路)보다 수로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상으로 편리한 처지였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증환(李重煥, 1690~1752)은 《택리지 擇里志》에서 사람이 살 터를 잡는 데도 지세가 좋아야 하고 또 다음은 아름다운 산수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지세에 있어서는 먼저 물길을 본 후 들판의 형세, 산악(山岳)의 모양 등을 살펴야 한다³³⁾고 하였다. 이는 당시 선비들의 공통된 사고였는데, 이 중에서 이증환은 평양·춘천·여주를 살만한 곳이라고 꼽고 있는데 그 중 두 곳이 한강을 접변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춘천은 옛 맥국(貊國)이 도읍했다는 곳으로 북한강의 줄기인 소양강(昭陽江)이 도시의 북편으로 흘러가므로 땅이 기름져 조선조에 있어서도 사대부들이 여러 대에 걸쳐 많이 살고 있었다.

여주는 남한강변에 위치하고 한양과 100리 거리에 있는데, 지세와 기후가 좋아 양반들의 별장도 있었고 사대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인접한 이천(利川)·음죽(陰竹)·양평(楊平)의 고을 역시 한강 수로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밖에 충주와 원주도 각기 관아(官衙)가 있었던 곳으로서 물산이 풍부하고 수운(水運)에 의해 서울과 교통이 용이하여 사대부로서 이곳에 거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한양과의 왕래가 빈번하였다.

조선 후기의 사례이지만 이벽(李穡, 1754~1786)이 한강의 수로를 이용하여 마재에서 한양으로 배를 타고 가며 같이 가던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천주교(天主教)를 전도했다³⁴⁾는 이야기에서도 한강에서의 수상교통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한강은 인마(人馬)의 교통로로서 그 역할이 요청되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는 운송로로서의 기능이 보다 강조되었다. 자급자족적인 경제체제 하에서 지방 간의 교통이나 원거리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중앙집권적 국가였던 조선왕조였기에 국가의 운영을 위하여 각 지역의 농민에게서 징수한 현물지대(現物地代)로서의 세곡(稅穀)은 중앙의 경도(京都)로 운송되어야 했고, 그것은 대규모의 운송작업이었기 때문에 수로연변(水路沿邊)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 여기에 조운(漕運)이 그 대책으로서 제시되었던 것이다.

조운이란 조전(漕轉), 해운(海運), 수운(水運), 참운(站運), 선운(船運)이라고도 하여 조세(租稅)로 징수한 미곡·포목 등을 선박으로 운송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국가에서는 조세미(租稅米)의 수송을 위하여 군과 현에서 거둔 조세미를 인근의 수로연변 또는 해안에 설치한 창고에 집적하였다가 일정한 시기에 조선(漕船)에 실어 중앙의 경창(京倉)으로 수송하였다.

일찍이 고려시대에도 이들 민간 선운업자들이 세곡운송에 참여하여 나름대로의 항

33) 《擇里志》, 卜居總論, 地理條

34) S. 달래, 《한국천주교회》, 1874(1982), p. 302

로를 개척한 바 있는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그들은 계속 이 업무를 맡고자 하였다. 조선시대 전반을 통하여 한양은 가장 변화한 도시였고 그리하여 한양의 경제적 정치적 위치 때문에 이곳을 관통하는 한강유역은 그 어느 하천유역(河川流域)보다도 경제성이 높은 곳이었다.

특히, 한양 남쪽의 한강은 경강(京江)이라 하여 서강(西江)·마포(麻布)·용산(龍山)·송파(松坡) 등지에는 전국의 중요한 물산(物産)이 선운(船運)에 의하여 이 지역으로 운반됨으로써 경강연변(京江沿邊)에는 조선 초기 이래로 운수업은 물론 선박으로 상업활동을 하는 선상업(船商業)이 발달하였으니, 강상(江商) 혹은 경강상인(京江商人)이라 부르는 상인들이 용산·서강·마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경강상인들의 활동은 세곡운송을 통한 운수업에만 한정되지 않고, 선상활동(船上活動)에 있어서도 그 능력을 보였다. 경강상인들은 서울이라는 최대의 소비도시를 배경으로 미곡·어물·소금·목재 등을 상품으로 하여 선상활동을 폈다. 한강변에 근거를 둔 경강상인들은 선박을 이용하여 전라도·황해도 등의 쌀·어물·소금 등을 구입, 한강변으로 운송하여 서울 시내의 시전상인(市廛商人)에게 공급하였으니, 한강변은 일찍부터 상업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었다.

한편, 한강은 삼남(三南)을 비롯한 남부지방과의 왕래에 있어 육상교통으로서는 큰 장애물이었고 서울 북쪽에 가로 놓인 임진강은 황해도·평안도 등 북부지방으로부터 서울로 오는 통로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였는 바, 이 두 강은 도성방어(都城防禦)를 위한 자연적인 외곽선은 되었을지 모르나 교통로로서는 많은 지장을 주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통의 장애를 극복하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왔으니, 하천의 장애를 극복한 것이 교량이고 산악의 장애를 극복한 것이 터널이다. 토목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계곡이나 얇은 개천이 아니라 깊고 넓은 하천에 있어서는 다리 놓기가 여의치 않았다. 그리하여 일찍부터 배를 이용할 줄 안 사람들은 배를 통하여 강을 바로 건너거나 배다리(주교(舟橋))를 놓았다. 강을 건너는 양쪽 지점에는 나루가 이루어졌다.

조선왕조의 주요 간선도로가 통과해야 하는 한강에는 일찍부터 광나루(廣津)·삼발나루(三田津)·서빙고나루(西氷庫津)·동작나루(銅雀津)·노들나루(露梁津)·삼개나루(麻浦津)·서강나루(西江津)·양화나루(楊花津) 등이 개설되어 있었는데, 특히 광나루·삼발나루·서빙고나루·동작나루·노들나루는 오강진로(五江津路)라고 하여 중요 교통로로서 이용되고 있었다. 당시 이들 나루의 도선장(渡船場)인 나루터를 오가며 사람과 물자를 건네주는 나룻배는 강하(江河) 양쪽의 통로를 이어 주는 최대한의 편의 시설이었다.

나루터의 의미로는 흔히 도(渡)와 진(津)이 쓰였다. 고려의 체제를 거의 수용한 조선 시대에도 진도제(津渡制)는 거의 그대로 운용되었다. 즉, 서울을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겨 한강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된 조선조에 있어서도 국초에는 고려를 계승하여 한강에 한강도(漢江渡)·양화도(楊花渡)만을 설치 운영하였다.

그 후 체제가 정비되고 사회가 안정되면서 국가뿐 아니라 서민의 교통시설로서 중요한 진도(津渡)가 확장 설치되어 갔다. 물론 교통의 요지에 편의에 따라 진이 설치되고는 있었지만 국가적 관리체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태종이 즉위하여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고자 호패법(號牌法)을 실시, 전국의 인구 동태를 파악하고 아울러 그 이동을 살피기 위하여 진도에 별감(別監)을 파견하게 되니, 이제 진도는 국가적 관리체제로 전환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국초에 변란이 자주 일어났으므로 위정자들은 반역자 범죄자 등 위험인물의 단속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태종 14년(1414)에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의 건의에 따라서 종래의 임진도(臨津渡)·낙하도(洛河渡)·한강도(漢江渡) 외에 민간인이 임의로 통행하던 한강 일대의 노도(露渡)·광진(廣津)·용진(龍津) 등 진도를 정부가 관장하여 관방(關防)의 요지로 삼았다. 그리고 범죄인·유랑민의 출입을 기찰(讞察)하니 노도와 광진은 도로 승격시켜 한강도에서와 같이 별감을 두고 업무를 주관케 하였다.

한편, 각 진도는 교통의 매체로서 소정의 나룻배를 보유하고 있었으니 태종 때 신설된 삼전도(三田渡)의 경우는 3척의 관선(官船)을 보유하고 있었다. 삼전도보다도 크고 통행량이 많은 한강도나 노량진에는 보다 많은 나룻배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은 없다. 조선 후기의 자료를 토대로 각 진도의 선박 수효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광진(廣津)에 4척, 송파(松坡)에 9척, 삼전도(三田渡)에 3척, 신천진(新川津)에 2척, 한강도(漢江渡)에 15척, 노량도(露梁渡)에 15척, 양화도(楊花渡)에 9척, 공암진(孔岩津)에 5척, 철곶진(鐵串津)에 1척을 배정하였는데, 후에 서빙고진과 동작진의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한강도·노량도에서 각 5척씩 감하여 서빙고진·동작진에도 관진선을 배치하고 있다.³⁵⁾ 이로 볼 때 경강진도(京江津渡)의 나룻배는 대체로 63척이었고, 이들을 운항하는 국가관리체계의 진도는 11개소였음을 알 수 있다.

노량도(露梁渡)는 과천현(果川縣) 북쪽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의 노량진수원지(鷺梁津水源池) 부근이다. 시흥(始興)·수원(水原)으로 빠져 충청도·전라도로 통하는 대로의 길목으로서 광진도(廣津渡)와 함께 태종 때에 처음으로 별감이 배치되고 이후 경강의 4대의 도선장의 하나로서 인마(人馬)의 왕래가 많았다. 별감은 곧 종 9품의 도승(渡丞)으로 지위가 개칭되었다. 소관의 진선(津船)은 처음에는 15척 내외가

35) 《檀大典》, 工典 圓車條

있었으나, 후에 5척을 동작진(銅雀津)으로 이관하여 조선 후기에는 10척으로 도선을 담당하였으며, 여기에도 역시 별장(別將)이 배치되어 금위영(禁衛營)에서 관리하였다. 노량도는 노도(露渡·路渡)로도 불렸으며 흔히 노들나루라 하였다. 연산군 때는 이곳을 제외한 모든 진도의 통행을 금하여 행려(行旅)가 매우 고달팠고, 연료의 채취도 역시 어려웠다고 한다.

한강도·양화도·노량도·삼전도와 더불어 4대 도선장의 하나였던 동작진은 과천 현 북쪽 18리에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반포아파트 서편 이수천(梨水川) 입구에 해당하는 곳이다. 예전에는 수심이 깊어 나루 위에는 모노리탄(毛老里灘)과 기도(碁島)가 있었다고 한다. 이곳은 남태령(南太嶺)을 넘어 과천을 지나 수원으로 빠지는 대로의 길목으로서 5척의 진선이 배속되어 있었는데 조선 후기에 발달한 도선장이다. 묘하게도 이들 나루가 있던 곳에는 현재 대교들이 설치되어 역시 교통을 편하게 하고 있다. 즉, 광진(廣津)에는 광진교(廣津橋)와 천호대교(千戶大橋), 삼전도(三田渡)에는 잠실대교(蠶室大橋), 독도진(蠶渡津)에는 영동대교(永東大橋), 두모포(豆毛浦)에는 동호대교(東湖大橋), 입석포(立石浦)에는 성수대교(聖水大橋), 한강도(漢江渡)에는 한남대교(漢南大橋), 서빙고진(西氷庫津)에는 반포대교(盤浦大橋), 동작진(銅雀津)에는 동작대교(銅雀大橋), 흑석진(黑石津)에는 한강대교(漢江大橋), 노량진(鷺梁津)에는 한강철교(漢江鐵橋), 용산진(龍山津)에는 원효대교(元曉大橋), 마포진(麻浦津)에는 마포대교(麻浦大橋), 서강진에는 서강대교(西江大橋), 양화진(楊花津)에는 성산대교(城山大橋), 공암진(孔岩津)에는 행주대교(幸州大橋)가 각기 개통되어 고금의 통행처는 인간의 생활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음을 주목케 한다.

한강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하천에서도 나루는 이제 다리로 바뀌어 가고 사공의 뱃노래는 거의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다. 한강을 건너는 교통은 날로 편해지고 있다.

한강 유역은 고대로부터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으며 특히 삼국시대에는 3국 간의 쟁탈대상이 되었던 요지였다. 그 후 이곳은 조선왕조가 한양에 도읍을 정함으로써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고, 한양이 정치·경제 등 모든 면에 있어 중심지 역할을 하는 데 큰 몫을 담당했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한강에는 교량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진(津)·도(渡)·제(濟) 등 나루터가 발달하였다. 경강(京江)에 설치되었던 나루터는 대략 광진(廣津), 즉 광나루에서 시작하여 양화도(楊花渡)를 지나는 한강의 하류에 주로 위치해 있었다. 광진·삼전도·서빙고·흑석진·동작도·한강도·노량도·두모포·마포·서강·양화도·사천(沙川, 모래내)·조강도(祖江渡) 등이 그 중요한 곳이었다.

한강은 이처럼 교통상의 중요성을 지니고 진도(津渡)로서의 통행도 전담해 주었지만, 한편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것은 세곡(稅穀)을 비롯하여 서울 도민(都民)들의 생활필수품을 운반하는 것이었다. 즉, 전국의 세곡이 조운(漕運)을 통해 집결되는 곳이 바로 한강이었고, 서울에 거주하는 지주들이 지방에 소유하고 있는 농장(農莊)에서 수취(收取)된 소작료 역시 선박을 통해 이곳으로 운반되었다. 서울 도성인(都城人)들의 일상 생활용품, 예를 들어 미곡(米穀)·시목(柴木)·어염(魚鹽)·광물(鑛物)·건축용 재목(建築用材木) 등도 이곳을 통해 공급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일찍부터 물화(物貨)의 집산이 활발했으므로 경강변(京江邊)에는 이미 왕조 초기부터 많은 상인들이 몰려들어 여러 형태와 규모를 지닌 상업을 영위해 갔던 것이니, 특히 사선(私船)을 이용하여 세곡을 운반하는 운수업과 선상업(船商業) 등에 종사하면서 자본을 축적하여 갔던 것이다. 그리하여 경강변에는 일찍부터 마포·서강·용산·두모포·뚝섬 등지를 중심으로 하나의 중요한 경제권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경강변에 근거를 둔 상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것은 18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사상도매(私商都賣)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과 때를 같이하면서 서부터였다. 이것은 조선 왕조 후기에 이르러 점차 봉건적인 경제체제가 붕괴되어 가면서 매점상업인 이른바 도매상업이란 것이 나타나는데, 이때 전국의 상품 생산지와 긴밀히 연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시장인 한양과도 가까운 경강변이 바로 이러한 사상도매들의 근거지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세곡운반과 선상업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고 있던 경강변이 상인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의 쌀, 소금 등을 매점함으로써 해서, 한양의 시전상인(市廛商人)들에게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이들 중에는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며, 이러한 경강변 사상도매들의 활동은 가뜩이나 통공정책(通共政策) 실시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서울의 시전상업계(市廛商業界)에 커다란 타격을 주어, 양자 사이에는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게끔 되었다. 그러나 이미 사장수공업(私匠手工業)의 발달과 자유상공업의 발전 등으로 자본주의의 맹아가 싹트고 있던 당시 조선의 실정으로서 아직 봉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시전들은 더 이상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고, 따라서 봉건상업의 붕괴라는 역사적 흐름과 더불어 시전들의 대항을 경제적으로 극복한 한강변의 상인들은 ‘경강부상(京江富商)’·‘경강거부(京江巨富)’·‘경강거상(京江巨商)’ 등으로 지칭되는 거상층(巨商層)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 초기 세곡 운반에 이용된 사선(私船)들이 모두 경강상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박들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조선왕조 전체를 통해 한강유역이 선운(船

運)의 중심지였고, 이곳에서 운행되던 선박들도 관선(官船)보다는 사선(私船)의 활동이 더 활발했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역시 지방의 세곡 운반에 주도권을 잡게 된 민간선박들은 거의 모두가 경강선박들이었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즉, 이들은 경강변의 나루터인 노량진·동작진·한강진·양화진·서강·마포·용산·두모포·독섬·삼전도 등지에서 처음에는 조그만 나룻배를 가지고 도강(渡江)에 종사하거나, 혹은 주막집 주인이나 소상인으로 출발하였는데 점차 치부하는 과정에 선박을 건조하기도 하고 대선(大船)을 소유하게도 되었으며, 이 배를 이용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양반지주층이 지방에 있는 자신의 토지에서 소작료를 운반해 올 때 그것을 청부받아 운반하여 주다가 결국은 정부의 세곡운반까지 맡게 된 것이었다. 이에 대한 운임을 받았으며, 따라서 17세기 이후부터 점점 자본을 축적해 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경강상인들이 곡물 운수업을 통해 치부를 하게 된 것은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받은 이러한 선가(船價)에 의해서였던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곡물 운반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을 자행했기 때문이었다.³⁶⁾

요컨대 17세기 후반부터 한강변에는 대상(帶狀)으로 상업이 발달하여 용산·마포·서빙고·두모포 등이 그 중심지가 되었으며, 여기서는 미곡·시목·소금의 대량 거래와 조선·제빙 등의 제조업도 겸한 자본축적, 정착상인화(定着商人化)가 도성 내의 사상도매들의 성장과장과 발 맞추어 형성·발전되어 간 것이었다.

한편 서빙고는 한강을 건너 동작진과 마주보고 있었으며, 이곳 동작진을 통하여 수원으로 가는 도로의 출발점으로 나룻배가 서빙고·동작진 간을 왕복하는 곳이니, 이곳을 근거로 하는 강민(江民)들도 오강상인(五江商人)의 일부로서 상리(商利)에 밝지 않을 리가 없었다.³⁷⁾

또 노량·동작진에서는 그곳의 상인들이 대소 어물을 매득(買得)하여 팔려던 것을 어물시전인들이 난전(亂塵)이라 칭하면서 억지로 싼값으로 사려들자 이에 반항하여 사상(私商)들에게 더 나은 값을 받고 팔아버렸다는 기록도 있다.

(2) 노들나루의 국행제의

한강(漢江)은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는 대하(大河)로서 도도하게 흐르는 수원(水原)은 그야말로 겨레의 젖줄이며 그 유역으로 펼쳐진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면서도 웅장하고 광활하게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의 대상으로 섬겨져 왔고 주로 무속적(巫俗的)인

36) 姜萬吉, '京江商人研究', 《亞細亞研究》 14~2, 1971, p. 424

37)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한강사》, 1985, p. 425

제사장(祭司長)에 의해 화목과 단결, 그리고 식재초복(息災招福)의 제사적인 향연(饗宴)으로 베풀어졌다.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한 백제·신라를 거치는 동안 치제(致祭) 형식의 의식이 점차 갖추어지기 시작하여 중세사회인 고려시대에는 한재(旱災)·황충(蝗蟲) 등이 심할 때마다 금주령을 내리고 전국 명산대천에 무당을 모아 치제케 하는 등,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사하였다. 이때는 무속과 초제(醺祭)를 병행하였으며, 조선 시대로 접어들면서부터 유교이념이 생활화 됨에 따라 제사의 목적을 바꾸어 유례풍과 무속풍으로 각각 행해졌던 것이다.

치제는 수재(水災)·한재(旱災)·여역·전쟁·정벌(征伐) 등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와 개인적으로 우환·횡사 등이 있을 때에 행해졌다. 국가에서 행하는 경우에는 주로 기우(祈雨)·기설(祈雪)·기한(祈寒) 등을 한강변에서 무속(巫俗)과 유례풍(儒禮風) 중심으로 행하였으며, 민간의 경우는 주로 무속으로 행하였다.

이와 같이 한강은 농경생활로 정착하면서부터 치제의 대상으로 섬겨져 왔으며 제의식을 행해 왔다.

삼국 중 백제는 한강 유역에 도읍을 정하고 마한의 옛 땅을 차지한 나라로서 풍속에 있어서는 마한의 유속을 계승하였으니 온조왕(溫祚王) 때 이미 대단(大壇)을 설치하고 왕이 친히 치제하였다.³⁸⁾ 고대국가를 확립한 군주인 고이왕(古爾王) 때에는 산천에 치제할 때 고취(鼓吹)까지 사용하였다.³⁹⁾는 기록으로 볼 때 마한의 가무의 유속(遺俗)은 축제적인 형식을 갖추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신라 때에는 전국에 동독(東瀆: 吐只河, 현 興海), 남독(南瀆: 黃山河, 현 梁山), 서독(西瀆: 熊川河, 현 公州) 그리고 북독(北瀆)을 정하고 사독제(四瀆祭)라 하여 중사(中祀)로 치제하였는데 한강은 북독에 해당되었다.⁴⁰⁾ 고려시대에는 주로 기우를 위해 역대왕의 치제가 있었으며, 냇가에서 백신(百神)에게 치제하였는데⁴¹⁾ 왕은 주로 개경(開京) 근방의 강에서 제사 드렸고 각 지방은 그 지방의 큰 강변에서 제를 지냈으며, 그 이름을 천상제(川上祭)라고 불렀다.

조선시대에는 명산대천(名山大川)의 제례(祭禮)는 춘추중월(春秋仲月)에, 또 풍운뇌우악해독(風雲雷雨岳海瀆)은 춘추중월(春秋仲月) 상순에 시행한다고 법전에까지 명시되어 있어서인지⁴²⁾ 역대왕의 기고제(祈告祭)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실록에 기록이 많이 보이나 대부분 기우를 위해서 제행(祭行)되었으며, 무속보다는 주로 유례풍의 의식이 많았다. 그 예로 성종 13년(1482) 5월에 한강에서 무당들이 굿을 했다는 《성종실록》의 기록과 그 이전 세종 18년(1436) 6월에도 무당에 의해 굿을 하였는데 효험이 있어 왕이 쌀을 하사하였다는 《세종실록》의 기록으로 보아 이 기고제가 유례풍으로 시행된 것은 성종 이후부터로 추측된다.

기우제 등의 차서(次序)를 정한 것은 숙종 30년(1704)으로 예조판서(禮曹判書) 민진

38)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 第1, 始祖 溫祚王條

39) 《增補文獻備考》 卷63, 禮考 10

40) 《三國史記》 卷32, 雜志 祭祀條

41) 《增補文獻備考》 卷63, 禮考 10

42) 《經國大典》 卷3, 禮典祭祀條

후(閔鎮厚)가 전교(傳敎)를 받들어 대신들과 의논하여 차례를 정하였는데 12차로 하였다. 그 이전에는 오례의(五禮儀)에 의식이 없어서 예가 자못 잡란(雜亂)하였다고 한다. 이 12차 가운데 여덟 차례에 걸쳐 한강에서 치제했음을 볼 때, 기우제가 한강을 중심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제차(祭次)인 오방용신(五方龍神)에게 치제할 때는 동쪽 교외에 청룡(靑龍)을, 남쪽 교외에 적룡(赤龍)을, 서쪽 교외에 백룡(白龍)을, 북쪽 교외에 흑룡(黑龍)을, 중앙인 종루(鐘樓) 거리에 황룡(黃龍)을 만들어 놓고 관리에게 명하여 치제하는데 3일 만에 끝낸다. 또 저자도(楮子島)의 용제(龍祭)는 도가자류(道家者流)를 동원하여 용왕경(龍王經)을 외우게 하였다. 또는 호두(虎頭)를 양진(楊津)과 박연(朴淵) 등지에 던졌다. 성내 모든 부락에는 물병을 놓고 버들가지를 꽂아 향을 피우고 방방곡곡에 누각을 만들어서 여러 아이들이 모여 비를 부르며, 혹은 저자를 남쪽 길로 옮기어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열며, 가뭄이 심하면 왕은 대궐을 피하고 반찬을 줄이고 북을 울리지 않으며 억울하게 갇힌 죄인을 심사하고 중외(中外)의 죄인에게 사(赦)를 내린다.⁴³⁾고 하였다.

숙종 40년(1714) 3월에 가뭄이 오래도록 계속되자 왕이 요양 중인데도 몸소 거동하여 분향(焚香)하고 묵도하자 비가 흠족하게 내렸다. 이때 왕은 어제시(御製詩)를 내렸는데 이르기를,

봄비가 때를 알아 밤새도록 내리니
건곤의 혜택을 만물이 모두 입네
병중에 있으나 백성의 일 어찌 잊으랴
보리농사 풍년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네

또 기설제(祈雪祭)라 하여 납(臘) 전에 눈이 오지 아니하면 한강단(漢江壇)을 비롯해서 남단(南壇)과 우사단(雩祀壇)에 치제하였는데, 남단에는 정2품을 보내어 치제케 한 바 있다.

풍수(風水)란 말은 장풍임수(藏風臨水) 또는 장풍득수(藏風得水)란 말에서 나왔다. 동작구는 이러한 명당(明堂) 자리를 점유하고 있다. 한강을 대안(對岸)으로 하고 우뚝 솟은 경기도 관악산의 공작봉(孔雀峰) 기슭에 자리잡은 국립묘지는 호국영령을 모신 곳이다. 특히, 국립묘지가 위치하는 이 공작봉은 천변만화(千變萬化)에 전변기복(轉變起伏)이 수려하고 원만하여 지맥(地脈)이 방정(方正)하고 음양이 분명하며 성진(星辰)이 합치된 형세로서 한 줄기 한 줄기가 편편주옥(片片珠玉)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국립묘지 전체의 형국은 공작장익형(孔雀張翼形)이다. 다시 말해서 공작새가 아

43) 成俔 《博議叢話》 卷7

름다운 날개를 잘 펴고 있는 형국이며, 또 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듯한 장군대좌형(將軍對坐形)이기도 하다. 좀더 자세히 보면 좌청룡의 세(勢)는 용이 꿈틀거리면서 강을 걸하여 호위하는 형상이며 우백호의 세는 금기(金氣)의 호랑이가 머리를 순하게 엮드리고 머무는 형상이고, 안산(案山)을 보면 호필봉(豪筆峰)이 멀리 앞면 전체를 감돌아 다정하게 앉은 모양이며, 조산(造山)은 문필봉(文筆峯)으로 높이 솟아 양각(兩角)을 이루어 마치 물소뿔 모양으로 소년 선동(船童)이 달을 희롱하는 형국이다.

또 수세는 서출동류(西出東流)로 합수(合水)가 되어 양수합금(兩水合襟)의 수법(水法)이 되는데, 특히 한강물은 동출서류(東出西流)로 명주폭이 바람에 나부끼듯 꿈틀거리며 동작구의 공작봉(孔雀峰)을 감싸고 흘러내리고 있다. 이와 같이 산수의 명당에 자리잡은 것이 국립묘지이다.

이밤에 관악산의 한 자락인 삼성산(三聖山)은 사자형국이어서 사자암(獅子菴)을 지어 달아나려고 하는 서울의 백호(白虎) 형국(形局)을 누르고 있으니 조선조 무학대사(無學大師)의 슬기가 돋보이고 있다.

한강을 주제로 한 민요는 현재 두 편이 전해진다. 하나는 <한강수타령 漢江水打令>이며, 다른 하나는 <한강시선(柴船) 뱃노래>이다. <한강수타령>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민요로 서민의 애환, 특히 님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유흥요(遊興謠)로 볼 수 있다면, 한강시선 뱃노래는 한강을 통해 나무를 실어 나르는 뱃사공의 무사(無事)와 애환을 그린 노동요로 볼 수 있는 한강 주변의 향토민요라 하겠다.

한강수라 맑고 깊은 물에
풍덩실 빠져도 애고 나는 못죽어
(후렴) 에야에야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 에헤요
에헤야 얼사마 둥게디여라
내사랑아

너는 죽어 만수청산이 되고
나는 죽어 피골새 되리란 말가

넌랑은 죽어서 모란이 되고
나는 죽어서 에루화 범나비 되잔다

장릉안에 옥양목 버선 있는 것
총각낭군에 에루화 선사감일세

청천강 흘러가는 물에
대동선 타고 뱃놀이를 가잔다

임 어디 갔나 임 어디 갔나
 시내 강변에 에루화 빨래질 갔단다

세상만사를 생각하니
창해일숙이 에화루 진정 설구나

무정방초는 해마다 푸르는데
한번 간 님은 영이별이구나

〈한강수타령〉은 굿거리로서 8분의 6박자이다. 이 민요는 처음에는 입창(立唱)이었으나 언제부터인지 좌창(坐唱)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 특히, 가락이 흥겹고 또 춤가락에 맞아 신바람이 절로 나는 민요이다. 한강이라면 서울 사람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즉, 서울을 떼어 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서울의 상징이기도 하므로 한 귀절 즈음은 서울에 대한 무엇이 있음 직도 한데 그렇지 못하다. 이 같은 이유는 오랜 세월 속에서 이 지역 향토민요가 가인(歌人)들의 속요창(俗謠唱)으로 변모·윤색되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어느 민요에서도 보기 드문 예로 후렴이 본 가사와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광복 전까지는 부르는 이가 흥이 나는 대로 가사를 붙여서 불렀다 한다. 그래서 그런지 얼토당토 않은 청천강이 난데없이 등장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강수타령〉은 가락이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놀이나 주석(酒席)같은 데서는 〈개성난봉가〉 다음으로 인기 있는 노래이다.

권용정(權用正)의 〈한양세시기 漢陽歲時記〉 동구조(東謳條)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보인다.

땃을 겨우 들을 때에

배는 이미 떠나니
문노라 어느날에
도라오실까
은은한 밤중에
노음음 소리
연한 간장 끓어진지
남들은 어찌알리

바람이 물결을 몰아
뱃전을 치니
가는비 강남에
저물고저 하노라
장년에 키 들리기 재촉한다
등정산 아래에
태호의 가이로다

18C 학자 유만공(柳晩恭)의 《세시풍요 歲時風謠》에는 노들강변의 민속까지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보인다.

붉은 능금 검붉은 마늘이 병든 비위를 낫게 하니
소주는 의당히 불같이 더울 때 먹어야 한다
무한한 오강(五江)의 삼해주는
서울 아래 만인의 톤을 낭비하게 한다

여름철 찹쌀을 발효시켜 만든 약주가 삼해주(三亥酒)이다. 노들나루를 비롯한 오강 나루터에 오가는 손님들에게 소주(일명 火酒·氣酒·露酒)와 삼해주를 팔았는데 술맛이 너무 좋아서 서울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게 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세시풍요》에는 한강가 버드나무와 남산(南山)의 나무에서 단오날 색시들이 그네를 뛰었던 멋스런 장면도 찾게 된다.

신무문(神武門) 곁 씨름하는 마당에는
건장한 아이들이 서로 쫓으며 노는 것이
마치 미치광이 같도다

이는 한강의 버드나무와 남산의 소나무에서
나는 신선놀이를 하는 색시들이
다투어 나오는 것만 같지 못하다

단오날 서울 젊은이들은 남산이나 예장동(藝場洞)이나 북악산의 신문문 뒤에 모여서
씨름을 하여 승부를 겨루었다. 이 씨름대회를 구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
는데, 특히 아이들이 씨름구경을 하면서 신바람이 나게 놀았다. 이 날 서울의 젊은 여
인들은 한강변에 있는 버드나무나 남산에 있는 소나무에 그네줄을 매고 그네를 뛰었는데,
단오빔을 산뜻하게 차려 입고 그네를 뛰는 모습이 마치 신선이 날아오르는 것 같고
보기 좋아 젊은이들한테 씨름구경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동작구 일대는 버드나무가 지천이어서 그네뿐 아니라 장승을 깎을 때는 재목으로 버
드나무를 사용하였다.

《세시풍요》 10월 20일조에 노량진 세남터의 무당 마을 정경이 뚜렷이 묘사되어 있다.

처음 추위에 새남신(賽南神)을 맞이해 가니
손석(孫石)의 찬바람이 정히 사람을 괴롭게 한다
다투어 건너가는 여러 아가씨는 무슨 큰일인지
노량진 무당 마을은 시장과 같다

10월 20일에 매년 큰 바람이 불고 추운데 그것을 손돌바람(孫石風)이라 한다. 고려의
왕이 해도로 강화도로 피신하려 갈 때 뱃사공 손돌이 배를 험한 곳으로 몰고 들어 갔
다. 왕은 의심이 나서 노하여 그를 죽이도록 했다. 손돌을 적군의 밀정자로 오인한 것
이다. 실은 그곳엔 손돌목(孫石項)이라 하여 물살이 센 곳이었기 때문에 돌아서 간 것
이다.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손돌이 그가 죽은 10월 20일이면 노한 기운(바람)으로 나
타나므로 강화도 사람들은 이 날 배를 타지 않는다.

새남은 원래 ‘지노귀 새남(진오귀 새남)’의 준말로 서울지역에서 행해지는 망인천도
제의(亡人薦度祭儀)로써 죽은 지 49일 안에 한다.

노량진의 새남터도 예나 이제나 새신(賽神), 곧 굿(푸닥거리)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
곳은 또한 과거 수군(水軍)의 열무장(閱武場)으로도 유명하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임금이 열무를 하던 곳으로 지금 마포구 망원동의 망원정 앞 강벌과 노량진의 새남터
모래벌과 지금의 성북구 삼선동의 삼선평(三仙坪)이 두드러진 곳이었다. 망원정 강벌
은 주로 수군의 열무장이었고, 노량진 모래벌은 특히 조선중기 이후로 주무대가 되었



으며, 삼선평은 조선 말기 고종 때의 열무장이었다.

일찍이 태종은 1415년 4월에 동교(東郊)에서 사냥을 한 다음 살곶이에 머물면서 군인들에게 방패(防牌)와 씨름을 하게 하고 또 화통군(火桶軍)으로 하여금 화포를 쏘게 하여 잘하는 이에게 상을 주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동작나루는 그 도도히 흐르는 남한강·북한강(큰가람·신의 강)이 만들어 낸 수관문(水關門)이었다.

필자는 서울문화가 경기도문화요 경기도문화가 서울문화라고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의 문화를 배태한 동작나루의 역사문화적 가치는 지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노들나루의 산신제

노들나루는 한강 남단의 강안(江岸)에 위치한 나루터로 현재 서울시 노량진동에 속한다. 일명 노량진(鷺梁津), 노도진(鷺渡津), 노량진도(鷺梁津渡)라고도 부르지만 순수한 속명은 '노들나루'이다.

이 나루는 옛부터 서울과 과천, 시흥을 연결해 주는 구실을 하였는데 조선시대 9대 간선로 중에서 충청도와 전라도 방면으로 향하는 제 6·7·8호 간선로의 길목이었다. 또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였던 나루이어서 사람들의 이용이 많았으며, 도승(渡丞)이 한 사람 배치되어 관리를 맡았다.

나루 남쪽 언덕에는 노량원(鷺梁院)이 위치하여 있으며 세금을 거두는 관내는 과천의 신촌리, 사촌리, 팔계, 형제정계, 마포강이었다. 진선(津船)은 10척이었고 관선(官船)은 15척이나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과천현에 속하였고, 1985년에는 인천부 과천군에, 1914년에는 시흥군에 속하다가 1936년 경성부로 편입되어 영등포 출장소에 속하였으며, 1946년 영등포구로 변경되었고, 1937년 관악구로 1980년 동작구에 속하게 되었다.

조선조에 무당은 팔천민(八賤民)에 속해 성문 안에 살지 못하고 성 밖 멀리 쫓겨나 살게 되었는데 기록으로 보면 세종·성종·중종·숙종·정종·순종조 기록에 나타나 있다.

조선조에는 유교학자들이 이단을 공격하여 좌도를 배척하는 것을 일삼아서 무당을 쫓아내 성중(城中)에 살지 못하게 하도록 왕에게 주언하였다.

세종 13년(1431) 가을 7월 기묘(己卯)에 사헌부에서 임금에게 상소하기를, “무격은 본래 시정에서 섞여 살지 못하고 성 밖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아서 무격리(巫覡里)라 일컬어 사는 곳을 구별하였으니 그 내력이 이미 오래이옵니다. 그러나 근대에 섞여 살게 되어 매우 편하지 못 하오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모두 성 밖에 내보내어 그 무리끼리 모여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상소를 올렸다.

결국 세종도 사헌부에 명령하여 무당을 다스리는 방법과 처치하는 방법 및 금방(禁防)의 술(術)을 들려주고 마침내 무당들을 외방(外方)으로 쫓아내었다. 진언한 내용으로 보아 조선조뿐 아니라 고려조에도 무격들을 축출했음을 알 수 있는데 왕조실록 중 종 28년(1533) 정월 2일의 기록에 의하면 용산강 무격들이 서울 남대문 밖 소머리고개와 용산강의 노량진에 축출되어 집단으로 거주하며 부락을 이루었다고 되어 있다. 흑석동 일대와 노량진이 무당촌(巫堂村)으로 유명한 것도 이 같은 역사적 맥락 때문이다. 동작구 산신제는 흑석동에서 지냈다.

흑석동은 현재 서울에 편입되어 명칭도 흑석리에서 흑석동으로 바뀐 곳이다. 일제 때만 해도 한강 남쪽 강안에서 과천 가도에는 백여 호의 농촌이 있었는데 강기슭의 가파른 언덕 위에 크고 작은 두 그루의 상수리나무 곧, 신수(神樹)가 있었다. 오른쪽의 큰 것은 남신수(男神樹), 왼쪽의 작은 것은 여신수(女神樹)이다. 그것은 모두 산 정상에 있는 흑색의 큰 암반을 뚫고 나와 있어서 신수의 강력한 위력을 느끼게 해 주고 있어 주민들은 이 암반을 ‘신암(神巖)’이라 불렀다. 신수는 울울창창해서 당시 일본인들이 세워 놓은 ‘한강신사(漢江神社)’의 지붕을 막고 그 위를 통과하고 있었다.

제신(祭神)은 ‘산상도당신령(山上都堂神靈)’이라고 했다. 제일은 연중 2회에 걸쳐 지내는데 소제(小祭)는 음력 7월 1일, 대제(大祭)는 10월 1일로 정해 있어 다른 부락처럼 제관은 운세에 따라 길일을 택해서 동제 제일을 정하는 것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제관은 대개 7~8인 정도이며 선출방법은 마을 사람 중에서 그 해 1년 간 출산·사망 등의 부정이 없었던 깨끗한 사람으로 덕망이 있는 연장의 남자를 선발하는데 여자는 부정하다 하여 참석시키지 않는다. 초헌관(初獻官)은 구장이 되는데 구장집에 부정이 들 때는 구장 자신도 제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택된 제관은 제일까지 목욕재계하고 근신하면서 제물과 축문을 준비하고 제삿날 아침 일찍 신역(神域)에 금줄을 친다. 신수에는 백지와 예단(禮單)을 맨다. 마을 사람들은 일찍 쉬고서 근신의 뜻을 표한다. 마을 입구에도 금줄을 치고 잡인의 출입도 제한한다. 특히 입구에 있는 장승이 동네 입구를 수호하고 있어 10월 대제 때에는 장승에게도 제례를 행한다.

신수에 예단을 매는 것은 강신(降神)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성황 신간을 만들어서 불

러 내린 다음 신수의 뿌리에 봉안하였다.

제물은 어류를 쓰지 않으나 통돼지를 털만 벗기고 씻으며 그 밖에 우육(牛肉)·백반·감·밤·다시마·두부·채소 등이 진설된다.

제의는 7인의 제관이 신당 안에 나란히 서서 두 번 절을 하고 신주 두 잔을 바친다. 그 다음에는 백반 뚜껑을 열고 수저를 나란히 놓으면 우측 옆에 있던 주제관(主祭官)이 꿇어 앉아 축문을 봉독(奉讀)하는 동안에 다른 제관은 기도를 계속한다.

축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신에게 치제하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밝으신 신령께서는 이 마을을 무구하게 수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재앙이 있으면 물리쳐 주시고 느낌이 있으실 때 통해 주셨으니 어느 것이 신의 힘 입은 것이 아니며 어느 것이 신의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과 신이 서로 의지해서 길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찌다 상서롭지 못해서 사람이 병들고 소가 병들어서 두려워하게 되면 신은 돌보십니다. 어찌 불쌍히 여기심이 없음을 근심하겠습니까. 농사하는 백성들이 재계해서 부정을 떨어버리려고 신에게 명을 청하옵니다. 신은 보호하사 재앙을 쫓아 버리고 상서를 내리시어 축산이 잘 되고 우리들의 기운을 도와 주셔서 신의 주심을 길이 힘입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찌 은혜를 잊겠습니까. 향을 피우고 희생과 예주를 바치노니 흠향하소서(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初某日(干支)幼學 敢昭告于 都堂土地之神靈 恭惟明神 含靈蕃佑 鎮茲一村 庇我醴庶 有災心攘 有感斯通 何賴非神 何神不賜 人神相依 永以爲惠 云胡不祥 人病牛疫 將恐懼 惟神不監 曷患無憫 田家齊拔 清命于神 神其保佑 驅災降祥 若時穰畜 變我人氣 神賜永賴 人敢忘惠 薦心香歆此牲禮 尚 饗)

위의 축문 낭송이 끝나면 일동은 1배하고 차례로 헌주(獻酒)의 예를 행한다. 이어서 제관 한 사람이 신 앞에 있는 술잔을 내려 신주를 따르고 향불 앞에 3번 돌린 다음 다시 헌주 한다.

다시 제관 일동이 7회에 걸쳐 재배를 한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온 소지를 호수대로 올리는 소지행사가 이어진다. 주제관이 일일이 호주의 성명을 읽어 올리면 다른 제관이 그 순서에 따라서 한 장마다 “아무개의 소지올시다. 집안이 번성하도록 해주소서.”라고 각 호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해 준다. 잘 타서 위로 올라가면 길하고 재가 곧장 지상으로 떨어지거나 하면 흉하다고 믿는 속신이 있다.

매년 10월 1일 대제 때에 장승을 세우는데 옛것도 그대로 두기 때문에 이 마을길 양 옆에는 몇 개의 장승이 서 있다. 대제 때에 산신제를 행하기 전에 아침 일찍이 제관이 장승에 예단을 묶어 간단한 제를 행한다. 마을의 수호신이고 흉기, 오역(惡疫)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신인 장승은 마을 독에 무성하게 서 있는 버드나무 가로수를 베어

다가 만든다.

흑석동 산신제는 드물게도 대낮에 행해지는데 매우 엄정하고 정숙하게 지낸다.

당시 동제는 유가식인 헌작·고축(告祝)·소지(燒紙)순과 무속식인 무무(巫舞)·무악(巫樂)·무가(巫歌)의 두 흐름으로 볼 수 있으나 공통점은 신의 가호와 축복을 기원하는 데 목적을 둔 점이다. 특히 유례형의 동제에서는 제의를 마친 뒤 음복연(飮福宴)이 있는데 동민은 한 가족이 되어 신이 흠향(歆饗)한 음식이라 하여 일대 향연을 베풀며, 무속형 도당제(都堂祭)에서도 주연을 베풀면서 가무로 산신의 신덕(神德)을 기리는 축제가 이루어졌다. 마을마다 농악과 무악은 억압된 당시 동작구 주민들에게 유일한 즐거움이었으나 일제는 3.1 운동과 6. 10 만세운동 뒤 군중집회를 두려워한 나머지 단순 전승으로 면면히 이어온 이 동제마저 금지시켜 1936년경에는 서울의 대부분 마을이 중단된 상태에 이르렀다.

(4) 노들나루의 용왕제

용왕제(龍王祭)는 물을 지배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온 용신(龍神)을 신앙하는 의식의 일종이다. 여기에서의 용신은 곧 수신으로서 안심입명(安心立命)을 기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인간이 물을 멀리 하고서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용왕에 대한 제의는 아주 옛날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경우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라 때부터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에서는 ‘사해제(四海祭)·사독제(四瀆祭)’라 칭하는 용신제를 거행하였다고 하며,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 때에도 사해사독제라 하여 동해지신·남해지신·북해지신의 사해지신과 대유지신(大維之神)·대강지신(大江之神)·대하지신(大河之神)·대제지신(大祭之神)의 사독지신(四瀆之神)에게 거국적인 굿을 올렸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도 《연려실기술》에 의하면 바다로서는 동해의 양양, 남해의 나주, 서해의 풍천, 독(瀆)으로서는 남해 웅진과 가야진, 중(中)에 한강, 서에 덕진과 평양강·압록강, 북에 두만강 등이 중요한 제장(祭場)으로 지켜져 왔다고 한다. 용왕신에 대한 신앙 즉, 용왕굿은 특히 어촌의 어민들 사이에 활발하게 전승되어 오고 있다. 어민들의 공동제의 목적이 곧 안전한 항해와 풍어제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진다. 이러한 용왕굿을 풍어제라 부르는 곳이 많다.

경상북도 영일군 구룡포읍 구룡포리의 용왕굿은 매년 용왕제를 거행하여 제당은 마

을 북쪽의 당산 중턱에 있는 한 평 정도의 작은 집으로 이곳을 용왕당이라 한다. 당 내부의 정면 중앙 벽에는 단(壇)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단위의 우측으로부터 차례로 동해용왕신위, 서해용왕신위, 남해용왕신위, 북해용왕신위라고 쓰인 나무로 된 위패(位牌)가 안치되어 있다. 이처럼 이곳에서 위하고 있는 신은 동서남북 사해의 용왕이며, 이 용왕제의 목적은 항해의 안전과 풍어, 그리고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일이다.

제의는 음력 1월 27일 밤 10시경에 거행된다. 사제자(司祭者)로는 화주 1명, 제관 2명, 축관(祭官) 1명, 집사 1명을 제일 10여 일 전에 선정한다.

제물은 화주 집에서 준비하는데 특히 청·적·백·흑색의 시루떡을 만들어 동해용왕에게는 청색시루떡, 서해용왕에게는 백색시루떡, 남해용왕에게는 적색시루떡, 북해용왕에게는 흑색시루떡을 바친다.

제의는 유교식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 먼저 제물을 차려 놓고 향을 피운 다음 화주가 헌작(獻爵)하고 재배(再拜)한다. 이어 축관이 독축(讀祝)을 하고 나면 제관 중의 한 사람이 아헌(亞獻)을 하고 재배한다. 이어 나머지 제관 한 사람이 종헌(終獻)을 하고 재배함으로써 제의가 모두 끝나게 된다. 이러한 제의에 소용되는 비용은 어업조합기금으로 충당되며 제사를 전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임부는 다른 마을로 피신하여 출산을 하였다가 제의가 다 끝난 다음 귀가하여야만 한다.

대강 위와 같은 의식으로 거행되는 것이 전국적인 용왕제의 실상이다. 그러면 노들나루를 중심으로 한 용왕제의 모습은 어떠한가 살펴 보기로 한다.

용왕굿의 절차는 12거리가 다 들어가는데 먼저 부정거리를 하고 나서 굿 속으로 들어갈 때 산거리부터 들어간다. 한양성 내 안쪽으로는 불사거리부터 하는데 이곳에서는 산이 세어서 산거리부터 한다.

12거리의 순서를 알아보면 부정거리, 산거리, 불사거리, 대신거리, 장군거리, 별상거리, 신장거리, 대감거리, 성주거리, 창부거리, 뒷풀이의 순서이다. 산거리에서 군웅거리를 다하고 불사거리에 가서 제석거리가 있어서 모두 열두 거리가 된다.

용왕제는 4월 초열흘 용궁당(龍宮堂) 탄일(誕日)맞이 날에 지낸다. 제를 지낼 때 악사들은 한복을 입고 무녀들은 한복을 입은 뒤에 각 거리마다 쾌자를 입는다. 금기사항으로는 애를 낳은 사람이나 상을 당한 사람, 월경이 있는 여자, 개고기 먹은 사람은 부정탄다고 해서 꺼린다.

한강에서 모시는 신은 동해바다 용왕님, 서해바다 용왕님, 남해바다 용왕님, 북해바다 용왕님 이렇게 동서 사방 28방으로 사해용왕님, 용태장군(용왕의 장군)이 있다. 지금 용당에 계신 분으로는 용궁님, 용궁불사님, 마장군 할머니, 손장군 할아버지, 용궁 대신 세분, 산신님, 오방신장님, 미륵님, 나한님이 계신다. 마장군 할머니와 손장군 할

아버지는 옛날에 용왕님을 모시던 분으로 마장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라의 명령을 받고 용궁당을 지어서 용왕님을 모셨다고 한다.

제의 때 차리는 음식으로는 앞쪽에 유과와 사과, 배, 귤, 토마토, 참외, 수박 같은 과일을 놓는데 복숭아는 제외한다. 그 뒤에는 전과 나물을 차리고 제일 뒤에는 떡을 차린다. 술잔은 앞에다 세 개를 놓고 양쪽으로 촛대를 놓는데 조상상에 석 잔, 성주상에 석 잔 이런 식으로 석 잔씩 차린다. 대감거리에는 갈비찜, 제육찜이 들어가고 대감님 잔은 예전에는 큰 대접에다 놓았다고 한다. 제물로 쓰이는 떡은 주로 인절미가 쓰이는데 봄에는 계곡떡이라는 것이 있어 절편을 동그랗게 해서 만든다.

이외에도 대신할머니떡, 무지개떡, 시루에 하는 백설기가 있다. 대신할머니떡은 콩버무림을 해서 거기에 콩, 밤, 대추를 넣고 섞어서 시루에다 찌는 것이고 무지개떡은 원래 일곱 가지 색깔이었는데 지금은 노란색, 파란색, 흰색만 쓴다.

인간은 원래 물에서 나왔기에 원초적으로 물을 경외한다. 그들은 물로 인한 재앙이 닥치면 수신(水神)이 심술을 부린다고 믿고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바다에는 해신(용왕신), 강에는 독신, 못에는 지소신(池沼神), 우물에는 정신(井神) 등이 있다고 믿어 음력 정월 보름이 되면 이들 수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서울은 주로 한강변에 치제(致祭)한 기록이 보인다. 한강은 이곳에 주민이 정착하면서부터 치제의 대상이 되었으며 역대국가에서 치제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백제는 한강유역에 도읍을 정하고 마한(馬韓)의 유속을 계승하여 온조왕 때 대단(大壇)을 설치하고 왕이 친히 치제 하였으며 고미왕 때에는 고취(鼓吹)까지 사용하였다. 이러한 기록을 볼 때 마한 가문의 영향으로 축제적인 형식을 갖추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신라 때에는 동서남북의 사독을 정하여 치제하였는데 당시 한강은 '북독'에 해당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주로 기우와 수재(水災)를 막기 위해 냇가에서 백신(百神)에게 치제 하였으며 그 이름을 천상제(川上祭)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명산대전의 제례는 춘추중월(春秋仲月)에 행사하였으며, 해독은 춘추중월(春秋中月) 상순에 시행한다고 법전에까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역대 왕의 신고제(神告祭)가 실록에 많이 보이며 대부분 신우(神雨)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세종 17년(1435) 5월에 한강변에서 무당들이 굿을 한 바 있고, 또 동왕 18년(1436) 4월과 6월에도 무당에 의해 굿을 하였는데, 6월에는 효험이 있어 왕이 백미(白米)를 하사하기까지 하였다. 그 뒤 숙종 30년(1704)에는 예조판서 민진후(閔鎭厚)가 대신들과 의논하여 기우제(祈佑祭)의 순서를 12차로 정하였는데, 1차에 한강이 포함되었으며, 2차와 7차 치제에 용산강과 저자도(楮子島)가 포함되었다. 또 6차에도 한강에서 치제하였는데, 이때는 호랑이 머리를 강물에 던지기도 하였다. 마지막 12차 치제 때는 오

방토룡신(五方土龍神)과 양진·덕진·도미진 등에 치제한 기록이 보인다. 이 12차 치제 중 한강에서 제사 지낸 것이 여덟 차례나 된다. 특히 6차 치제 때 호두(虎頭)를 강물에 던진 것은 용호상박(龍虎相搏)의 뜻으로 즉, 용을 건드려 비를 내리게 하자는 목적이었을 것이다. 또 저자도에서는 용제를 지냈는데, 도가자류(道家者流)를 동원하여 용왕경(龍王經)을 외우게 하였으며 창덕궁 후원·경희루·모화관 주위 연못 세 곳에서는 도마뱀을 물동이에 띄우고 푸른 옷을 입은 동자(童子) 수십 명을 시켜 버들가지로 물동이를 두드리며 “도마뱀아! 도마뱀아!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를 토하여 비를 퍼붓게 하면 너를 놓아 돌아가게 하리라.” 하고 크게 소리를 치게 하였는데, 이 같은 유속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에도 나타난다.

영조 45년(1769) 12월에는 날씨가 봄날처럼 따듯하여 한강에서 동한제(冬寒祭)를 지낸 바 있으며, 광무 3년(1899)에는 고종의 명에 의하여 한강은 남독에 해당되어 치제 하였는데, 이때 폐백(幣帛)은 흑색을 사용하였으며, 정 3품관의 헌관(獻官)을 보낸 바 있다. 이렇게 역대 국가에서도 한강에 수신·독신이 존재한다고 믿어 가뭄이 심하거나 장마가 계속되거나 겨울이 되어도 춥지 않을 경우 국가에서 고급관리를 보내 치제를 하였다.

한편 민간에서도 음력 정월 14일 저녁 둥근달이 항불을 피우고 소원을 빌기도 하였으며, 반면 농가에서는 벼가 한창 자랄 무렵인 6월 유두절이 되면 농가마다 우물에서 또는 논두렁에서 각각 우순풍조(雨順風調)를 기원하는 용신제를 지낸다. 조선 말기 서울 노량진에는 남녀 무당들의 모임인 무부계(巫夫契)가 있었으니 ‘노량진풍류회(鷺梁津風流會)’가 그것이다.

주로 무업(巫業)을 하고 있는 무당들이 상부상조 및 상호친목을 위하여 조직한 단체로서 그들의 회당을 ‘풍류방(風流房)’이라 하였다. 철종 4년(1853)에 작성한 종문(宗門)에 의하면 수백 호에 달하던 무당 집이 40여 호밖에 되지 않게 되어 생계 자구책을 위하여 스스로 세금을 내고 폐습을 제거하기 위하여 회칙까지 마련한 것이다. 조직은 회장을 영위(領位)라 하고, 그 밑에 네 개의 소임을 두었다. 원래 노들나루는 지역적인 면으로 볼 때 서울과 서울 이남을 잇는 수륙교통의 요충지로 옛부터 배에 대한 고사나 놀이가 유명하다.

속요인 〈노들강변〉도 그 놀이문화에서 나온 것이다.

예전에는 배를 매체로 하는 뱃놀이와 배다리(浮橋)놀이놀이가 성행되었다. 18C 후반 미신(彌神)의 그림인 노량진주교급행궁도(鷺梁津舟橋及行宮圖)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가 묻힌 화산(수원) 현유원(顯隆園)에 참배하러 갈 때 노들강(한강)에 배다리를 설치하고 건너는 능행도로서 당시 노들 나루터에 가설되었던 배다리의 규모와 형태까지

잘 알 수가 있다.

또 18세기 후반에는 경강부상(京江富商)이라는 사상층(私商層)이 크게 대두하여 용산·동작·마포·서강·서빙고·송파·독섬 등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용왕굿을 성대히 비중 있게 치렀으며 이때 난장도 서게 되고 온갖 가면과 잡색이 동원되었다.

용왕제는 일종의 수신제이다.

《열양세시기 洙陽歲時記》 상원조에 보면 다음과 같은 노들강변의 민속이 나타난다. “깨끗한 종이에 흰밥을 싸서 물에 던지는 것을 ‘어부슴’이라 한다.”

이 어부슴은 음력 정월 대보름 그 해의 액막이를 위하여 조밥을 강물에 던져 고기가 먹게 하는 일을 말한다. 한자로는 ‘어부시(魚飮施)’로 표기한다.

우리 민족의 물고기를 위하는 의식은 용신사상의 반영이다. 1930년대에는 ‘용왕맞이’라 하여 정월 14일 저녁에 한강변의 용궁당 및 강가에는 많은 부녀자들이 모여들었다. 강 위에는 무수한 작은 배들이 뜨고, 각각 사내아이들을 동반한 할머니들이 배를 타고 용신에게 바치는 곡물을 강속에 던지며 소지를 올리기도 하였다. 또 용궁당은 가족동반의 기원자들로 가득차고 무녀들은 소지축원에 여념이 없으며 기원자들은 누구나 자손의 장수를 빌기 위하여 명다리나 명실들을 바쳤다.

많은 사람들이 자손들을 용신의 신자(神子)로 삼기 때문에 당내에는 명다리·명실이 수두룩 쌓인다. 많은 부녀자들은 강가에 모여서 각기 촛불을 밝히고 기원을 올린다. 강 언덕 위에는 봉어나 자라를 파는 부인들이 많아 물고기를 사서 치성하기도 한다. 특히 정월 14일 밤의 한강교 일대는 이 무수한 촛불이 강물에 영롱하게 어려서 장관을 이룬다. 현재 용신을 모셨던 용신당은 병자년 포락에 사라졌고 언덕 위로 옮겨져 김영선 할머니가 모시고 있다.

(5) 노들나루의 민속놀이

동작구 노들강변의 민속놀이 두 종류를 소개하기로 한다. 이들 놀이는 축제의 뒷풀이 마당에서 경기 형식으로 시현하거나 놀 수가 있는 흥미로운 놀이이다.

① 뗏목 운반놀이(떼 풀기놀이)

과거 강원도 정선·영월에서 내려오는 뗏목의 길이는 가장 긴 것은 100m가 넘는다. 뗏목이 들어올 때면 동네가 난장이 벌어지고 축제분위기에 휩싸이게 된다. 강원도 정선 사람들의 마지막 선착장은 바로 이곳 노량진의 '가칠목'이라는 동네이다.

옛 노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옛날 여기가 사형장 자리였고 그래서 죄인들이 한번 들어와 가지고 그냥 간히니까 '가칠목'이라고 했다고 한다. 뗏목이 일단 내려오면 노량진 가칠목에 와 닿고 물건은 서울로 가져가게 된다. 마포의 새우젓배를 만든 이들도 이 마을 사람들이었다.

뗏목꾼들은 시루떡을 해 놓고 뗏목 위에서 용왕제를 지냈고 이내 물건을 하역하고 나서 때를 풀기 시작한다.

노들 용왕당 옆 가칠목 앞강에는 나루터가 있고 빨래터가 있었다. 일단 뗏목 위의 물건을 다 부리고 나서는 강 위에 떠 있는 뗏목을 풀어서 땅 위로 올려놔야만 한다. 이때 편을 짜서 첩으로 감아 놓은 뗏목의 통나무를 하나씩 풀어 가지고 용왕당 옆에 있는 큰 나무까지 메고서 달리는 경주를 하였다.

삿대는 도토리나무로 만들고 뗏목은 소나무나 낙엽송을 재료로 쓰기도 하나 주로 참나무로 만드는 게 원칙이다.

원래 한국의 육상경기는 서낭당에서 발생하였다. 최근까지의 민속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서낭당을 돈다든가 서낭수목을 도는 경기내용은 간혹 발견할 수 있으나, 장애물 경기의 형식을 갖추고 힘을 요구하는 육상경기는 이곳 노량진에서 처음 발견된 셈이다. 과거에 뗏목을 풀어 달린 거리는 약 100m 정도가 되는데 진흙밭을 뛰었다고 이곳 김대길은 증언하였다. 또한 용왕당 옆에서 벌어진 달리기라는 점도 특기할 만 하다.

이 놀이는 노들축제나 문화재 때 재현시켜 볼만한 작품이라고 확신하며 원칙적으로 뗏목을 첩으로 감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경기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김대길은 과거에 뗏목을 만들어본 이이기에 뗏목 제작에는 별반 어려움이 없을 줄 안다.

② 장군 들돌들기

청장년이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힘쓰기 놀이를 '들돌들기'라 한다. 이 놀이에 쓰이는 돌은 지방에 따라 들독·등돌·든돌·진쇠돌·당산돌·신돌·초군돌·차돌백이돌 등으로도 불린다. 크기는 장사가 땅뜨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무거운 돌이며, 작은 돌은 쌀 한 가마 정도의 무게로 등넘기기를 할 수 있는 돌들이다.

대개 타원형이거나 원형으로 한 마을이 가지는 들돌의 수는 한두 개인데 많은 곳은 대여섯 개인 곳도 있다. 이 들돌 때문에 마을 이름이 거석거리·들독거리·거석마을

등으로 불리는 곳도 있다. 대개 동네 어귀나 당산나무 밑, 노두목, 정자 앞, 당집 앞, 장자집 마당, 터논 등에 놓여 있다.

들돌의 생성 보유 유래는 마을마다 간단한 전설이 있다. 전라남도 흑산도 진리에는 입향시조가 당을 조성하고 번쩍번쩍 빛나는 돌을 발견하여 신돌로 삼아 당에 모셔 왔다는 이야기가 있고, 전라남도 여천군 울촌면 방월리에는 여인이 마을 뒷산에서 크고 매끈한 돌을 치마에 싸서 당나무 밑으로 가져 왔다는 이야기도 있다.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 유산리에는 장사 노인이 산에서 단단한 돌을 발견하여 앞가슴에 품고 왔는데, 너무 커서 작게 다듬었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들돌들기는 정월 보름날 당제를 지내고 신의를 알아본다거나 다산·다복·강령을 축원하면서 든다.

지방에 따라서는 유두·칠석·백중·추석 등의 명절에 들돌들기를 한다. 전라남도 낙안에서는 스므 살 되기 전인 소년이라도 이 들돌을 들어 힘이 있다고 인정되면 어른 축에 넣는 풍습이 있었다. 그리하여 어른 몫의 품앗이꾼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서 대부분의 마을에서 당산나무 밑에서 심신의 단련과 친목을 위하여 틈나는 대로 연중 이 놀이를 한다. 들돌들기는 두 발을 벌리고 굽은 자세로 땅뜨기, 물박치기, 허리에 올리기, 가슴팍 올리기, 등넘기기 등이 있으며, 가슴에 품고 땅돌기, 어깨에 메고 당나무돌기, 마을돌기, 머리 위로 치켜올리기, 들돌을 지게에 지고 양손으로 귀잡고 일어서기 등의 여러 놀이가 있다. 큰돌은 그 밑에 작은 편 돌을 놓고 손으로 넣어 손깍지로 들고, 아주 큰돌을 들 때에는 머리카락으로 만든 띠를 받쳐 들기도 한다.

들돌들기는 들돌을 드는 정도에 따라 상머슴·담살이 등으로 구분하여 새정을 결정 짓기도 하고, 유두·칠석·백중·추석 등의 명절에 술을 붓고 마을의 태평과 풍년 그리고 무병을 기원하며 놀기도 한다. 또 지방에 따라서는 부녀자들이 들돌에 금줄을 치고 정안수를 떠 놓고 득남하기를 빌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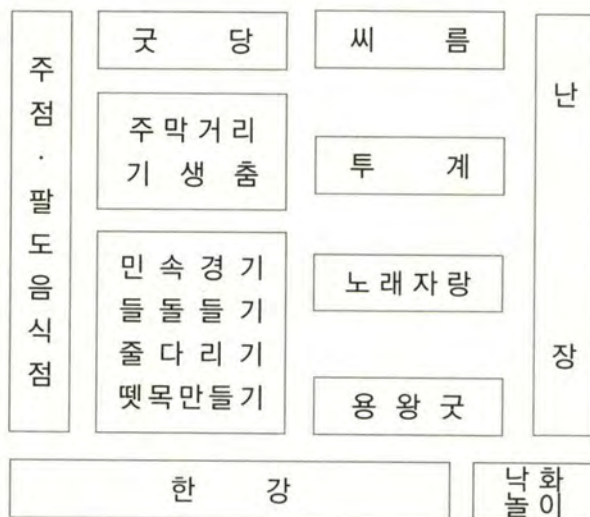
들돌은 신성물이다. 그리하여 흑산군도(진리 당산)에서는 제관들은 들돌을 들어보아 가벼우면 당신이 제물을 잘 흠향(歆饗)하였다고 믿고 있다.

노들나루에는 옛날 큰 주막이 있었다. 그때 나루터 앞에 큰 바윗돌(靑石)이 있었는데, 김대길의 할아버지 외에는 그 돌을 드는 사람이 없었다. 그 돌은 장정 5~6명이 앉을 만한 크기였다고 하니 대단히 큰 들돌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강 사람들의 서민적인 독심을 과시하기 위해 도강(渡江)하는 이들과 내기를 걸면 그분을 당할 사람이 없었다. 옛날 장군들도 그 청석(靑石)을 못 들면 술을 내고야 지나갔다고 하니 통과례식의 놀이이자 의식이었으며, 강 사람들의 기백을 한껏 뽐냈던 체육의 장이기도 하였다. 이 놀이를 필자는 그 설화성을 감안하여 '장군들돌들기' 또는

‘장군청석들기’라고 일단 명명하고자 한다.

장군 들돌놀이를 문화축제 때 실시할 수도 있다. 들돌을 들어올리는 들돌장사 뽑기를 체급별로 할 수 있고, 가벼운 들돌을 들고 달리는 놀이도 할 수가 있다. 후자는 동대항시합에 적합하다.



【제보자】

- 김순녀 (여, 80세, 흑석 1동 노인정)
- 김정임 (여, 84세, 흑석 1동 노인정)
- 문건성 (여, 58세, 흑석 3동 흑석시장 내 한복집)
- 박영임 (여, 57세, 동작구 흑석동 명수대노인정)

－ 조사일자 : 1994년 4월 24~25일

2) 충북 목계나루의 민속

(1) 목계나루의 민속배경

세인의 이목을 한껏 끌고 있는 동강과 서강, 이 두 강은 역사적으로 한이 설인 강이었지만 거대한 배달민족의 문화를 탄생시킨 강이기도 했다. 그야말로 배달겨레의 젖줄 구실을 해 온 강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민속놀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동쪽을 남성으로 서쪽은 여성으로 상징하여 삶의 체계나 놀이 체계를 이해하고 있다.

그리하여 동강은 남성적인 강이요, 서강은 여성적인 강의 이미지로 다가 오게 된다. 이는 목계나루도 마찬가지이다.

동강은 흔히 물길의 험하여 솟강 곧, 신랑에 비유하고, 서강은 암강 곧, 신부에 비유하기도 한다. 물굽이의 꺾임과 휘어짐에 있어서는 동강보다 서강이 훨씬 사납지만 흘러가는 웅장함은 가히 동강이 남성적이다.

서강은 윗줄기인 영월 주천강과 평창강을 에돌아 흘러 온다. 본디 주천강은 영월 수주면과 주천면을 품에 안듯 에돌아 돌면 웅정리에서 평창강과 만나고 서강과 한몸이 된다. 또 평창강은 주천면 판운리를 가로 질러 서며 웅정리를 파리처럼 휘돌아 주천강과 몸을 섞은 뒤 비로소 서강이 된다. 이렇게 웅정리에서 합수된 물길은 다시 동남쪽으로 길을 틀어 청령포를 감아 안듯 흘러 이윽고 하송리에서 동강을 만나 남한강이라는 큰 가람을 이루게 된다.

한강은 남한강과 북한강으로 나뉜다. 이곳에서는 경기권 남한강 민속을 이해하기 위해 충청북도 목계나루의 제반 민속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목계나루(牧溪津)는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에 자리하고 있다. 목계(木溪)의 옛 지명은 '상계' 였는데 그 뒤 '오목계' 였다가 지금의 목계로 바뀌었다.

목계나루는 우리나라 5대 하항(河港)의 하나이다. 특히 영월과 제천 등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증원군에서는 가장 큰 동네였다.

충주시(舊 증원군) 엄정면(嚴政面) 목계리에서 가금면(可金面) 가흥리(可興里)로 건너 양성면(仰城面)을 지나 경기도 장호원(長湖院)으로 이어지던 나루터로, 과거에는 세미(稅米)를 운반하던 가흥창을 끼고 내륙 하항으로 성황을 이루었으나, 내륙교통의 발달 및 다리의 가설로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6·25 때만 해도 큰 항구도시였으나, 6·25 폭격과 그 후 홍수, 다리 가설 등으로 인하여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염정면의 주요 농산물로는 쌀·보리·콩 기타 잡곡이 생산되며, 특용작물로 깨·담배를 많이 경작한다.

목계나루의 교역 물자는 서울에서 새우젓·조기·소금·미역·고등어·설탕·광목이 들어오고, 목계에서는 쌀·보리·팥·콩·조·담배·고추·배·나무 등이 나갔다. 새우젓과 소금은 마포에서 싣고 왔으며, 한편 목계에서 곡물과 담배 등을 실은 배는 서울 서빙고로 가고, 나무는 영월과 충주에서 목계에 들어오며, 떼(뗏목)에 실어서 광나루로 가서 팔았다. 떼목은 장마가 저서 물이 적절하게 있을 때 많이 내려간다고 한다. 목계에 들어온 물자는 영월·문경·단양·제천 등지로 나갔다. 이처럼 떼목꾼들은 산업의 유통에 큰 기여를 해 왔던 것이다.

현재 목계나루는 부정기적인 시장이 열리고 있으나 옛날의 성황을 이루었던 모습은 찾을 수 없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목계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는 목계 줄다리기가 있고, 동제로는 서낭제가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별신굿을 벌였다. 또한 줄다리기는 부정기적인 난장이 크게 섰다.

목계의 지형은 풍수지리상 삼태기형에 속하므로 이곳에서 돈을 다 모아서 외지로 나가 쏘아야 잘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곳은 벌어서 부자는 되지만 그곳에 오래 거주하면 돈이 점점 사라지는 지세를 지니고 있다.

이곳 향언(鄉諺)에 “영월 뗏강아지 저 여울에 가서 돼지우리간이나 지어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배가 바위에 부딪혀서 파손되라는 뜻이다.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 영월에서 내려오는 뗏사공들에게 이 말을 하면 부화가 나서 가다 말고 헤엄쳐 달려와서 혼내 주었다고 한다.

또한 “목계 당고사가 지나야만 날이 풀린다.”는 향언이 있는데 당고사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비중이 컸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말이다.

(2) 목계나루의 제당과 제의

① 서낭당(부흥당)

서낭당 현판에는 ‘부흥당’이라 쓰여 있다. 위치는 목계 인도교 옆 봉제산(일명 봉산, 부흥산, 富興山)에 위에 있다. 원래의 위치는 산밑 다리 앞 삼거리(서울 방향 쪽) 길 옆에 있었는데 1968년 다리 가설공사로 인하여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당 안에는 중앙에 서낭각시를 중심으로 왼쪽에 산신, 오른쪽에 용신, 그 옆에 산신

(독성과 비슷)이 모셔져 있다. 옛날의 그림이 없어져 다시 모신 것인데, 옛것과 같다고 한다. 그러나 신격(神格) 대상이 언제 어떤 신화에 근거하여 정착되었는지 아는 이가 없다.

서낭각시(당각시)의 성은 문(文)씨요 이름은 순자라고 한다. 이는 제보자 '변진수'가 그림이 없어져 서울에서 다시 그림을 그려올 때 그곳 화상인 신씨가 전에도 그 그림을 자신이 그려준 적이 있다면서 서낭각시의 이름이 문순자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고 한다.

제의로는 서낭굿, 별신굿, 기우제, 오룡굿 등이 있다.

서낭굿은 정월 초하룻날 밤 6~7시경 제사를 지내며 축관은 구장이 맡는다. 축문의 내용은 동네가 불안 없고 잘 되기를 바라며, 치성 오는 사람이 아무 탈 없이 돌봐주기를 기원하는 것이라 한다. 현재는 음력 정월 9일 당고사를 올린다.

제의는 동네 구장과 마을 사람 몇 명이 올라가서 지낸다. 제의 사흘 전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세 군데 편다. 제주(祭酒)는 조라술이라고 하는데 7일 전에 누룩으로 술을 빚어 항아리를 서낭당에 묻어 놓으면 아무리 추워도 익기 마련이다. 제수로는 주·과·포·팥시루·돼지머리 등을 쓴다.

이곳의 서낭은 영검하여 이 동네사람들은 강에서 탈이 안 나고 대개 외지 사람들이 와서 익사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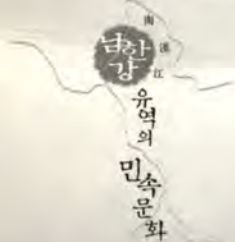
서낭제는 목계 1구와 2구가 한 해씩 번갈아 교대로 지낸다. 옛날에는 정월 초닷새날 당골무당이 광대와 악사를 데리고 와서 광대놀이를 하여 돈을 모은 뒤, 7일에 제주집에서 안반굿을 하고, 10일 목계나루에 있는 부군당에서 당굿으로 거행하였다. 그러나 당굿으로 행하는 서낭제는 40여 년 전에 중단되고 지금은 서낭각시의 그림이 있는 부흥당에서 제주가 제물을 차려 놓고 유교식 제사를 지낸 뒤 소지를 올리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② 별신굿

제의 시기는 6·25 전에는 4월 초파일 전후해서 날을 받아서 매년 별신제를 지냈다. 현재는 편의상 10월 지역축제 때 지낸다.

제수는 주·과·포·호두·잣·쇠머리·돼지머리 등을 환갑 잔치상과 같이 차렸다. 제수 준비는 구장집에서 하는데, 대동계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동네에서 추렴한다.

금기는 엄격하여 초상이 난 집이나, 상가집에 다녀온 사람, 출산한 집, 개고기 먹은 사람 등은 서낭에 가지 못한다.



③ 기우제

두무소 '용바위'에서 '무(물)제'를 지낸다. 돼지를 잡아서 용바위에 피를 뿌려 놓으면 비가 와서 씻겨 내려간다고 한다. 또는 키를 가지고 강가에 가서 까불면 비가 온다고 한다.

이밖에 다섯 용을 위한 용왕굿인 오룡제를 지낸 적도 있다.

(3) 목계나루의 민속놀이

이곳의 세시풍속은 정월 보름부터 시작되는 달맞이인 망율이(망우리)가 유명하다. 집이나 강변 또는 산에 햇불을 들고 올라가서 달을 보며 소원을 빈다. 또 어부슴이라 하여 2월 초하룻날 저녁 주부 혼자서 바가지에 밥을 담아 강에 가서 사해 용왕님께 “동해용왕님, 어부슴합니다.” 하면서 밥을 띄우고 자손들 잘 도와달라고 비는 민속이 있다. 그런 다음 올 때는 바가지에 돌을 3~4개 담아서 온다.

집단놀이로는 줄다리기와 낙화놀이를 들 수 있다.

① 줄다리기

이 마을에서는 줄다리기를 ‘기줄다리기’ 또는 ‘용줄다리기’라고도 한다. 줄다리기는 음력 정월 보름부터 시작되어 2월 보름께쯤 끝난다.

줄을 다리는 이유는 줄다리기를 안 하면 동네가 망한다 해서 줄을 다렸다고도 하고 또 줄을 다리지 않으면 범이 내려와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줄을 다렸다고도 한다.

먼저 정월 보름에 아이들이 골목에서 20~30명씩 양쪽에서 동편(동계) 서편(서계)으로 나뉘어 줄을 다린다. 그런 다음 좀더 큰 청년들이 줄다리기를 해서 점차 큰 줄이 되고 나중에는 전체 어른들이 동·서로 나뉘어 밤에 줄을 다리게 된다. 동편이 지면 석전이 나서 머리가 터지고 부상을 입곤 한다. 줄다리기는 남녀노소 다 한다.

줄다리기를 하려면 500토매(짚 10단이 한 토매)의 짚이 소용되므로 60일 전부터 짚을 거두었다고 한다. 줄의 크기는 팔뚝 굵기만한 줄을 50가닥씩 모아 150가닥을 만들고 이를 셋으로 해서 꼬아 50~60발을 드려서 아름답리만한 것을 셋을 포개 놓고 양쪽을 묶는다. 줄의 길이는 양 줄을 합하면 약 400m 가량 된다.

줄을 만들 때 여자들이 줄에 접근하는 것은 금기로 되어 있다. 만일 여자가 줄을 넘어 갔다가는 맞아 죽는다고 제보자는 풍을 쳤다. 부정이 들까봐 양쪽에서 줄을 밤새도

록 지킨다.

줄이 완성되면 줄고사를 지낸다. 제물은 주·과·포·백설기(시루) 등을 놓고 편장이 헌작하고 동네가 편하고 농사도 잘 짓고, 또 이기게 해달라고 빈다.

줄고사를 지낸 다음 용두머리(고 모양의 줄머리로 도래)를 쫓는다. 용두작대기를 걸 때 양편에서는 “먼저 쟁귀라.”, “안 쟁군다”, “쟁굴까 말까” 하면서 이를 남녀의 성행 위에 비유하며 음담을 주고 받으며 실갱이를 한다. 일종의 성례나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다. 그러다가 바로 밀어 쑥 들어가면 곧 줄을 다린다. 용두를 끼우는 과정은 매우 힘들어 사흘씩이나 간다고 한다.

줄다리기 전에 완성된 줄을 마을 사람 수백 명이 메고 마을의 서낭당 앞에 가서 줄패장이 “술렁수~” 하면 줄꾼들이 “예~” 하고 대답을 하고, 양쪽에 이기고 지는 것은 서낭에 달렸다고 패장이 다짐을 한다.

줄다리기의 편제는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는데, 목계를 중심으로 셋강을 건너 모래밭 다리 있는 곳까지를 동계라 하고 그리고 반대편을 서계라 하는데 동계는 남자, 서계는 여자로 정한다. 동계는 개천을 안 끼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았고, 서계는 앙성면·소태면·가금면에서 배를 타고 건너 와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적었다.

줄다리기를 할 때는 양편에서는 농악을 청병(淸兵)한다. 서편은 장호원·이천 등에서 오고, 동편은 원주·제천·충주·음성·단양에서 오는데 깃대가 50~60개나 된다. 이와 같이 비록 경기도나 강원도라 하더라도 인접지역 주민들이 줄다리기에 함께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줄다리기는 대장 1명, 좌장 1명, 소장 1명으로 구성된다. 시합 때 대장이 줄 위에서 “술렁수.” 하면 밑에서 젊은이들이 “예.” 하고, 또 “죽더라도 우리가 이겨야 한다.” 하면서 “와.” 하고 함성을 지르고 “다리자.” 하는 대장의 지휘 하에 줄을 다린다.

줄다리기 기간은 한 달 이상이 걸렸다. 하루에 한두 번씩 2~3일 간 줄을 다렸다가 중간에 쉬었다가 맨 끝날에 승부를 보았다. 이때 이곳 사람들은 싸움이 날 것을 우려하여 뒤에서 감시를 한다고 한다.

승부는 어느 쪽이 이기든 간에 서로 비긴 것으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석전질이 나서 싸움이 생긴다. 그래서 비긴 것으로 해야 동네가 편안하다고 믿는다. 형제가 동·서에 살 때는 서로 못 가게 하고 부자지간에도 남이 되어버린다. 또 승부욕이 강한 어떤 여자는 줄이 끌려가지 않도록 치마폭에 돌을 싸서 안기도 하고, 줄을 다리다 설 때 줄을 깔고 앉기도 한다.

줄다리기가 끝난 뒤 줄은 나루 모래사장에 그대로 둔다. 그러면 장마 때 줄이 내려갈 때 콩지가 올라와서 용두와 동그랗게 합쳐져서 서울쪽으로 내려가는데 대개 두 줄이

똑같이 간다고 한다. 그래야 마을이 편안하고 농사도 잘 된다는 속신(俗信)이 전한다. 그래서 장마질 때 줄이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떼내려가는가 궁금하여 구경들을 간다. 한 번은 줄을 그대로 두지 않고 어느 장사하는 사람이 줄을 사서 거름을 한 적이 있는데 그의 집안이 망해버렸다고 한다.

또한 줄다리기가 끝났더라도 줄에 연장을 대면 안 된다는 금기가 있다. 이 모두가 줄에 대한 신성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때의 줄은 이미 줄이 아니다. 바로 용신(龍神)이 되어 목계강을 지배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또 솥줄의 가랑이 부분의 줄을 다려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신이 있다.

밤에 줄다리기가 끝난 뒤 강변에서는 '박첨지놀이'를 했다. 구경꾼들이 돈을 주면 이 돈을 보태어 술·떡·돼지고기 등 제수 비용을 마련하고 서낭당에 당고사를 지낸다. 여기서 '박첨지놀이'는 걸립(乞粒)의 기능까지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줄다리기는 9년 전에 재현한 적이 있는데 현재는 하지 않고 있다.

② 낙화놀이(뱃놀이)

주로 3, 4월 봄밤에 두무소에서 하였다. 강통에 솜을 넣고 석유를 부어 불을 켜서 강에 띄워 보내고 배를 타고 노는데 남자들은 풍물을 쳐주고 여자들은 춤추고 놀았다. 이 놀이는 40여 년 전까지 전승되었으나 현재는 사라졌다.

집단놀이에 난장은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별신제 때는 장이 별로 서지 않지만 줄다리기 때는 강변에 난장이 크게 선다. 줄다리기는 한 달이 더 걸리기 때문에 난장도 장기간 선다.

난장을 트면 온갖 잡화를 파는 상인들과 음식점, 색주가가 들어서고, 또한 각지에서 모여든 구경꾼들로 붐빈다. 목계는 항구도시라 특히 기생들이 많았으며, 구경꾼들은 백운면·귀래·장호원·이천·제천 등지에서 많이 모여 들었다. 사람들이 마치 파대 가리처럼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음식점도 수백 개가 들어섰다고 한다.

난장에서 행해지는 놀이로는 씨름, 광대 줄타기, 박첨지놀이, 노름(화투·윷)·동덩이(투전과 비슷함.) 등이 있었다. 그런데 곡마단은 오지 않았는데 곡마단이 오면 줄판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오히려 좇겨 갔다고 한다.

박첨지놀이는 줄다리기가 끝난 뒤 강변에서 크게 난간을 짓고 했다. 등장인물은 박첨지, 숙녀각시, 여자 10여 명 등이다.

과거의 난장에서 유명했던 음식으로는 해장떡이 있는데 이는 찰떡에 흰 고물을 묻힌 것으로 크기는 손바닥만 하며 해장국에 3~5개 넣어 먹으면 맛이 별미였다고 한다. 해장국이 맛이 있어 인파가 몰려들 정도였다고 하니 당년도 먹거리가 축제판에서는 빼

놓을 수 없는 요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필자는 남한강 유역의 축제인 목계나루 축제, 노들나루 축제를 살펴 보았다.

주로 본고에서는 목계나루 축제와 노들나루 축제의 지난적 민속 상황을 논급하였다. 또 노들나루 축제에서 밝힌 대로 뗏목꾼들의 풍류적인 멋과 애환의 역사가 남한강 일대에 이어지고 있음을 속담이나 산물 수송 등에서 살펴 보았다.

이뿐이겠는가. 그들이 실고 온 목재를 부리고 나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웃음을 띤 들병장수들이나 기생들이 이포나루나 광나루, 노들나루에서 유혹을 했으니 나무 판돈이 남아 날 리 없고, 투전꾼들마저 노름판으로 그들을 유인하여 고무신, 광목조차 사갈 길이 막연하기도 했다. 축제는 놀이와 함수관계에 놓여 있다.

단오하면 씨름과 그네가 연상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과거 노들나루가 경기도 과천이나 시흥지역에 속했던 지역이고 보면 노들나루에서 행해졌던 장군 들돌들기나 뗏목 경주, 뗏목 만들기, 뗏목 풀어 달리기 등을 부활시킨다면 그 지역의 훌륭한 지역문화 재감이 될 것으로 확실한다.

【제보자】

- 사공 문웅 (충주문화원 사무국장)
- 이천예 (여, 82세, 엄정면 목계리 민영빌라 101호)
- 김매월 (여, 82세, 엄정면 목계리 3번)
- 지정호 (여, 78세, 목계리 289, 충주에서 남편이 산판을 크게 했음.)
- 윤태호 (남, 64세, 엄정면 목계리 1구)
- 어○○ (남, 66세, 엄정면 목계리, ※제보자가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함.)
- 변덕성 (남, 86세, 엄정면 목계리 2구, 변군수라고도 하며 목계 출신으로 이곳의 내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제보자임.)
- 신복순 (여, 76세, 변덕성의 부인)
- 법인스님 (남, 73세, 부흥사 주지, 제천 출신)

— 조사일자 : 1997년 5월 3일~4일

南 漢 江
남한강

유역의

민속문화

6. 남한강 유역의 민속현장조사



6. 남한강 유역의 민속문화

1) 민속문화에 나타난 물의 상징

신화(myth)란 말은 로고스(logos)란 말처럼 ‘언어’ ‘또는 말하는 것’이란 뜻 이외에 희랍어 미토스(mythos)에서 유래된 말로 ‘신에 관한 이야기’ 또는 ‘비(非) 기독교적인 이야기’라는 뜻이 있다.

신화는 신을 배경으로 한 당시 사회의 거울이다. 그러기에 신의 배경 뒤에는 당시 사회의 상황(context)이 암유(暗喻)와 상징을 통해 묘사되어 있다. 신화는 대별(大別)하여 우주기원신화, 인류기원신화, 문화기원신화로 나누기도 하고 운문(韻文)과 산문(散文)이라는 전달양식에 따라,

- (1) 운문신화 — ① 당신화(堂神話) ② 일반신화(一般神話)
(2) 산문신화 — ① 창세신화(創世神話) ② 영웅신화(英雄神話) ③ 시조신화(始祖神話)
④ 부락신화(部落神話) ⑤ 일반신화(一般神話)로 분류하기도 한다.

아무튼 이들 신화는 제의례(祭儀禮) 등을 통해 인간이 보다 높은 영역으로 지향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때로는 그들 나름의 자연과학이요 집단 의식이기도 하였다. 곧, 우

주기원설은 다음과 같이 종교적인 창조형과 과학적인 진화형으로 나누어 이해하고 있다.

신화론(mythology)은 18세기의 타일러(E. B Tylor)나 프레이저(L. G Frazer)로부터 시작된 신화주의적 방법에서 출발한다. 타일러는 그의 《원시문화》에서 종교는 애니미즘→사령(死靈)→자연정령신앙(自然精靈信仰)→다신교(多神敎)→일신교(一神敎)의 단계로 발전한다고 주장하면서 애니미즘이 종교의 원천이며, 동시에 신화를 발생시킨 근본요인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의 신화연구는 저층문화민족(底層文化民族)의 신화연구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개사회의 문화는 인류의 보다 초기적인 원시문화를 보존하고 있으며, 인간의 원초적 신화관념의 원형(原型) 또한 그곳에 있기 때문에 후기 신화를 이해하는 데에 적절하다는 것이다.

같은 진화주의 신화론자인 프레이저는 진일보한 견해를 펴고 있는데 그는 주술(呪術)→신화→종교→과학이라는 발전단계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1880~1920년에 크게 일어난 전파주의적 방법론을 주창한 슈미트(P. W Schmidt)를 들 수 있다. 그는 문화의 변화와 발전은 문화의 전파에 기인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일직선적인 문화의 내적 발전만을 역사의 법칙이라고 보는 진화론을 거부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집트신화가 세계 각 지방에 전파된 경위를 증명하려 했다. 그는 원시문화를 원문화권→제1차문화권→제2차문화권→고대 고급문화권의 4단계로 구분했다. 그리고 토테미즘 문화의 수렵민족들은 태양신화를 모권적(母權的)인 농경민족문화에 있어 달의 신화라는 상대공식을 펴던 것이다. 그러나 방법론상으로는 진화주의와 마찬가지로 문화요소 간의 구조적기능적 관련성을 경시한 점이 약점이다.

다음은 기능주의적(機能主義的) 방법이다. 신화학에서의 기능주의는 마리노브스키(B. Malinovski)로 대표되는데, 그는 1914~1918년에 걸쳐 멜라네시아의 트로브리안드 제도(Trobriand 諸島)의 원주민들을 상대로 치밀한 현지연구를 실시하여, 신화가 그들 원주민사회에서는 전승되어 내려오는 하나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현실을 정당화하고 전통을 강화하며 살아서 적용하고 있는 ‘헌장(憲章: charter)’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어떤 문화요소가 기능을 가지지 않은 채 잔존할 수 있음을 부인하고 있으며, 따라서 문화의 제 요소를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문화전체의 유기적 관련 속에서 파악할 것을 주장했다. 앞에 언급한 진화주의나 전파주의가 시간적 계열에서의 역사법칙을 문제로 한다면 기능주의는 현 시점에서의 문화의 기능적 관련 속에서 법칙을 구하는 태도라 하겠다.

구조주의자(構造主義者)인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는 다음과 같은 신화관을 펼쳤다.

첫째, 만일 신화 속에서 의미라는 것을 추출해 볼 수가 있다면, 그것은 한 신화의 구

성요소가 결합된 방법에 있다.

둘째, 신화는 언어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실제 언어의 일부이긴 하나 신화에 있어서의 언어라는 것은 특별한 특질을 밝히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제 특질은 보통 언어학적 수준보다 복잡한 특징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신화란 자연과 문화와의 관계에서의 신화적 사고의 기록이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Carl G. Jung)이나 조셉 캠벨(Joseph Campbell)은 심층심리학적 방법으로 신화를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원이라든가 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들 나름대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정원의 상징은 부단한 삶의 재창조(renewal)라든가 불변하는 자연의 순환을 뜻하며, 물은 탄생과 재생을, 새는 초월성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 칼 융의 설을 들지 않더라도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미 물이 세계를 구축하는 주요 원소(元素)이고, 물이 있기 때문에 자연계와 인간계가 존재했다는 우주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른바 신화학에서의 원천(源泉), 원수(原水) 개념이 그것이다. 이때의 물은 우주적 잠재력의 집합을 상징하며, 이것이 모든 형태와 모든 창조를 지배함을 암시한다.

칼 융은 수많은 꿈을 분석하여 희랍신화에 나오는 그림자, 아이, 우월한 어머니, 여기에 상대되는 반대자 등 상당히 규칙적으로 보이는 무의식적 산물들을 원형(archetype)이라 했다. 원래 아키타이프란 최초의 형태 또는 원초적 형태란 뜻인데, 이는 역사지리학적 방법(historic-geographic method)에서 흔히 쓰였던 방법론이다. 흔히 아키타입은 그 신화의 역사적 발전이나 이동과 전파, 수많은 교정(redactions)을 불러 일으키는 원인을 찾고 설화의 재구(再構)와 가설을 찾는 방법론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음은 정신분석학적 방법에 의한 신화해석법이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신화는 꿈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심저(心底)에 잠재해 있던 무의식적 원망(怨望), 곧 성적 콤플렉스가 설화형식으로 표현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화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신화의 잠재의식적인 무의식적 원망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이 꿈의 경우 탄생은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서설》에서 강조하듯이, 흔히 물의 이미지로 표현된다. ‘파도 속에서의 일어 섬’, ‘혹은 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표현은 모두 비옥성을 상징하며, 아이의 탄생을 비유하는 이미지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물은 모든 원소들 가운데 전환성이 가장 빠른 원소로 간주된다. 곧 물은 불, 공기, 대지 사이에서 쉽게 전환된다. 말하자면 물은 쉽게 증발하여 에너르기인 공기가 되는가 하면, 굳어 얼음이 된다. 물이 삶과 죽음의 매개자로 인식되는 것은 이런 사정을 토대로 한다. 물은 이때 창조라는 긍정적 흐름과 파괴라는 부정적 흐름 양면성을 지닌다. ‘투명한 깊

이'를 강조할 때 물은 표면과 심연을 연결한다는 의미를 드러낸다. 따라서 물은 이런 두 이미지를 결합한다고 주장된다.

융은 문화내용의 유사성을 심리학에 의해 해석하고 있다. 원시시대의 문화적 유산은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의 체계 속에 표현되어 있는 독특한 이미지를 동반하고 있다. 이들 이미지 전체는 집단무의식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것은 모든 개인에게 잠재적으로 유전된다. 신화적 이미지는 항상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어 근대인의 꿈의 이미지와 원시인의 신화적 모티프 사이에는 유사성이 드러나고 있다. 융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은 그 개성의 역사를 가질 뿐 아니라 긴 역사를 가진 인류 공통의 심리적 유산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화는 선조들이 우리에게 띄운 중요 통신인 것이다. 고대로부터 유전물을 융은 원형, 혹은 원시심상(原始心像)이라고 불렀다. 그가 말하는 인간의 무의식적 원형의 이미지란 기러기가 형태를 지어 이주하고, 개미가 조직화된 집단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능적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신화의 발생을 제의(祭儀)에다 두는 해리슨(Harrison)이나 머레이(G. Murray) 같은 제의학과(祭儀學派 : Ritual School)의 이론이나, 신화는 그야말로 '과거 역사의 기록'이라고 간주하는 리버어즈의 역사학적 방법도 특기할 만하다.

무릇 한 민족의 민족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설화를 살필 필요가 있다. 그것도 건국이념이 깃든 개국신화(開國神話)를 살펴 봄으로써 그 민족의 심성을 엿볼 수 있다. 알렉산더 알렌(Alexander Allen)의 말처럼 "신화는 은유적 서사시이다." 그것은 정제된 인간 경험의 정수(essence)인 것이다.

우리는 알렌의 말처럼 그 신화라는 단순한 이야기 형식에서 은유법적 표현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이고, 그 구조의 공통분모는 무엇인지 등을 찾을 필요가 있다.

(1) 단군신화 속의 물

하늘에 천신 환인(桓因)이란 분이 있었다. 그에게는 서자인 환웅(桓雄)이 있다. 그는 늘 인간세상을 그리워하여 그곳에 내려가 널리 그의 뜻을 펴고자 했다. 드디어 그는 천제(天帝), 곧 하느님의 허락을 받고 이 세상에 하강한다. 그가 내려온 곳은 산의 정상 신단수(神檀樹) 밑이다. 3천 무리를 거느리고 내려와 신시(神市)를 건설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내가 없었다. 때마침 인간이 되고자 하는 호랑이와 꿈을 시련대에 올려

놓는다. 마침내 시련을 이겨내고 인간이 된 용녀(熊女)를 맞이하여 혼인을 한다. 여기서 낳은 인간이 단군이다.

실상 신화가 서사성을 안고 있는 이상, 거기에는 갈등과 그 해소가 있기 마련이다. 환인과 환웅 사이도 부자 간이지만 갈등은 있어 왔다. 지상을 탐내는 아들이 서자인 점도 그것을 방증한다. 여러 아들 중 서자로 태어난 신분 갈등으로 인하여 그는 다른 세상을 개척해야만 했다. 이 경우는 <주몽신화>와 흡사하다.

신화는 남과 여의 접합에서 곧, 양과 음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환웅이 산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환웅은 용녀(熊女)와 호녀(虎女) 중 한 여인을 택해야 했다. 당시 사회는 곰과 호랑이 둘 다 거느릴 수가 없는 사회였다.

결국 용녀가 승리를 거둔다. 용녀의 승리는 비단 하나의 곰 그 자체로 보기도 한다.

던데스(Alan Dundes)는 북미 인디언 신화의 구조를 4가지 유형으로 귀납·설정하고 있다. 즉, 결핍(缺乏:Lack, 약호 L)—결핍의 해소(Lack Laquidated, 약호 LL)로 이루어진 가장 간단한 형태로는 “괴물이 세계의 물을 다 가두었다.(L)”, “영웅이 괴물을 죽이고 물을 방출했다.(LL)”는 것이 있다. 이와는 별도로 “콜롬비아인은 눈도 입도 없었다.(L)”, “그들은 냄새를 맡는 것으로써 먹는 일로 삼았는데, 코요테가 그들의 눈과 입을 열어 주었다.(LL)”는 설화도 있다. 이들은 다 어떤 결핍—결핍의 해소(L-LL)라는 상태의 연결로 이루어진 같은 단순한 형태로 귀납될 수가 있다.

던데스는 이렇듯 실증적인 귀납을 통해서 북미인디언의 구조적 설화형을 4개로 설정했는데, 그것은 8개의 motifime의 변화 있는 연결들로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참고로 8개의 motifime은 위 L-LL 외에 금지(Int), 위반(Viol), 기만(Dcpn), 성공(Dct), 탈출의 시도(AE), 결과(Consq) 등이다. 이 8개의 motifime들이 연결돼서 위의 제일 단순형인 ① L-LL형에서부터 ② Int-Viol-Consq-AE, 또는 ③ L-LL-Int-Viol-Consq-AE의 긴 설화도 형성하고 ④ L-Dct-Dcpn-LL형 등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군신화는 다음과 같은 구조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베리아 일부 종족은 실제로 곰을 숲속에 사는 자기 조상이라고 믿고 있다. 그 가운데 ‘켓’ 족은 곰을 지상동물의 왕이라 믿을 뿐만 아니라 지신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곰은 다만 사람과 다른 모피를 뒤집어쓰고 있을 뿐 그 껍질 아래에는 사람과 똑같은 형체와 심혼(心魂)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곰을 원시적 감각을 탈피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곰은 다른 아난 무왕(巫王)인 단군을 낳은 무녀 ‘곰네’ 인 것이다.

단군신화를 다시 정리해 본다. 천제의 환인은 태백산에 자기의 서자 환웅을 내려보낸다. 환웅은 천제의 아들이로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잡고 지상 최고의 신이

되어 신시(神市)를 건설한다. 결국 단군은 당시의 사제자(司祭者)이자 왕이었던 '박달 나무 임금'이었던 것이다.

엠볼라는 동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스러운 물이 없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물도 존재하지 못한다. 여성 원리를 상징하는 것들 가운데 물의 기원으로서의 어머니나 생명을 표상하는 것이 많다. 예컨대 대지로서의 어머니, 물인 어머니, 동굴, 어머니의 집, 밤, 깊이의 집, 힘의 집, 지혜의 집, 숲 등을 들 수 있다.

단군신화에 동혈이거(同穴而居)란 말이 나온다. ‘동혈이거’를 한 웅(熊)·호(虎)는 두 개의 포족(胞族)이거나 쌍분체제(雙分體制) 상의 반족(半族)으로 간주된다. 환웅과 웅녀는 쌍분체제 상의 두 개의 반족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쌍분체제란 두 개의 단계적(段階的) 친족집단(親族集團)이 상대해 있어 상호 간의 결혼을 계속해 나가는 사회적 조직을 이르고 있는 바, 리버스(W. H. R. Rivers)의 견해에 의하면 쌍분체제는 다만 결혼의 규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쌍분체제 집단인 두 반족은 상호대립, 상호혐오, 시기의 감정으로 상대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상이하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개의 반족(半族)은 세계에 존재하는 다른 양극적 제 현상과 동일시 된다. 반족, 환웅이 태양·하늘·남성·낮·동쪽·적색·우측 등에 속한다면, 상대가 되는 반족 웅녀는 태음(太陰)·땅·여성·밤·서쪽·흑색·좌측 등 반대되는 제 관념에 속한다. 이들은 우주상의 만물을 쌍분체제의 원리 밑에 갈라 맡는다.

이곳에서 알 수 있듯이 동굴 = 여성 = 물 = 생생력에 의해 한국의 조상신은 탄생했던 것이다. 산이 우주의 배꼽이라면 동굴은 우주의 자궁이다. 어둠 속에서 씨앗이 배태하듯 인류역사도 이곳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다.

단군신화에서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풍백우사운사(風伯雨師雲師)’에 대한 기록이다.

뒤르켐(Durkheim)은 미개인들이 우주의 만물 심지어 무형적인 자연 현상까지도 일일이 토tem 씨족들에게 각각 배속(配屬)시켜 전체계적(全體系的) 분류화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풍(風)·우(雨)·운(雲)은 모두가 농경재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연현상으로 원시 사회에서는 이들 자연현상 특히 비를 지배할 능력을 가진 주술사(우사)가 존장(尊長)으로 추대되었다.

환웅은 농경 재배와 관련있는 풍·우·운의 자연현상을 주관할 수 있었던 주술적 인간이었고, 기후를 조절하고 생산과 질서를 관장하는 인세의 최고 권능을 가진 인격신

으로서의 모습으로 보인다.⁴⁴⁾

(2) 혁거세 · 알령신화 속의 물

신라 건국신화는 혁거세 · 알령신화에 이어 탈해신화, 알지신화로 이어진다.
혁거세 · 알령신화는 대강 다음과 같다.

시조의 성은 박씨요, 휘자는 혁거세다. 진한 효선제 오봉 원년(기원전 57년) 갑자 4월 병진일(달리는 정월 15일이라고도 말한다.)에 왕위에 오르고 거서한이라고 불렸으니 그때 나이는 13세였다. 나라 칭호를 서라벌이라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조선의 유민들이 산골짜기 사이에 나뉘어 살았는데 여섯 마을이었다. 첫째는 알천 양산촌이요, 둘째는 돌산 고허촌이요, 셋째는 취산 진지촌(혹은 간진촌이라고도 한다.)이요, 넷째는 무산 대수촌이요, 다섯째는 금산 가리촌이요, 여섯째는 명활산 고야촌이다. 이것은 진한의 6부가 되었다. 고허촌장인 소벌공이 바라본즉 양산 기슭에 있는 나정 우물 옆 숲 사이에서 말이 꿇어 앉아서 울고 있는 것이다. 쫓아 가서 보니 말은 줄지에 보이지 않고 단지 큰 말이 있었다. 쪼개니 어린아이가 나왔으므로 데려다가 길렀다. 나이 십여 세가 된 후 뛰어나게 숙성하였고 6부 사람들도 그가 신기스럽게 출생되었다고 해서 모두 떠받들었는데 이때 이르러 임금으로 세웠다. '진' 사람들이 '호(瓠)'를 박이라고 하니 맨 처음 큰 말이 박과 같다고 해서 '박'으로 성을 삼은 것이다. '거서한'은 '진' 말로 '임금'이란 말이다(혹은 귀한 사람을 부르는 칭호라고 한다.).

5년 봄 정월에 알령 우물에서 용이 나타나더니 오른편 옆구리로 계집아이를 낳았다. 늙은 할머니가 보고 이상히 여겨서 데려다가 기르면서 우물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다. 자란 다음 덕기가 있었으므로 시조가 듣고 왕비로 맞아들였다. 행실이 어질어서 내조가 되니 그 당시의 사람들이 두 성인이라고 일렀다.

《삼국유사》에서는 '신라시조 혁거세왕'이란 항목 아래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진한 땅에는 옛날 여섯 마을이 있었다. 첫째는 알천 양산촌이니 그 남쪽이 지금의 담업사다. 어른은 알평으로서 처음 표암봉으로 내려왔는데 그가 금양부 이씨의 조상으로 되었다.(노례왕 9년에 설치하고 금양부라고 부르다가 본 왕조(고려) 태조 천복 5년 경자에는 중흥부라고 고쳐 불렀다. 파체, 동산, 피상의 동쪽 마을이 속한다.)

44) 황패강 ·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p. 266

둘째는 돌산 고허촌이다. 어른은 소벌도리로서 처음 형상으로 내려왔는데 그가 사랑 부양(梁)은 도라고 읽으니 혹 축(逐)으로도 쓰나 음은 역시 도다.) 정씨의 조상으로 되었다. 지금은 남산부라고 하니 구량벌, 마등, 오도, 북회덕 등의 남쪽 마을이 속한다.(지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태조가 설치한 것이니 아래도 그런 예로 알아야 한다.)

3월 초 초하루 6부의 조상들이 각각 젊은이들을 거느리고 알천 언덕 위에 모여서 의논하기를 “우리들에게는 위로 못백성들을 다스리는 임금이 없으므로 백성이 모두 방종하여 제 멋대로 행동하니 덕이 있는 분을 찾아내다가 임금으로 삼아서 나라도 세우고 도읍을 차려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였다.

이에 높은 곳을 올라가서 남쪽을 바라본즉 양산 아래 나정 우물 옆에 번개빛 같은 이상한 기운이 땅으로 드리웠는데 흰 말 한 마리가 풀어서 절하는 시늉을 하였다. 곧 뒤져 보니 자줏빛 나는 알(달리 큰 푸른 알이라고도 한다.) 한 개가 있고 말은 사람을 보자 길게 소리를 뽑아 울면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 알을 쪼개니 사내아이가 있는데 모습에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놀랍고 이상해서 동천(동천사는 사내들 북쪽에 있다.)에서 목욕을 시키었더니 몸에 광채가 나서 새와 짐승들이 모두 춤을 추며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청명하였다.

혁거세왕은 우리 말인데 혹은 불규대왕이라고도 하니 광명하게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다. 해설하는 사람은 이르기를 그를 서술성모가 낳은 것이다.

이처럼 물은 개국주(開國主)신화의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박혁거세(朴赫居世)의 탄생은 육촌장들의 기원에서 시작된다. 육부(六部)의 할아버지들이 각지 자제들을 인솔하고 알천(閼川)에 모인 심리적 동인은 군중의 호소력이다. 물론 이들은 무당의 직능을 수행한다. 알천은 성수지(聖水地)다. 혁거세가 알에서 나왔지만 완전한 인격체를 갖춘 인간은 아니다. 그래서 동천이라는 생명수에 목욕을 시킨다. 이 통과제의(通過祭儀)를 수행하고 난 뒤 혁거세는 신생광채(身生光彩)하고, 조수술무(鳥獸率舞)하고, 일월청명(日月清明)하여 완전한 인격체로 나타난다.

그의 배우자 알영부인도 마찬가지이다. 알영부인의 탄생은 계룡(鷄龍)이 좌협(左脇)에서이다. 혹은 용이 죽고 난 뒤 배를 해부하고 낳았다고 한다. 이것은 일종의 영웅이 상출생설(英雄異常出生說)에 속한다. 자용은 수려했지만 입술이 닭의 부리였다. 이것을 완전한 인간으로 탄생하게 하기 위하여 월성(月城) 북천(北川)에 목욕을 시킨다. 그래서 그 후부터 북천은 발천(撥川)이 되었고, 알영부인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계룡이 아리영정(娥利英井)가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 샘과 내는 동시에 성지적 조건을 갖춘

다. 육촌장들은 추장이면서도 사제요, 무당의 의무를 완성한다.

이 설화에 보이는 알천(閼川)의 자란(紫卵: 一云 靑大卵), 알영정(閼英井)의 알은 모두 생산의 모티브로 등장되는 원수(原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동국이상국집》의 고구려 건국신화에는 동명왕의 모비인 유화부인이 웅심연(熊心淵·물) 출산으로 되어 있고, 또 고려사 세계(世系)에서, 작제건의 아내 용녀가 서해를 내왕하는 데 이용한 개성의 대정(大井)은 고려 왕조의 개국신화와 연관되어 있다.

하늘의 남성인 왕과 물의 여성인 왕비가 짝지어진다는 우주론적 면모를 엿 볼 수 있다. 이들의 짝지어 짚은 하늘의 불과 지상의 물과의 상생(相生) 관계요 역학관계로 풀이할 수 있다.

시조신이나 영웅탄생은 이들의 조화로부터 시작된다. 천상의 불(火·해)이 여체에 내려 잉태된 주몽의 경우, 산에 버려진 유화의 알에는 항상 햇빛이 비취졌으니(卵上恒有日沒), 주몽을 출생한 알은 시종 천상의 불(해)과 관계가 있다. 또한 박혁거세가 강림할 때에는 번갯불이 땅에 드리워졌고, 김알지의 강림에는 불빛이 궤에서 쏟아지는 등불의 모티브와 물의 모티브가 음양론을 이루면서 개국신화에 관여하고 있다.

(3) 무가 속의 물

한국인의 무인(巫人)은 신가(神歌·巫歌) 속에서 창세신화(創世神話)를 구가하고 있다. 《성경》의 <창세기>나 그리스·로마의 신화와 같이 한국의 창세신화에는 다음과 같은 신화소(神話素)가 나타나 있다.

- A. 천지개벽
- B. 창세신의 거신적 성격
- C. 물과 불의 근본
- D. 인간창조
- E. 인세차지경쟁
- F. 일월조정
- G. 천부지모의 결합과 시조의 출생

C. 물과 불의 근본을 알려주는 동물은 슬기로운 현자로 나타나는 쥐이다. 쥐는 천지

창조 신화에서 현자와 같은 영물로 등장한다. 함경도 무가(巫歌)인 창세가에서 천지를 정리한 미륵으로부터 “이 세상의 뒤주를 차지하라.”는 다짐을 받고 물과 불의 근원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천지 창조 때에 미륵이 탄생하여 해, 달, 별을 정돈했다. 그러나 물과 불의 근원을 몰랐기 때문에 생식(生食)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새앙쥐를 붙잡아 불기를 치며 “물과 불의 근원을 아느냐?”고 물었다. 새앙쥐는 “가르쳐 드리면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하고 되물었다. 미륵은 “이 세상의 모든 뒤주를 네가 차지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불의 근원은, 금정산에 들어가서 한 쪽이 차돌이고 한 쪽이 무쇠인 돌로 툭툭 치면 불이 날 것입니다. 물의 근원은 소하산에 들어가면 샘물이 술술 솟아나 물의 근원을 이룬 것을 알 것이오.” 하였다. 이때부터 이 세상은 물과 불을 쓰게 되었다. 그런 후에 미륵은 인간을 만들었다. <손진태, 조선신가유편>

이 글은 쥐가 물과 불의 근원을 아는 영물일 뿐만 아니라 쥐의 생태적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쥐는 인간 이전에 이미 존재했고, 후에 인간과 함께 살아가야 할 자신의 활동 범위를 인정 받았다.

임석재가 채집한 함경도 성인굿에서 서술되는 천지개벽신화의 전개 양상은 조금 다르나, 귀결점은 같다. 애초에 땅 위를 차지하고 있던 미륵을 석가가 사술(詐術)로써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한다. 이 석가가 쥐로 하여금 불을 마련하게 했다. 여기서도 쥐가 불을 처음 마련한다는 점에서 창세가의 쥐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물의 생성원리를 구연한 <김쌍돌이본>과 <강춘옥본>을 들어두기로 한다.

내이리 탄생하야, 물의 근본 불의 근본,
내뱃개는 업다, 내여야 쓰겟다.
풀맷독이 잡아내여,
스승틀에 올녀놋코,
스문 삼치에 썰리내여,
여바라, 풀맷독아, 물의 근본 불의 근본 아느냐.
풀맷독이 말하기를,
밤이면 이슬 바다 먹고,
나지면 햇발 바다 먹고
사는 즘생이 엇지 알나,
나보다 한 번 더 먼지 본
풀개고리를 불너 물어시오.

풀개고리를 잡아다가,
 습문 삼치 대리시며,
 물의 근본 불의 근본 아느냐.
 풀개고리 말하기를
 밤이면 이슬 바다 먹고,
 나지면 햇발 바다 먹고
 사는 즘생이 엇지 알나,
 내보다 두번 세번 더 먼지 본
 새양쥐를 잡아다 물어보시오.
 새양쥐를 잡아다가,
 습문 삼치 썰리내여,
 물의 근본 불의 근본 아느냐.
 쥐말이, 나를 무슨 공을 시워주겠습닛가.
 미력님 말이, 너를 천하의 두지를 차지하라,
 한즉, 쥐말이, 금덩山 들어가서
 한짝은 차돌이오, 한짝은 시우쇠요,
 툇툇 치니 불이 낫소. 소하산 들어가니,
 삼취 솔솔 나와 물의 근본
 미력님, 水火근본을 알었스니,
 인간 말하여 보자. <김쌍돌이본> pp. 3~6.

(노래)

아헤-아

한 모로 두모로 네레모로 가고보니

(말)

집당에 당징하였는데 인간 사람이 불없이 어찌사오

물없이 어찌사오

내미(木)없이 어찌살가

불과 물이 있어야 된다.

생쥐를 부풀어서 생명 샘지(세번) 드러치니

“풀난니(草露)를 받아 먹고, 덩불속에 엎드레 있는 짐상을 무삼일로 생명 샘재 드레 치오?”

“불에 근본을 내라”

“글랑 초차 그러시오 불에 근본으갈치 디릴 것일랑, 서인님이 잡수끼 전에도 우리 만재 먹겠읍니다.”

“글랑 그래라”

“취 먹는건 가리채읍니다”

“천태산 내맥에 들어가서, 차돌을 놓고 수리 짐을 떼 놓고 짐은 사에 쇠에 쇠끝을 놓고 삼 세번 드레치며(면) 불에 근본이 나읍니다.

2) 남한강의 민속문학적 배경

신라 말 도선(道詵)이 지은 것으로 전해지는 지리도참서(地理圖讖書)인 《삼각산명당기 三角山明堂記》에 보면, 지금의 서울지방을 명당으로 풀이하였다. 이 책은 고려 시대 지리도참사상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록의 하나로, 전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고 그 일부만이 《고려사》에 실려 전하고 있으며, 이궁(離宮) 설치나 천도설(遷都說)이 제기될 때마다 주목되었다.

그 내용으로 “삼각산은 북을 등지고 남을 향한 선경으로서, 거기서 시작한 화맥(花脈 : 산맥)은 세 겹 네 겹으로 되어 산이 산을 등지고 명당을 수호하고 있으며, 앞의 조산(朝山)은 다섯 겹 여섯 겹으로 되어 있고, 방계(傍系)·직계의 고산(姑山)·숙산(叔山)·부산(父山)·모산(母山)은 모두 솟아나서 주인을 모셔 다른 생각이 없다. 좌우에 있는 청룡(靑龍)과 백호(白虎)는 세력이 서로 비등하여 내외의 인물과 보화는 이곳으로 모여들어 오로지 국왕을 돕고, 임자년(壬子年) 중에 이 땅을 개척하면 정사년(丁巳年)간에 훌륭한 아들을 낳을 것이며, 또 삼각산에 의지하여 제경(帝京)을 마련하면 9년 되는 해에 사해(四海)가 모두 와서 조공하리라.”라는 기록이 전한다.⁴⁵⁾

풍수지리가 김위제(金謂禪)는 고려 숙종·예종 때의 인물로 통일신라 말기 풍수지리설을 도입한 것으로 유명한 도선국사(道詵國師)에게 학연을 잇대고 있다. 그는 도선국사가 저술한 여러 권의 예언서를 손에 넣었다고 한다. 김위제는 도선국사의 저술을 통해 풍수와 예언을 배웠다고 주장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신봉하고 있다.

숙종에게 올린 글을 보면, 김위제는 <도선기 道詵記>와 <도선답산가 道詵答山歌>를 주로 인용했다. <도선기>는 삼경설(三京說)을 주장한 예언서였다. 그것은 고려가 건국된 지 160년 뒤에는 개경의 지기가 쇠해진다, 그때가 되면 서경(평양)과 남경에 서울

45) 羅格淳, 《삼각산명당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을 설치하라, 그래야만 고려의 국운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도선답산가>에서는 남경으로 천도하는 것이 옳은 해결책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경을 수도로 삼으면 천하가 고려에 조공을 바치게 된다고 예언했다.

두 권의 예언서는 남경의 풍수지리적 조건을 높이 평가한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 보면 내용상 큰 차이점도 있다. <도선기>는 남경을 3경의 하나로 보고 있지만, <도선답산가>는 남경이야말로 개경을 대체할 다음 번 수도로 예언했다.

남경천도론을 펼 때 김위제는 <삼각산명당기>란 새로운 예언서를 인용해 관심을 끌었다. 이 예언서는 모든 구절이 7자씩 돼 있어 칠언율시(七言律詩)를 연상케 하는데 배율(排律 12행)보다 더욱 길다. 엄밀한 의미에서 시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느낌을 준다.

고려시대의 귀족들은 유달리 한시를 즐겼다. 그런 까닭에 예언서마저도 시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달리 말해, <삼각산명당기>는 고려중기 귀족문화의 산물이다. 신라 말에 저술된 예언서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이 예언서는 고려 때 만들어진 것이 틀림 없다.

<삼각산명당기>를 이용해 김위제는 남경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뚜렷이 부각시키려고 했다. 그는 삼각산의 지세를 검토한 결과 명당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물샐틈없이 방어되고 있으므로, 이곳에 왕궁 터를 정하면 절대 반역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했다. 또한 청룡과 백호의 모양으로 점쳐 볼 때 신하들 사이에도 파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안과 바깥의 장사꾼이 각기 보배를 바쳐 왕실의 재정도 풍부해진다고 보았다. 사방의 인재들이 조정에 가득 차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이치이고, '재상[輔國]과 바른 임금[匡君]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국정운영이 순조롭다고 예언했다.

김위제는 남경천도의 시기도 못 박아 두었다. "임자년에 만일 궁전 지을 공사를 시작하면, 정사년에는 성스러운 아들을 얻으리라."고 하여 성군(聖君)이 출현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삼각산에 의지하여 황제의 서울을 지어라. 아홉 해만에 사해가 조공을 바쳐 온다." 했다.(고려사 권122)

김위제가 찾아냈다는 <삼각산명당기>의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고려시대에 풍수지리설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돼 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 비록 단편적인 기록이긴 하지만 고려 초기에는 형국론(形局論: 명당의 모양이 닭, 소, 말 등과 닮았다는 설)의 우세를 반영하는 사례가 압도적이었다. 그런데 <삼각산명당기>는 좌향론(坐向論: 용맥이나 명당의 방향을 중시하는 풍수설)에 기울어 있다.

예컨대, "눈을 들고 머리를 돌려서 삼각산의 모습을 보라. 북북서(壬)를 등에 지고 남남동(丙)을 향하니 이가 곧 신선의 자라(仙鼈: 명당)다. 음양의 꽃이 서너 겹으로 피었구나."와 같이 명당의 위치와 주변 조건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다.

마치 한 편의 풍수지리 교과서처럼 《삼각산명당기》는 명당의 성립조건을 하나씩 세부적으로 거론했다. 우선 삼각산을 에워싼 외청룡과 외백호의 형상에 대해 “친히 한쪽 옷소매를 벗고 산을 떠메면서 수호에 임하는구나.”라고 했다. 한쪽 옷소매를 벗는 것은 정중하게 예의를 갖춘 모양을 상징한다. 스님들이 가사를 입은 모양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명당의 조건에 대한 이해가 좀더 정밀해졌다는 점이다. 단순히 용맥(龍脈)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산세에 대한 종합적인 관찰이 강조되었다. 예컨대 명당 앞을 막아선 안산(案山)과 조산(朝山·안산의 남쪽에 자리한 산), 그리고 현재의 풍수서적에서는 찾아보기도 어려운 ‘고모부산’ 까지 자세히 언급했다.

“안산 앞으로 조산이 대어섯 겹이다. 고모부와 부모산이 용솟음친다. 안팎의 문을 각기 개 세 마리가 지키고 있다.” 삼각산의 본줄기에서 갈라져 나간 여러 산들을 친족의 호칭을 써가며 세분하고, 이들 산자락이 믿음직하게 명당을 호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삼각산명당기》는 풍수설을 구체적으로 전개한 점에서 이채를 띤다. 이것은 그 이전 시기의 역사에 보이는 여느 예언서와도 다른 점이다. 그만큼 고려시대에는 풍수설이 크게 유행했다는 증거다.

조선시대에도 풍수설은 더욱 인기를 끌어 《삼각산명당기》는 《정감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감결》에 보면, “곤륜산(崑崙山)의 내맥(來脈)이 백두산에 이르고, 그 원기가 평양(平壤)에 이르렀다. 그러나 평양은 이미 천년의 운수가 지나 그것이 송악(松嶽)으로 옮겨졌다.”는 구절이 있다. 《삼각산명당기》만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용맥의 줄기를 마디마다 더듬은 점에서는 마찬가지다.⁴⁶⁾

과거의 경성(京城)을 살펴보면, 경성 부근 일대는 저 먼 삼국시대에 백제와 고구려의 양국이 충돌하여 싸우던 중심지대로서 그 시대 백제국은 직산(稷山)에서 도읍을 하려다가 남한산(南漢山)으로 옮기었다. 그러나 그때 평양(平壤)에 도읍하고 있던 고구려국은 늘상 남하(南下)하려는 기세를 보이더니 마침내 남한산을 탈취하고 도읍을 경성에 옮겨하고 있던 신라국의 북상(北上)으로 인하여 점령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백제시대에는 경성을 북한산군(北漢山郡)이라 하고 신라시대에는 북한산주(北漢山州)라고 칭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고구려는 신라를 토벌하고 후에 고려라는 국호를 쓰고 개성(開城)을 왕도로 하고 경성을 점령하더니 고려 제 15세 숙종(肅宗)에 이르러 풍수학(風水學)상으로 개성은 수도로서 지덕(地德)이 없다 하여 왕위가 오래 존속치 못 한다는 일행선사(一行禪師)의 설에 따라서 경성에 천도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최사추(崔思諫)라는 학자를 조사원으로 경성에 파견하니 최사추는 경성에 와서 지형을 살펴 본 후 북한산

46) 《서울신문》, 2005. 9. 1

의 산형과 한강의 수세가 서로 어울려 천도합이 좋겠다고 숙종에게 아뢰었다. 왕께서도 가납하사 곧 궁전을 세우게 하여 대공사가 거의 성취하였다.

그러나 왕궁을 경솔하게 옮길 수 없다는 반대파의 의견이 성하였으므로 왕도 이에 따라 천도를 중지하고 이미 지었던 궁전과 대건축물은 이궁(離宮)으로 이용하고 경성을 남경(南京)이라 명명하였다. 그 후 제 25대 충렬왕(忠烈王)대에 남경을 한양부(漢陽府)라 개명하였는데 이태조가 이곳에 도읍을 정하고 이를 한양부라 한 것도 충렬왕의 한양부를 그대로 따서 지은 이름이다. 그 후 경성부라 개칭하게 된 것은 명치 43년 10월 1일부터의 일이다.

고려 말엽에 이르러 개성의 지덕은 점점 쇠잔하여 왕손이 재흥키 어렵다는 풍수설이 다시 돌기 시작하더니 제 24대 공양왕(恭讓王) 때 누차 천도하려 하였으나 이 역시 반대파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때 이씨(李氏)가 왕씨를 대신으로 한양에 왕터를 이룬다는 유언비어가 성함으로 해마다 이수(李樹)를 경성에 심어 줄거리가 성장함을 기다려서 베어내곤 하였다고 한다.

이태조가 개성에서 즉위한 후 우선 국호를 정함에 있어 의론이 분분하던 끝에 화녕(和寧)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조선으로 할 것인가 두 안이 나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신을 명나라에 보내어 국호의 결정을 청하니 명황제는 화녕은 태조의 탄생지인 함경도의 조금만 영흥의 별명(別名)에 지나지 않고, 조선은 동방이라는 의미와 일출(日出)이라는 두 의미가 포함하여 예로부터 연유가 있는 국호라 하고 조선을 채택하라 하였다.

그런데 개성의 인심은 이태조에게 접근하지 않고 혹은 궁전에 향해 불경(不敬)을 하는 자까지 생겼다. 이에 태조대왕은 왕도를 다른 곳에 옮길 것을 중신(重臣)들에게 의문하였다. 그때의 중신 정도전(鄭道傳)은 천도에 대해 반대하고 개성에 머무르기를 간하였다. 그러나 이태조는 단연 천도할 의향으로 친히 충청도 공주 계룡산(公州 鷄龍山)에 행차하여 산수를 살펴 본 후 궁전을 건립하라 명하였다. 이리하여 궁전을 경영한 지 2년 만에 경기도관찰사 하륜(河崧)의 반대로 다시 이것을 중지하게 되고 하륜은 모악(母岳), 즉 지금의 신촌역(新村驛) 부근을 적당한 후보지로 건의하였다. 그 이유는 왕도에는 반드시 큰 강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평양성이 좋은 것은 대동강이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태조대왕은 또한 할일 없이 학자를 파견하여 조사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곳은 풍수학상 명당(明堂·궁전 앞에 필요한 대평지)이 없다는 이유로 모악설은 드디어 깨지고 말았다. 이리하여, 다른 한 개의 설, 즉 남경설이 대두하였다. 남경에서도 삼각산 북악산 면악(面岳)의 남쪽이 가장 적당하다는 재상들의 의견이 일치함으로 태조는 불교의 신자인지라 중 무학(無學)을 불러 물어본 후 무학의 면악설(面岳說)을 취택하였다. 이리하여 북산 면악을 주산(主山)으로 하여 임좌병향(壬座丙向)으로 궁궐

을 세우게 하고, 북악산 매바위를 주산으로 하여 임좌향으로 대묘(大廟)를 세우게 하고, 태조 3년 10월 25일 천도하였는데 그때 궁궐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고려시대의 이궁인 수강궁(壽康宮), 지금의 창경원에 임시로 있다가 5년 9월에 궁궐이 낙성하면서 옮겼다.

그리고 경성 주위를 축성(築城)하고 오부(五部) 49방(坊)으로 구분하여 반도통치의 중심지로 하였던 것이다.⁴⁷⁾

그러면 조선 초의 시가문학 중 정도전(鄭道傳)의 〈신도가 新都歌〉를 예로들어 이 같은 풍수사상이 문학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新都歌〉

네는 楊州 |(양주) 고을하여
 디위에 新都(신도)형승이샀다
 開國聖王(개국성왕)이 聖代(성대)를 니르어샀다
 잣다운더 當今景(당금경) 잣다운더
 聖壽萬年(성수만년) 하샤 萬民(만민)의 咸樂(함락)이샀다
 아으다롱다리
 알폰 漢江水(한강수)여 뒤흔 三角山(삼각산)이여
 德重(덕중) 하신 江山(강산)즈으메 萬歲(만세)를 누리쇼서

(樂章歌詞)

〈신도가〉는 고려속요인 〈동동 動動〉의 곡조에 올려 가창된 노래라고 한다. 특히 ‘아으 다롱다리’와 같은 속요적 여음(餘音)이 그대로 살아 있어 가창되었을 가능성이 짙다. 〈신도가〉 가사는 당대의 방언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중종조의 남곤(南袞)마저도 〈신도가〉의 노래 가사를 잘 이해할 수가 없다고 평하였다.

이 노래를 통해 고려 속요문학이 조선 초기의 악장문학에 그대로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노래 제목에서 ‘신도(新都)’를 강조한 것은 ‘구도(舊都)’인 송도를 탈피한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다는 적극적인 가치 개념을 불러일으키고자 한 대유적(代喻的)인 용어라 하겠다.

첫 소절에서 옛날 양주 고을에 자리 잡고 있는 지세이고 신도를 경영할 만한 땅임을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노래하고 있고, ‘신도명당론(新道明堂論)’의 합리성은 후소절에서 더욱 강조된다.

47) 金東綴, 《朝鮮野史集》, 德興書林, 1948, pp. 115~119

후소절은 신도의 풍수적 입지조건을 주지로 한다. “알퐁 한강수(漢江水)여 뒤흔 삼각산(三角山)이여”는 신도가 지닌 가거지(家居地)로서의 “배산임수(背山臨水)”적 조건을 단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다. 풍수지리의 이론이 체계화되기 이전에도 이러한 자연조건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요소로 여겨져 온 사항이긴 하나, 적어도 이 노래가 창작되고 불린 시점에서는 풍수지리와의 연관을 간과할 수 없다. 더구나 이 표현 즉 “화산남(華山南) 한강북(漢江北)”이나 “북거화산(北據華山) 남임한수(南臨漢水)”⁴⁸⁾ 등은 다음 단계 신도인가들의 상투어로 정착된다. 화산, 즉 삼각산(현재의 북한산)은 서울의 진산(鎭山)이며 한수는 북동쪽에서 흘러와 신도의 남쪽으로 도는 강이다. 즉 신도는 남면산록(南面山麓), 배산임하(背山臨河), 산하금대(山河襟帶)의 풍수적 조건⁴⁹⁾을 갖추고 있는, 풍수지리적으로 이상적인 도읍지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의 마지막 행 “덕중(德重) 흐신 강산(江山)즈으메 만세(萬歲)를 누리쇼셔”하는 구절은 전대절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악장 일반의 상투적 표현으로 굳어지게 되었다.⁵⁰⁾

다음 노래는 변계량(卞季良)의 〈화산별곡 華山別曲〉 1장과 4장이다.

〈華山別曲〉

(1장)

華山南 漢水北 朝鮮勝地
白玉京 黃金闕 平夷通遠
鳳峙龍翔 天作形勢 經綸陰陽
偉 都邑景 其何如
太祖太宗 創業胎謀
偉 持守景 其何如

(4장)

訓兵書 教陳兵 以習坐作
順時令 擇閑曠 不廢蒐狩
萬騎雷驚 殺不盡物 樂不極盤
偉 講武景 其何如
長慮却顧 安不忘危 再唱
偉 豫備景 其何如

48) 《新增東國輿地勝覽》(권3, 漢城府) 및 《고려사》〈樂志〉 俗樂, 楊洲 참조

49) 崔昌祚, 《韓國의 風水思想》, 민음사, 1986, p. 191

50) 조규익, 〈鮮初 新都市歌의 文學적 성격〉, 《문학작품에 나타난 서울의 형상》, 1994, 한샘출판사, p. 41

이 노래 역시 풍수적인 산천순역설(山川順逆說)을 모두(冒頭)에 제시하면서 천도의 합리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도선비기 道詵秘記》에 의해 한양으로 국도를 옮겼음을 암유적(暗喻的)으로 상징화하고 있는 것이다.⁵¹⁾

1장의 핵심은 화산과 한수로 이루어진 '천작(天作)의 형세'에 도읍하면 왕조가 영원히 길할 것이라는 예단이다. 국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조건과 방어적 조건이 필수적이다. 토양이 비옥하면 도인(都人)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산하가 험고(險固)하면 외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쉽기 때문이다. 한수와 화산에 둘러싸인 신도의 지세는 하늘이 만든 요새(天作之固)인 것이다. 이러한 산하금대(山河襟帶)의 지세는 풍수신앙의 대상인 지세와 공통되기 때문에 국도의 지세가 바로 풍수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4장은 진산인 화산이 서울을 지켜 왕업이 무궁하리라는 내용이다. 《동국여지승람》, 《택리지》,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 등은 모두 화산 즉 삼각산을 한양의 진산으로 지목하였는 바 이 시의 내용과 부합한다. “신우신경(鎭于神京) / 종영강신(鍾英降神) / 우아문성(佑我文明)”은 진산인 삼각산이 도읍을 보호할 것이니 임금이 밝고 신하들이 마음만 합친다면 왕업은 무궁하리라고 하여 왕조 영속의 당위성을 조건부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화산’은 시종일관 국도 풍수의 뛰어남을 전제로 군신이 해야 할 일을 부수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작품이다.⁵²⁾

이와 같이 당대의 풍수지리적 사고법은 풍수사상으로 전개되어 단순한 비유가 아닌 정신적 바탕이 되어 삶의 방식에 원용했던 것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이들 두 악장에서 산과 강을 강조했을까? 이는 《택리지 擇里志》의 저자 이중환(李重煥)이 당시의 사정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함경도 안변부(安邊府) 철령(鐵嶺)에서 나온 한 맥이 남쪽으로 5~6백 리를 달리다가 양주(楊洲)에 와서는 자갈한 산으로 되고, 다시 동쪽으로 비스듬하게 돌아들면서 갑자기 솟아나서 도봉산(道峯山)의 만장봉(萬丈峰)이 되었다. 여기에서 동남 방을 향해 가면서 조금 끊어진 듯하다가 또 우뚝 솟아, 삼각산(三角山) 백운대(白雲臺)로 되었다. 여기에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만경대(萬景臺)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는 서남쪽으로 갔고, 또 한 가지는 남쪽으로 백악산(白岳山)이 되었다. 형가(形家)는, “하늘을 껴쥔는 목성(木星)의 형국(形局)이며 궁성(宮城)의 주산(主山)이다.” 한다.

동, 남, 북은 모두 큰 강이 둘러싸고, 서쪽으로 바다의 조수와 통한다. 여러 곳 물이 모두 모이는 그 사이에 백악산이 서리어 얹혀서, 온 나라 산수(山水)의 정기(精氣)가 모인 곳이라 일컫는다. 옛날 신라 때, 중 도선(道詵)의 <유기 留記>에, “왕씨(王氏)를 이어 임금될 사람은 이씨(李氏)

51) 村山智順도 한양 정도와 관련 《도선비기》에 의한 풍수적 신앙 때문에 한양을 국도로 삼으려 한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였다. 村山智順 著·최길성 옮김, 《朝鮮의 風水》, 민음사, 1990, p.559

52) 조규익, <鮮初 新都市歌의 문학적 성격>, 《문학작품에 나타난 서울의 형상》, 1994, 한샘출판사, p.48

이고 한양에 도읍한다.” 하였다. 그 기록 때문에 고려 중엽에 윤관(尹瓘)을 시켜서 백악산 남쪽에다 터를 잡아 오얏[李]을 심어 놓고 무성하게 자라면 문득 잘라서 왕성한 기운을 높렸다.

우리나라에서 왕위를 물려 받은 뒤에, 중 무학(無學)을 시켜 도읍터를 정하도록 하였다. 무학이 백운대에서 맥을 따라 만경대(萬景臺)에 이르고 다시 서남쪽으로 비봉(碑峯)에 갔다가 한 개의 돌과 비(碑)를 보니 ‘무학 오심도차(無學誤尋到此)’라는 여섯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었다. 무학이 맥을 잘못 찾아서 여기에 온다는 뜻이며 곧 도선이 세운 것이었다. 무학은 드디어 길을 바꿔 만경대에서 정남 쪽 맥을 따라 바로 백악산 밑에 도착하였다. 세 곳 맥이 합쳐져서 한 들로 된 곳을 보고 드디어 궁성터를 정하였는데 곧 고려 때에 오얏을 심은 곳이었다.

…… 중략 ……

산 모양은 반드시 수려(秀麗)한 돌로 된 봉우리라야 산이 수려하고 물도 또한 맑다. 또 반드시 강이나 바다가 서로 모이는 곳에 터가 되어야 큰 힘(力量)이 있다.

이와 같은 곳이 나라 안에 네 곳이 있다. 개성(開城)의 오관산(五冠山), 한양(漢陽)의 삼각산(三角山), 진잠(鎭岑)의 계룡산(鷄龍山), 문화(文化)의 구월산(九月山)이다.⁵³⁾

‘화산’ 또는 ‘화악’이란 이름은 고려 후기부터 조선조 후기에 이르기까지 주로 문학 작품에서 삼각산의 미칭(美稱)으로 사용되어 온 이름이다. 고려 후기의 문신인 이장용이나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인 변계량, 조선 후기의 서민시인 유찬홍 등은 그들이 지은 시 등에서 ‘화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⁵⁴⁾

그러나 조선조 이후에 편찬된 《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증보문헌비고》, 《북한지》, 《대동지지》, 《동국여지지 東國輿地志》,⁵⁵⁾ 《여지도서 輿地圖書》⁵⁶⁾ 등 대부분의 역사지리서와 역대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한결같이 ‘삼각산’을 본명으로 기록하였고, ‘화산’이나 ‘화악’이라는 이름은 역사서적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나, 조선조의 문인 홍유손이 쓴 《증흥사중창기 中興寺重創記》,⁵⁷⁾ 김수훈이 쓴 《도성암기 道成庵記》,⁵⁸⁾ 홍언필이 쓴 한시(漢詩)인 〈북정현애 覆鼎懸崖〉,⁵⁹⁾ 홍양호가 쓴 〈겸산루기 兼山樓記〉⁶⁰⁾ 등에서는 삼각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⁶¹⁾

〈삼각산명당기 三角山明堂記〉에는 이런 시가 있다.

눈을 돌려 산 모양 살피니

임좌병향(壬坐丙向) 선경(仙境)일세

음양화(陰陽花)가 세 겹 네 겹으로 피었도다

53) 李重煥, 《택리지》, 乙酉文化社, 1971, p.145, p.228

54) 이장용의 시 〈문수사 文殊寺〉, 변계량의 시 〈화산별곡 華山別曲〉, 유찬홍의 글 〈제화산기흥후 題華山記興後〉 등이 그것이다.

55) 실학의 비조(鼻祖)로 일컬어지고 있는 반계 유형원(1622~1673)이 각 군현의 형세를 파악하기 위해 1656년 편찬한 역사지리서

56) 영조 33년(1757) 홍양한의 건의로 왕명에 따라 홍문관에서 각 읍의 읍지를 수집하여 편찬한 전국읍지(全國邑誌)로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완하기 위해 편찬된 책

57) 홍유손의 문집인 《소충유고 蓀菴遺稿》 권 상(上)에 수록되어 있다.

58) 김수훈의 문집인 《식우집 拭疣集》 권2에 수록되어 있다.

59) 홍언필의 문집인 《묵재집 默齋集》 권2에 수록되어 있다.

친단(親袒)은 산을 등에 지고 수호(守護)에 임하네

안전(案前)에는 조산(朝山)이 다섯 겹 여섯 겹이로다
고숙(姑叔) 같고 부모(父母) 같은 산 솟고 또 솟았네
내외(內外)에 문지기 개가 각 세 마리로다

늘 용안(龍顔) 결을 지키느라 여념 없네
청룡 백호 서로 비슷하니 시비가 없도다
내외에 상객(商客)들 각기 보배를 바치네
이름을 파는 이웃이 자식 같이 찾아들도다
나라 지키고 임금 돕기에 모두 한 마음일세
임자년(壬子年) 중에 이 땅에 도움을 열면
정사년(丁巳年)에는 성자(聖子) 얻으리
삼각산 의지해 제경(帝京) 세우니
아홉 해 후에는 사해(四海)가 내조(來朝)하네

신지(神誌)가 지은 《비사 秘詞》에 이르기를,

저울추[秤鍾] 같고 극기(極器) 같으니라
저울대[秤幹] 같은 부소(扶疎)가 대들보니라
추(鍾)는 오덕지(五德地)⁶²⁾니라
극기(極器)는 백아강(百牙岡)이니라
일흔 나라가 내조(來朝)하여 무릎을 꿇으리라
그 덕(德)에 의지하고 신정(神精)을 수호할 것이다
머리와 꼬리가 평형을 이루니 나라가 흥하고 태평성대 누리리라
비유(比喩)해 준 땅 세 곳을 버리면, 왕업은 쇠퇴하고 기울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세 도움지를 저울에 비유한 것이다. 저울에서 극기(極器)는 머리에 해당하고 추(鍾)는 꼬리에 해당하고, 저울대[秤幹]는 한가운데를 말한다. 송악(松嶽)을 부소(扶疎)라 하여 저울대에 비유하고, 서경(西京)을 백아강(百牙岡)이라 하여 저울머리에 비하였으며, 삼각

60) 홍양호의 문집인 《이계집 耳溪集》 권13에 수록되어 있다.

61) 민경길, 《북한산》 1, 집문당, 2004, pp. 8~10

62) 五德丘

麗史 肅宗時 金謂暉 上書 引道說秘記云 自十一月至二月住中京 自三月至六月住南京 自七月至十月住西京則三十六國來朝 王幸楊州相宅 其踏山歌云 松嶽後落向何處 三冬日出 有平壤謂 三冬日出異方 木寬在松京東南也 漢陽古稱南平壤也 又引神誌秘詞曰 如秤鍾極器 秤幹扶疎 梁 鍾者五德地 極器百牙岡 此秤論三京 松岳爲中 木寬爲南平壤爲西也 極器者首也 鍾者尾也 秤幹者 提綱之處也 松嶽爲扶疎以諭秤幹 西京爲百牙岡 以諭秤首 三角 南爲五德丘 五德者中 有面岳 圓形土德 北有紺岳 曲形水德 南有冠岳 尖銳火德 東有楊州南行山 直形木德 西有樹州 北岳方形金德 擇里志曰 道峯三角極意清秀如萬火 朝天別有異氣 畫亦難形。(趙在三, 《松南雜識》 (一) 地理類)

산 남쪽 땅을 오덕구(五德丘)라 하여 저울추에 비유하고 있다.

오덕(五德)이라는 것은, 중앙의 면악(面嶽)이 둥그런 형상이라 토덕(土德)이 있고, 북쪽의 감악(紺嶽)이 구부러진 형상이라 수덕(水德)이 있으며, 남쪽의 관악(冠嶽)이 첨예한 형상이라 화덕(火德)이 있고, 동쪽의 양주(楊州) 남행산(南行山)이 꺾어진 형상이라 목덕(木德)이 있으며, 서쪽의 수주(樹州) 북악(北嶽)이 모난 형상이라 금덕(金德)이 있다는 뜻이다.

이 역시 도선(道詵)이 말한 삼경(三京)의 취지와 부합하는 말이다.⁶³⁾

이 같은 왕조의 풍수사상은 서민들의 사고법에도 전이되어 곳이나 제사 축문에도 쓰이게 되었으니 이지산(李芝山)이 자술기록(自述記錄)한 경사굿 뒷전의 〈황제풀이〉와 축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황제풀이〉(1)

... 전략 ...

산지조종 그늘능인데 팔도명산 굽어보자
함경도라 백두산은 두만강이 둘러있고
강원도라 금강산은 소양강이 들어있고
경상도라 태백산은 낙동강이 둘러있고
전라도라 지리산은 세류강이 둘러있고
충청도라 계룡산은 금강이 둘러있고
평안도라 자모산은 대동강이 둘러있고
황해도라 구월산은 상지강이 둘러있고
개성이라 송악산은 임진강이 둘러있고
경기도라 삼각산은 한강이 둘러있고
삼각산이 떨어졌다 인왕산이 되어있고
북악산이 기봉하데 학의등에 터를 닦아
속남산이 안산이요 동구재가 백호되고
왕십리가 청룡이가 한강은 조수되고
동적장이 수길막어
천봉은 금상이요 금상은 천봉이라
뒤로는 노적봉에 거북봉이 흘렀구나

... 후략 ...⁶⁴⁾

63) 민경길, 《북한산》 2, 집문당, 2004, pp.330~332

64) 崔吉城, 《巫俗信仰》,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제10책(서울篇),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9, pp. 123~124

〈황제풀이〉(2)

집터라고 잡아볼때 팔도명산을 바라보니
산지조정은 곤륜산이요 수지조정은 황하수라
함경도라 백두산은 두만강이 둘러구나
평안도 묘향산은 대동강이 둘러있고
강원도라 금강산은 소양강이 둘러있고
경기도라 삼각산은 임진강이 둘러있고
충청도라 계룡산은 공주금강이 둘러있고
경상도라 태백산은 낙동강이 둘러있고
전라도라 지리산은 영산강이 둘러있고
선천지(先天地) 후천지(後天地)라
억만세지(億萬歲地) 무궁이요
백두산 산맥이 뚝 떨어져 삼각산이 기봉(起峰)이요
북악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은 안산이고
왕십리는 청룡이요 만리재는 백호로다
한강은 조수가 되고 동작소로 수기를 돌렸구나
이집터가 참으로 좋다
삼각산이 주춤주춤 내려와서 인왕산이 되었는데
노적봉이 떠들어오고 앞주산이 주춤주춤 내려와
일산봉이 춤을춘다 근들아니 좋을소냐⁶⁵⁾

〈고사문 告祀文〉

소소문안 드리나이다
염불이면 동창춘원이 갑니다
덕담가요 지성정성 고사발원 드릴적에
금일금일 사자하고 셔교로다
해동조선국 마련할제 한양이씨 등극하니
삼각산이 주산되고 종남산이 안산이로다
왕십리 청룡되고 한강이 조수로다
무악이 잡은터에 사대문 세워놓고

65) 金善慶, <황제풀이>, 《漢陽巫俗集》, 도서출판 웅진, 2001, pp. 127~128

학어등에 대궐짓고 삼정승 육판서를 마련하여
 각도각주 마련할제
 전라도라 칠십삼관 대모관이라
 경상도라 칠십일관 대모관이라
 충청도는 삼십칠관 대모관이라
 강원도는 이십육관 마련하고
 원주는 순찰도요 횡성은 계명장에 진원도를 마련하고
 평창은 군수도를 마련하고 면내로 도암면이 대면이라
 도암면에 들어서니 대관령국사성황 중심에서
 고사발원 드립니다
 ... 후략 ...⁶⁶⁾

허균의 《성소부부고 惺所覆瓿藁》에는 신낙봉(申駱峰: 낙봉은 申光漢의 호)의 <중추에 배를 긴 여울에 대고(中秋舟泊長灘)>와 <배 위에서 삼각산을 바라보며(船上望三角山)>라는 두 시가 소개되어 있는데, 배 위에서 삼각산을 바라다 본 정경을 그리고 있다.

〈중추주박장탄 中秋舟泊長灘〉

갈대꽃 핀 불 기슭에 외론 배 매고 보니(孤舟一泊荻花灣)
 양 갈래 맑은 강에 사면에는 산이로세(兩道澄江四面山)
 인세(人世)에도 이 밤 같은 달이야 없을까만(人世豈無今夜月)
 백년 가도 바랄손가 이 가운데 보는 달을(百年難向此中看)

〈선상망삼각산 船上望三角山〉

외론 배 잡아타고 광릉(廣陵) 나루 떠나오니(孤舟一出廣陵津)
 열 다섯 해 동안 죽지 못한 몸이라(十五年來未死身)
 나는야 정이 있어 아는 얼굴 같지만(我自有情如識面)
 청산이야 옛사람을 기억할 수 있으랴(靑山能記舊時人)⁶⁷⁾

그러나 삼각산 주봉의 형상은 학이나 기러기의 모습이 아닌 봉황임을 연변 조선족

66) 평창문화원, 《平昌郡 놀이 民俗集》, 1996, pp. 105~107
 67) 허균, 《성소부부고》 제 25권 說部4, 민문고, 1989, p. 211

구비문학에서 찾을 수 있다.

〈리성계가 도움을 청하던 이야기〉

리성계는 즉위하자 나라의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무학이를 데리고 팔도강산을 돌아다니었다. 강원도에 가보니 금강산이 있어 경치는 좋으나 너무도 산골이어서 도움을 앓힐만한 자리가 없었다. 리성계 무학이를 데리고 경기도에 들어서니 한강이 흐르고 앞에는 남산이요, 뒤에는 삼각산이어서 산수가 좋았다. 삼각산 명맥이 떨어져 이왕산을 이루고 이왕산 명맥이 떨어져 봉황산이 되었다.

리성계는 무학의 의향을 듣고 이곳에 도움을 청하고 각도의 이름 있는 목수들과 미쟁이를 불러다 루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헌데 이상하게도 루각을 세우기만 하면 넘어져서 도시 루각을 세울 수가 없었다. 리성계는 생각다 못하여 충청도에 나가서 도움을 청해 보고자 무학을 데리고 충청도를 향해 떠났다.

충청도에 들어서니 봄철인데 농부들이 밭갈이 하느라 분망하게 보냈다. 한 곳에 이르니 키가 작달만한 농부가 밭을 가는데 소가 말을 잘 듣지 않았다.

“이라! 이놈의 소야, 가라는 데는 가지 않고 어디로 가? 이라 이놈의 소야, 돌아라, 돌아, 에따, 이놈의 소 무학같이 우둔하구나!”

무학은 말할 것도 없고 리성계도 밭 가는 소를 잡아 패며 하는 농부의 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랐다.

“아무리 들어봐야 밭 가는 저 농부의 소리 이상하네. 우리 다리도 쉬우고 저 로인과 이야기도 할 겸 해서 쉬고감이 어떠한고?”

“좋사웁니다!”

리성계는 지체 없이 밭으로 들어가며 로인을 불렀다.

“로인님! 로인님!”

“왜 그러시오?”

“로인님보고 한마디 물을 말이 있어 그러합니다.”

“아이구 참, 땅이나 뚜져먹고 사는 사람에게 물을 말이 뭐가 있어요.”

“그런게 아니라 로인님이 방금 소를 잡아 패며 ‘무학이 보다 더 미련한 놈 돌아서라.’ 했는데 그제 대체 무슨 말씀이옵니까?”

“여보시오, 지나가던 손님 들어보시오, 세상에 무학이보다 더 미련한 놈 어데 있소. 임금을 모시고 강원도에는 가도 그곳에는 도움이라고 정할 데 없고 경기도에 들어서서 도움 정할 곳을 찾았는데 그걸 버리고 떠나니 그보다 더 미련한 인간이 있소?”

“자리는 좋으나 루각을 세우지 못하니 어찌 그곳에 자리를 정하오리까?”

“하하, 손님들 모르시는 소리올시다. 그곳은 봉황이 나래 펴고 앉은 형인데 일국 지관이 그걸 모르고 봉황의 허리에 집을 세우니 안 무너질 리 있겠습니까? 봉황의 두 나래쪽에 먼저 집을 세우면 봉황이 움직이리오까. 그것도 모르고 그 좋은 도읍터를 버리고 떠나니 간다면 어디로 간다고 그러니까?”

리성계와 무학은 발 가는 농부에게 절을 하고 그길로 경기도에 돌아와서 인부를 동하여 먼저 빙 둘러 성을 쌓아 봉황의 나래를 둘러 놓고 그 후로 성안에 루각을 세우니 아무 일도 없게 되었다. 리성계와 무학은 이렇게 시골 밭가는 농부한테서 조언을 듣고 다시 경기도 삼각산 앞에 도읍을 정하게 되었다고 한다.(구술자 : 배로인, 수집지점 : 류하현 강가점향, 수집시간 : 1980년 1월⁶⁸⁾

〈앞산타령〉

나 너 ~ 니나노에 ~ 에허에허 에헤야아
에 ~ 어허어 어허 이어 어루 산이로구나
과천 관악산 염불암은 연주대(戀主臺)요
도봉(道峰) 불성(佛性) 삼막(三幕)으로 돌아든다
에 ~ 어디히 이에 어허에헤에야
에 ~ 히 에허 이어 어루 산이로구나
단산봉황(丹山鳳凰)은 죽실(竹實)을 물고
벽오동(碧梧桐) 속으로 넘나든다
경상도 태백산은 상주(尙州) 낙동강이 둘러 있고
전라도 지리산은 하동(河東)이라
섬진강수(蟾津江水)로만 둘러 있다
동불암(東佛岩) 서진관(西津寬) 남삼막(南三幕)은 북승가(北僧伽)요
도봉(道峰) 망월(望月) 천축사(天竺寺)라
해외소상강(海外瀟湘江) 일천리 너른 물에
굽이 출렁 동정호(洞庭湖)로만 다 둘러 있다
성(盛)절 덕(德)절 학림암(鶴林庵)을 구경하고
화계사(華溪寺)로만 돌아든다
탁자 앞에 앉은 노승 팔대장삼을 펼쳐입고
고부랑 곱빱 염불만 한다

저 달아 보느냐 임 계신 데
 명기(明氣)를 빌려라 나도 보자
 너 오는 길에 약수삼천리(藥水三千里)라 만리장성(萬里長城)이 둘렀더니
 잠총(蠶叢) 어부후(魚鰓後)에 촉도지난(蜀道之難)이 가리웠더니
 팔도(八道)로 돌아 유산객(遊山客)이요
 여덟 도(道) 명산(名山)이 경기(京畿) 삼각산(三角山)이라
 삼각산(三角山) 제일봉(第一峯)에 봉황(鳳凰)이 춤을 추고
 한강수 깊은 물에 용마(龍馬) 하도(河道) 낭단 말가⁶⁹⁾

김상헌(金尙憲)은 일찍이 청나라로 끌려 가면서 다음과 같은 시조를 남겼다.

가노라 三角山아 다시보자 漢江水야
 古國山川을 써나고자 恒라마는
 時節이 하 殊常하니 올동말동 恒여라

(謹樂 247)

그는 남한산성에서 임금이 당한 치욕적인 일을 상기하면서 호국의 영산 삼각산을 불현듯 연상했을 것이다. 원래 삼각산은 조선조에 호국백(護國伯)으로 호칭하도록 작위가 내려진 산이다.

주지하다시피 삼각산은 서울의 진산(鎭山)이다. 진산은 국가를 진호(鎭護)하는 주산(主山)을 말한다. 진호국가(鎭護國家)라는 말이 있거니와 나라를 평정하여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산이 바로 삼각산이요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강이 한강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덕형(李德馨)은 <중흥동산성(中興洞山城) 형세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상하고 있다.

<중흥동산성(中興洞山城) 형세보고서>

삼각산의 후면은 철벽(鐵壁)을 깎아 세운 듯하고 그 밖은 곧 서산으로 통행하는 길인데 미륵원(彌勒院)으로부터 우이동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성암의 상령(上嶺)과 석가현·문수봉은 지름길이 있기는 하나 사면의 산세가 매우 험절하니, 진실로 10여 인이 지키게 되면 적의 무리 수만 명이 있어도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중첩된 산봉우리가 원근을 가리고 있어 적이 비록 성을 에워 싸고자 하여도 그 형세가 실로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산허리 요해처에 돈대(墩)

69) 金善豐 外, 《銅雀區誌》, 서울特別市 銅雀區, 1994, pp. 1197~1198

70) 三角道峰, 《地行附錄》, 《地行錄》

臺)를 설치하여 멀리까지 망보게 하고 그 속에 곡식을 비축해 두며, 하동구(下洞口) 및 도성령(道成嶺)·석가현(釋迦峴) 등 몇몇 곳을 굳건히 지키면 천험만전(天險萬全)의 형세가 있을 것입니다. 설사 적병이 그 속으로 들어 온다 하더라도 두 마리의 쥐가 굴을 다투는 형세가 있어 아군이 숨어 있는 다소를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⁷⁰⁾

그의 지적대로 삼각산은 정신적으로 한국인에게는 나라 지킴이로서의 산으로 다가오고 있다.

근대에 들어 한국인은 삼전도의 치욕 이상으로 일제에게 수모를 당해 왔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처럼 찾는 산과 강이 있었으니 남산, 삼각산과 한강이 그것이다. 심훈(沈薰)의 〈그 날이 오면〉을 감상해 보자.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며는
삼각산(三角山)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漢江)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 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하랴이며
나는 밤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鐘路)의 인경을 머리로 드리 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頭蓋骨)은 깨어져 산산(散散) 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恨)이 남으오리까

그 날이 와서 오오 그 날이 와서
육조(六曹)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덩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行列)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끼꾸러져도 눈을 감겠오리다

심훈은 소설 《상록수》를 비롯한 그의 작품에서 애국(愛國), 애족(愛族), 애향(愛鄉)

의 정신을 부르짖었거니와 특히 이 시는 보다 걱정적, 육감적 수법으로 일제식민지 상태의 해방과 항일의식을 크게 고취하고 있다.⁷¹⁾

이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삼각산은 한국의 12종산(宗山)의 하나로 그 형국(形局)이 봉황형국으로 흥왕지산(興王之山)이자 흥국지산(興國之山)의 성산(聖山) 역을 담당하고 있다. 거기다가 오덕(五德)을 겸비한 산이었기에 역대 여러 왕들의 정신적 축의 기능을 다해 왔던 것이다.

아무튼 삼각산과 한강은 이 땅을 수호해 준 철옹성(鐵鑊城·天作之固)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남한강의 설화

(1) 영웅 이야기

한강은 민족과 국토를 수호한 한국인의 젖줄이자 핏줄이었다. 우선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영웅설화를 살펴 볼 때 우리는 설화 속에서 성공한 영웅과 실패한 영웅 두 부류를 발견하게 된다.

한국문학사에 있어서 영웅이 많이 탄생한 시기는 임진왜란 때가 아닐까 한다. 헤겔의 말을 빌리자면 영웅의 등장을 가능케 하는 일반적인 세계 상황은 과도기적 불안, 미달성의 과제를 눈 앞에 두고 있는 동요, 혹은 무엇인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혼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말하자면, 파토스적인 경험을 불가피하게 하는 전체적인-민족적인, 공동사회적인 - 상황이다.⁷²⁾

이러한 상황과 배경에서 영웅이 배태된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실로 한국민족은 불행한 재난과 수난 그리고 불안과 고뇌를 맛보았고, 스스로 그 같은 상황을 탈출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법을 체득하게 되었다.

한강을 끼고 있는 행주산성은 물 때문에 금성철벽의 성으로서의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었다. 왜군총수 우희다수가(宇喜多秀家)의 3만 대군을 물리친 이들은 권율장군과 가정부인들이었다. 다시 말해, 그것은 권율장군의 전략과 부인들의 행주치마의 슬기가 합작된 승첩이었던 것이다.

한편 실패한 영웅들도 있었으니 온달장군과 신립장군이 그들이다. 온달장군은 삼월 삼짇날 국가적 축제인 사냥대회에서 영웅이 된 장군이다. 평강공주와의 인연은 다분

72) 김열규, 《한국의 전설》, 중앙일보 동양방송, 1980, p. 58

히 창작적 문학의 세계가 들어 간 것일 뿐 그는 제의를 통해서 당당히 민속적 영웅의 대열에 끼게 되었다.

삼국시대의 전쟁은 삼각산과 한강 쟁탈전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온달은 한강 유역의 강력한 신라 군단을 격멸하기 위해 아차산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전사하고 말았다.

그는 국가적 사냥제와 평강공주와의 허구적 사랑 때문에 신분상승의 대열에 끼게 된 인물이었고, 사후에 그에 따른 영웅설화를 남게 하였다.

한편, 남한강 상류와 달천(達川)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는 탄금대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패하고 남한강에 투신·자살한 신임장군은 슬픈 영웅담을 남기고 있다.

지나치게 강직한 신임장군은 한 처녀의 청혼을 물리치는 바람에 원한을 맺고 만다. 그 손각시 때문에 결국 신임장군은 탄금대 전투에서 전멸을 당하고 남한강에 투신·자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속담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민속적 상황이 이행·대입된 경우라 하겠다.

〈일편단심가〉의 유래도 그 무대는 삼국시대 행주산성 일대로 올라간다.

백제 땅에 가서 정을 주고 온 안장대왕이 위기에 빠진 한주(韓珠)를 을밀장군을 시켜 구출해 온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정몽주가 지었다고 하는 〈일편단심가〉가 원래는 백제의 노래라는 점이 흥미롭다. 곧, 〈일편단심가〉가 한주를 차지하려고 흑독한 문초를 했던 백제 태수를 향한 저항시였다고 하니 임란시대 행주치마의 여인네들의 정절과 기개, 그리고 우국정신이 다 그 뿌리가 있었음을 웅변하고 있다.

다음의 예화는 한강을 중심으로 한 성공한 영웅담과 실패한 영웅담들이다.

• 아차산성과 온달장군

아차산성은 남양주군 구리읍 아천리와 서울의 광장동인 한강 북쪽 기슭 뒤편(현 위키힐 일대)에 있다. 서울의 한강(漢江) 줄기에서 광장진(구명 광진(廣津)·광나루)은 남·북 교통에 있어서 노량진 다음 가는 나루터였다.

옛날에 온조(溫祚)가 광주(廣州) 땅에 백제(百濟)를 세우고 백제시대에 있어서 이곳은 강을 따라 주요한 지점이 된 것이다. 그리하여 백제는 이 광장진 배후에 말굽 모양의 윤곽을 나타낸 산성을 쌓은 것이었다.

아차산성은 아차산성(峨嵋山城) 또는 아단성(阿旦城)이라고도 불리우며 이 산성은 광장진(廣津)을 강북(江北)에서 파수하던 성진(城鎭)으로서 286년(백제 9대 책계왕 원년)에 중수하였다고 되어 있고 전부 석축이며 주위가 약 1키로 미터 가량이 되고, 높이가 평균 20미터로서 현재는 동·서·남쪽에 약간의 성터가 남아 있는데 고구려가 396년(광개토왕 6년 병신) 한강 유역의

공격에서 승리를 하여 백제왕의 항복을 받았다는 곳으로 그 뒤 장수왕이 백제의 개루왕을 잡아 참형하였다는 곳도 이곳이며 또한 고구려와 신라의 싸움에서 온달장군(溫達將軍)의 전사지(戰死地)로서 더욱 이름이 알려져 있는 곳이다.

백제가 이 성을 지키지 못하고 패했는가 하면 나중에 신라는 아차성 전투에서 적의 공격을 격퇴한 것이기도 하나 아차산성을 둘러싼 백제와 고구려 그리고 신라는 제 나름대로의 승패의 엇갈림으로 한강유역을 차지하는 데 커다란 의의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이곳은 인적(人的) 물적(物的) 또는 자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삼국쟁패의 웅비(雄飛)를 가져 오게 하는 중요한 지점이며 서쪽에 있는 남양만(南陽灣)의 당항성(唐項城)을 장악하고 이곳을 통하여 중국과 통하는 유일한 해상관문(海上關門)을 확보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라가 아차성 차지한 뒤에는 특히 고구려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강유역에 강력한 군단을 설치하는 등 북한산(北漢山)과 광주(廣州) 이천(利川)을 잇는 선을 유동적으로 철통 같은 태세로서 방비에 힘 썼음은 그만큼 군사상으로나 역사 상 주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점이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그리하여 신라가 최후의 통일패업(統一霸業)을 완수하여 삼국(三國)을 통일하는 데 있어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이곳이 지리적으로나 전략상 중요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역사적 사실들을 상술(詳述)하지는 것보다는 온달장군과 얽힌 몇 가지 전설들을 알아 보고자 하는데 있다.

고구려의 영양왕(嬰陽王)이 즉위하면서부터 중국 수(隋) 나라에 대하여 적극공세를 펴서 요동(遼東)에서 무찔렀는가 하면 오래 전에 나·제(羅·濟) 연합군에 빼앗겼던 땅을 되찾기 위하여 요동 전투에 출정(出征)을 하여 혁혁한 무공을 세우고 대형(大兄)이란 높은 벼슬을 받은 온달장군을 남으로 내려 보내어 싸우게 한 것이다. 온달장군은 빼앗긴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원한을 기어이 풀어보겠다는 결심으로 한강유역까지 진격해서 전투를 버리게 되었다.

이것이 저 유명한 온달장군의 아차성 전투였던 것이다. 온달장군은 영양왕에게 “신라가 우리의 한북의 땅을 빼앗아 갔으므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은 항상 원통히 울며 조국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하오니 원컨대 폐하께서는 소신에게 출병을 허락하여 주시오면 반드시 우리의 강토를 다시 찾겠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영양왕도 온달의 용맹을 믿고 있던 터라, 곧 윤허(允許)를 내렸다. 그리하여 온달을 출전하기에 앞서 부인인 평강공주(平岡公主)에게 “이번 길에 계립현죽령(鷄立縣竹嶺) 서쪽을 우리 고구려 땅으로 돌려오지 못하면 나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요.”라고 맹세하였다. 온달의 비장한 결의에 평강공주는 그를 격려해 주었다. 그리하여 온달장군은 아차성에서 신라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불행하게도 신라군의 화살에 가슴을 맞아 온달장군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고구려 군사들은 몹시 슬퍼하며 온달의 시체를 거두어 장례를 치르려 하였으나 온달의 시체가 든 관(棺)은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내 평강공주가 달려와서 관을 어루만지며 “죽고 사는 것은 이제 결판이 났으

니 평안히 돌아 가소.(死生決矣於乎歸矣)”하고 위로의 말을 하니 그제서야 관이 움직여 장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에 앞서 평강공주와 온달의 이야기는 전설로 내려 오기도 한다.

고구려 평강왕 때였다. 한 고을에 온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얼굴이 어찌나 못생겼는지 보는 이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였다고 한다. 마음은 착하였지만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해진 옷에 떨어진 신을 끌며 밥을 빌러 다니는 온달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바보온달’이라며 놀려댔다. 그 때 마침 평강왕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밤낮 울기를 잘해 왕은 울기를 그치게 하려고 “네가 자꾸 울면 이 다음에 무서운 바보온달에게 시집을 보낼 테다.”라고 하였다. 몇 십 몇 백 번이고 공주가 울 때마다 이 말을 되풀이 했다. 세월이 흘러 올보공주는 열 여섯이 되어 왕은 부마(駙馬)를 고른 끝에 상부고씨(上部高氏)의 집으로 시집을 보내려 하였다. 그러나 공주는 부왕(父王)에게 “아바마마께서는 언제나 저를 바보온달에게 시집보낸다고 하셨는데 어찌 백성을 다스리는 지존(至尊)께서 이 말씀을 어기시려 하십니까.”하여 부왕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공주는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마침내 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니 공주는 그 길로 바보온달을 찾아가 그의 부인이 되었고 ‘바보온달’이 ‘온달장군’이 되도록 이끌려 나라에 큰 공을 세우게 하였다는 것이다.

(경기도, 《풍속과 자연》, 1984, pp. 233~235.)

• 행주치마

고양군 지도면 행주내리(高陽郡知道面幸州內里) 한강 기슭에 124미터 높이의 양덕산(陽德山)이 있으며, 이곳이 바로 행주산성(幸州山城)이다. 이 산정(山頂)에는 권율장군(權慄將軍)의 전승비(戰勝碑)가 우뚝 솟아 있다. 1592년(조선조 선조 25) 4월에 일본의 수령 풍신수길(豐臣秀吉)은 15만 대군으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침입하였으며 전후 7년 간에 걸친 이 임진왜란(壬辰倭亂)의 전 전투를 통하여 이곳이 삼대첩(三大捷)의 하나로 되어 있는 곳이다.

권율장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같은 해 7월 8일 이치(梨峙)에서 왜적을 크게 격멸하여 대첩을 거두고, 12월에 수원 독산성(禿山城)에서 또 왜적을 무찌른 후, 서울을 수복하기 위하여 작전을 개시하여 행주산성에 진을 치게 된 것이다.

이때 우리의 청병(淸兵)으로 온 명(明)의 장수 이여송(李如松)이 벽제관 싸움에서 참패를 보기 직전이다. 한편 이 국난 중에도 국내 정정(政情)은 좋지 않았고, 국민들의 유일한 희망으로 믿어온 신입(申唼)장군이 충주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쳤다가 패한 후, 그야말로 국권이 풍전등화(風前燈火)적인 때였었다. 그때 일본군은 명의 대군을 벽제관에서 무찔러 남하하는 것을 막기는 했으나, 권율장군은 자기네를 괴롭혔던 숙원이기도 했으나 즉, 서울에 입성했던 왜군 3만은 권율장군이 자기네의 퇴로를 끊고 군량 운반을 저해 할 우려가 있어 단번에 섬멸시키려고 2만 대군을 이끌고, 독산성 밖을 포위하고 도전을 했으나 권 장군은 성 내에 군량을 쌓아 놓고 요지

부동 하면서 야간에 오히려 적진을 기습하여 적장의 숙사를 불사르기 여러 번에 적은 피로한 나머지 또한 독산성에서의 세마(洗馬)의 광경을 보고 서울로 되돌아 가고 만 것이었다.

이때부터 권 장군은 해상에서 전승을 한 우리의 역사적인 명장인 이순신(李舜臣)장군과 함께 명장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던 것이다. 권 장군의 당초 계획은 이여송이 개성에 들면 왜군을 옆에서 치려던 것이었는데, 영천을 지나 한강을 건너니 그때는 이미 벽제관 싸움의 전세가 패색(敗色)이 짙었을 때 인지라 그가 이 행주를 택한 것은 두 가지의 의미에서였다. 하나는 행주산성은 그리 높지는 않지만, 동남으로는 한강의 격류(激流)가 굽이치는 절벽(絶壁)이요, 서북이 터어 파주, 문산, 벽제관까지 내려다 볼 수 있는 지점인지라 지리적인 여건을 택함이요. 둘째는 권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2, 3천에 불과하지만, 3만 대적(大敵)과 싸워 전원 옥쇄(玉碎)의 각오로 배수진을 치므로서 유사시에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워 죽을 생각이었다.

권 장군은 지략(智略)이 밝고, 담력이 있어 가히 명장(名將)이었으며, 그의 조방장(助防將)인 조경(趙敬)과 승장(僧將) 처영(處英) 등 훌륭한 보좌관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권 장군의 계획은 치밀한 바 있었으니 행주로 오기 전에 이미 병사 선거이(宣居怡)로 하여금 현 시흥에서 창(倉)의 사 김천일(金千鎰)은 강화, 충청감사 허옥(許頊)과 충청수사 정결(丁傑)은 동진에서 행주를 응원케 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 양덕산에는 이중으로 튼튼한 목책성(木柵城)을 쌓았던 것이다. 한편 벽제관 싸움에서 명나라 군사가 대패(大敗)했다는 소식을 들은 권장군은 분개하고 한편 결심하면서 즉시 성 수비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그러나 벽제관에서 대승한 적들은 의기충천하여 아침에 나가 행주를 치고, 점심은 흥제원에 돌아 와서 먹자는 식으로 행주성을 아주 쉽게 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드디어 1593년 2월 12일 새벽 6시쯤 왜군총수 우희다수가(宇喜多秀家)는 3만에 이르는 7개 부대를 거느리고 대거 행주산성을 포위하고 갖은 방법으로 도전해 왔던 것이다. 권 장군은 친히 사병들에게 물을 떠다주고, 주먹밥도 날라주면서 독전, 적을 괴롭혔다.

그러나 적은 성을 칠 도리가 없었다. 그리하여 성 밖에 누대를 높이 만들어 그 위에서 내려 치기로 했으나 우리 군사들은 일시에 지자포(地字砲)로서 이를 날려 버리니 적병은 티끌처럼 날라 버렸다. 그뿐 아니라 적군은 조총, 화포, 화살 등으로 공격하여 목책까지 접근하자. 화포와 수차석포(水車石砲)의 공격을 일시에 퍼붓는 등 필사결전(必死決戰)의 돌격 명령을 내려 베고 찢르는 처참(慘慘)한 접근전이 벌어졌다. 행주성을 치고 돌아가서 점심을 먹자던 적의 꿈은 깨어지고 성은 굳었고 전의는 하늘을 찌를 듯하니, 적의 숫자가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적은 반나절에 1만여의 전사자를 내고, 부상자도 이루 그 수를 헤아리지 못한 채 퇴각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 승전이 적의 재기를 막은 것이 된 것이다. 임진왜란을 통하여 권 장군은 이현과 행주에서 대승첩을 얻었으니 충무공의 한산대첩(閑山大捷)과 아울러 빛나는 2대첩을 권 장군이 차지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행주대첩에 있어서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군사 못지 않게 숨은 공을 세운 것이 있으니 바로 부녀자들의 전공이었다. 당시 이 전투에서 육박전이 벌어졌을 때 권 장군이 방어 준비로서 부녀자를 동원하여 석전(石戰)에 필요한 돌을 나르게 할 때 치마를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겹치마를 두르고 거기에도 돌을 담아 나르도록 한 데서 유래되어 '행주치마'라 부르게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네 가정부인들은 부엌에 들 때나, 일을 할 때는 행주치마를 치마 위에 더 두르고 일하는 풍습이 되어 온 것이다. 이것을 무심히 넘겨 버리면 그만이지만, 이 치마에도 우리 민족의 혼이 서려 있다고 생각해야 하며 일조유사시에는 온 국민이 다 같이 일어나 우리의 생존과 국토방위에 힘 써야 한다는 좋은 교훈을 남겨 준 것이라고 하겠다.

지금도 산허리에 목책 자리가 남아 있고, 삼국시대 토기조각들이 출토되어 옛날에도 군사기지였던 것을 알 수 있다. 1603년에 건립한 행주대첩비가 비각 속에 남아 있으며, 1963년에 다시 세운 대첩비가 서 있다. 1970년 대대적인 정화공사를 하면서 권율장군의 사당인 충장사(忠莊祠)를 다시 짓고 정자와 문을 세워 경역을 규모있게 조성하면서 1845년에 세운 행주 기공사(紀功祠) 경내의 대첩비를 충장사 옆에 옮겼다.

(경기도, 《풍속과 자연》, 1984, pp. 146~149.)

• 일편단심가의 유래

죽어 죽어 이몸이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뉘어야 있건 없건

님 향한 일편단심 가실줄이 있으랴

누가 이 노래를 정몽주 선생이 지은 노래가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으랴. 그러나 이 노래엔 또 다른 전설이 있어서 이야기 거리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일편단심가(一片丹心歌)는 정몽주 시절보다도 훨씬 이전인 삼국시대의 백제 나라의 일 개 연약한 시골 처녀가 자기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은 노래라는 것이다. 이에 노래의 출처라는 전설을 더듬어 보기로 하자.

아득한 옛날!

백제의 한 시골인 가맛골 즉 지금의 행주(幸州) 고을의 어떤 촌에서 생긴 일이었다. 이 시골의 큰 부자요, 농가인 한장자(韓長者)의 집 뒷동산에는 가을을 맞이한 밤나무가 소담스런 밤송이에 알밤을 물은 채, 가지를 척척 늘이고 있었다. 장자의 딸 한주(韓珠)는 오래간만에 계집 하인과 함께 집 울타리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익어가는 가을 향기를 들며 마시며 가슴을 뻥 벌리고 거닐고 있었다. 그러다간 눈에 띄이는 밤송이를 바라보고서,

“어이구나, 저것 봐라……. 벌써 밤이 저렇게!”

“글쎄요 아씨, 알밤이 떨어졌네요.”

“세월도 빠르구나. 왜, 장대를 하나 가져 오너라. 밤을 떨어뜨려 보자.” 하는 한주의 말에 하녀는 재빠르게 장대를 가지러 집으로 내려 갔다.

“아니, 밤을 딸것이 뭐 있나? 알밤을 주으면 되지.”

한주는 다시금 이런 생각이 나서 하얀 행주치마를 허리춤에 건어지르고 예쁘장한 손가락으로 들국화 풀썩을 살살이 헤쳐가며 어느덧 저편 도랑가 싸리덤불 밑에까지 발길이 미쳤다. 정신 없이 밤을 줏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주는,

“어마!” 하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그것은 마침 싸리덤불 밑에 염소를 끌고 앉아 있는 한 총각의 가슴에다가 자기의 이맛전을 불쑥 들여 밀었기 때문이었다. 하여튼 호젓한 곳에서 두 남녀의 눈동자가 한참 마주치고 보니 무슨 말이 나올듯 나올듯 하다가 나오지가 않고 그렇다고 얼른 일어나서 각각 돌아설 용기도 없었다. 그것은 일종의 보이지 않는 무슨 끈나풀이 두 남녀의 사이를 붙들어 맨 듯 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처녀인 한주는 이 시골에서 미인이라는 소문이 자자한 그녀였고, 총각 역시 의지 없이 한장자의 집 머슴꾼 노릇을 하는 처지일망정 그는 영특한 기골을 지닌 호남자이었던 니 말이다. 한참 동안 서로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러나 이 총각과 한주 사이에 본격적인 말문이 터지기는 여자 하인이 장대를 가지고 올라 와서 총각이 밤을 떨어주게 된 뒤부터의 일이다.

“난 누구라구? 그래 이 총각이 바로 우리 집에 새로 온 홍이 총각이야?”

“그럼요. 어저께 댁에 새로 들어 온 홍이 총각이야요. 머슴이 하도 여럿이니깐 아씨는 아직 못 보셨지요.”

계집 하인은 한장자가 며칠 전에 근방에서 떠돌아 다니는 총각 아이 하나를 데리고 들어와서 이 말 저 말을 물어보고 자기 집 콩배머슴으로 정한 일을 기억하는지라 총각의 이름이 홍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럼 홍이, 밤이랑 감 대추가 익는대로 따다가 날 좀 갖다 주어, 응, 내가 나오기가 싫으니 말야…….”

한주는 마치 어린애가 하인에게 응석을 부리는 모양으로 홍이에게 다정히 부탁했다. 이러한 일이 있는 뒤부터 홍이는 장자의 집 후원 깊숙한 초당에까지 이따금 드나들게 되었다. 이 초당 앞 금잔디 밭에 벌레 우는 소리가 들리고 초저녁 달이 내려 비칠 무렵이면 한주, 홍이 두 남녀의 그림자가 나타나 속살대는 것이 이제는 예삿일이 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어느덧 가을도 다 가고 겨울이 닥쳤다. 이때껏 두 남녀의 정서를 곱게 아로 새겨 주던 단풍 잎사귀조차 간 곳이 없고 낙목한천(落木寒天)에 거센 북풍만이 그들의 가느다란 몸뚱이를 위협하려 드는 것이었다. 그러고보니 이제는 두 사람이 소근대는 자리를 초당 방안 따스한 아랫목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사이에는 무엇인가 한 가지 해결 안 되

는 숙제가 남아 있던 것이다. 결국 그 문제가 풀리기까지는 언제이고 이 초당 바깥 눈 바람 속에서 발발 떨며 만나지 않으면 안될 사정이 있었다.

“내 아무리 봐도 너는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할 천한 가문 같지는 않은데?”

“뭣이 아니야?”

“뭣 때문에 그만한 신수를 가지고 시골 구석으로 고생을 하며 돌아다니느냐 말야? 왜 네 근본을 안 일러주느냐 말이야?”

한주는 좀 씩씩한 표정으로 졸라대다시피 홍이의 근본을 캐려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홍이는 여전 늑직한 태도로 대답을 하는 것이다.

“허! 참 정말 나는 집도 근본도 알 수 없는 어려서부터 떠돌아다니는 시골떼기라니깐.”

한주는 화를 발각 내며,

“몰라, 그럼 이 후부터 나는 너한테 상관 없는 사람이다!” 하고, 잔디 밭에서 일어서는 한주의 보드러운 뺨은 유난히 빨간 핏기가 서리며 눈에 이슬 같은 눈물 방울이 돌았다. 그럴라 치면 홍이는 빙그레 웃고 그녀의 손목을 끌어다가 자기 가슴에 대며 능청을 부리는 것이다.

“정말 땀 빠질 일인 걸! 어떻거냐? 그럼…… 모르는 근본이지만 오늘 저녁에는 꾸며 대서라도 일러 줄까?”

이러는 바람에 한주는 조금 화가 풀린 것도 같았다.

“그럼 이 번엔 꼭 일러 줘요…… 응! 아무도 듣지 않게 방 안으로 들어 가서 말야.” 하고, 졸라대는 것이다. 이제는 두 남녀의 온갖 비밀을 하나도 숨김없이 털어 놓은 따스한 초당의 한 칸 방에 초저울 눈송이가 폴폴 들이칠 뿐이었다. 한주에게 털어 놓은 홍이의 비밀이란 이러하였다. 그는 고구려 문자대왕(文咨大王)의 아들 안흥태자(安興太子)인데 홍이로 행세해 가며 이 땅에 떠돌아 왔다는 것이다.

원래 고구려 사람의 기풍은 모험과 탐정으로 씩씩한 인기(人器)를 기르기를 좋아하는 만큼, 귀골의 대상일수록 온갖 풍상과 흠구덩이 속에 천히 굴러야만 영웅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래 훌륭한 임금이 되어 보겠다는 왕자나 왕은 당연히 이러한 모험과 고행을 자청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안흥태자도 홍이라는 가명을 가지고 혹은 등짐장사의 행색으로 혹은 품팔이꾼의 생활로 여러 해 동안 국내 산천을 편답하다가 마침내는 백제 나라의 땅에까지 떠돌아 온 것이다. 그러나 백제 땅에 돌아서 가지고는 말인 백제의 관원들에게 첩자 혐의로 붙잡히거나 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홍이는 이러한 위협을 피할 작정으로 깊숙한 가맛골 시골을 찾아들어 한 장자의 집 머슴꾼이 되었다는 것이다. 홍이는 여기까지 고백을 한 다음 다시 한주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는 내 몸이 너의 집에도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할 거야. 곧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혹시 왕이 되면 이 땅으로 쳐들어 와서 너를 데려 가기로 할까?”

이 말을 들은 한주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말소리는 떨렸다.

“마옵소서, 천하에 둘도 없으신 귀중한 몸을 우리 집에서 흠속에 굴리시다니……. 물론 빨리 돌아가셔야 됩니다. 님이 가신다고 이 한주의 마음이야 님의 길을 떠날 리 있사오리까? 하룻밤이라도 태산 같은 온정을 입었고 또한 우리들도 근본은 고구려의 백성이므로 죽는 날까지 님의 나라로 가서 찾겠습니다.”

한주가 사는 가맛골도 원래 고구려의 땅이던 것을 백제에게 점령을 당한 것이므로 한주의 말은 님과 고국을 똑같이 감싸서 하는 말이었다. 하룻밤 사이에 초당 밖에는 눈이 산같이 쌓였다. 하얀 은가루가 쌓인 산길을 타고 외로운 태자 홍이의 그림자는 사라져 갔다. 이렇게 되어서 시골 처녀와 외로운 사나이와의 애정의 속삭임은 이윽고 고요히 막을 닫았다. 그러나 이 두 남녀가 헤어진 연유로 해서 이 나라에 너무나 엄청난 활극이 벌어지게 될 줄을 누가 알았으랴. 그것은 홍이, 즉 안흥태자가 도망 간 뒤 몇 달이 안 되어서의 일이었다. 한주의 부모는 딸을 고을 백제 태수에게 출가를 시키려고 했다. 한주의 재색이 절세미인이라는 소문을 들은 백제 태수가 혼인을 청해 온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주는,

“일찍이 약속한 남자가 있는데 그가 멀리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니 그 남자가 죽고 살은 소식이 나 알아 본 뒤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태수는 한층 더 질투심이 생겨서 혼인을 간청했다. 더욱이 한주가 자기 집 머슴꾼과 정을 두고 지내다가 보냈다는데, 그 머슴꾼인즉 고구려의 밀정이었다는 밀고가 들어가자 태수는 한주를 체포해다가 옥에 가두고 죽인다고 위협을 했다. 그러는 한편 태수는 여전히 혼인을 하자고 달래며 간청을 했다.

죽어 죽어 일 백번 죽어

백골이 진토되고 님이야 있건 없건

님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이 노래야 말로 이때 한주가 백제 태수의 혹독한 문초에 저항하며 부르던 노래였다. 마침 이러한 소문을 고구려의 궁중에 도착한 안흥태자인 홍이가 들은 것은 문자대왕의 뒤를 이어 안장대왕(安藏大王)의 왕위에 오른 직후의 일이었다. 더욱이 한주가 매를 맞으며 불렀다는 노래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사모하고 있는가를 알게 된 안장대왕은 그녀가 그리운 정이 솟구쳤다. 그러던 중 왕은 벌떡 일어나 탁상을 쳤다.

“옳다. 그 사람이면 되겠지!” 하고, 왕은 우선 근시(近侍)를 불러 들었다.

“지금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는…… 전(前) 장군 을밀(乙密)을 시급히 불러 드려라.” 하는 명령을 내렸다.

을밀로 말하면 전날 장구시대에 왕의 누이동생인 안학공주(安鶴公主)의 사랑이 깊었었다. 그래서 혼인을 희망했었으나 선왕(先王) 문자왕은 을밀의 문벌이 천한 시골태생이라 해서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낙심한 을밀은 신병을 치료하겠노라고 벼슬을 내 놓고 시골로 돌아가 밭갈이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안장대왕의 부름을 받은 을밀은 황망히 장안으로 올라와 와 앞에 엎드렸다. 왕은 반색을 하며, “전상(殿上)으로 올라오라.”고, 분부한 후 밤이 깊도록 가지가지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다간 마침내 을밀장군의 손을 붙잡으며 한주에 대한 사연을 이야기 했다. 예, 예 하고 을밀장군은 대답을 하고 있었다. 왕의 머릿속엔 한주와 사랑에 빠지던 지난날의 일과 지금 한주의 백제 태수에게 붙잡혀서 악형을 당하고 있을 광경이 아리아리 떠돌았다.

“이 사람아! 과부끼리는 서로 서러운 사정을 안다는데 내가 당해 보니 자네의 쓰라린 가슴도 짐작하겠네.”

왕은 마침내 친한 동무끼리 하소연 하듯이 자세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서 왕은 엄숙한 기색으로,

“나도 촌구석으로 덩굴어 다닌 덕분에 시골 사람을 꽤 좋아하오. 그러니 두 말 말고 장군은 나의 매부가 되어 주고 또한 장군의 벼슬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니 잘 부탁하오.”

왕의 처분에 을밀은 다만 황송해 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감격스런 처분 속에는 을밀장군에 대한 태산 같은 책임이 첨부되어 있는 것이다. 만호 장안에 인적은 끊기고 귀뚜라미 소리만이 일층 요란했다. 등축이 휘황한 대궐 꽃장막 안에는 금장옥액(金裝玉液)을 담은 술상이 벌어졌다. 을밀장군의 등 뒤에는 안학공주의 은은한 용모가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임금과 신하의 자리가 아니라 처남과 매부와의 도란거리는 좌석으로 변한 것이다. 이러한 밤은 거듭 몇 번이 흘러갔다. 그러자 을밀장군이 다시 나라일을 보게 되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다. 동시에 고구려의 오천 해병이 벼락 같이 동원되었다. 벌써 을밀 장군은 해병 오천 명을 병선(兵船)에 태워 가지고 백제의 서북 해변을 귀신도 모르게 더듬어 일단 혈구성(穴口城) 하는 백제의 땅이 뻗하게 건너다 보이는 것이다.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군사들의 사기는 드높았다. 초가을 달빛이 바야흐로 장군의 장대(將臺) 안에 휘영청하게 밝았다. 그러나 을밀장군의 심사는 한가하지 않았다.

“잘 해 주세요. 우리 임금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한주를 꼭 살려서 데리고 오세요.”

하던 공주의 말 소리가 지금도 장군의 귀에 들리는 것 같았다.

“사실 고구려의 옛 강토를 찾기 위해서 누구인들 이 일을 허술히 하리? 그러나 태산을 허물어 내면서도 옥석을 깨뜨리지 말라…… 하는 격이 되어서…… 적지를 함부로 치면 저놈들이 한주를 죽일 것이니 어찌하랴. 싸움도 중하고 한주를 구출하는 일도 중하니 이번 작전 계획은 쉽지 않단 말이다. 그뿐만 아니라 백제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원래 우리 고구려의 백성들이 아니었던가? 그들은 지금 바야흐로 가을 곡식을 부모 처자와 함께 달게 맛보겠다는 평화의 꿈에 차 있을 것이다. 그러한 그들의 꿈을 깨뜨리지 않고 쳐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할수록 난처한 일이었다.

뜻밖에도 장막 문이 슬그머니 열리면서 사람이 들어오는 인기척이 났다.

“장군님, 저 올시다. 아직 잠을 못 이루셨군요…… 장군님의 심정은 제가 짐작합니다. 그런데요.” 하고, 낮으막이 말하며 들어서는 사람은 전날 을밀장군과 함께 발을 갈던 농부 친구요, 지금은 을밀장군의 가장 신임을 받는 지밀사자 선돌이었다.

“무슨 일이 생겼소?”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소식이 들어 왔습니다.”

“저 이 달 스무 날이 가맛골 백제 태수의 생일인데요, 잔치가 굉장하답니다. 그 날엔 백제의 연근읍(沿近邑) 관원이 다 모인데요…… 그리고 한주 아가씨의 목숨도 그 날까지랍니다.”

“흥……, 그 날 한주를 죽인단 말이지? 급하구나.”

선돌이의 말을 들은 을밀장군은 놀라며 걱정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두 눈에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희망이 비치는 것이다. 장군은 다시 한참 동안 무엇을 생각하다가 드디어 베개를 밀치고 일어나 앉으며 명령을 내렸다.

“선돌이!”

“네!”

“너는 지금 곧 군중에 나가서 마음이 너와 같이 진실하고 노래와 춤을 추는 선비 이십 명만 추려서 데리고 들어오너라. 일이 화급하다.”

이 말이 떨어진지 얼마 후,

닭 소리가 멀리 스며드는 새벽, 장대에 이십여 명의 맛있는 선비가 모여 들어서 을밀장군의 은밀한 지시를 일일이 받고 있었다.

“혹시 광대놈들이 달래는 바람에 한주가 마음을 돌린 것이 아닌가?” 하고, 태수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어찌 뜻했으랴! 이 순간이 바로 광대 일행이 마음 놓고 활약할 기회가 될 줄이야……. 우선 한주를 들쳐업은 광대가 슬그머니 어디론지 자취를 감추었다. 다음엔 산성 마루터기에서 북소리를 두리뎡당 연방 올리는 소리가 들려 왔다. 북 소리가 나자마자 잔치 자리에 있던 광대들은 제 각기 장기인 유술(柔術)과 검무를 하며 일대는 난투극을 개시하고 있었다.

“가맛골 태수부터 집어 치워라!”

“오릿골 태수놈도 동맹이 쳐라!”

“메줏골 성주는 내가 잡겠다!”

이러한 기세로 척척 해 치우는 십여 명 남짓한 광대들의 행동에 백제의 관원들은 모두 쓰러져 버렸다. 문관이건 무장이건 잔치 자리에 모였던 그들은 전부 살육을 당한 것이다. 그들 광대들의 정체는 물론 고구려의 군사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 날 새벽에 혈구성인 을밀장군의 장대(將臺) 안

에서 광대 복색으로 가장을 하고 떠나 온 무사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한주를 들쳐업고 미리 도망친 광대는 을밀장군의 사자 선들이었다. 그는 난투의 수라장에서 행여나 한주아가씨가 부상을 당할까 염려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또한 백제 태수의 정신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한주를 일부러 귀찮게 하기도 했던 것이다. 하여튼 을밀장군은 이러한 전술을 써서 칼 한 번 대지 않고 조용히 그 지방의 장수와 벼슬아치들을 전부 두드려 잡았으므로 남은 전쟁은 간단한 것이었다.

광대로 변장했던 무사들에게 남은 일은 잔치 구경으로 모였던 수천의 민중에게 선전을 하는 일 뿐이었다.

“지금 고구려의 을밀장군이 십만 대병을 거느리고 혈구성으로부터 이 땅으로 진격 중이다. 너희들 백성은 우리 군사에게 대항하지만 않는다면 결코 너희들을 희생시키지 않기로 되어 있다.”

선전의 효과는 컸다. 백제의 민병들은 하나도 저항하는 사람이 없어서 피 하나 흘리지 않고 가맛골을 비롯한 여러 고을을 점령을 할 수 있었다. 한주는 안장대왕의 궁궐로 향해 들어 갔다는 것이다.

(박영준, 《한국의 전설》 6, 한국문화도서출판사, 1972, pp. 212~220.)

• 권율장군의 승전보

평양성 안에 진을 치고 있는 소서행장(小西行長)에게 부하가 달려 왔다.

“장군님! 큰일이옵니다. 명나라에서 이여송(李如松)이가 십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도우러 압록강을 건넜다 하옵니다.”

“무엇이 명나라에서 군대를 풀었다고? 음……. 분한 일이로구나. 이틀만 더 있었어도 조선 임금의 사로 잡을 수가 있었을 터인데.”

“남쪽 바다에서는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바닷길을 막고 있어서 더 이상 진격하다가는 진퇴유곡에 이르겠사옵니다.”

“할 수 없다. 이대로 후퇴를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으니 곧 명령을 내리도록 하라.”
이리해서 평양까지 진격 했던 왜적들은 이여송이 거느리는 군사에게 패하여 남으로 쫓겨 내려가자 이여송은 그 기세로 군사를 총동원하여 일지에 한성(漢城)을 공격해서 함락시키려 했다. 그때에 전라도 나주 목사(牧使)인 권율(權慄)장군도 한성을 회복 하고자 이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북진을 하는 도중에 수원에서 적병을 쳐 부수고 그 기세로 양천강(陽川江)을 건너 고양군(高陽郡) 신도면(神道面) 행주산성(幸州山城)에 웅거하여 진을 치고 있었다. 한편 왜적의 진영에서는 작전 회의가 한참 열리고 있었다. 서로군 총사령관인 소서행장을 위시해서 석전삼성(石田三成), 흑전장정(黑田長政) 등이 모였다.

“잘못하면 퇴로를 차단 당해서 포위가 될까 염려 되웁니다.”

“석전장군의 말씀이 옳습니다. 한시 바빠 군사를 퇴각했다가 다시 기회를 보도록 함이 좋을 듯 합니다.”

석전과 흑전이 제가끔 하는 말을 듣고 있던 소서행장은 험상 궂은 얼굴로 말을 했다.

“지금 조선의 권율이라는 자가 행주산성에 진을 치고 아군의 퇴로를 차단하려 한다고 하니 두 장군은 삼만 대병을 이끌고 가서 권율의 군사를 깨뜨리도록 하오! 산성이 깨지면 한놈도 남기지 말고 도륙을 내도록 하란 말이오!”

얼마 후 세 사람의 왜장이 거느린 삼만 군사가 성내 파도와 같이 행주산성으로 쳐들어 갔다. 그러자 권율 장군은 배수의 진을 치고 군사들을 독전 했다.

“이제 왜놈들을 완전히 몰살 할 때가 눈앞에 닥쳐 왔다. 이 민족과 이 강토를 더러운 발굽에게 짓밟힌 불구대천의 원수놈들에게 백의 민족의 얼을 새겨서 한 놈도 남김 없이 무찌르자!”

칼을 빼 들고 소리치는 권율장군의 늠름한 모습에 모든 군사들은 용기백배했다. 모두 죽기로써 싸울 것을 결심한 것이다.

“와…….”

“와…….”

성 아래 별판에 까맣게 밀려오는 왜적들의 고함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산성의 제일 높은 곳에서 지휘하는 권율장군의 신호에 따라 조선 군사들은 일제히 활을 쏘기 시작했다. 겁 없이 달려들던 왜병들이 무수히 쓰러졌다. 또 다시 성 아래로 달려 들었다. 하늘로 나르는 화살은 까만 비와 같았고 여기 저기에 쓰러지는 시체들은 들판과 성안을 온통 피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한낮이 기울도록 왜놈들은 성을 공략하였으나 성을 무너뜨리지를 못했다. 그러나 성안에서는 화살이 거의 떨어져 가는 판이었다. 아직도 왜병들은 지 칠 줄을 모르고 달려 들고 있는데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이었다. 이리해서 나중에는 군사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백성이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 탄약 대신으로 돌을 날라 왔다.

이때 부녀자들은 모두 치마 앞에다 앞치마라는 것을 해 입고 그 앞치마에 돌을 담아 날랐다. 화살 대신 돌에 맞아 죽는 왜놈들이 부지기수였다. 후에 이 앞치마는 행주라는 이름을 따서 행주치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마침내 왜장인 소서행장은 길게 탄식을 하면서 이를 갈았다.

“음……. 이리다간 우리 군사들을 전멸 시키겠구나.”

“여봐라! 원통한 일이지만 이대로 물러나도록 하자. 자칫 지체 하다가 독안에 든 쥐꼴이 되겠으니 이여송의 군대가 당도 하기 전에 물러가도록 하자.”

이리해서 왜놈들은 통분한 심정을 안고 후퇴하기 시작했다. 싸움에 패한 왜놈들의 남은 수효는 만 명에 불과 했다. 절반 이상이 이 싸움에서 죽은 것이다. 정말로 관민, 남녀 노소를 가릴 것 없이 일치단결해서 역전 분투하여 승전한 것이다.

후에 나라에서도 권율장군의 공을 표창하기 위하여 원훈공신(元勳功臣)에 열하고 승전한 봉우리 꼭대기에다 대첩비(大捷碑)를 세웠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백여 년 전에 다시 권율 도원수의 공훈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승전봉 남쪽 기슭에다 사당을 짓고 도원수의 공적을 새긴 비를 세워 기공사(紀功祠)라 하였는데, 해마다 봄, 가을 두 차례씩 제사를 지내고 있다.

(박영준, 《한국의 전설》 7, 한국문화도서출판사, 1972, pp. 389~391.)

• 냇고개의 유래

경기도 광주군에서 이천군으로 넘어가는 지경에 냇고개라고 불리우는 고갯길이 있다. 그 고개는 임진왜란 때 장렬히 숨겨간 신입(申昞) 장군의 또 하나의 전설이 깃들여 있는 곳인 것이다. 평온한 생활을 하던 조선에 왜병이 갑자기 수십 만 대군으로 침략해 온 이른바 임진 왜란 때였다. 신입장군은 선조(宣祖)의 명을 받들어 순변사(巡邊使)로 아장(亞將) 김여물(金汝物)과 함께 왜병을 막기 위해 남쪽으로 떠났다.

군세로는 도저히 승부를 겨룰 수 없는 처지였다.

수십 만의 물밀 듯한 대군에 비해서 우리 쪽은 조련 한 번 제대로 받아 보지 못한 오합지졸인 팔천 명의 군사였다. 그러나 길목이 좁고 산이 험준한 문경 새재는 왜병이 공격하기에 난관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고, 수비하기에는 이로운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었다.

김여물은,

“이 길목이 좁은 문경새재를 지키면 적을 무찌를 수 있겠소이다.”

하고, 의견을 말했다.

그러나 신입장군은,

“안 되오. 지리적으로는 우리가 이롭긴 하지만 미숙한 병사로는 아무래도 문경 새재보다는 탄금대로 가서 진을 치는 것이 낫겠소.”

하고, 반대를 했다.

이리하여 신입장군은 병사를 이끌고 충청북도 충주의 탄금대(彈琴臺)로 물러나 배수의 진을 쳤다. 결국 이 탄금대 싸움에서 신입장군의 병사는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군졸들에게 완전히 전멸당하고 말았다.

이에 신입장군은 왜병에게 몸을 더럽힐 수 없다 하여 스스로 강물에 투신하여 자결을 했다. 그런데 이때 신입장군이 김여물의 제안을 뿌리치고 문경 새재 대신 탄금대에다 진을 치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신입장군은 어릴 때부터 무예에 뛰어났다. 그리고 사냥하기를 매우 즐기었다. 어느 날 신입은 산에서 호랑이를 쫓다가 날이 어두워져 산중의 외딴 집에서 묵어가게 되었다. 그 외딴 집에는 한 처녀가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부모 형제를 괴물이 밤마다 차례로 잡아 갔으며 그날 밤

은 바로 그 처녀의 차례라는 얘기였다.

그날 밤에 신입은 그 괴물을 처치해 주었는데 처녀는 신입에게 자기를 거두어 달라고 간청을 했다. 그러나 강직한 신입은 그녀를 달래며 훌훌이 떠나려 했다. 몇 걸음 산길을 내려 오려니까,
“서방님! 서방님!…….”

하는, 외침에 뒤를 돌아다 보니 처녀의 집은 화염에 싸였고 처녀는 불속에서 타고 있었다. 그 후 임진왜란 때 신입장군이 “문경 새재로 갈까, 탄금대로 갈까?” 하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어이에선가 “탄금대로 가시오!” 하고, 길을 잡아 주는 소리가 들려 왔다. 이에 힘 입은 신입장군은 주저하지 않고 탄금대에 진을 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하늘의 계시처럼 들렸던 그 소리는 바로 신입이 젊은 시절에 그의 아내 되기를 애원했던 그 여인의 원귀가 복수를 하려고 외친 소리였던 것이다.

세월은 흘러 조선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 들었다. 어느 날 탄금대의 강가에서 낚시를 하던 한 어부가 큰 잉어를 낚아 올렸다. 한데 그 잉어의 뱃속에서 금관자 하나가 나왔다. 어부는 괴이쩍게 여기고 곧 이를 관가에 가져다 바쳤다. 관가에서는 귀한 사람만이 지나는 이 금관자가 곧 그 강에 투신한 신입 장군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망인의 혼을 부르는 초혼굿을 올렸다.

이윽고 신입장군의 뉘이 내려 왔다. 그 음성이나 기침 소리까지 완전히 신입장군의 그것이었다. 신입장군의 유족들은 금관자를 관 속에 넣고 날을 받아 장례를 치르도록 하였다.

장지는 신입장군의 고향인 경기도 가평(加平)이었다. 드디어 장례 길을 떠났다. 그런데 장례 행렬이 경기도 이천 땅 어느 고개에 다다랐을 때였다. 평소처럼 이야기를 계속하던 신입장군이 별안간,

“나는 더 이야기를 앓겠다. 여기서 더 갈 필요도 없다.”

고, 말을 끊더니 뉘마저 가 버리고 메고 가던 관이 두둥실 공중에 뜨는 것이었다.

“아니, 이게 웬 일이란 말인가?”

유족들은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공중에 뜬 신입장군의 관은 어디론지 날아 가고 있었다. 괴이하게 여기며 사람들이 관을 따라가 보니 관이 멈춘 곳은 지금의 뉘고개에서 멀지 않은 곤지암 뒤였다. 곤지암은 고양이를 닮은 바위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 바위인 것이다. 신입장군의 유족들은 장군의 뉘이 손수 택한 그곳을 묘지로 삼고 관을 묻었다. 그 후 신입장군의 뉘이 날아 간 그 고개를 뉘고개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경기도 이천군 신둔면)

(박영준, 《한국의 전설》 9, 한국문화도서출판사, 1972, pp. 413~415.)

• 신입장군이 패한 이유

〈개요〉 (1) 신입이 무과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던 중 문경새재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된다. (2) 그 여인은 전(前) 판서의 딸이었는데 집에 나타나는 도깨비들의 소원을 듣고 좀 풀어주라고 말

한다. (3) 밤에 뱀다귀들이 나타나서 포도대장이 집 밑에 묻혀 있으니 명당자리를 찾아 달라고 한다. (4) 신입이 소원을 들어 주고 떠나려는데 그 여인이 자신을 한양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한다. (5) 신입은 여자를 데리고 시험 보러 갈 수 없어 거절을 한다. (6) 여인이 집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한다. (7) 신입이 장군이 되어 문경새재 삼관문에서 일본군을 맞게 된다. (8) 여신이 나타나 지리적으로 유리한 곳에서 싸우는 건 비겁한 일이라며 일관문으로 후퇴해 싸우게 한다. (9) 일관문에서 다시 여신이 나타나 충청도 현풍으로 후퇴하라고 한다. (10) 신입은 남한강에서 다시 여신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신이 자신이 오래 전 자살한 판서의 딸이라고 말한다. (11) 신입은 그 여인을 알아보고 화살을 세 발 쏘았으나 모두 부러지고 만다. (12) 신입은 싸움에서 패하고 남한강에 투신한다.

신입장군이라 카면 경상도 사람이야. 아, 마 그 당시에 지금 말하면 6척이라 케면 일메다 팔십(1m 80cm) 아니야? 그때만 해도 좀 우리 한국인들이 왜소한 편에야 속하지 안 했는가 그래 생각해. 그래 신입이 열여섯 살 때 기골이 장대 해 가지고 6척 이상이 된 모양이야. 그래서 당시 무과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양에 올로 올 때예요. 한양에 올로 올 때 문경새재 말이지, 올로 오니까 말이지, 조금 이상했는데 다시 한 번 문경새재 올로 오다니까 한 여신이 말이야, 아니 여자가 말이지,

“신입장군님!”

기골이 아주 장대하니까, 우리가 뭐 씨름을 잘 해는 사람을 역사(力士)라고 하고, 고담에 기골이 장대해면, 보문 시골에선 삼동장군(三洞將軍)이니 이런 말 해. 세 마을에서 가장 센 사람을 삼동장군이, 이런 말 했는데 그 당시에 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신입이 인제 그 문경새재 넘어가니까 한 여인이 분탁을 해요.

“나의 조부가 말이야 판서를 지냈는데 여신, 참 여자란 몸으로서 말이지 가는 장군님한테 한양에 좀 같이 데리 줄 수 없냐?”

고, 그 이유는 뭘 가지고 말했냐면,

“우리 조부가 여 와서 문경에다가……”

아흔 아홉 칸이라고 뭐 우리가 뭐 윤보선씨 집이 아흔 응? 그런 집을 지었는데 흥가가 됐어. 도저히 여서 살 수가 없어. 왜,

“……밤이면 까맣게 탄 도깨비들이 나타나서 하소연(하소연)을 하는데 하소연을 막을 수가 없어, 여자의 몸으로서는. 그래 오늘 저녁 여서 유숙해서 그 소원 풀어 주고 동시에 나를 데리고 한양으로 같이 갔으면 어떨습니까?”

인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입이 생각하니까 말이지 큰 문제거리는 아니야. 왜?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청취불능] 인의 소원을 안 풀어 줄 수도 없고, 또 까만 도깨비가 나온다

카니까 오늘 저녁에 도깨비하고 한 번 씨름을 해 보자.”

그래 인제 그 집에서, 대청마루에서 인제 팔짱을 찌르고 있다니까, 자시가 되니까 기둥이 흔들려 [조사자 : 기둥이요?] 응, 그 흥가집의 기둥이 아주 소란한 소리가 나더니 앞에 나타난 기 뽀냐면 까맣게 탄, 그 도깨비 아닌 뽀다귀들이 말이지 나란히 와서 큰절을 해요.

“장군님 여계 우리가 여러 차례 왔었는데 우리 소원을 한 번도 풀어 준 사람이 없소. 근데 신 입장군이 왔으니까 소원을 풀어 줄 겁니다.

그래요. 그래 그 사연을 물었더니,

“현재 자사하고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 옛날 포도대장의 무덤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말해자면 집을 지을 때 명당자리를 찾는 게여. 명당자리는 반드시 집을 지도(지 어도) 변영할 수 있는 기여. 그러나 그걸 제제할 수 있는 사람이야지 되지. 명당자리에는 그 곡 절이 많아 가지고 말이지 잘못하면 폐가하는 기여. 그래 사연을, 그 밑에 저희들 포도대장의 무 덤이라 캐서,

“그 정도면 내가 풀어 주마.”

그래 인제 보냈어요. 그리고 신입장군이 말이지 삼과 호미와 썰이를 가져 오라고 그러이께 그 령게 그 집이 규수가 볼 때 말이지 이상하다 말이야. 왜 그 집의 규수는 그런 걸 모리고 장군이 그런 말을 하니까, 삼하고 가져 오니까 인제 땅 그 대청마루를 헤치고 파니까 까맣게 된 시신이 있단 말이야. 그래 명주 한 필을 가주 오라고 해 가지고 명주에다 깨끗하게 싸 가지고 신입이 나가서 나름대로 그 명당자리에 가서 무덤을 해 주고 왔어. 그래 그 이튿날, 아니 그 집에서 말 이야. 대, 상을 큰 상을 가지고, 뭐 우리가 옛날 말에 상이라 케면 마흔 여덟 가지에 찬을 내는 게 대상이라 그고 그래 마흔 여덟 가지, 그래 그 상을 받아 가지고 모든 걸 그 워낙 체구가 크니 까, 지금 말해자면 뭐 사람들메로(사람들처럼) 고기 열 근을 먹을 정도의 사람이니까 말야, 다 그 뭐 먹고서 인제 출발하려 할 때, 그 규수가 무슨 말을 하냐면,

“장군님, 이왕 저의 모든 것을 알아냈으니까 이진 더 이상 여서 있을 수 없으니까 저를 데리고 한양에 같이 가 달라.”

고 부탁을 했는 거야, 소녀가. 근데 이 장군이 말이지. 요새 젊은이 겠으면 말이야.

“어, 잘 됐다. 같이 가자.”

그래는데 옛날 사람들은 남녀유별이라 그러는 걸 가지고 따지고 동시에 과거시험을 무과시험 을 보러 가는 처지에서 여잘 데리고 갈 순 없으니까 거절했어요. 그러이 소녀로서는 마지막 부 탁을 했는데, 그 하소연을 들어 주지 않으니까 장군이 떠난 다음에 그 집에다가 말이지 둘레에 다가 찬 나무를 둘러 해 가지고 불을 질렀어. 불을 지르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내가 지금 당신이 나를 구출해 주고 화형에 처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나를 구출해 줄 수 없냐?”

고 여자가 치말 벗어 가주고 연기가 올라 오는 걸 막 흘치는 거야. 그래도 신입은 말이지 자기

목적만 생각하고, 여인에 생각은 생각하지 않고 한양에 완 기야(온 거야). 한양에 가서는 인제 뭐냐면 그 당시에 인제 무과시험의 출제 위원장이 누기냐면 권율장군이야. 권율장군이 그 기골이 장대하고 고답에 아까 번에도 말했지만, 여게 우리 해장에선 [칭취불능] 옛날 사람들은 인품이 좋고, 말을 잘 하고, 글도 글씨를 잘 써야지 되고, 물론 무과는 (활시위를 당기는 흥내를 내며) 이걸 잘 해야지 되고, 검술도 해야지 되는데, 그래 그 신입을 어떻게 했냐면, 사위로 삼았기야. 그래 가주고 아주 남보다가 역시 배경이 있어야지 되고, 뭐 우리가 학교나 또는 군대에서도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정계도 밀어, 계급이 남보다 올라가는 거야. 그래 이십칠 세에, 지금 말하면 소장급, 그래 당시에 장군이 된 기어.

그러나 십 년 후에 일어난 것이 뭐냐면 임진왜란이야.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가등(가등청정)이가 동래에서 해 가지고 아주 기양 행진해 가지고 일주일만에, 소위 말하면, 영남 문경꺼정 달할 때 조야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 장군은 신입백에 없다고 신입을 관군을 천명을 인솔해 가지고 저 문경새재에 도착한 게여. 그래 문경새재에 가면 여러분들이 알면 일관문이 있고, 이관문이 있고, 삼관문이 있어요. 삼관문이 인제 진량교에서 그 올라가는 첫문이에요. 그까 저 가등이가 올로 오고 신입이 여세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되지 않는 장병 천 명이고, 그 저들은 십 년 전투를 해 가주고 올로 온, 상대는 안 되지마는 밑에서 올로 오는 기고, 위에서 하는 긴계, 돌로 가주고 그 물리치는 게여. 왜 그 사이에 뭐가 있는가면 강이 있으니까 진량교, 소위 낙동강 분류가 있어서 그래 물리치려 하니까 한 사람이 말이야 여신이 날라 왔어. [조사자 : 여신요?] 여자 신. 여신이 날라와 가지고,

“장군님, 비겁한 전쟁을 하지 마세요. 장군은 한국에서 제일 명장군인데 쪽빠이를 말이지 일본놈 꼬마꼬만 쪽빠이를 말이지 우에서 전쟁을 하면 이길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경새재에 후퇴 해가지고 거서 인제 일본놈 올로 오면 전쟁을 하세요.”

그러이 신입이 조금 오산한 게 뭐냐면, 일본놈 상대가 안 되는데 말이야. 자기로 봐선 자만했게야, 조금. 자만해 가지고 문경새재 일관문꺼정 후퇴해가주고 올로 오니까 가등의 군대는 말이지. 거서 일관문에서 인제 격전을 벌리어. 격전을 벌리는 데서 인제 결국 또 여신이 또 왔어.

“장군님, 이미 대세는 패했습니다. 왜 그렇게 문경새재를 건네서 충청도 현풍땅에 가면 거서 일, 일격을 하라.”고.

인제 부탁을 해요. 그래서 신입은 다시 남한강으로 내려 완 게야. 남한강으로 내려 오니까 여신이 또 나타났어.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나를 아시겠냐?”고,

“나를 아시겠냐?”고.

여자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오뉴월에 서리가 온다. 오뉴월에 서리가 온다. 근데 여신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조국도 필요 없어. 나는 너를 복수하기 위해서 십년 동안 화형에, 불에 타 가지고 오늘 이 날을 기다렸어. 왜 지금 바로 오늘이 그때 타서 죽은 날이야.”

그래 인제 신입이 활을 세 겹 가지고 말이야. 여신을 향하여 쏘아. 쏘니까 딱딱 다 끊어져.

또 세 번 쏘니까 끊어져. 마지막에 쏘니까 끊어졌어. 그래서 우리 나라는 임진왜란 때 신입장군이 패하고 신입장군 남한강에서 투신 자살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설화조사반, 《김포의 설화》, 김포문화원, 1999, pp. 73~76.)

(2) 사찰 이야기

남한강변의 제1사찰은 뭐니 뭐니 해도 여주의 신륵사를 꼽지 않을 수 없다.

〈실륵사 이야기〉는 성종 4년 어느 한 청년이 청운의 뜻을 품고 한강을 거슬러 한양에 가다가 꿈속에서 자기의 전생의 모습인 동자승(동승)을 만나고 백사녀의 해꼬지를 당할 뻔하나 나한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다. 그는 장원급제하여 보은사를 중건하였고 그 절 이름을 개칭하여 신륵사라 했다는 이야기다.

〈개운사의 경함〉은 인조대왕 시절 마포 강가에 떠내려 온 경함(經函)을 마포 사람들이 주워 나라의 명에 따라 광주 개운사에 보관하게 되었는데, 화재를 방지하는 신통력을 발휘하였다는 이야기다.

어디서 떠내려 온 대상이나 물건은 대개 섬이나 바위나 경(經) 또는 위패인 경우가 많다. 경기도 파주군 문산을 도당곳의 경우는 개성에서 임진강물을 타고 떠내려 왔다고 되어 있으나 경기도는 대개 한강을 통해 떠내려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일러 부래자전설(浮來者傳説) 또는 신화라 한다.

〈저명산〉은 옛날 마고할미시절, 곧 홍수신화 시절로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한양에는 삼각산이 주산으로 버티고 있고, 그곳에 놓고 나면 한양의 물길이 막히기 때문에 이천에 놓았다는 이야기다.

신체(위패)가 떠내려 온 경우도 있으니 〈희우정〉 전설이 그것이다. 효녕대왕 때 여주의 어떤 원이 서낭신에게 비가 오도록 해 달라고 빌어 보았으나 효험이 없어 화김에 신체를 한강에 던져 버렸는데 그 신체를 서울 망우동 사람들이 건우어 희우정에 모셨다. 어느 해 가뭄이 심할 때 모셔 기우제를 지내주었더니 큰비가 내렸다는 이야기다.

이곳 전설에서는 서낭신을 배척했던 유교풍의 여주권과, 서낭신도 위하면 우리 신이라고 믿어 빌어 주셨던 왕실 종교과의 갈등의 차이를 견주어 볼 수 있다.

〈광주바위섬〉은 원래 광주(廣州)에 있었던 산인데 홍수신화 시절 이 섬이 김포로 떠 내려 왔다. 매년 양천군에서 광주 관가로 싸리나무 비 세 개를 만들어 보냈는데 그것도 거절하고 광주바위섬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대개 부래자전설에서는 쌍방 간에 세금 때문에 갈등을 빚게 된다. 그럴 때 등장하는 인물은 신동인 어린아이가 되는데 신동의 의견과 지혜 때문에 이야기 구조는 상대 쪽이 지도록 되어 있다.

부래자전설은 대개 지략담 형식을 취할 때가 많다.

〈개운사의 경함〉은 사찰연기담이면서도 부래자전설의 아류에 속하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 〈모래뚝대〉 역시 중국황제를 골려준 지략담의 일종이라 하겠다.

사찰연기담과 부래자전설담들의 예화(例話)는 다음과 같다.

예화)

• 희우정

서울 망원동(望遠洞) 서쪽 나무가 시퍼렇게 우거진 언덕 위에 정자 터가 있으니, 이것이 희우정의 옛 터다.

이조 효녕대군(孝寧大君) 때 일이었다. 여주(驪州)의 어느 사당(祠堂)에 그곳 원이 날이 가물자 비가 오도록 해 달라고 빌었으나 조금도 영험(靈驗)이 없으므로 그 원은 노한 나머지 사당의 신체(神體)를 물에 떠내려 보냈더니, 때마침 큰 홍수로 망원동 대안(對岸)에 떠내려 왔었다. 이것을 좇은 사람이 이와 같이 왕실(王室)에 보고하였으므로 여주의 원은 파면 당하고, 신체는 이곳에 사당을 지어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 때가 마침 파종 철을 당하여 비가 오지 않아서 농민들은 나날이 비 오기를 기다리며 큰 근심에 쌓여 있을 때였다. 이 정자에서 그 사당 신에게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던 바 갑자기 많은 비가 왔으므로 그 정자를 '희우정(喜雨亭)'이라 이름지었다고 한다. (단기 4268년 3월 서울 노량진 이병선 담)

[별설 別說]

이조 효녕대군께서 그 당시 농업 시찰의 도중에 이 언덕 위의 정자에 드시었다. 때는 파종 철을 당하였는데, 수개 월 동안 비는 오지 않으므로 농민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근심에 쌓여 있을 때였다. 효녕대군을 비롯하여 따르는 수종원과 여러 관리들이 주연을 시작하자 갑자기 장대 같은 비가 내리 퍼붓기 시작하였다. 효녕대군은 이로 인하여 이 정자를 '희우정'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pp. 52~53.)

• 광주바윗섬

김포(金浦) 공암산(孔岩山) 끝 줄 닿은 곳 강 속에 자그마한 바윗 섬이 있으니, 이 섬을 “광주 바윗섬”이라 부르는데, 이 산은 원래 광주(廣州)에 있던 산으로 오랜 옛적, 비가 많이 와서 큰 홍수 때에 떠 내려온 것이라고 한다.

비가 그치자 광주 고을에서는 떠내려 간 산이 김포 공암산 끝 줄 닿은 곳 강 속에 있는 것을 알자, 광주 관가에서는 이 산은 우리 고을에서 떠내려 온 것이라고 해서 여기만은 그 후로 광주 고을의 관할로 되었으나 조세(租稅)를 바치려 해도 이렇다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양천(陽川) - 예전에는 양천군(陽川郡)이었음 - 고을에서는 해마다 그곳에서 나는 싸리나무를 베어 비 셋을 만들어 보내기로 되어 있었다.

양천 원은 이런 귀찮은 일을 하여 무슨 이익이 우리 고을에 있는가? 하고는 광주 원에게 “비도 안 바치겠거니와 광주바윗섬도 소용이 없으니 곧 가져 가시오.”라고 전달하자 광주 고을에서는 이 바윗섬을 가져 갈 수는 없었으므로 하는 수 없이 양천 고을에 빼앗기고 말았다고 한다. (단기 4267년 10월 김포군 양동면 등촌 황(失名) 노인 답)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pp. 67~68.)

• 모래돛대

옛날, 중국은 조선을 향해 여러가지로 무리한 주문을 했다. 언젠가 중국의 천자는 “너희 나라 한강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한 척의 배에 실어 보내라!”고 위압적인 명령서를 조선의 왕에게 보내 왔다. 그래서 조선 왕과 대신들은 기가 막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이때 정승인 황희는 중국의 천자에게 회답을 써 보냈다. “한강물은 몽땅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실은 배에는 모래돛대가 필요합니다. 저희 소국에는 모래가 많지 못 합니다만 귀국에는 북쪽에 대사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그 모래 3백 척 높이의 모래돛대를 만들어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중국의 무리한 주문은 허사가 되었다. (1928년 8월, 경남 마산, 이은상 군 답)

(손진태, 《조선설화집》(최인화 역편), 민속원, 2009, p. 206.)

• 개운사의 경함

이조의 인조왕(仁祖王) 15년 가을 일이었다.

한 척의 배가 삼개(麻浦) 강가에 닿아 있었는데, 그 배 가운데에는 사람은 없고 다만 경함(經函)만이 실어 있어, 함에는 ‘중원 개운사 간(中元開運寺刊)’이라고 여덟 글자가 써어 있었다.

삼개의 사람들은 이상히 여겨 이것을 관가에 보냈다. 왕이 이것을 보시고 이르기기를,

“임자 없는 배가 삼개에 표착한 것은 참으로 영괴(靈怪)하다.

이 경문(經文)은 중원의 개운사(開運寺)에 일찍이 나타난 일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이

같은 이름의 절이 있으면 짐은 그 절에 이것을 주어서 오래도록 호장(護藏)케 할 것이다.” 라고 분부하시었다.

당시 우리 나라에 개운사라고 하는 이름의 절이 광주(廣州) 남한산성(南漢山城) 동문(東門) 안에 있었으므로, 왕은 그 경함을 금란십습(金爛十襲)으로 잘 싸서 친히 사신을 보내어 절에 간직하게 하였다.

그 뒤 숙종(肅宗) 20년 겨울에 그 절에 불이 일어나서 그 경함을 간직해 둔 누각에 불길기 타 오르려고 하였을 때, 갑자기 큰 비가 내리 퍼부어 불을 꺾으므로 누각 속에 간직한 물건은 그 때문에 하나도 손실된 것이 없었다고 한다. (단기 4267년 10월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장(실명) 씨 담)

주(註). 개운사는 지금 없어졌지만 그 당시는 불경이 많고, 대운분(大輪盆)이 넷이나 있었다고 한다.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1958, pp. 37~38.)

• 신록사에 얽힌 전설

경기도 여주군 여강(驪江) 동쪽엔 봉미산이 있으며 그 봉미산에 보은사(報恩寺)라는 절이 있었다. 이 절은 부처님의 신탁으로 중건을 했다 하여 신록사(神勒寺)라고 개칭을 했다. 이조 성종 사년, 보은사로 불릴 때의 일이었다. 청운의 뜻을 품고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나는 한 젊은이가 쓰러져가는 초가집 문간 앞에 서서 잠시 주춤거리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어머님, 이제 그만 떠날까 합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들리지 않았다.

젊은이의 얼굴에 불안한 빛이 떠 올랐다.

젊은이는 잠시 목소리를 가다듬고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님, 그럼 몸 성히 계십시오.”

그제서야 방 안에서 뒤척거리는 소리가 들려 왔다.

“애야, 내 걱정 말고 과거나 잘 보고 오너라. 콜록콜록.”

어머니는 말을 마치기가 바쁘게 심하게 기침을 했다.

젊은이는 차마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으나 대장부는 웅지(雄志)를 다시 한 번 굳게 다지었다.

그때 방 안에서 심한 기침 소리와 더불어 어머니의 말소리가 끊일 듯 이어질 듯 가느다랗게 들려 나왔다.

“애야, 어제……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젊은이는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어머님! 이상한 꿈이라니요?”

“그래, 어젯밤에……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구나.”

“무슨 꿈인가요?”

“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니 어서 네 갈 길이나 가거라. 요즘 급작스레 몸이 쇠약해져서 이상한 꿈을 자주 꾀단다. 내 걱정 말고 네가 가서 그 동안에 쌓아 두었던 실력을…… 충분히 나타내어 금의환향할 날만을 기다리겠다…….”

말끝이 흐려졌다.

젊은이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으나 꼭 눌러 참으며 고개만 꾸벅 숙여 절을 한 뒤에 길을 떠났다.

젊은이는 강을 따라 하류를 내려가기 시작했다. 갈대가 간혹 옆구리를 찌를 때마다 젊은이는 홀로 집에 남아 계실 어머니의 생각으로 마음이 어두웠다.

“아, 어머니…… 불쌍하신 우리 어머니, 내 이 번에는 기어코 과거에 급제하여 어머님을 편안히 모시리라.”

이렇게 중얼거리다가 젊은이는 집을 나설 때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꿈 얘기가 생각났다.

〈어머님은 무슨 꿈을 꾸셨길래 자꾸만 이상하다고 하셨을까?〉

해가 서서히 중천으로 이동을 하자 날씨가 더워졌다. 젊은이는 강가에 걸음을 멈추고 저고리를 벗은 뒤 얼굴을 씻었다.

배가 약간 고파왔다. 젊은이는 과나리 봇짐에서 주먹밥을 꺼내어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었다. 그렇게 두어 개를 먹고 나니 배가 불러 왔다.

젊은이는 그대로 그 곳에 주저 앉아서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 보았다.

따스한 햇살이 등을 어루만져 주고 강물에 비친 햇살이 눈에 부셔서 사르르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어느덧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자기가 떠나면 어머니가 홀로 남아 계실 것을 생각하여 일을 미리 해 놓고 오느라 몸이 고단했으며 간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던 것이다.

얼마를 지났을까. 눈을 떠 보니 강렬한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손으로 이마를 가리며 잠시 났나간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얼핏 잠이 들었을 때 그는 분명히 꿈을 꾸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아무것도 머리속에 떠오르지를 않는 것이다. 그는 고개를 가웃거리며 주위를 살펴 보았다. 무언가 꿈의 실마리라 도잡으려는 것이었으나 그럴수록 그의 생각은 오리무중으로 빠져 들어 갔다.

“꿈이 아니고 생시였던가? 그렇다면 해도 기억이 날 것인데 어찌 이렇게 머리가 온통 멍멍하기만 할까?”

젊은이는 덧 없이 흐르는 강물을 굽어 보며 또 중얼거렸다.

〈분명히 저 강물이었는데……〉

젊은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물 가까이로 걸어 갔다.

강물에 반사된 햇살은 황금빛을 이루며 찬란히 빛나고 있었다.

젊은이는 손을 강물에 담갔다. 시원스러운 촉감이 전신으로 전류처럼 흘렀다.

강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아도 그는 그것이 진정 자기의 얼굴인가 하는 망연한 생각이 들었다.

웬지 허탈한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것이 괴롭고 슬프기만 했다.

강물의 흐름도 그렇게 따사로운 햇살도 그러 했다.

강물은 한 번 흘러 가면 되돌아 오지 않으며 햇살도 밤이 되면 어둠 속에 휘말리고 마는 것이 아닌가…….

어렴풋이 귓전에 울리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평시에 늘상 그에게 들려 주시던 말씀이었다.

“어느 사람도 다 마찬가지로이겠지만 특히 과거를 보러 가는 남자는 여색(女色)을 가까이 해서 는 안 되느니라. 여색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향락일 뿐으로 인젠가는 기어코 패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마는 것이란다. 그리고 설사 과거에 급제하고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그 권력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청빈한 마음으로 서민의 입장에 서서 만사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인과응보(因果應報)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

〈아. 꿈속에서…… 여자가 있었는가? 조금 전에 나는 분명히 꿈을 꾸었던 것인가?〉

그러고보니 꿈을 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았다.

한 가지 꿈속에서 여인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다시금 아리송한 일이었다. 젊은이는 다시 보 따리가 놓여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보따리를 들어서 막 어깨에 메려다가 그는 문득 생각키우는 것이 있어서 재빨리 붓짐을 풀어 헤쳤다.

“아앗!”

붓짐을 풀고 막 안을 본 순간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소스라치며 주춤주춤 대어섯 걸음이나 뒤로 물러서고 말았다.

이것이 웬 말인가.

붓짐 속에 팔뚝만한 구렁이 한 마리가 도사리고 앉아 있다가 그가 붓짐을 풀자 스르르 밖으로 기어 나오는 것이다. 젊은이는 엉겁결에 허리를 구부리고 돌맹이 하나를 집어 들었다. 그것으로 구렁이를 내리 찍으려는 것이었다. 그러자 구렁이는 스르르 몸을 풀고 이내 갈대숲을 헤치고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음…….”

젊은이는 돌을 든 채 멍하니 구렁이가 사라져 간 갈대숲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저 구렁이가 바로 그 사공에게 쫓기던 그 여인이로구나.”

그제서야 젊은이는 아까 자기가 강가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꿈이 기억났다. 꿈속에서 젊은이는 동승(童僧)이 되어 스승의 심부름을 받고 강을 건너고자 강가로 걸어 나왔다. 때 마침 나룻터에는 나룻배 한 척이 있었다. 동승은 덩수룩한 털보 사공을 향해 강을 좀 건너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털보 사공은 그렇잖아도 험상궂은 얼굴을 더욱 흉하게 일그러뜨리고서 두 눈을 부라렸다.

“뭐라구?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꼬마 녀석이 돈이 있느냐? 중놈이라고 해서 배를 거저 탈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절간으로나 돌아가거라. 이 배는 너 같은 꼬마 중이 아니라 부처가 와서 사정하다 해도 공짜로는 태워 줄 수 없으니 말이다. 허, 고녀석 참!”

동승은 털보 사공이 호통을 치자 어이가 없고 분해서 얼른 허리춤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어 말 없이 털보 사공의 눈앞에 내밀었다. 그리고서 아무 말도 않고 털보 사공의 눈치를 살폈다. 털보 사공은 엽전 꾸러미를 보자 그만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웬 돈이 그리 많으냐? 중놈이 남의 물건을 탐내고 도둑질을 하다니, 어디서 훔쳤는지 바른대로 대지 않으면 관가에 고해 바칠 것이다. 어서 말을 해 봐라!”

동승은 태연하게 대꾸했다.

“말씀을 삼가십시오. 이 돈은 보은사를 증진하기 위해 시주해서 모은 돈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것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스승님의 명을 받들고 강건너 대장간에 가져다 주려는 것이요.”

그제서야 털보 사공은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좋아, 어서 배에 올라라.”

동승이 배에 오르고 털보 사공이 막 나룻터에서 강심으로 배를 띄웠을 때였다.

나룻터를 향해 한 여인이 혈레벌떡 달려오며 소리쳤다.

“여보세요, 사공 아저씨,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사공은 삿대질을 하다 말고 힐끗 그 여인을 쳐다보며 투덜거렸다.

“저런 빌어 먹을 것! 자기한테 굴러 온 것이나 처먹지 않고 남의 일에 뛰어들 것은 또 뭐람.”

동승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얼떨떨해 하고 있을 때 털보 사공은 그 여인을 향해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안 되오! 배를 이미 띄웠으니 다음 차례를 기다리도록 하시오!”

“잠깐만 배를 기슭으로 대면 될 것을 뭘 안 된다고 그러세요?”

“어허, 안 된대두 그러는구려. 여기 타고 있는 손님은 지금 매우 바쁜 일이 있소.”

동승은 그들이 다투자 털보 사공을 향해 일렀다.

“사공 아저씨, 기왕이면 저 여자를 태워 갑시다. 아저씨는 돈을 더 받을 수 있어 좋고 나는 외롭

지 않아서 좋지 않겠습니까?”

털보 사공은 마지 못한 듯 투덜거리면서 배를 되돌려 강 기슭에 대고 여인을 태웠다. 여인은 아
니꼽다는 듯 힐끗 털보 사공을 흘려 보고서 옷소매 속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 사공에게 주고서
는 동승에게 말을 건넸다.

“스님께선 어디로 가시는 길이에요?”

동승은 여인의 얼굴이 몹시 곱다고 생각하며 얼른 대답을 했다.

“예, 소승은 강건너 대장간에 갑니다.”

“대장간에는 왜요? 스님께서도 농사를 지으시나요?”

“아니외다. 실은 이 번에…….” 하고, 동승은 조금 전 털보 사공에게 들려 주었던 말을 되풀이하
여 여인에게 들려 주었다.

“아, 그러세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시주를 하셔야겠네요? 어느 절이에요? 저도 미흡하지
만 시주를 좀 하고 싶군요.”

이 말이 여인의 입에서 막 떨어졌을 때 느닷없이 털보 사공이 삿대를 휘두르며 여인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 요사스런 것! 세상에 사내가 많고 많거늘 하필이면 속세를 떠난 스님을 유혹하려느냐!”

“흥! 네 이 사공놈아, 어디 두고 보자.”

여인이 이 말을 남겨 놓고 이내 강물 속으로 몸을 내던지자, 한 마리의 커다란 암쿠렁이로 변하
여 강기슭으로 헤엄쳐 달아나 버리는 것이다. 그 바람에 놀란 동승이 아닌 젊은이가 잠에서 깨
어난 것이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이고 날이 어둑해질 무렵해서 젊은이는 나룻터에 이르렀다. 마침 나룻배가
하나 있었으며 사공은 육십이 가까운 점잖은 노인이었다.

“노인장, 나루를 좀 건네 주시겠습니까?”

젊은이가 이렇게 말을 하며 나룻배 있는 곳으로 다가가자 노인은 벌써 삿대를 집어 들고 어서
타라고 했다. 젊은이가 배에 오르자 사공 노인은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다.

“네, 실은 과거를 치르러 갑니다.”

“나루를 건너 가면 인가라고 있는데 투숙은 어디서 하시려요?”

젊은이는 놀랐다.

인가가 없다니, 젊은이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사공 노인의 얼굴만 뵈히 쳐다 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공 노인은 안 되었다는 듯이 고개를 살래살래 내 저으며 길게 한숨을 쉬었다.

“젊은이, 날이 이미 저물었소. 그리고 젊은이는 길고 이미 잘못 들었소이다.”

“넛? 길을 잘못 들다니, 그것은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공 노인은 젊은이의 용모를 “주옥 훑어보고 나서 여전히 탄신적인 음성으로 말을 했다.

“젊은이, 내 말을 명심해 들으시오. 젊은이는 오늘 낮에 강가에서 한 마리의 암쿠렁이를 보았을 것이오. 암쿠렁이가 무엇인지나 아오? 그리고 또 젊은이는 강가에서 꾸벅 꾸벅 졸다가 꿈을 꾸었을 것이오.”

“.....”

젊은이는 사공 노인이 귀신같이 알아 맞추는 바람에 그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사공의 주름잡힌 얼굴을 바라 보았다.

“이 나루를 건너면 보은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누구 한 사람 무사히 그 절에 이른 사람이 없소. 다시 말해서 이 길은 저승으로 통하는 길인 것이오.”

“나 말ियो? 허허, 젊은이는 나를 죽은 사람이 아닌가 의심을 하는 모양인데, 사실 나는 젊은이의 효심에 감동하여 잠시 이곳에 와서 젊은이를 기다리고 있는, 말하자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오. 젊은이가 그토록 정성으로 보살피고 위하던 홀어미는 젊은이가 집을 떠나자마자 숨이 끊어지셨소. 지금 어머니는 보은사의 나찰(羅刹)이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보은사는 너무 낡아 어머니가 거처할 만한 곳이 없소.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절 아래의 어느 동굴에 거처하고 계시오. 어머니가 그 동굴에 기거하기 전에 백사녀(白蛇女)라고 하는 마물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마물은 자기의 웅지를 빼앗기자 한을 품고 당신을 해치려 했던 것이나 다행히 나루를 지키는 나한에게 들켜서 백사녀는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도망치고 말았던 것이오.”

“그럼 꿈속의 동승은?”

“그야 물론 당신의 전생(前生)의 모습이오. 당신은 전생에 보은사를 중건하겠다는 소원을 세워 놓고도 아직까지 이행을 않고 있소. 오늘의 모든 일은 바로 부처님의 계시라 할 수가 있소이다.”

배가 강기슭에 닿자 사공 노인은 젊은이를 강기슭에 내려 주고 나룻배와 더불어 홀연 어디론지 종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상하다. 그 노인은.”

젊은이는 고개를 가웃거리며 자기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던 노인의 말을 생각하며 걸음을 재촉하여 보은사를 향했다.

젊은이는 보은사에 이르자 사내(寺內)를 돌아 본 뒤 어머니를 영전에 제사를 모셨다. 그리고는 다음 날은 장안에 당도하여 과거를 치렀으니 그는 장원급제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

여주 고을의 원님이 된 젊은이는 즉시 나라에 상주하여 보은사에 큰 역사를 일으켜 중건하고 절 이름을 신록사라고 개칭했다하 는데 신록사 앞 탑 밑에는 나찰이 된 젊은이의 어머니가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이다.

(박영준, 《한국의 전설》 1, 한국문화도서출판사, 1972, pp.179~185.)

• 저명산

이천군 마장면 목리(利川郡麻長面木里)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저명산이 있다. 이 산을 또 다른 이름으로는 '도드람산'이라고 불리워 오고 있지만 산 이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불려오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산의 표고(標高)는 234미터이고 산 가운데에는 선학암(仙鶴菴)이라는 조그만 절이 있으며, 절 경내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 사이에서 솟아 나오는 물이 있으니, 이는 예로부터 약수(藥水)로 이름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산이 크지는 않다. 그리고 산자수려(山紫秀麗)하다거나 장엄한 산세를 말 할 수는 없지만 산의 생김새라던지 바위가 있는 아담하다는 데는 어느 모로 보아도 묘(妙)한 산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산에서도 봄에 두견(杜鵑)이 울고 가을에 단풍(丹楓)이 어느 산보다도 이채(異彩)로운 경치를 이루고 있는 아기자기한 산이라고 하겠다.

이 산에 대해서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숨은 이야기가 있으니 이는 그 시대도 모르거나와 단지 구전(口傳)에 의한 전설의 내용이 알려져 내려올 뿐이다. 이 지방산의 이야기는 삼각산(三角山)이 생긴 뒤라 하니 태고(太古) 적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서울에 산을 만들 필요가 생겨서라고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태조(李太祖)가 송도(松都)에서 한양(漢陽)으로 도읍을 잡을 때라고 생각하면 그때의 설화(說話) 같기도 하다.

옛날에 마고(麻姑)할미는 유명한 산만 찾아다니던 때가 있었다. 특히 백두산(白頭山) · 설악산(雪嶽山) · 금강산(金剛山) 등의 큰 산들만 두루 살피며 돌아다닐 때였는데 내금강(內金剛) 장안사(長安寺) 뒤에 있는 면경대(面鏡臺)라는 부근에 이르렀을 때였다. 어느 산봉우리 하나 마음에 안드는 곳 없지만 유심히 한 봉우리를 보니 마고할미에게 어찌나 마음에 드는 산이었는지 이 산을 떼어다가 한양(漢陽)에 가는 길에 그곳에 옮겨 붙일 결심을 한 것이다. 그래서 천신마고(千辛萬苦) 끝에 마고할미는 그 산봉을 등에 지고, 강원도 춘천을 지나서 이천(利川)까지 오게 되었는데 산을 지고 오느라니 어찌나 힘이 들었는지 어느 한 주막에서 다리를 쉬어 가기로 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구경하러 모여드는 사람들이 구름 모이듯 하여 그중의 한 사람이 그 사유를 물어 보았다. 마고할미는 그 산을 떼어서 지고 오는 연유를 말한 다음,

“한양 뒤가 너무 허전해서 이 산으로 그곳을 막으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또 한사람이 나서더니,

“한양에는 벌써 삼각산(三角山)이라는 험산 산이 생겼으니 이 산은 우리 이천에 두고 가시오. 한양은 사방이 막히고 겨우 남쪽이 조금 트여 있을 뿐인데 그렇다고 이 산으로 남쪽을 막는다고 해도 남쪽은 한강인데 수로(水路)를 막는다면 그 물을 이용할 길이 없지 않소.”하니 마고할미는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한양에 가서 보고 정말로 삼각산이 생겼으면 이천에 두고 가도 좋다고 했다. 그리하여 마고할미는 급히 한양으로 달려 가서 보니 과연 이천 사람 말대로 삼각산이 한양의 주산(主山)으로 떡 버티고 있었으며 남쪽까지 막아 버린다면 한강수로를 막게 되

어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더라도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어서 한양에 갔다가 온 마고할미는 지고 온 저명산(猪鳴山)을 내려 놓은 그대로 이천에다 두고 갔다는 것이다.

이 저명산 중에 있는 약수도 마고할미가 내금강에서 들고 오는 도중에 음료로 마시면서 오던 것이라 하며, 그때에 한 농부가 그 물을 마시고 10년 넘어 앓고 있던 체중이 단번에 떨어졌다 하여 그 후 원근을 가리지 않고 약수를 찾아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경기도, 《풍속과 자연》, 1984, pp. 180~182.)

(3) 도깨비 이야기

다음은 한강의 도깨비담에 대해 논급해 보기로 하자.

나우만(Hans Naumann)은 그의 《원시공동체문화 Primitive Gemeinschaftskultur》란 제하(題下)의 일련의 에세이 속에서 신화·전설·영웅담·메르헨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 거의 똑같은 것이며, 그들은 다만 특정한 인간이나 역사적, 신적 개성에 부속된 장소나 시간에 의해 구별되어질 뿐이고, 설화 형태의 차이도 문체적인 것이지, 결코 깊은 심리적 사실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들 사이의 차이는 동시적으로 종교적 의식으로 표현되었던 원시신앙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설화 속에서 종교적 의식의 많은 잔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논급하였다.

나우만은 또 원시종교의 의식은 대개가 심술궂은 사자(死者)의 복귀를 피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고, 사자의 복귀를 방해하기 위해 방해물을 만들며 ‘도망가기(Obstacle Flight)의 모티프’도 이때문에 발생했다고 하였다.

곧, 원시인 사이의 사자에 대한 신앙과 공포, 그리고 사자들의 공포를 거세·정복하기 위한 자연적 방편으로 도깨비담을 만들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도깨비 설화의 효시는 《삼국유사》권 제1 기이 제1에 수록된 〈도화녀와 비형랑〉이 아닌가 한다.

이 이야기는 진지왕의 정사(精事)를 기록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륜왕(舍輪王)은 신라 제 25대 임금으로 성은 김씨, 시호를 진지대왕(眞智大王)이라 했다. 그 왕비는 기오공(起鳥公)을 딸 지도부인(知刀夫人)이었다.

진나라 선제(宣帝) 8년(A.D. 576)에 즉위하여 나라를 다스리기 4년, 정치는 어지러워지고 왕은 쾌락에 방종하기만 하자 나랏사람들이 그를 왕위에서 끌어내려 버렸다.

사료왕이 왕으로 군림해 있을 때다. 사랑부의 일개 민간 여자로 얼굴이며 맵시가 복사꽃처럼
오염하게 생긴 한 여인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도화랑(桃花娘)이라 불렀다. 사료왕은 도화
랑의 아름다움을 전해 듣고 그녀를 궁중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는 사통을 요구해 왔다.

사통을 요구해 오는 사료왕에게 도화랑은 또렷이 말했다.

“여자가 지켜야 할 것은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옵니다. 지아비를 두고 다른 남자
에게 가게 하는 것은 비록 제왕의 위엄으로서도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왕은 도화랑을 위협해 보았다.

“죽어도 좋은가?”

도화랑은 감연히 대답했다.

“차라리 저 거리에서 목을 베일망정 지아비 밖의 다른 남자를 따르고 싶진 않습니다.”

왕은 슬쩍 농짓거리로 바꿨다.

“만약 지아비가 없다면 되겠지?”

“될 수 있습니다.”

왕은 도화랑을 놓아 보냈다.

바로 그 해에 사료왕은 왕위에서 폐위되고 죽어 버리고 말았다.

사료왕이 죽은 뒤 3년 만에 도화랑의 남편도 또한 죽어 버렸다.

남편이 죽은 지 열흘쯤 되는 날의 한밤중, 죽은 지 3년째 되는 사료왕이 생시와 똑같은 모습으
로 도화랑이 자는 방으로 들어왔다. 왕은 도화랑에게 말했다.

“네가 이전에 허락했듯, 이제 네 지아비가 없으니 되겠지?”

도화랑은 가벼이 응낙치 않고 그 부모에게 사실을 알렸다. 도화랑의 부모는 말했다.

“군왕의 말씀인데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왕이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그녀는 들어갔다.

왕은 도화랑에게서 7일 간을 머물러 있었다. 그 사이 늘 오색 구름이 도화랑의 집 지붕을 덮고
있었고 향내가 방안에 가득했다. 7일 뒤에 사료왕은 자취없이 사라졌다.

사료왕과의 7일 간의 동거로 도화랑은 임신을 하게 되었다. 달이 차서 아기를 낳으려는데 천
지가 진동하였다. 한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비형(鼻荊)이라고 했다.

당시의 임금 진평대왕(眞平大王)은 그 신기함을 듣고서 비형을 궁중에 데려다 길렀다. 비형의
나이 열 다섯 살이 되자 왕은 그에게 집사(執事)란 관직을 주었다.

그런데 이 비형 소년은 매일 밤 궁중을 빠져나가 어느 먼 곳에 노닐다 돌아오곤 했다. 왕은 비
형의 하는 짓이 의혹스러워 용감한 군졸 50명을 시켜 그를 감시하게 했다. 비형 소년은 번번이
월성의 성벽을 날아 넘어 서쪽으로 황천(경주 서쪽에 있음) 냇가 언덕으로 가서 도깨비 떼를 모
아놓고 놀았다. 군졸들이 수풀 속에 숨어 몰래 엿보았더니 도깨비들은 한창 놀아대다가 여기

저기서 들려오는 새벽 중 소리를 듣고는 뿔뿔이 흩어져 가고, 비형 소년 또한 궁중으로 돌아오곤 했다.

군졸들의 보고를 듣고 난 진평왕은 비형 소년을 불러 물었다.

“네가 도깨비 떼를 거느리고 논다던데 참말이냐?”

비형 소년은 그렇다고 시인했다. 비형 소년이 시인하자 왕은 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렸다.

“그렇다면 네가 도깨비 떼를 부려 신원사 북쪽 개천에 다리를 놓도록 하여라.”

비형 소년은 진평왕의 명령을 받들어 그가 거느리는 도깨비 떼를 부려 돌을 다듬고 하여 하룻밤 사이에 커다란 다리를 이룩했다. 도깨비들의 손으로 이루어진 이 다리를 귀교(鬼橋)라 이름했다.

진평왕은 비형에게 또 물어 보았다.

“도깨비들 가운데서 인간계에 출현하여 정사를 도울 만한 자가 있겠는가?”

“길달(吉達)이란 자가 있습니다. 그가 국정을 도울만 할 거예요.”

진평왕은 다음날 길달을 데려오라 했다.

이튿날 비형은 길달을 데리고 함께 왕을 뵈었다. 왕은 길달에게 집사의 직책을 내려 주었다. 길달은 과연 충직하기 비할 데 없었다.

그때 각간 임 종(林宗)은 아들이 없었다. 왕은 임종에게 길달을 양자로 맞아들이게 했다. 임 종은 길달을 시켜 홍륜사 남쪽에 문루를 세우게 했더니, 길달은 문루를 세우고 매일밤 그 문루 위에 가서 자곤 했다. 그래서 그 문루를 길달문이라고 이름했다.

어느 날, 길달은 여우로 변하여 달아났다. 비형은 도깨비들을 시켜 길달을 붙잡아서는 죽여 버렸다. 이로 해서 그 도깨비 무리들은 비형의 이름만 듣고도 무서워 달아나게 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비형을 두고 사(詞)를 지었다.

성제의 혼이 낳으신 아들

비형 도령의 집 바로 여길세

날고 뛰는 온갖 귀신들아

이곳에 함부로 머물지 말게나

향속(鄕俗)에서는 이 글을 써 붙여 잡귀를 물리친다.

상기 도화녀와 사료왕의 얘기에서 우리는 신라인의 정조에 대한 태도가 대개 어떠한가를 엿볼 수가 있다. 지아비가 있는 한 그 상대가 비록 제왕이라 하더라도 몸을 허락할 수 없다 하고, 그러나 지아비가 없을 때 그것은 비로소 가능하다고 한 도화녀의 태도, 그리고 도화녀와 사료왕의 혼령과의 동거, 이런 것들은 신라인의 정조관이 이조

형(李朝型)의 정조관과는 전혀 유가 다른 것이었음을 말해 준다. 그렇다고 해서 간음의 자행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으로 조화되고 균형지워진 것이다. 여기 도화녀의 애기에 서 뿐만 아니라 원효대사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도 신라인의 정조관을 짐작할 수 있다. 이조형의 정조관은 유교 윤리의 강화에서 형성된 하나의 외래적인 것이요, 우리 고유의 정조관은 신라인의 그것이다.

도화녀와 사료왕의 혼령과의 동거는 당시 여인의 재혼이 자유로웠음을 전해 주는 일단의 소식이지만 그것은 신라 사상에 <신체미 존중>의 한 패턴이 있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⁷³⁾

많은 한강변의 도깨비살담 중에서 <도깨비 장난으로 소동 건진 이야기>는 제보자가 실제로 계를 잡으러 갔다가 체험한 실담(實談)이기에 주목되는 이야기다. 제보자는 도깨비를 두려워하는 대상이면서도 실체가 없다고 부정할 수도 없는 신앙적 존재임을 설화 속에서 설진하고 있다.

예화(例話)로 들 <도깨비 장난으로 소동 건진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 도깨비 장난으로 소동 건진 이야기

<개요> (1) 예전에 김포에는 벼를 베고 난 음력 8월이면 계가 많이 잡혔다고 한다. (2) 계를 잡아서 팔면 용돈이 마련된다. (3) 어느 날 도깨비 방죽에 혼자 계를 잡으러 간다. (4) 계를 잡으러는데 날이 갑자기 흐려진다. (5) 계인 줄 알고 한 참을 건져 올렸는데 모두 소똥이다. (6) 날이 갑자기 밝아진다. (7) 그제서야 도깨비에게 홀린 줄 알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 전에 한, 우리 열 다섯 살 적이든 오십, 오십 한, 칠 년 됐나? 오십 한, 칠 년 됐지. 그 텐데, 저 그때는 괴(계)를 잡으러 다녔다구. [조사자 : 계요? 옆으로 다니는?] 어, 참괴. 아 근데 참계를 잡으러 탕기는데, 그전에는 그 이제 그 농촌에서 모내구 나구(나서) 허므는, 이제 한 음력 한 팔월, 팔월 한, 초췌 되든, 그 괴를 잡으러 다니거든. 근데 이제, 그 이제 물론 반찬도 되지만 이제 탄 거는 이 농촌에서는 농사짓구 저기 허므는 그 옛날에 우리 적만 해도(우리 때만 해도) 그 참 먹고 살기가 어렵고 그랬더거든. 그러면 이제 그 괴를 잡아까구서, 잡아서 이렇게 놓으믄은, 그 괴를 사러들 온다구, 그 장사꾼들이. 그러믄 그 백 마리가 한 접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백 마리만 팔믄은 한 쌀 한, 두 가마, 그전에 이 두 가마 값을 받아. 근(그럼)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잡아서 한 번 팔기 시작을 하믄은, 그 서을 갔다(가서) 파는 사람들이 그 서리가, 지금, 지금까지 현재 아마 지금까지 그럴 꺼야. 아마 서리 와서 이 베(벼)가 벌판을 다 비어서 없어지은 때까지 잡으니까. 그래 그, 계속 온다구. 그러믄 그 지금 서리 그때 한 팔월, 한, 음력 팔월 한, 초췌 해서 지금까지 잡으믄은, 그때 한 가격, 폼짝이, 폼짝이 더 받는다구, 괴 한 마리에. 그러면 그거를 해 갖구

서 팔아서 이제, 용돈 쓰고 그르는데, 그 그때는 장갑이 없었거든. 이 그러면 이제 그 괴를 이렇게 잡다 보면 이게 손이 다 해져 버려(뺏아 버려). 손이 그냥 전부 괴에 물리구, 이렇게 저 가시가 이렇게 있어 갖고. 껌하든 이렇게 잡는 재미로 밤을 샌다구. 밤을 새는데, 한 번은 고로케 해서 한, 내가 열, 그 해마다 그렇게 잡으니깐. 해마다 고 때 되든 잡는데, 그렇구 그 또 이제 그 개울에 물 내려가는 개울에 그렇게 그 자기, 자리를, 자리를 맡아야 된다고, 먼침. 먼침 그 자리를 이렇게 맡는 사람이 쟈 먼, 우선, 우선권이야. 그 사람이나 이제 잡지, 딴 사람은 못 잡아. 그 자리 못 내놓으든. 그래 이제 마을 이렇게 그 막아 갖고 저 뭐야. 지게로다 흙을 파다가 이제 삼으루 파다가 말뚝을 박고 해서 한, 한, 반 드럼 막는다고, 이렇게. 그럼 물이 인자 한참 껌혀 있거든, 그 개울에가(개울물을 막아 물이 고여 있다) 껌혀 있으면은 그 밭을 이렇게 치지, 이제. 나가 지 못 하게, 괴가. 그러든 그 별안간에 예, 이렇게 가물다가 비가 오든 무척 많이 내린다구. 몇 백 마리씩 잡아, 그럴 땐. 그럼 장사꾼들이 벌써 미리 돈들 꾸리 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해 갖고, 그래 이제 수입들을 잡구 그랬는데. 그 게 옛날적, 옛날 노인네들 얘기가,

“팔월 열 나흘 날 내리지 못 허는 괴는 돌괴라.”

그르, 이제 그르시더라구, 그전부텅. 인저 우리 그, 그전에 쪼그만 해서 노인네들, 지금은 텔레비가 있구, 저기해서 이렇게 마을방이 없지만, 그전에는 다 마을방이 있었거든. [조사자 : 사랑방이요?] 그럼, 할아버지들 방이. 이제, 그, 그전에 먹을 게 없으니깐 이제 한참가에(한참 동안) 애길하든 한밤 쯤 시계도 읍지텔레비도 읍지, 한 열 두시까지 이렇게 앉았다가, 시장들 허든 동치미를 해다 논 걸, 이렇게 집이, 어느 집이 이렇게 해다 놓은 걸 훔쳐다가들, 그 장난꾼들이 그걸 훔쳐 온다구. 훔쳐다가 먹구 이제 그렇게 놀다가 이제 헤어지고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들이 그르시더라구. 옛날엔 그 저 팔월 열 나흘 날 못 내리는 괴는 돌괴라구 그러더라구.

“게, 돌괴가 뭘니까?” 돌괴라는 게 있대. 그래 이 할아버지가 얘기들 하셔서, 그래 그 얘기를 이제 신중히 이렇게 듣구, 그 날 제일 많이 내리는 날이 팔월 열 나흘 날 저녁에 괴가 제일 많이 내린대. 그래 팔월 열 나흘 저 아래, 이제 저 개울에 저기 ‘도깨비 방죽’ 아래는 데가 있는데, 그 전에 그 저 돌다리가 있었다구. 돌. 돌로 놓은 거 저 건너에, 겨우 그 사람 하나 비켜 건너 댕기는. 그냥 거,

“도깨비가 있었다.”구.

이제 그 전에 그르시더라구, 할아버지들이. 게 가서, 인자 혼자 가서, 이제 한, 열, 열일 곱 살 되시니깐 그 전 사람들은 좀 컷지. 지금, 지금도 컷지만 좀 컷다구. 근데 그 우린 그췌(그때) 다 자랐는데, 근데 다 기차치(알차다). 지금 사람들은 무섭타고 그르지만, 그때 우리는 무서움을 안탔다고. 거 가(거기 가서) 괴를 세고 있는데, 한창 괴가 무척 내리더라구. [조사자 : 할아버지 혼자 가셨어요?] 그렇지. 혼자이 한참 무척 많이 잡았는데, 한참 하더니 그냥 도깨비가 위에서(위에서) 장난을 하는 거 있지. 그냥 터벅터벅하고 그냥 물로 건너 댕기, 터벅터벅하고 있는데,

괴가 한 마리 안 내려요. 그리고 그냥 그 쪽에서부터 뭐가 내리냐든 전부 이렇게 소동 조각 그런 거만 그냥 주웠어, 도깨비가 장난을 해서. 그래 한참 주워서 보니까 그거야. 도깨비, 도깨비가 장난을 해서 소동 그냥 풀, 풀부서 인제 말려 놓은 거 그따우 내려 보냈드라구. 그 옛날 그 계, 그래서 인제 그 할아버지들이,

“아, 그전에 사실은 그런 일 있었구나.” 인자 할아버지더러 얘길 허니깐. 그 얘길 이제 할아버지한테 바루 들었어. 그래, 그런 그런걸 한 번 봤지. 그 내가 아주 뭐 옛날 얘기가 아니라 실제 내가 겪은, 겪어서 괴 잡는다고 그러지. 한 번 봤다구. 그래 보니까는 그렇게 한참 인자 그냥 도깨비가 장난허니깐 비가 한참 내리다가 안 내려. 아, 그, 전에,

“도깨비가 장난하믄은 괴가 안 내린다.”

구 그러라구, 할아버지들이. 그래 인자 음마(얼마) 있으니깐은 도깨비가 다 장난하고 마, 인자 지내니깐은 그래 올 수도 읍지, 무서니깐(무서우니까). 도깨비가 장난을 하고 그냥 별안간에 날이 깨끗허니까 그냥 아주, 날이 껌껌하고 그냥, 껌껌하고, 흐리흐리 허니깐은 도깨비가 장난을 해 가지구, 내 눈에 어려서 그런지, 그러니깐은,

“아, 이게이 사실은 이거 무슨(무서운), 무슨 일(무서운 일)이구나!”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갈 수도 없지 올 수도 없지. 이제 도깨비가 장난허니깐 불 켜 놓고 이렇게 괴 잡고 앉았다가 기냥 가만히,

“자, 이 큰일났구나, 인제.”

이게 인제 그때 인제 열일 곱 살 나이에 이게 참 무셨었요. 인제 갈 수도 읍구 올수도 읍구, 그런 그러더니 엄마 있더니(얼마 있더니) 날이 화창하게 밝아지면서 그 도깨비가 장난하던 물, 장난치고 타북타북 댕기고 그냥 흙이, 풀더마리 그냥 쇠똥 조각 이런 게 안 내리구 한창 있더니 그 때서 부터 괴가 내리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괴를 그전 지끔은 이런, 뭐, 나이롱, 무슨 저기가 있구, 무슨 고무 봉지가 있구, 그렇지만 그전에 그거 읍었거든. 이런 내끼(새끼) 까 가구서는 망태, 괴 잡는 망태. 괴 잡는 망태가 있어. 이렇게 뭐든지 인제 지끔 감이구 뭐구 이렇게 따, 오이구 따 올려믄 망태에서 미구 다녔다구. 지끔 뭐, 학생들은 못 봤을 꺼야, 그런 거. 망태 이런 걸. 그래 이따한만한 망태로 한, 한참 잔뜩 잡았어. 그 도깨비가 장난 하구 지나가 가 갔구. 그래서 인제 밝아 갔구 들어와 본 적이 있다구. [조사자 : 예.] 이, 근자(그래 인제), 내가 실, 실제로 겪은 거구, 뭐, 옛날 할아버지한테 얘길 들었는데 도깨비한테 그렇게 혼, 한 번 혼이 나 봤어.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설화조사반, 《김포의 설화》, 김포문화원, 1999, p. 536.)

• 도깨비에 홀린 이야기

〈개요〉 (1) 어스름 달밤 참계를 잡으러 간다. (2) 새벽에 제방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와 함께 검은 것이 점점 올라온다. (3) 그것은 도깨비불로 처음엔 조그맣던 것이 왔다 갔

다 하면서 한 데 뭉쳐서 커다란 불덩이가 된다. (4) 한 십 년 전 밤에 이웃과 같이 다녀 오는데 좁은 논두렁길 맞은편에서 노랑내를 풍기며 도깨비가 걸어 오다 다시 산으로 올라간다. (5) 그리고 30년 전 마을 한 어른은 도깨비한테 흘려서 논 가운데 묻어 둔 수돗대를 붙들고 수십 바퀴 뱅뱅 돌았던 적도 있다.

저기 철조망 치기 전에 인제 별판에서 인제 창괘(창게) 있지 않습니까 창괘 [조사자 : 창개?]

창괘 별판에서 인제 비가 한참 여름에 장마철이면 인제 거 창괘가 이런데 저 송사리 붐어 마냥 수 백 마리가 이 저 물고를 올라 옵니다. 바다에서 올라 오는 거야. 바다에 올라 오면 그 전에 인제 논두렁이에서 인제, 인제 칠월이 지나서 인제 한 이 가을쯤 되면 인제 벼가 누렇게 인제 쓰러지고 인제 배꽃 떨어지구 할 때 으 늙은 창괘가 배꽃을 먹으로 오는 거예요. 올라와 가지고 인제 또 조금 서리가 오고 추우면은 이 늙은 괘가 또 저 바다로 나갈려고 바다로 나갈려고 기어 나오고요. 슬슬 물 따라서도 나가고 기어 나가는데 여기 동네 분들은 인제 그런 광경을 많이들 보셨지. 나도 인제 그걸 인제 등불을 요만하게 가지고 인제 물고에다 이렇게 노면 캄캄하면 쾌이(고기) 못 잡거든. 그걸 물 내려가는 데 이렇게 발을 요렇게 디며. 물고에다 이렇게 발을 두 발을 디며요. 그러면 창괘가 살살 내려 갈려고 물 내려 가는 데루 인제 내려 갈려구 내리가. 이게 발을 물에다 담갔으니깐 금새 감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제 참게를 인제 그래 인제 잡으면 인제 밤 새는 거야. 그 날 저녁엔. 밤을. 아니 저 한 열 아홉 시쯤 나와서 밤 아마 세 시나 네 시나 이렇게 밤을 새는데 여기 이 수문통이 있어요. 요 여기 독립고지 요기 고지 이 해병대도 있지만 그루 물을 한강으로 빼는 건데. 아, 그냥 저 한, 한 시쯤 거만 댔을 거야. 그런데 으름달밤인데 쿵쿵 그러면서 칙칙 그냥 무슨 저 예 이런데 예 철턱지면 철턱지면서 쿵쿵 철커덕철커덕 소리가 나요. 예, 독에서 제방독에서 불과 한 이백 미터 거리밖을 안 되는데 그 거 처음엔 인제 어 저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거 생각했는데 거기 자꾸만 보는 거예요. 으름달밤이니깐 거기만 소리나는 텔 본단 말이에요. 보니까는 어디서 꺾은 것이, 꺾은 것이 인제 깎지뚱겅이 이렇게 큰 거 있거든요. 저런 저 저렇게 꺾은 게, 큰 거 깎지뚱겅은 게 그 인제 차츰차츰 제방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뭉텅이로 올라 와. 올라 오면 그 이상하다 해 가지구 인제 그 한 반시간 거쳐서 인제 철커덕 철커덕 소리 나고 그제 올라 오구 하면은 인제 우리네는 벌써 감각이 느끼지. 저 늙은 게 인제 도깨비구나. 인제 네 그런 식으로 하구 또 도깨비 불이 어디 있냐면 이 별판에서 이 처음에는 요런 것들이 하나가 생기면 그냥 한 대여섯 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쪽조막만 늙이 새빨간 불이. 거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이 불이 한데로 뭉칩니다. 여기 여기 여 산꽃이서(산고지서) 저 산꽃이로 이제 그렇게 예 나오면은 인제 이 이냥 초지녁에 왔다 갔다 화해 가지고 나와서 이 늙은 게 뭉쳐요. 한데 뭉치면 우리의 눈에 눈으로 보이기엔 이만해요. 저 통이덩어리 거 겹이 텔레비 덩어리처럼 둥그런 게 말이에요. 시뻘건 게 말이에요. 그래

가지구 이 높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 저기 저 동이꽃이 있는 데다가 옛날서부터 큰 몇 백 년 묵은 참나무가 있었어요. 거 참나무에 그 높의 게 매달려요. 여럿이 합자해 가지구 매달리면 은 인제 우리도 이제 나도 별판에서 밤에 괴기 잡고 이렇게 보니깐 무섭지 무예요. 그째를 다 틀렸다고 인제 들어 오기 시작하면은 여기 또 동네 요기 끄트머리에 또 큰 참나무가 또 있어요. 요 동네 끄트머리 집에 거기 끝 참나무가 아람드리루 그것도 아마, 아마 한 이백 년 거만 됐을 거예요. 그래 거기 가서 또 이 높에 매달려. 이 동이 같은 불덩어리가. 거기 매달리지 그리구 또 이 가운데쯤 이 동네 가운데쯤 은행나무가 큰 느티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건 정부에서 보호수 루 간판 달고 해 왔어요. 큰 은행나무가 거기 또 거기 또 매달려요. 그런 불덩어리가. 이걸 저기서 처음에는 별판에서 조막만한 도깨비불이 왔다 갔다 한 여남은 게 하더니 또 증간쯤 가서 또 한 덩어리가 되어 가지구 큰 참나무, 해나무에 매달려. 또 여기 동네로 와 가지구 매달려. 그래 가지구 요, 요 산너머에 또 핵교 너머에 또 해나무가 있습니다. 거기 또 매달려 그렇게 되면 별판에서 꽤기 잡는 사람들이 무섭고 그러니깐 다 들어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도깨비가 놓고 도깨비래는 게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나도 요 아랫동네, 몇해 전에 한 십 년 됐을까? 조상을 이제 초상나서 인제 제사지내면 조문을 가지 않습니까? 조문가는데 요, 요 산밑에서 그냥 그것도 으름 달밤이지 아주 캄캄하면 보지 않지. 그냥 뭐 식 어느 사람이나 똑같아요. 시켜면 거 그냥 오는 거예요. 우리하구 마주 닥치는 거야. 산에서 내려 오죠. 그 사람은 그래 나 혼자 같으면 자질할텐데 우리 요요 옆에 살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보구 그랬지. 그 사람두 기운두 많구 장성두 시구한 사람이니깐,

“저거이 뭐 예요?”

나보다 손윗사람이니까,

“저거이 뭐 예요?”

“아, 그거지 뭐야. 이 사람아.”

그거래는 거야. 아 근데 별판 그리 요기 저 하우스 단지 있잖아? 오시다가 요요 꽃단지 하우스 단지 비니루 친 하우스 거 별판 불과 백 미터 거리밖에 안 돼. 거기 오는데 아, 요 높에 그냥 우리하구 그냥 논두렁이 그전에 인제 걸어다니고, 걸어댕기는 이제 넉넉잡고 한 발밖에 넓이 길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길이 넓지. 그래 가지구 여길 오는데 이 늙두 그냥 버젓이 우리하구 맞대면하구 그냥 씹 할려구 오는 거야. 게 우린 둘이니깐 그냥 괜찮지 뭐야. 내가 그걸 알구 인제 도깨비라구 그래드니 이 높에 우리하고 불과 한 이십 메타 정도 이렇게 탁 치드니 그냥 저 무슨 냄새가 나냐면 그냥 무슨 노랑내 족제비 족제비 이룬데 집에들 족제비 있잖습니까. 족제비가 노랑내를 풍기거든. 그 높 거들 도깨비도 노랑내를 풍겨요. 그래 가지고 도로 되돌아서 산으로 올라 가더라구. [조사자 : 오-] 근데 혼자 나 혼자 걸었으면 아주 자지러졌지. 그냥 까무러치서 자지러졌는데 요냥 둘이나 되니까 그냥 꺼떡 없이 그 날 저녁에도 모면하구 또 우리네보

다 젊은 사람이 거기서 오다가 그 도깨비한테 흘려서 거의 한 백 미터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또 그냥 에- 다시 하루 저녁이나 자고 또 왔다. [조사자 : 오.] 그리고 고 그런데 험지는 어야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보다 손윗 사람이 에 거기서 흘려서 또 그 논 가운데서 인제 수도대를 묻었는데 수도대에서 기냥 수십 바퀴를 뱅뱅뱅뱅 그냥 붙들고 돌고, 네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근데 도깨비불은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꼭 있기는 있습니다. 나도 눈으로 봤는데, [조사자 :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런 연, 연세가,] 나가 이거 본 지가 아마 한 마흔 댕, 다섯 살쯤 됐을 거예요. [조사자 : 한 30년 전쯤에 보신 거죠?] 그렇죠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이지. 도깨비는 꼭 있습니다. 없다고는 할 수 없어.(웃음)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설화조사반, 《김포의 설화》, 김포문화원, 1999, pp. 433~435.)

(4) 용녀 이야기

다음은 용녀와 이무기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무기굴전설〉은 오랜 세월 끝에 승천하는 용을 아이를 뱀 부인이 쳐다 보았기 때문에 이무기로 전락했다는 내용이다.

〈용녀의 술책〉은 김포 땅 어느 강변에 살았던 착한 어부가 잉어를 잡아 독에 두었는데 날마다 밥상을 차려 놓아, 숨어서 살펴 보니 용왕의 딸 용녀가 한 행위였다. 용녀는 물시금기(勿視禁忌)를 일러 주면서 목욕하는 것을 쳐다보지 않으면 같이 살겠노라 했다. 그러나 어부는 끝내 금기를 지키지 못 하고 파기했기 때문에 용녀와 두 아들도 잃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우렁이각시설화〉는 《김포군지》(1977)에 〈용녀의 술책〉이란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전설과 더불어 설화도 본군 고유의 것이 많이 있으나 용녀의 술책만을 기술한다.”라고 하였다. 어느 근거에 의해 고유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는지 아직은 근거를 찾지 못하여 확실치 않으나, 이는 거의 틀림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본 설화가 중국의 황하 이남의 남방 중국에만 광포되어 있고 북방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⁷⁴⁾

설화의 구조를 찾아내는 공식을 발견한 학자는 러시아의 프로프(V. Propp)이다.

그는 전혀 다른 내용이나 모티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구조는 동일한 것이 많음을 예증하고 있는데, 한강변 김포나루의 〈용녀의 술책〉과 〈금강산 선녀와 나무꾼〉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

이 두 설화에 나타나듯이 등장인물은 가변적이나 구조를 형성하는 행위는 불변적이

74) 강재철 외, 《김포의 설화》, 김포문화원, 1999, p. 4

다. 다시 말하면, 가변적인 등장인물은 구조를 이루는 요소가 될 수 없지만, 불변적인 행위 자체는 구조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설화의 구조적 연구에서는 개개의 모티프 내 용보다는 그것이 전체 속에서 가진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프로프는 이와 같은 불변적인 요소를 기능(function)이라 불렀고, 이와 같은 불변적인 기능이 31개나 있다고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용녀의 술책	금강산 선녀와 나무꾼
① 어부가 한강변에서 잉어를 잡아온다. ② 잉어는 용녀로 화해 어부의 아내가 된다. ③ 두 아들을 낳는다. ④ 목욕하는 것을 엿보지 말라는 금기를 어긴다. ⑤ 용녀는 남편에게 고별하고 두 아들과 함께 사라진다.	① 포수에게 쫓기는 사슴을 나무꾼이 숨겨준다. ② 승천 못한 선녀의 옷을 감추고, 나무꾼은 결혼한다. ③ 자녀를 가진다. ④ 아들 셋 낳기 전에는 짓밟을 주지 말라는 금기를 어긴다. ⑤ 선녀는 짓밟을 입자 자녀를 데리고 사라진다.

즉, ① 부재(不在) ② 금지 ③ 위반 ④ 정탐 ⑤ 누설 ⑥ 사기 ⑦ 공모(共謀)(동의) ⑧ 악행·결핍 ⑨ 중개(연계적 사건) ⑩ 반작용(동의) ⑪ 출발(파견) ⑫ 원조자 ⑬ 영웅의 반응 ⑭ 획득(마법의) ⑮ 이동(안내) ⑯ 투쟁 ⑰ 표시(標示) ⑱ 승리 ⑲ 불행·결핍의 제거 ⑳ 귀환 (21) 추적 (22) 구제 (23) 남몰래 도착 (24) 근거 없는 주장 (25) 난제 (26) 해결 (27) 인증(認證) (28) 폭로 (29) 변신 (30) 처벌 (31) 결혼,⁷⁵⁾ 등이 그것이다.

아무튼 본 설화는 방리득보설화(放鯉得寶說話)나 <용궁설화>의 일종임에는 틀림없다 하겠다.

• 용녀의 술책

옛날 김포 땅 어느 강변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고기를 낚아서 먹고 사는 어질고 착한 한 어부가 있었다. 하루는 그 어부가 강가에 나가 전과 다름 없이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 가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여 집에 돌아가려고 할 때 큰 잉어 한 마리를 잡았다. 그 잉어가 어떻게나 큰지 집에 가지고 가서 큰 독에 물을 담고 그 속에 넣어 기르기로 하였다. 이 어부는 매일 같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하루는 저녁 때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무도 없는 자기 집안인데 누가 차려 놓았는지 반찬도 먹음직스럽게 밥상을 차려 놓아 있지 않은가. 이것을 본 어부는 참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선 시장한 김에 차려 놓은 음식을 먹어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 날뿐 아니라 집에 돌아와 보니 매일 같이 전날처럼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것이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어부는 하도 괴이하게 여겨 이 일을 알아 볼rang으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엌 뒤에 숨어서 가만히 동정을 살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더니 자기가 잡아다 놓어 기르고 있는 잉어를 넣은 독에서 한 어여쁜 처녀가 나와서 밥을 짓는 것이었다. 이때 그 어부는 농칠세라 곧 앞으로 나와 아가씨 팔을 꼭 잡았다. 처녀는 느닷없이 나타난 이 어부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말하기를 “나는 수중용왕(水中龍王)의 딸인데 당신과 연분이 있어 같이 살게 되었으니 사흘 동안만 참아 주세요.”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어부는 그 말을 듣고는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잡았던 팔목을 놓아 주었다. 이 어부는 사흘 동안을 참고 기다렸더니 그 다음날 잉어는 완전히 예쁜 여자로 화신(化身)이 되어 이 어부와 살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여자는 어떠한 술책(術策)을 썼는지 당장에 큰집을 마련하게 되었고 먹을 것을 많이 만들게 되어 금시에 부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부탁이 있었다. 목욕탕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잘 만들어 주었더니 남편에게 하는 말이 “내가 목욕을 할 때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엿보지 말아주세요.” 했다.

그 후 그대로 지켜 가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이들도 둘이나 낳고 잘 살아가고 있었다. 남편은 자기 아내가 하루에도 두 세 번씩 목욕을 하는 것이 하도 궁금한 마음이 들어 아내가 전자에 자기가 목욕하는 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였는데도 하루는 몰래 엿보았던 것이다. 그러자 이것을 안 아내는 목욕을 하고 나와서 침통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더니, 이제는 당신이 내 말을 지키지 않았으니 나와는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하고 이별을 고하는 것이었다. 남편은 자기가 경솔했음을 빌고 간곡히 만류를 했지만 듣지 않고 강가로 나가더니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고 만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때를 같이 하여 그 크고 좋던 집도 없어지고 두 아들도 간 곳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 어부는 다시 그전과 같이 가난하게 살게 됐다는 이야기다.

(5) 투금 이야기

손진태는 《한국민족설화의 연구》에서 중국에 전한 조선설화로 신라의 금퇴설화(金退說話)와 형제투금설화(兄弟投金說話)를 들었다.

본 설화는 《천중기 天中記》 권 50 금불상물조(金不祥物條)와 《동국여지승람》 권 10 양천현 산천 공암진조에 나타나는데 두 기사가 거의 동일한 점으로 감안하여 조선에서 명대(明代)에 중국으로 전파된 것이 명백하다고 논급하였다.⁷⁶⁾

본 설화의 연원이 운양리 나루터라고 하니 형제애가 대단했던 이 마을 민심의 정황을

76) 손진태,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7, pp. 2~4

예견할 만한 일인 동시에 한강을 끼고 사는 우리 민족의 자부심마저 느끼게 해 준다. 김포는 금포에서 왔다. 곧, 황금보다 형제 간의 의리가 앞 선다는 한국적 예도를 보여 준 사례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김포는 ‘금투포(金投浦)’에서 나온 지명이기에 ‘김포’라는 이름이 더욱 격에 어울리지 않을까 한다.

〈투금뢰의 유래〉 답은 다음과 같다.

〈예화〉

• 투금뢰의 유래

고려말엽(高麗末葉)에 있었던 일이었다. 김포 땅 양천(陽川) 공암나루(孔岩津)가 있는 그 부근에 한 마을이 있었으며, 그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으니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간에는 대단히 의(誼)가 좋았으며 남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는 형제였다. 형의 이름은 억년(億年)이고, 동생의 이름은 조면(兆年)이라고 했다.

어느 날 이 나루 근처에서 형제는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우연하게도 금덩어리 두 개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한 개는 형에게 주었고, 또 한 개는 동생이 갖게 됐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형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강 위쪽으로 배를 저어 가고 있을 때였다. 배가 강 가운데쯤 지나 갈 때 조면이는 무슨 생각에 젖어 한참 골독(汨篤)하였다. 그러더니 조면이는 나누어 가졌던 금덩어리를 자기 주머니에 슬그머니 꺼내더니 깊은 강물 속에 던져 버리고 말았다. 옆에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것을 본 형인 억년은 깜짝 놀라면서 동생인 조면에게 그 까닭을 물었다. 조면의 대답이었다.

“형님! 오늘날까지 사는 동안에 우리 형제 간의 의는 남들이 부러워 할 만큼 대단히 좋은 것도 우리 두 형제가 다 같이 가난하기 때문에 항상 부지런히 일하고 살아 온 것 밖에는 아무 것도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같이 막대(莫大)한 황금(黃金)을 얻어서 두 사람이 나누어 가졌으니 우리들은 이제부터 큰 부자(富者)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일도 안하고 그로 인하여 더 큰 욕심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리하여 사람의 욕심이란 한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금을 반씩 나누어 가졌으나 욕심이 생길 때는 나 혼자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고 돈이 있으니 세력도 갖고 싶은 나쁜 마음이 들 것이며 욕심이 더 커지지 않는다고 누가 알겠습니까. 만일에 그것으로 인하여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서로 믿고 의지하던 형제라 할지라도 의가 끊어지고 형제가 오히려 남보다도 더 나쁜 처지가 되지 않겠는가고 생각해 볼 때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금덩어리가 싫어져서 강물에 던져 버렸습니다.” 했다. 형 억년이 동생의 그러한 자세한 말을 듣고 나니 가슴이 뭉클했다.

“참, 네 말이 옳구나. 네 말을 듣고 보니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 금덩어리로 인하여 우리 형

제의 의가 끊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나도 무서워지는 구나.” 하더니 그도 가지고 있던 금덩어리를 곧장 강물 속에 던져 버리고 말았다.

이때 한 나룻배에 같이 타고 있던 여러 사람들은 두 형제의 주고 받던 말을 다 들은지라. 이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형제 간의 의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리하여 뒤의 사람들은 이 금덩어리를 던진 곳을 투금뢰(投金瀨) 또는 투금포(浦)라 불러 온다고 한다.

경기도, 《풍속과 자연》, 1984, pp. 212~213.

(6) 물 이야기

여주 시내를 감도는 강물은 수심이 깊어 매년 익사자가 많이 생긴다. 물이 깊기도 하지만 옛날 기녀들의 죽음과도 연관이 있다.

옛날 여주고을에 새로 부임한 박달수라고 하는 신관 사또가 애비를 모르는 후래자식들과 건달, 그리고 기생들의 무례한 행동을 다스릴 방도를 고심한 끝에 뱃놀이를 하여 음탕한 기녀들을 물에 빠져 죽게 하였다는 이야기다.

기생들이 빠져 죽고 난 뒤부터 강에서는 바람이 불 때 마다 귀신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고, 후세 사람들은 손각시가 잠든 여주 남한강 물을 일러 여귀수(예계수·厲鬼水)라고 불렀다 한다. 〈예계수에 얹힌 전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예계수에 얹힌 전설

아득한 옛날, 경기도 여주(驪州) 고을에 있었던 일이다. 술에 만취한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가무 소리가 대낮부터 시끄럽게 들리는 어느 날이었다.

“고이연지고!”

신관 사또 박달수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신임 사또가 부임하는 날이라고 잔치를 벌여서 그렇게 하고 너그럽게 마음을 먹어 봤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 더욱이 불쾌한 것은 길거리가 쓰레기 투성이었다. 말로 듣던 것과 천양지차였다.

“내가 알기로는 이렇지 않은 고을이었는데 이게 웬 일인가.”

산이 아름답고 물도 맑으며 인심이 후하다는 여주 고을 사람들은 모두 부지런하고 순박하게 산다더니 아무래도 잘못 전해진 소문이라고 박달수 사또는 생각했다. 박달수는 부임하자마자 우선 이러한 눈에 거슬리는 일부러 처리하기로 작정을 했다.

“이방 듣거라! 거리에는 웬 쓰레기 저렇게 많고 골목골목에선 대낮부터 웬 고성방가냐? 너무

시끄럽구나!”

이방은 사또의 호명을 듣고 당황했다. 허나 사또의 호령이 재차 떨어지므로 할 수 없이 입을 열었다.

“사또님, 아뢰옵기 황소하오나 이 골목은 기방 골목이오라 거리가 항상 지저분하고 취객들의 고성방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줄로 아옵니다.”

이방의 말에 박달수 사또는 얼굴을 잔뜩 찌프렸다.

“이크, 불벼락이 떨어지겠다. 저렇게 얼굴에 노기를 잔뜩 띠고 있으니…….”

이방을 비롯한 고을 관속들은 사또의 얼굴을 흘금흘금 쳐다보며 전전긍긍했다.

“허, 저건 무슨 일이냐? 어찌자고 아이들이 남의 집 창구멍을 들여다 보느라고 야단들이냐?”

“네, 여쭙기 황송하오나 저 아이들은 기생들의 아이들로서 애비조차도 모르는 것들인 줄로 아옵니다.”

“아니, 뭐라고! 이 고을에 저렇게 애비 모르는 아이가 많더란 말이냐?”

사또는 다시금 놀랐다. 아비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니 이것은 고을 전체의 문제인 것이었다.

“사또 저 아이들은 문구멍으로 제 애미가 사내들과 놀아나는 것을 들여다보려고 다투는 것이옵니다.”

이방의 말에 신관 사또의 얼굴에는 핏기가 가시었다.

“아, 한심스럽도다. 이런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둔 역대의 관장들은 도대체 어쩔 셈이었을까.”

박달수 사또의 부임 행렬이 얼마쯤 갔을 때였다. 웬 여인이 땅을 치며 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여인의 울음은 시름과 원망이 가득찬 애절한 울음이었다.

“이방! 저 여인은 무슨 일로 저렇게 슬퍼 우느냐? 어서 그 사연을 아뢰어라.”

사또의 말에 이방은 천연스럽게 대답을 했다.

“네, 남편이 기녀에게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사와 저 여인은 어린것들과 살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써 왔사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밤낮 기생과 더불어 주색과 잡기로서 세월을 보내더니 마침내 전답과 집마저 팔아 치웠다고 하옵니다. 그래서 여인은 어린것을 데리고 길거리에서 방황했사온데 첫먹이가 열병을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아서 저렇게 슬피 우는 것이옵니다.”

박달수 사또는 저렇듯 딱한 여인이 어찌 저 여인뿐이겠느냐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다.

“씩씩대로 썩은 고을이로나. 애비도 모르는 아이들이 득실거리고 아이들은 제 애미와 건달들이 놀아나는 것을 구경거리로 삼고, 쓰레기와 같이 버림 받은 여인네와 어린것들은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으니 이게 될 말이냐.”

젊어서부터 대쪽같이 곧은 지조로 살아온 박달수 사또는 당장에라도 그들을 처단을 해야 속이 풀릴 일이었지만 부임하는 첫날에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꼭 참았다. 박달수 사또는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억지로 참으면서 이방에게만 이것저것 따져 물을 뿐이었다.

“허참, 이러한 몹쓸 일을 너희들은 어떻게 눈으로 보고만 있었더라 말이나? 나라의 녹을 먹는 관속들이 백성을 잘 다스렸다면 저렇듯 썩고 서글픈 일들이 눈에 띄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신관 사또는 한숨을 내쉬었다.

“사또님 황공하나이다. 그러하오나 고을을 다스리는 분은 사또님이 온데 역대의 사또님께서는 별 분부가 없었사옵니다, 그러니 저희들인들 별도로리가 있겠사옵니까.”

“어허, 전관 사또도 저런 꼴을 보고도 못본 체 했더라 말이나?”

“그러하나이다. 저관 사또님도 이 고을에 부임하실 때는 사또님 만큼이나 놀래시고 염려도 하시었나이다. 그리하와 부임 다음 날엔 엄하게 명령을 내려서 사내들의 기방 출입을 막겠다 하시었나이다. 허나 며칠이 안 되어 그 위엄과 결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또님이 내린 명을 사또님 자신이 마침내 짓밟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나이다. 그리하와 선량한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줄로 아옵니다.”

이방은 다시 말을 이었다.

“전관 사또님은 이 고을을 떠나시는 날도 기녀들과 어울려서 가무를 즐기셨사옵니다.”

이방은 신관 사또의 얼굴을 살피며 빙그레 웃었다. 이방은 신관 사또가 별다른 표정 없이 자기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자 신이라는 모양이었다.

“그러하옵고 전관 사또님의 전관도 역시 마찬가지였사옵니다.”

이방의 말은 역대의 관장 모두가 기녀를 가깝게 한 난봉군이란 것을 은근히 말한 것이었다.

“허허, 뼈가 들은 말이로군. 예헴!”

박달수 사또는 위엄있게 기침을 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타이르듯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림없는 소리. 어림없는 소리야. 나는 절대로…….”

시관 사또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다짐을 했다.

신관 사또 박달수는 부임 첫날이 밝기가 무섭게 이방을 불러 들였다. 어디에선가 새벽녘까지 장구 소리와 술에 취한 남녀의 난잡한 목청이 어울려서 들려왔다.

“꽤 씩씩한 것들이로다.”

사또는 몹시 불쾌했다.

“이방 듣거라! 저 미친것들이 발광하는 소리를 이 고을에서 당장 사라지게 하려다!”

“사또님, 미거한 저희들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사옵니다. 오로지 신곤 사또님께서 술선수 범하시와 진두에 나서서 다스리셔야 할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장 저것들의 못된 습관을 뿌리 뽑아 주겠다. 만약 내가 다스리지 못 한다면 강물에 빠져 죽고 말겠다. 빨리 사인교를 대령시키려다!”

사또의 명을 받고 사인교를 준비 시키려고 나갔던 이방이 얼굴에 웃음을 띠우고 들어 왔다.

“신관 사또님께 인사를 드리겠다고 이 고을 우두머리 기생이 밖에서 기다리옵나이다. 어찌 하

오리까?”

이방의 말에 사또는 발끈 화를 냈다.

“뛰라고! 기생년이 나한테 인사를 올리겠다고? 그년을 들여 보내라. 내 단단히 혼을 내주겠다.”

이방은 기생을 신관 사또 앞으로 인도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신관 사또의 방에 꼭두새벽부터 기생이 들어갔다는 소문은 삼시간에 하인배의 입을 통해 파다하게 퍼졌다. 여주 고을에서는 그 미모와 가무, 그리고 교태에 이르기까지 가장 뛰어난 기생이었기에 더욱 흥밋거리였다.

“신관 사또가 제 아무리 성품이 대쪽 같다 할지라고 그 기생 앞에서는 맥을 못 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밖으로 나온 이방은 사또의 방문 밖에서 귀를 기울였다.

“그럼 그렇지, 신관 사또라고 별 수 있나. 역대 사또가 모두 그러했는 걸.” 이방은 혼자서 중얼거렸다.

“신관 사또님 인사드리웁니다. 어찌면 이렇게 점잖으실까. 객고를 푸사이다. 이 미천한 몸이 사또님을 모실까 하나이다. 호호호…….”

요염한 기생은 간드러지게 웃으며 사또의 품에 안기려고 했다.

“아니다. 날이 다 밝았는데 잠을 잘 수 있겠느냐. 이따가 이 고을의 기녀들을 모두 불러 강에서 뱃놀이로 하루를 즐기려고 한다. 또한 너희들과 자주 어울리는 이 고을의 이름난 풍류객들과도 사귀고 싶구나.”

박달수 사또의 이러한 말에 기생은 뜻밖에도 일이 쉽게 되어 가다고 흐뭇해 했다. 곳곳한 나무가 더 잘 부러진다니 이를 두고 한 말인 듯 싶었다.

“호호호…… 그것 참 좋으신 생각이옵나이다. 사또님의 부임을 축하하는 뱃놀이라 저희들에게는 더 없는 영광이옵나이다.”

이리하여 그 날의 뱃놀이는 성대하게 벌어졌다. 박달수 사또는 기생들을 한 배에 타게 하고 고을에서 이름난 건달들은 다른 배에 타게 했다. 그리고 사또를 비롯하여 이방과 관속들은 또 다른 배에 탔다. 진수성찬의 안주가 갖추어진 술상에 흥이 돋았다. 기생들이 노래를 부르면 사나이들은 장단을 맞췄고 사나이들이 노래를 부르면 기생들은 춤을 추었다. 일찍이 본 일이 없었던 화려한 뱃놀이라 그를 구경하려고 고을 사람들이 밀려 들었다.

“흥, 잘들 노는구나. 신관 사또라고 오자마자 저 꼴이니 불장 다 봤구나.”

“제기랄 사또라는 것들은 모두 주색을 탐하니 고을이 이 지경이 될 수밖에 있나. 이러다간 이놈의 세상이 어찌될 것인지…….”

모여든 구경꾼들은 이런 말을 주고 받기도 했다. 이윽고 기생들은 술에 몹시 취했다. 술에 취한 기생들은 사또와 같은 배를 타려고,

“사또님! 사또님! 저희들도 사또님의 배에 타게 해 주사이다. 술만 마시면 무슨 재미가 있겠나 이까!” 하고, 소리를 쳤다.

“오냐, 그게 좋겠다. 이방, 이 배를 저 기녀들이 탄 배에 가까이 대어라!”

박달수 사또는 기녀들이 탄 배를 향해서 소리쳤다.

“기생들 듣거라! 너희들 중에 다섯 명만 이 배로 부를까 한다. 제일 먼저 이 배로 건너 온 순으로 다섯 명을 고를 것이다. 알겠느냐!”

기녀들은 사또의 배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아우성들이었다. 두 배가 서로 닿을까말까 할 거리로 좁혀졌을 때 기녀들은 신관 사또의 배에 오르려고 몰려 들었다. 그 순간 기생들이 탄 배는 중심을 잃고 뒤집히고 말았다. 수십 명의 기생들의 비명 소리가 나다가 이내 고요했다. 사나이들 중에서 의협심이 강한 자들이 더러 물속에 뛰어 들어가서 기녀를 구하려고 했지만, 남을 구하기는 커녕 자기 자신의 목숨마저 잃고 말았다. 별안간에 벌어진 일이라 사람들은 당황할 뿐이었고, 또한 술에 취해 있어서 용기를 내는 사람이 없었다. 일이 이쯤되자 이방만이 신관 사또의 속셈을 알아 차렸다.

“사또님, 사또님께서 이러신 줄이야…….”

“허허, 이방 왜 그러느냐? 남의 가정을 망쳐 놓은 계집들이니 죽어 마땅하니라.”

이방은 흐느껴 울었다. 수십 년 동안 여주 고을의 사나이들을 바람내고 술한 여인들을 슬픔으로 몰아 넣었고, 온갖 비극의 불씨가 되어 오던 기녀들이 일시에 물에 빠져 죽었다는 슬픔에서가 아니었다.

그 울음은 병들대로 병든 이 고을을 지켜보던 이방의 후련한 웃음 같은 것이었다. 그 후 뱃놀이를 하다가 기생이 빠져 죽은 강에서는 바람이 불 때마다 울음소리가 들려 왔다. 그것은 강이 우는 소리가 아니라 기생들이 울부짖는 소리였던 것이다. 이 고을을 병들게 했던 요녀들의 웃음이었다. 기생 귀신들의 원한이 잠든 강, 그곳을 후세 사람들은 여귀수라고 불렀는데 세월이 흐르자 어느 사이에 예계수로 음이 변하고 말았다.

박영준, 《한국의 전설》5, 한국문화도서출판사, 1972, pp.413~417.

(7) 어사 이야기

어사 이야기 하면 의례 숙종 때의 박문수 이야기를 제하고 나면 할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어사’의 대명사는 박문수요, 임금의 대명사는 숙종대왕이 표제로 떠오른다.

장희빈 사건에 연루된 무녀를 한강 수문지기로 바꾸어서까지 잡아내고만 박문수의 지략담이 있는데 그 전설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 박어사 이야기

〈개요〉 (1) 박어사가 곧은 낚시를 가지고 한강에 나와서 낚시를 한다. (2) 숙종대왕이 할머니의 몸종을 소실로 삼았다. 그 소실이 장희빈이다. (3) 장희빈이 모해를 해 중전이 궁에서 쫓겨난다. (4) 중전을 숙종이 다시 궁궐로 데리고 온다. (5) 장희빈이 무녀를 시켜 중전의 환을 만들어 중전을 괴롭힌다. (6) 이것을 박문수가 알게 된다. (7) 박문수가 낚시를 하다 지나가는 사람과 장기를 둔다. (8) 장기수를 물려 주지 않는 걸 보고 박문수는 이 사람이 자신이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 (9) 박문수는 그 사람을 무녀가 다니는 수문지기를 시킨다. (10) 무녀가 문을 통과하려 하니 수문지기가 된 사람은 절대 통과를 시키지 않는다. (11) 그래서 무녀를 잡는다.

박어사가 매일 곧은 낚시를 가지구 한강에 나와서 저기, 이, 동대문 밖에 한강에 나와서 낚시를 허는구려. 근데 왜 고다 낚시를 했느냐 허면 저게, 이, 에- 박문수가 어느 때 사람이냐 허면 숙종대왕 때 사람이야. 숙종대왕의 마누라가 장희빈이…… 저, 숙종대왕의 저, 소실이 장희빈이야. 장희빈이가 그, 어, 애초에 숙종대왕의 에- 할머니가 몸종으루 데리구 있던 건데 아, 할머니, 숙종대왕이 할머니 뵈러 떡 가고 보니까 아, 그, 방에 있는 아가씨…… 저, 하인아이가 아주 이쁘게 잘 생겼거든. 그래서 숙종대왕이,

“할머니, 그 계를, 계를 날 주시죠.”

그래. 그래 지할머니가 깔깔 웃으면서,

“게가 그렇게 이쁘게 뵈냐.”

“네, 지가 데리구 가갔수다.”

그래서 데려다가 소실을 삼아, 삼았거든 숙종대왕이. [조사자 : 예, 예.] 그래서 인제 그게 소실을 삼았는데 차차차차 그게 그리니깐 빨래두 하구 그리든, 그리든 하인 아인데 아, 숙종대왕이 데려다가 그걸 저…… 소실루 삼고 보니까 저…… 자꾸 기세가 높아져 가지구 그냥 가진(갓은) 에…… 가진 못된 짓 다 해서 그 본마누라, 본마누라가 시기현다구 숙종대왕보구 그래. 시기를 해서 저를 죽일려구 그런다구, 그래서 숙종대왕이 본마누랄 저 동대문 밖에 갖다가 삼 년을 거시기야. 에…… 두문불출허게 맨들었어요. 그래, 그래서 숙종대왕의 본마누라가 동대문 밖에서 냉방에서 삼 년을 지냈어. 그래, 이제 거시기 남, 남편한테, 남편한테 미움 받는 여자는, 여자는 베옷을, 저…… 베옷이불은 덮어야 한다고, 겨울에두, 베옷이불을 덮어서 그만 냉이 생겨서 쉬 죽었어. 그런데 장희빈이라는 저, 저, 거시기 소설에도 나오잖아요? 그래, 그런데 장희빈이가 어떻게 했는고 허니 본마누라를…… 삼 년 만에 본마누라를 숙종대왕이 데려 왔단 말야. 데려, 데려 왔는데 얼른 죽진 않으니깐 저 장희빈이 게가 그 저 무녀를 데려다가 환을 본마누라, 본마누라를 환을 만들어 가지구 그 활, 화살로다간 저, 활을 저기다 벽에다 환을 족자를, 족자지, 예 전에. [조사자 : 예, 예.] 그 족자를 걸어 가지구 화살루다가 눈을 쫓아. 그, 그냥…… 그냥 그 짓

으루 장희빈이가 그 짓을 허는 걸 알았지, 나중애, 저, 숙종대왕이. 자기 마누라는 죽구, 냉이, 에…… 냉이 있어서 자식두 못 낳구, 게 경, 경조 애기 숙종애, 숙종의 아들, 거시기 장희빈이가 아들 하나는 낳았어 그래두. 낳아 가지구 그거, 저…… 숙종의 대를 이었드랬거든. 숙종이, 저, 경종이 장희빈의 아들이거든. [조사자 : 예, 예.] 장희빈이가 낳은 아들이야. 알아 들으시죠? [조사자 : 근데 박어사 얘기는……] 근데 박어사가 어떻게 했는고 허니 박어사는 알았거든. 저 장희빈이 그런 못된 짓을 허는 걸 알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곧은 낚시를 헨 건 왜 했는고 허니 사인재를 하나 구하기 위해서 그래 인제, 거기서 낚시질을 허는데 몸뚱이가 낚지두 못한 사람이 오드니 낚시허는 걸 들여다 보거든.

“여보, 당신 에…….”

저 박문수가 허는 말이,

“당신 어떻게 가는 길이요?”

“정처 없수다.”

“그럼 나하구 들어 가서 장기나 한 판 드볼라냐.”구

그랬거든.

“예, 장기 같으면 한 수 놀 수 있수다.”

그래 들어 가서 장기를 두는데 아, 박문수가 지게 됐거든. 한 수 물러 달래는데 막무가내 안 물러 줘. 그래서,

“아, 여보, 에…… 여보 한 수만 물릅시다.”

별사정 다 해두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만 헐 수 없이 그만 못 물렸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 인재는 그 놈이 인재거든. 한 번, 한 번에…… 일을 했으면 다시 용납 없는 놈이 그 놈이 사람이거든. 그래서 저 무당이, 이…… 장희빈이가 사용하는 무당이 저녁마다 문 밖에서 어- 무당이 저 궐 안에 있을 수 있나. 문 밖에서 살다가 저녁에만 들어 오는데 수문지기가 열어 줘서 들어 오거든. 수문지기가 그게 에…… 성문지기가 그게 수문지기거든. 그래 수문지기를 갈아 썼지. 그 장기 안 물러 준 그, 그 사람으루 수문대, 수문대장을 시킨 거야. 그래 가지구 그 무당을 그래서 잡았대는 거야.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설화조사반, 《김포의 설화》, 김포문화원, 1999, pp. 431~433.)

(8) 지명 이야기

한강변 마을의 지명 유래담으로는 <향산리 고을의 형성·비산비야>와 <황포 마을 유래>·<조수가 정확한 조강포>·<두곡리·국사봉·전류리 유래>

등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황포마을 이야기만 설명하기로 한다.

황포마을은 옛날에 가을이 되면 누룽누룽 벼가 익고 수수·조·콩·깨 등 오곡이 만장했던 곳이다. 누린 황금벌, 곧 풍년을 암시하는 황(黃) 자에다가 그 뒤에 개 포(浦) 자를 넣어 황포마을이라고 이름하였던 바 풍어를 은연 중 암시한 지명이라 하겠다.

과거 한강에서는 '황포돛대'를 많이 볼 수 있었다. 황포(黃布)의 황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도 '풍어'라는 데서 그 뜻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한다.

<지명 이야기>담은 다음과 같다.

• 황포마을의 유래

<개요> (1) 지금의 대포리는 옛날에 논 밭에 오곡이 풍성하다고 해서 황(黃) 자를 쓰고 그 앞에 포구가 있었다고 해서 포(浦) 자를 써서 황포마을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2) 그러다가 일제 때에 대포리로 불리운 것이 지금까지도 행정적인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다. (3) 그러나 아직도 마을 사람들 중에는 황포마을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여우기 여기, 뭐 사실은 옛날 얘기랄 것두 없구. 이게 여우기 마을 자체가 황포리, 대포리래는 왜놈들이 이, 왜정시대에 대포리래구 지었구, 옛날에는 황포예요, 여우기 황포. [조사자 : 예.] 어, '황포마을' 이야 여우기가. 왜정시대 때는 거, 뭐야 이 앞이 인제 넓구. 이, 뒤는, 뒤가 시방, 이 육이오 때 피난 온 사람들이 막 드르 왔거든, 여기. 그니까 그기 바다였었어. 여기 이 넘어가, 바루 요 넘어가. 배가 다니고, 증선배가 다니구 그랬었는데 [조사자 : 증선배요? 증선, 증선. 증선이래는 게 뭐냐면 거 조기잡이, 어, 조기 잡구 허며는 그거를 증선배라구 그러지. [조사자 : 예.] 그래서 지금두 '황포마을' 이라구 그래야 잘 알지. [조사자 : 예.] 그래 황포 마을이라곤 왜 지었, 옛날에 왜 지었냐면, 유래를 볼 짝에. 이 앞을 그 바라보, 이 뜰이 넓잖아. [조사자 : 뜰이요?] 이렇게 가을이 되면 인제 황금 노을에 오곡이 만장. 이래맨 저 황금이라는 건 뭐냐면 가을이 되면 누룽누룽헌 인제 벼(벼), 수수, 조, 콩, 깨 뭐 인제 이래, 응, 오곡이 만장했지. 게서 인제 누르 황(黃) 자를 넣고 아 그 뒤는 인제 개 포(浦) 자. 그때 인제 배가 다녔으니까 개 포. [조사자 : 아 포구(浦口)할 때요?] 응. 삼수변에, 포자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 황포마을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그제. 그 요 뒤가 시방 맥혔지. 시방 다 맥혔는데, 그 옛날에 그 우리가 여기서 땡길

때는 그, 지금은 오염이 많이 돼서 그렇지, 지금. 옛날에는 여기 비가 온다든가 뭐 가을 이맘 때면 참피 같은 거, 피, [조사자 : 참게요?] 참피 있지 참피 응? 곧피(꽃게) 말고 참게라고 있어. 해서 그 게들을 그 발을 엮어서 이렇게 치고서 잡고 이랬다고 밤에. 그때에 그게 옛날 얘가지.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설화조사반, 《김포의 설화》, 김포문화원, 1999, p. 387.)

• 조수가 정확한 조강포

〈개요〉 (1) 조강포는 할아버지 조 자와 물 강 자를 쓴다. (2) 조강포는 조수가 제일 정확한 곳이다. (3) 조강포는 마포로 올라가는 배들이 물이 내려갈 때 올라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루 저녁을 쉬었다 간다.

그리구 조강포라고 하는 건 왜 조강- 할아버지 조(祖) 자 조, 저 [조사자: 할아버지 조(祖) 자에다가…….]

물 강(江) 자. 조강포(祖江浦)라고, 쓰는데, [조사자 : 빛 광(光) 자요?] 아니 강. [조사자 : 강, 물 강(江) 자요. 아- 조강포(祖江浦)로군요. 조강포.] 네, 조강포. 그전에 거기 한 칠십 호 됐었죠. 그런데 거기 다 소개(疏開)⁷⁷⁾ 당했지. 그래서 그 할아버지 조(祖) 자를 왜 쓰나 하면, 조수가 제일 아주 정확한 데가 여기래요. 그래 물이 조수 올라 갔다가 딱 그치는 데가 여기서 조강포에서 그치고, 여기 올라 갔던 물이 내려 와서 그치는 데가 여기 조강포고. [조사자 : 조수가 제일 정확하다구요?] 네, 그치고 내려 오고, 올라 오고 내려 오고 하는 데가 고기가 딱 거기 가서 물 끝이 거기래요. [조사자 : 그래서 할아버지 조(祖) 자 쓴다구요?] 그래 할아버지 조 자 쓴대. (웃음) 그전 노인네들이 얘가지. [조사자 : 아- 예. 그것도 재미있는 얘기네요. 여 그러니까 밀물 썰물…….] 쓴 데가 끝이 나는 데가 여기예요. 그전에 마포 댕겼던 그 배가 연평도 다 저 아랫녁에서 인제 곡물이나 생선이 올라 마포 닿았ాయ어요? [조사자 : 네.] 그래서 그 인제 시간 여유가 없으면 물이 내려 오는 물이 못 올라 가니까 꼭 여기서 하루 저녁 쉬었다가 올라 간다고. [조사자 : 마포 갈 때요?] 그래서 여기가 사람 살기 좋았죠. 이 그전 전부 뭐 이 저수지다 뭐다 하는 것이요 해방 이후에 생겼지. 그전에 뭐 있나요? [조사자 : 그렇죠.] 그런데 여 산골이 돼서 논이 생수가 많이 나고, 또 나무 산골 아니예요 여기가. 나무가 흔하고, 또 여기 강변 나가면 아주 생선이 흔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사람 살기 좋았고요. 그래 이목선생(묘) 그래서 여기다가 자리잡지 않으셨나 하죠.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설화조사반, 《김포의 설화》, 김포문화원, 1999, pp. 622~623.)

• 두곡리 국사봉 전류리 유래

〈개요〉 (1) 대제학공 유자 할아버지가 신돈란 때 한 마을에 은거하게 된다. (2) 그래서 그 마을

77) 적화를 피하기 위하여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서 지방으로 사람들이 분산하는 일

을 막을 두 자를 써서 두곡리가 된다. (3) 그 할아버지는 봉우리에 올라가 나라를 걱정한다. (4) 그 봉우리는 국사봉이 된다. (5) 물이 역수가 되는 것은 엇드러질 전자를 써서 전류리가 된다.

대제학공(大提學公) 유(兪) 자 할아버님이 [조사자 : 예.] 그 할아버님이 신돈란(辛旽亂)에 이쪽으로 은거를 하셔요. 이 강을 건너 오셔, 여기 숨으신다고. 신돈 난리가 났을 때, 벼슬을 그만두시구, 그리서 이 두곡미라는 마을에서 거기서 은거를 하시고 사셨다구요. [조사자 : 아, 여기 루 일루 오셨군요.]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두곡리라는 데가 두곡동 그러는데 막을 두(杜) 자 거든, 맥혀 있는 골짜구니. 거기에서 사시면서 600여 년 된 그 냥반이 손수 심으신 은행나무, 지금두 있다구, 그 자리에. 그리구 저 앞애, 산 요기서 저 건너 다리 있는 저기 저 산 너머 뽕죽하게 돼 있는 걸, 국사산이라구 그리구 국사봉이라구 그리거든, 나라 국(國) 자 생각 사(思) 자. 그 냥반이 거기를 올라 가셔서 송도(개경)가 바로 뵈거든, 송도 바로 개경이 거기서 나라 생각을 하셨다고 그리는 거구. 거기서 조금 내려 가면, 나루터에 전류리라고 그러는데, 지명으로 지금 엇드러질 전(顛) 자예요. 그 전류, 물이 까꾸로 흐른다는 거거든. 거기가 회수가 도니까, 역수가 되는 거지. 그게 전류리라고 그러는데, 전류정이라는 정자가 있드랬어요. 지금 주춧돌 자 죽두 있고 그런데, 그 할아버님이 정자를 이고 거기서 그 소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인적이 있고 그러다가 두문동으로 들어 가셔서 행방이 묘연하시지 인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설화조사반, 《김포의 설화》, 김포문화원, 1999, p. 641.)

이밖에 충청도에서도 나타나는 〈선돌이 이야기〉나 〈달래나 보지〉·〈서혼남의 곤룡포〉·〈청백리 이희 이야기〉 등이 있는데 선돌이와 달래강 유래만을 살펴 보기로 한다. 선돌이가 강화도로 올라 간 수로는 대강 개성에서 서해안을 끼고 강화도로 갔을 것으로 추측하는 설과, 한강 마포를 거쳐 김포 → 강화 → 손독목으로 갔을 것이라는 추측하는 설로 나타나는데, 억울한 손돌신의 연대가 확실치 않아 두 가지 설 모두를 긍정적 대상으로 잡아 두기로 한다.

〈달래나 보지〉도 김포 ‘여덟골’이라는 데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제보자와 삼다리쪽에 있는 강이라는 두 설이 나타나는데, 〈달래나 보지〉 전설은 〈달래강〉(평안북도 정주)·〈달래나 보지 고개〉(경상북도 경주)·〈말이나 해 보지〉(경상북도 마산)·〈철원 달래산〉(강원도 철원)이라는 표제 하에 한국의 여러 지방에 퍼져 있기 때문에 광포설화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필자는 용정에도 이 같은 전설이 있음을 수집한 바 있다.)



• 달래나 보지

〈개요〉 (1) 길이 사방으로 나서 '여더골' 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다. (2) 어느 오누이가 그 여더골을 지나다 소나기를 만난다. (3) 누이 동생의 옷이 비를 맞아 몸에 달라 붙는다. (4) 이것을 본 오라비는 성욕을 참지 못해 자신의 남근을 돌로 쳐서 죽는다. (5) 누이동생이 “달래 보지도 않고 왜 죽었느냐?”고 하며 애처러워 한다.

여기 저, 여기 한 삼 키로 가면 '여더골' 이라고 있어, 여더골이. [조사자 : 여더골이요?] 어. 길이, 길이 사방으로 확 났는데 여더 개야. [조사자 : 예.] 여더 개야. 옛날에 거기 집이 안 살았어. 그래 즈 오빠허구 누이허구 둘이 거기를 가는데, 소내기가 굉장히 내려 쏟아 왔어. 그 여름에 갔으니 옛날에 그 여자들이 얇은 옷을 입구, 입었을 거 아냐? [조사자 : 예.] 그 오라버니가 그걸 가다 말군 자기를 (잠시 머뭇거리다, 웃으며,) 그, 그거를 이걸 끄내 가지구 이냥 돌맹이로 지쳐 죽었시오, 그래서 누이동생 허는 얘기가,

“달래나 보지.”그래, 가서 ‘달래강’ 된 거야.

“왜 죽었느냐?” 그거야, 왜. 그래 여자가 옷을 얇으루(얇게) 입구 왔는데, 비를 죽 맞았으니까 남자 놈이 보구, 또 그러니까 저저 지 누이동생이거든. 그래 달래지 못허구 죽이니까, 돌맹이루 지찌가구 죽으니까 누이동생 허는 말이,

“달래나 보지. 그냥 말도 안 하구 죽었느냐?”

그래. [조사자 : 아, 달래나 보지?] 어.(웃으며)

“달래지도 보지도 않고 거 왜 죽었느냐?”

이거지. 그런 지끔 전설로 내려 와 있어요. [조사자 : 예.]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설화조사반, 《김포의 설화》, 김포문화원, 1999, pp. 508~509.)

• 달래강 전설

〈개요〉 (1) 달래강이 있다. (2) 달래강 쪽에 사는 갓 시집온 색시가 친정에 문안드리러 간다고 하인과 함께 그 강을 건너게 된다. (3) 달래강을 건너가는데 소나기가 쏟아진다. (4) 하인이 할 수 없이 색시를 업고 강을 건너게 된다. (5) 색시의 따뜻한 기운이 전해지자 하인은 짜릿한 충동을 느끼게 된다. (6) 하지만 욕심을 내지 못하고 색시를 안전하게 잘 모신다. (7) 얼마 후 하인은 앞서 가고 있는 색시의 뒷 모습을 보며 다시 충동을 느끼게 된다. (8) 욕정을 참을 수 없었던 하인은 자신의 남근을 꺼내 돌로 쳐서 죽는다. (9) 이것을 본 색시는 “달래 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죽었냐.”며 애처러워 한다. (10) 그래서 달래강 전설이 생겨났다.

비슷한 얘긴데 [조사자 : 예.] 게, 저 이 머시냐, 가수 누구지? 저, 인저 삼, ‘삽다리’ 노래, [조사자 : 조영남이요?] 어, 조영남. (모두 웃음) 조영남이가 이그, 저 노래하는 삽다리라고 허는 데가

있지? 어, 삽다리에서 저쯤 그 이쪽으로 서울 쪽으로 올라오면 말이야 그 우리가 관광단지라 봐 두 달래강이래는 저, 강이 있어. [조사자 : 달래강이요?] 으, 달래강이 있는데 [청중 : 그, 그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달래강 이짜게서(이쪽에서) 사는 시, 새로 시집 온 색시가 친정에 문안을 드리러 가는데, 그 강을 건너가게 됐어. 그러니까 인제 그 집이 양반 집이니까 그 집 하인을 시켜서 동행을 해라. 그래서 그, 그야말로 요새루 말하면 뭐, 보디가드루(웃음) 딸리 보냈거든. 그런데 가다가서, 달래강을 건너 그 밑을 갔는데 쏘내기가 쏟아지니까 물이 홍수가 났는데 그럴(거기)를 건너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하인이 그 혈 수 없이 색시를 업었어. 업구서 가니까 장대이가 따듯해 오는데 말야. 그러니까 색시는 아무리 저이 친, 저 시집이서 보낸 사람이지만 하인이구 쌍놈이구 그건 고사하구, 등이 따듯하거든. 그러니까 그 따스한 그 훈훈한 그 기운 뭐라 그럴까, 짜릿한 [청중 : 웃음.] 기운을 느꼈지. 인제 가는데, 이 하인은 자기 상전이 보냈으니까 감히 그 여자에 대한 욕심을 내질 못하구 순박한 사람이 돼서 그냥 업구서 그렇게 갔단 말이야. 근너가서 저 내리놓구서, 거, 여자는 앞서 가구 이 하인은 뒤쫓아가는데, 해필 여자에 그 모습을 바라 보면서 그 궁댕이를 이렇게 받쳐서 없고 오던 생각을 하니까 그 이상스런 그 충동감을 느끼구 거기서 인제 이,

“내가 이 저까지 껴 저저 아무데나 내리 놓구 강탈을 해서 될 텐데 왜 이 못난 자식은 그런 생각을 못 했나.” 그래서 이 자꾸 색욕이 충동이 되드라구. 그러니까 여자는 저만큼 가는데 그 이 남자의 남근이 거기서 나우루 별떡 일어나니까 거 강가에서 나는 돌을 내 놓고 돌을 집어 가지구 돌루다 자기 씨를 내 놓구 찍겠다구(찍었다구).

“이 자식아, 왜 제 때 일어나지 못 하구 이제 일어나냐?” 구.

(웃음) 그래서 짓 찍어서 자기가 죽었어. 그런게 여자가 앞서 가다가 돌아다 보니깐 아이, 하인이 죽었거든. 아, 그러니 와서 보니깐 그 자기 씨를 돌루다 찍껴서 죽었다단 말이야.

“아이구, 이 못난이야 달래나 보지. 왜 달래지두 앓구 왜 그렇게 죽었냐?”

그래서 그 전설로 내려 오는 “달래 보지.” 허는 얘기가 달래강이래는 얘기, 거기 달래강이 현재 있어. [조사자 : 예.] 어. 고런 달래 강두 있구 여기 이 양반(앞서 <달래나 보지> 라는 설화를 구연한 김인식 제보자를 가리키며,)이 얘기 허든 <달래 보지>두 있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설화조사반, 《김포의 설화》, 김포문화원, 1999, pp. 512~513.)

• 굴포천의 유래

〈개요〉 (1) 김자겸이 역모를 한다. (2) 서울로 쳐들어가기 위해 방패막이로 굴을 판다. (3) 그래서 굴포천이라 한다.

또 하나 이진 내가 얘기를 해야 될는지 안 해야 될는지 이거 뭐 고증도 없고 나도 우리 할아버님한테 들은 얘긴데 여 굴포천이라고 저기가 있어요, 개화리 못 미쳐 가 가지구서. [조사자 :

아, 봤어요. 오다가 굴포천이라고.] 어, 굴포천이라고 있는데 그건 김해 김씨 문중에서 어 아주 유명한 사람 김자겸이라는 사람이 이 구테, 요새 얘기하면 구테타지 응? 구테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굴포천을 댜들어 가 가지구서 했다가 역모죄로다가 아 인제 모관으로다 몰려가 가지구서 참살을 당하구 이 과거에는 김해김씨가 그 양반대접을 했는데 그때서부터는 서, 서인으로다가 그 격하가 댜버렸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으 그건 나도 그 뭐 신빙성이 없는 얘기지. [조사자 : 그런데 굴포천을 왜 만드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을 쳐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의 그 방패막이로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라. 그걸 사람을 인력을 동원해서 그걸 댜대는 거라. [조사자 : 인위적으로요?] 응. 그래서 거기다가 인제 그 진지를 맨든 거지.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김해김씨네들이 들으면은 뭐라고 얘기할는지 모르겠고.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설화조사반, 《김포의 설화》, 김포문화원, 1999, p. 196.)

• 비산비야(향산리 고을의 형성)

〈개요〉 (1) 향산의 원 지명은 비산비야로 사람이 살 곳이 못된다는 곳이다. (2) 동녘벌은 배에서 짐을 내리는 곳이다. (3) 그곳에 제방을 막고부터는 농토가 되어-부락미 형성하게 되어 향산리가 된다.

여기 지명은 여기가 원래요. 에- 비산비야(非山非野)라고 그러나? 비산비야. ‘비산은 산도 아니요, 비야 들판도 아니다’ 그래요. [조사자 : 아- 예] 그래서 여기는 부락이 형성될 만한 지역이 못 돼요. 그제 왜 그러냐면 당신네 보다시피 저 제방 있지요? 저 제방. 그러니깐 배집터. 배예요. 배집터. 왜 배집터냐면 여기가 ‘배에서 짐을 내리는 터’ 다. 그제 여기야. [조사자 : 여기 향산리가요?] 아니 향산리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앉은 데가. 그리고 여기 배댕이라는 데는 “배 대는 데이다.” 그것이, 지금 내가 비산비야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데, 이쪽이 또 그냥 뽕냐. 야(野)도 아니고 물이 들랑달랑허구 사람 살 곳이 못 되니깐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니다 이거야.

그제 지금 현재 이 한강 제방에 차가는 갓을 보셨지만 저 차 가는데 요기가 한강이에요.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손으로 가리켰다.) 고짜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여기 깔탕밭 많은데, 요리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골짜기야. 골짜구니 [청중 :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쪽에 가서 옷 벗고 수영을 했으니깐.] 한강 골짜구니예요. [조사자 : 예.] 그러니 말 다 했지.

지금 고양군지를 보면은 이쪽 동네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면 ‘동녘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고양시청이 여기 있는데 이 서쪽에 가 있는데, 이거 동쪽은 이쪽이지 왜 이쪽을 가지고 동녘뽕이라고 그러느냐. 이게 김포땅이에요. [조사자 : 아-예.] 그래, 동녘뽕 여기를 맨드는 건데 김포에서 동녘이지. 이쪽이나간. [청중 : 행정구역 상 자기네 들이 많겠다 이거지.] 그래 제방을 막고 보니깐 제방 저기도 막았던 말이야. 이번엔 몇 해 전에 터졌던 그 방이, 제방이 막

으니깐 자기네 땅이 되고 옥토가 됐지만은 옛날에는 그랬다.

그리구 또 우리 선조들이 동넙뻘에 가서 나무를 많이 해 왔어요. [조사자 : 예, 나무를요?] 예. 그리고 내 생전에도 그 동넙뻘에서 나무 해 온 갈대라던지 [청중 : 갈타이 많았어요.] 새라든지 새라는 건 새, 새꽃 아시죠. 새꽃 피는 거. 제주도에 하얗게 피는 새꽃. 그게 거기에 꼭 찼드렸어요.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그래 옛날에는 폐적을 쳐서 울타리도 허구, 벽, 지붕도 허구 그렇게 했거든요.

옛날에는 뭐 형편 없지 뭐. 그래 그렇게 살다가 제방을 막고 나니깐 인제 고양군과 김포군과 완전히 갈라지구. 이 쪽 제방을 또 막으니깐 김포도 농토가 이렇게 옥토가 이렇게 생겼구. 그래서 여기 향산리가 부락이 형성됐지. 내가 볼 적에는 우리 선조께서 여기 오신 지가 한? 삼 칠이 이십 일, 이백 십 년 허구 내가 한 칠십 먹었으니깐 약 250년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250년 전에 여기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봐지지요.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설화조사반, 《김포의 설화》, 김포문화원, 1999, pp. 209~210.)

• 서훈남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인조대왕(仁祖大王)은 강화(江華)를 향하여 피난을 떠났다. 그때 신하 한 사람이 급히 달려 와서 “큰일 났아옵니다. 적군(敵軍)의 선봉(先鋒)이 이미 홍제원(弘濟院)에 도달하고 그 부하 부대는 서남(西南)으로 남하하여 양천강(楊川江)을 건너서, 피난 길을 차단하고 있다 하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말에 왕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인조께서 말하기를 “어찌 했으면 좋단 말인가? 강화로 가는 길도 막혔으니, 어디로 가야할지 경들의 의견을 말해 보오.” 하고 초조한 빛이 었다. “황송한 말씀이오나 지금 경각에 달려 있는 행차이옵니다. 급하신대로 남한산성으로 거동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왕의 일행은 남한산성으로, 가기 위해서 구리개를 지나 시구문을 빠져, 일로(一路) 한강가에 이르렀다. 적군이 도성 근처에 이르렀다는 소문이 들리자, 왕을 수행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살길을 찾아 슬금 슬금 흩어져 버리고, 왕의 곁에는 몇 명 안 되는 신하들만이 남았다. 그러나 강을 건너 배가 없었다. 강을 건너야 할 텐데 배가 없으니 앞이 캄캄했다. 신하들은 배를 찾기 위하여 강기슭을 이리 저리 헤메었다. 그 중의 한 신하가 강 건너를 향하여 소리를 쳤지만,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이러할 때 어디서 구했는지 한 신하가 갈래 숲을 헤치고 조그마한 나룻배 한 척을 저어 왔다. “상감마마 배라고는 이것밖에 없아오니 어서 타시도록 하시옵소서.” 왕의 일행이 배위에 올랐다. 그러나 노를 저을 줄 아는 사람이 또한 없었다. 할 수 없이 신하 한 사람이 서투른 솜씨로, 노를 저어 강으로 나가니, 배는 기웃뚱 거리며 강 가운데로 들어 가더니,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아 강 하류 쪽으로 흘러 내려가기 시작했다. 배안에서도 불안한 시간이 흘렀으나 필사의 힘을 다하여, 침착하게 노를 저어 간신히 맞은편 강가에 닿았다. 왕과 신하들은 깊은 한숨을 몰아 쉬

었다. 배에서 내린 일행은 어두워지는 길을 걸어서 한참 동안을 가다 보니 겨우 송파를 지났으며, 갑작스런 보행이라 더 이상 발을 뗄 수가 없어, 왕은 잠시 길섭에 주저앉고 말았다. 왕과 신하들은 다 같이 비통한 생각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신하 하나가 왕 앞에 나와서 등을 대고 엎히기를 전하니 왕은 마지 못해 신하의 등에 업혀 다시 길을 떠났다. 얼마를 갔을 때 길은 미끄럽고 어두워 지는데, 한참 숨을 헐떡이던 신하가 더 이상 왕을 업고 갈 수가 없어서 왕을 등에서 내려 놓았다. 갈 길은 아직 멀었다. 그리 먼 길은 아니어도 피난길이라 지루한 시간이었다. 또한 신하가 교대로 왕을 업고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등에 업혀서 왕은 겨우 남한산성 산기슭에 이르렀다. 그러나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 왕은 물론이요, 왕을 모시고 온 신하들도 모두 지쳐서 기진맥진하여 그대로 눈 위에 주저앉고 있는 참이었다. 이때 마침 나무를 한 짐 잔뜩 지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건장한 몸집에 순박한 농민으로 보였으며 일행 앞에 이르러서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웬 사람들이냐.”고 아무 생각 없이 물었다. “나라 상감마마의 행차라.”고 한 신하가 위엄있게 대답했으나 여전히 아무 것도 모르는 모양으로 그대로 서서 천연스럽게 다시 묻는 것이었다.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데서 뭇들을 하시나요.” 했다. “엎드려 말하라! 무험한 백성이구나.” 한 신하가 고함을 치자 왕이 기운 없는 어조로 그냥 놔두라고 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나무꾼에게 말을 했다. “지금 상감마마께서는 국난(國難)을 당하시어 피난길에 오르셨는데 시종(侍從)과 말을 다 떨구고 걸어 오시자니 귀하신 옥체(玉體)가 추위와 피로에 지치시어, 이렇게 더 못 가시고 앉아 계시는 것이다.”라고 하니 그제서야 그 나무꾼은 알아 들은 듯 엎드려 사죄한 다음 “어디까지 가시는지 소인이 업어 드릴까요?”하고는 지계를 벗어 던지고 다짜고짜 아무런 대꾸도 듣지 않고 왕을 업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곧 이어 눈길을 헤치고 산을 기어 오르기 시작하여 가끔 쉬어 가면서 왕을 업은 그는 별로 힘들지 않는 듯이 어느덧 산성 안에 이르러 왕을 내려 놓는 것이다.

이 사나이는 산성 안에 살면서 나무를 해다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서혼남이라는 나무꾼이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철 가리지 않고 나무장사를 하는 순박한 그는 시국이야 어떻게 돌아 가든 무관심하고 오늘도 나무를 하고 내려 오다가 왕의 일행을 만난 것이며, 왕을 업고 산성까지 갔지만 오히려 뒤의 신하들이 겨울 날씨인데도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숨가빠 따랐던 것이다.

얼마 후에 편전을 마련한 왕은 그 나무꾼을 불렀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과인은 고생을 할 뻔했구나! 어디 사는 누구인가 말해 보라!” “네이, 소인은 아래 산 기슭에 사는 서혼남(徐欣男)이라는 나무꾼이 올시다.” “그대의 소원이 있다면 말해 보라.”왕의 갑작스런 말에 한참이나 눈을 껌뻑이며 서 있던 서혼남은 별로 소원이 없고 단지 왕이 입고 있는 금빛 찬란한 곤룡포(袞龍袍)가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주저했으나, 어려워 말고 말해보라는 왕의 재

차 독촉을 받고는,

“네 저 다름이 아니옵고 나랏님께서 입고 계시는 그 옷이 갖고 싶사옵니다.”했다. 우둔한 나무꾼인지라, 그 이상 생각이 나오질 않았고 감히 임금님의 곤룡포를 달라고 할만큼 무식한 사람이었다. 저런 무엄한 놈이 있나! 시립해 있던 신하와 군사들은 어이가 없었다. 왕은 “과인의 옷이 갖고 싶단 말이지. 그래 내 벗어 주마.”

그리고는 시종을 시켜서 입었던 곤룡포를 벗어서 하사(下賜)했다. 그 뒤로 서혼남은 평생을 두고, 이 옷을 고이 간직하고 살다가 병이 들어서 자리에 눕게 되자. 자식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죽거든 이 옷과 같이 함께 묻어다오.”하고 유언을 한 것이다. 그가 죽은 후 곤룡포를 시체와 함께 넣어서 산성 서남쪽에 있는 병풍산에 묻으니 나라에서는 생전의 그의 공을 찬양하여 별군관(別軍官)이라는 벼슬을 내리었다. 그 후부터 대소관원(大小官員)들이 그의 묘 앞을 지날 때에는 왕의 곤룡포를 존중하여 반드시 말에서 내려갔다고 전해 온다.

(경기도, 《풍속과 자연》, 1984, pp. 80~83.)

• 청백리와 여주목사

조선조 제14대 선조대에 청백리에 뽑힌 이희(李?)라는 대감이 있었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충했으니 목은(牧隱)에게는 6대손이요, 이조판서 종선의 5대손이요, 영중추원사 계전의 현손이요, 대사성 장(場)의 증손이요, 한성군 질(秩)의 손자며, 영의정 지란(芝蘭)의 둘째 아들이다. 벼슬은 병조판서 이조판서에 있었으며 복상(卜相·정승에 추천 되는 일)을 여덟 차례나 받았다. 평생을 빈(貧)하게 살았으며, 토지나 종의 수를 늘린 일이 없었고, 오직 청렴결백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지명백(伯)으로 다닐 때 가는 곳마다 선정비(善政碑)가 선 사람이었다.

그는 북원땅(지금의 원주) 간현(간재)이 고향이었는데, 나라에 공헌이 많고 정사에 바쁘다 보니 집에 간 지가 오래 되어, 마침 그 어머니가 병환이 위독한지라 선조께서는 특별로 휴가를 주어 어머니 병환을 돌봐 드리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경기감사, 강원감사에게 특별히 어명을 내려가는 길에 우대하라고 했던 것이다. 그의 호는 송와(松窩)라고도 했으며, 만년에는 간현(艮峴)에 산다고 해서 호를 간옹(艮翁)이라고도 했다. 경기감사는 여주목사에게 또한 즉각 명을 내렸다. 간옹께서는 어머니 병환을 돌보기 위하여 임금님의 특별 휴가를 맡고, 간현을 가게 되는데 한강의 수로를 이용하여 배편으로 갈 것이니 그리 알고 내일 오시(午時)경 여강 청심루 앞을 간옹대감의 행렬이 통과 할 때 그대는 한 치의 어김도 없이 기다렸다가 후히 대접하고, 여정을 편히 하여 드리도록 하라고 하니, 이러한 엄명을 맡은 여주목사는 아침부터 이방을 시켜 청심루 앞에서 여강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 대감의 행렬이 서쪽에서 보일 때 즉시 보고하도록 하였고, 행렬이 도착되면 크게 잔치를 벌려 위로해 드리도록 했으며, 이런 기회에 자기의 승진을 부탁하게 되면 일거양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친밀한 계획을 짰듯이 공언이 우쭐해

서 자기가 금방 출세라도 하는 기분이었다.

오시가 되었는데도 이방으로부터 아무런 보고가 안 오니 여주목사는 좌불안석(坐不安席) 서성거리다가 하는 수 없이 청심루로 나갔다. 행렬이 보이느냐고 독촉을 하고 웬일이냐고 걱정을 하면서 오시 미시(未時) 신시(申時)가 되어도 아무 기별이 없었다. 기다리다 못한 목사는 다시 청심루에 올라 내려다 보았으나 행렬은 보이지 않고 저쪽에서 조그만 어선 하나가 청심루 앞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 조그만 어선이 청심루 바로 앞을 통과 할 때 내려다 보니, 사공 하나에 초라한 차림의 장사꾼 같은 사람이 타고 있어, 오는 길에 행렬을 보았는지 이방을 시켜 물어 보도록 했다.

“여봐라 너희들 어디서 오고 있느냐.”

사공은 아무 말이 없고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서더니.

“예, 한양에 다녀오는 길이 외다.”

“그러면 오는 길에 혹시 대감의 행렬인듯 한 배를 못 보았느냐.”

“글쎄올시다. 그런 배는 보지 못 했오이다.”

그 말이 끝난 다음 목사와 이방은 걱정스런 태도였다. 무슨 사고라도 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육로로 가는 것을 공연히 수로만 기다리는 게 아닌가. 대감 행렬이 밤에 지나갈 리도 없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목사는 퇴청도 못하고 밤 늦도록 기다렸던 것이다. 것처럼 행색이 초라하고 수행원 하나 없어 조그만 배편으로 가는 이를 설마하니 누가 그 기다리고 있던 이 대감인 줄 알았으랴. 대감은 날이 저물어 신록사 앞에 배를 멈추고, 과객이라고 자칭하고, 중에게 하루밤 유해 가기를 청하여 구룡루에서 밤을 지내고 날이 새면서 다시 뱃길에 올랐다. 아침 일찍 일어난 사공은 중과 작별 인사를 주고 받는 말에서 무심코 이 대감이란 말이 튀어나와 중이 알아 챌 것이다. 중은 깜짝 놀라 아침식사 대접을 간청했으나 사양하고 배를 띄우니, 중은 할 수 없이 여주목사에게 급히 달려가 알리니, 목사는 부랴부랴 신록사(神勒寺)로 향했으나, 이미 배는 떠나 보이질 않았다. 목사는 낙심하고, 되돌아 가고 말았다. 대감이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지나간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것임에 틀림 없는 것이다.

비단 그는 이 번 여주를 통과하는 일뿐이 아니었다. 대감의 아들이 현감으로 있을 때 간구한 집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쌀 서 말을 보냈을 때 민폐의 하나라고 해서 아들을 현감직에서 퇴직시킨 일이 있었다. 또한 그는 어명을 받고 호남지방에 암행어사로 돌아다닐 때 무명에 물을 드린 도포를 입고 밤이슬과 비를 맞으며, 빨래조차 못해 입고 어사의 임무를 마치고, 귀향하는 길에 호남 땅을 벗어나 주막집에 들렀다. 막걸리 한 잔을 마시려 할 때 주모의 말이 손님의 도포는 치마저고리 한 벌을 해 입으면 좋겠다고 했으니 도포 하단은 물이 바래서 하얗게 되고 위로는 아직 분홍빛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희롱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었다. 아들 하나가 또한 지평현감(砥平縣監)으로 있을 때 임진왜란의 급보를 받고

간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이는 고개에서 검문을 받을 때였다. 신분을 숨기니 적이라는 바람에 구속되어 현으로 잡혀 갔다. 현감인 아들은 백배사례하고 초병을 호통을 치니 내가 신분을 밝히지 않은게 잘못이니 그 초병은 오히려 공무에 충실하였으므로 상을 내리도록 하라 하였다.

이 대감의 생활은 항상 기구하였다. 한때는 이조판서의 발령을 받고 말을 타고 종로를 통과 해 갈 때, 말을 잘 거두지 못한 처지라 말이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 이조판서의 취임 행렬을 위하여 길을 통제하던 군병들이 그가 바로 취임하는 판서인지도 모르고 길 비키라고 호통을 해서 훗날 혹 거리에서 말이 쓰러지면 “이 대감의 말인가 어찌 쓰러지느냐.” 하는 등 청렴에 대한 많은 일화를 남긴 대감이라 한다.

(경기도, 《풍속과 자연》, 1984, pp. 108~110.)

• 선돌이(손돌이) 추위

〈개요〉 (1) 어느 임금님이 난을 당해 목선을 타고 피신을 간다. (2) 임금님 일행이 선돌목 근처에 오니 앞이 막혀 전혀 갈 수가 없었다고 한다. (3) 임금님은 뱃사공인 선돌이가 자기를 죽이려는 줄 알고 오해를 한다. (4) 선돌이는 바가지를 띄워 그것이 가는 데로 따라 가라고 하였으나, 임금님은 그를 죽인다. (5) 띄워 놓은 바가지를 따라 가 길을 찾은 임금님은 선돌이를 죽인 것을 후회하게 된다. (6) 선돌이가 죽은 날이 시월 스무 날인데, 매년 그 날은 ‘선돌이 추위’ 라고 해서 매우 추웠다고 한다.

어떤 임금님이 인제 그 서울에선 난을 당해서 피신을 하시는데, 목선으로 그때는 목선으로다가 인제 서울서 인제 서울 마포 그 쪽에서 한강에서 여기까지 다 통하는 뚝시키거든. 수로, 그 인제 배 타구 올 수 있는 길이거든. 그런데 인제 거길 오는데 선돌목 근처에 오니까는 앞이 꼭 막힌 거 걸구, 이렇게 정면에서 보니까 산이 꼭 막히구, 막다른 골목이 됐단 말야. 그러니까는, “아, 여기…….”

그 그 놈 그 인제 배 부리는 뱃사공보구, 뱃사공보구,

“너 여기 날 속일려구 이리 데리구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아닙니다. 조기 가면은 이렇게 길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암만 봐두 고 앞을 보니까, 인제 배 타구 오다 보니까 앞이 꼭 막혔단 말야. 거 막다른 골목에 왔으니까,

“게 저 놈이 흑심을 먹구, 인제 날 거시기 할려구 그러나부다구.”

게 인제 지나가보구나 죽여두 급하지 않은 건데 [청중 : 그럼.] 게 그 놈을 죽일려구 하니까는

그래 인제 선돌공이 선돌이가 뭐라구 그러냐면은,

“그러면은 제 말을 안 들으시며는 제가 바가지를 하나 띄워 놓을 테니 이거 가는 데루만 따라가시면은 인제 될 테니까, 그리해서 잘 가시라구.”

그래, 그러는데두 그걸 그 사람을 죽였어요. 죽여서 그 인제 선돌목이라는데 거기다가 거기 시신을 두구 갔게(갓기에) 거기다 묻었지. [청중 : 그렇지요.] 게 거길 가 보면은 그 앞에서 뺨(배를) 타구 오면, 여기가 앞에서 콕 맥힌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근데 인제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리 돌아 나가는 강이 이렇게 돌아 나가는데 앞에서 보면 그냥 콕 맥힌 것처럼 돼 있는데, 거길 가 보면은 물이 핏팅 도는데 배질을 잘못하는 사람은 거기 가서 그냥 [조사자 : 소용돌이요?] 응, 소용돌이가 있어서 헤어나질 못 하구 현다고 그랬는데, 게 그 사람 그 후에 그 사람 죽인 거를 임금님이 후회하구 그래 인제 거시기 했는데, 그 후서부텀 그 사람 죽인 날이 시월, 음력으루 시월 스무 날인데, 시월 스무 날인데 매년 그때는 그렇게 춥대요. 그래서 선돌이 추위라구 여기서는 그래거든. 시월 스무 날께 추운 날은 선돌이, ‘선돌이 추위’ 한다구. 그래 인제 이 근년(가까운 해)에는 산소두 다 개축하구 거시기 해 가지구 매년 시월 스무 날이면은 이 지방 사람들이 가서 지사(제사)두 지내. 거시기 문화재에서 아마 보조두 조금 주나 봐. 그전에 아주 시월 스무 날께면 ‘선돌이 추위’ 라구 으레 추웠드랬지. [조사자 : 예.] 그래 그전에는 그냥 그 뺨사공을 하인들만 했거든. 양반들은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선돌이, 선돌이 그랬는데, 아 - 인제는 아주 비석에도 선돌공이라고 충신이라고. 그런 충신을 몰르구 거시기 했으니까 선돌공이라구. 아주 비석에도 그렇게 써 있다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설화조사반, 《김포의 설화》, 김포문화원, 1999, pp. 240~241.)

4) 남한강의 민요

(1) 아라리의 시원과 종착

아리랑은 산과 강, 그리고 들이 만든 노래다. 이렇게 볼 때 <정선아리랑>나 <영월아리랑> · <인제아리랑> · <여주아리랑> · <양평아리랑>은 강이 만든 한강수타령의 시원이요 산촌아리랑과 강촌아리랑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정선아라리>의 종착지는 서울의 노들나루까지이다. <정선아라리>는 주로 뗏목꾼들이나 보부상 등에 의해 충청북도의 <중원아리랑>을 배태하게 하였고, 최종 전파의 귀착지를 노들나루에 두었다. 이는 때를 부리는 장소가 대개 송파나 마포가 아닌 노들나루였기 때문이다.

한강은 큰 가람었기에 물살이 세어 인명 피해가 많았다. 자연의 피해도 피해러니와 인패도 만만치 않았으니, <한강원가 漢江怨歌>에 대한 이규태의 글은 저간의 사정을 잘 말해 주고 있다.

한강(漢江)을 오르 내리던 뗏꾼들에게 주교폐(舟橋幣)라는 것이 있었다. 임금의 도강(渡江)을 위해 임시로 주교(舟橋)를 만들 때는 이 근방은 아무도 얼씬할 수 없었다. 때 건, 곡식이건, 무엇이건 다 멀리 쫓아 버렸다. 이때 뗏꾼들은 한 푼의 ‘공가’도 받지 못하는 엄청난 수폐(受幣)였기 때문에 그 아픈 심사를 원가(怨歌)로 표출하였던 것이다.

세종(世宗)조 때 능(陵) 참배 등으로 왕이 도강해야 할 때는 배다리(舟橋)를 놓는데 이 때는 어떤 배든 징발을 당하였다. 왕실(王室)에서 강을 건널 때는 삼군장수(三軍將帥)가 이편 저편에서 열을 지어 서 있고, 각(角)과 북을 호응 취주(吹奏)하는 가운데 좌군(左軍)의 구운(九運)이 선행(先行)을 맡고, 중군(中軍)의 십칠운(十七運)이 그 뒤를 받치고, 그 뒤를 어가가 행차하였다. 그리고 우군(右軍)의 삼운(三運)이 후미(後尾)를 맡는 주교도강(舟橋渡江)을 하였다. 연산군(燕山君)은 시흥(始興) 청계산(淸溪山) 사냥에 말 너댓 마리 건너 가는 데도 이 주교를 놓도록 하명하였던 것이다.

왕의 행차에는 대개 민간선(民間船) 8백여 척이 징발되었다. 이 주교를 완성시키는 데는 20여 일이 걸렸다. 그 동안 경(京)을 중심으로 한 한강(漢江)의 수운(水運)은 두절될 수밖에 없었다.

다음에 소개하는 노래의 가사는 이 같은 주교폐(舟橋幣)로 인해 생겨난 <한강원가 漢江怨歌>이다.

강원도 뗏목장수
뗏목 뺏기고 울고 가고
전라도 알곡장수
통배 뺏기고 울고 가면
마포 객주 밭 뺏고 울고
노나루 색주가 머리 잘라 판다 78)

주교폐(舟橋幣)가 얼마나 크고 심했는가를 익히 알게 해 준다. 세종은 주교폐의 뗏뗏

하지 못함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배다리는 어지럽다.”는 구실로 한강 건너기를 애써 피하곤 하였다.

세종이 붕어(崩御)하여 영릉(英陵)으로 이장될 때 주교를 놓고 한강을 건너 가는 도중 비가 내려 대련(大輦)이 흠뻑 젖어 버렸다. 어지러운 황천길에 죽어서까지 백성을 아끼시는 인자한 비라고 뱃사람들이 말했다.

이 가사 중 노나루는 다름 아닌 노량진나루를 뜻한다. 노량진나루 근처에는 광복 전 까지만 해도 배 만드는 곳이 있었고 아직도 조선왕조 후기의 비사를 아는 이들이 꽤나 있다.

강원도 뗏꾼들은 떼를 타고 오는 도중 이포나루나 목계나루의 주먹패나 들병장수, 창녀들에게 돈을 뜯기면서 강을 내려온다.

• 정선의 뗏목소리

〈떼타는소리〉

황새여울 된꼬까리 떼 지워놓게
만지산 전산옥이 술판 차려놓게
미창아리랑 서창영월아 술한잔 부어라
물명주 돈지갑에 돈 쏟아진다

(가창자 : 최봉출, 남, 83세, 정선군 남면 무릉리 멀미아파트, 2001, 6.21)

〈뗏목노래〉

…… (전략) ……

한강변에다 떼를 대니 잡놈이 많아 무슨 잡놈이나
돈 뜯는 잡놈 그때 허시허시
우리 누구려나 십원짜리라면 백원짜리 십원이라
윤통화 사실 적에 우리는 우리가 꼬실려나
시화연풍 국태이나 요런 동글동글한 나무타곤

(가창자 : 최종명, 남, 54세, 정선읍 덕송리 다래마을, 1997, 11.11)

〈영월가는소리(떼타는소리)〉

에 황새여울 된꼬까리야 떼 무사이 지웠네 에에에에
만지나 전산옥이는 술판 차려 놓아라

에 제남 문 제작은 앞사공이 하아아고오오
아가씨 중등 제작은 거 누가 하는가

(가창자 : 송만옥, 남, 1906년생, 정선군 북면 여량리 갈금마을, 1997, 11, 11)

• 춘천의 뗏목소리

〈뗏목아리랑〉

도짓거리 갈보야 어서 술 걸러라
귀내기 여울에 떼 내려온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루 나를 넘겨주게

춘천아 봉의산아 너 잘있거라
소양강 배터이 하직이로구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루 나를 넘겨만 주소

(가창자 : 김상운, 남, 1917, 춘천시 신북읍 천전3리, 1994, 4, 17)

강은 풍요와 길조 등 여러 상징성을 안고 있지만 ‘부정’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 오기도 한다. 강이 여성적인 이미지와 연결되어 남성적인 의지를 꺾는 부정한 유혹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하이네(Heine, H.)의 노래집 ‘로렐라이’, 괴테(Goethe, J. W.)의 발라드 중의 ‘시페르’가 그것이다.

산촌을 벗어나 강촌의 물길 따라 뚝섬까지 내려가는 뗏군의 근원정서는 차안과 피안의 세계만큼이나 거리가 멀다.

인간적 욕망의 흐름이 강물처럼 일렁일 때면 때로는 늘 나루마다 기다리는 들병장수 아줌마도 그림고 일상을 일탈한 세계에 빠져보고 싶기도 한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이포나루·목계나루는 들병장수들의 유혹이 대단한 장소였다고 한다. 나룻가의 낭만적 삶에 대한 연구가 실상 우리 민속학계에서 거론된 적이 없다. 그러나 꼭 연구되어야 할 민속학계 과제 중의 하나라고 믿는다. 중국의 양자강 유역에는 뗏군이 내려 오면 뗏군을 위해 보름 내지 한 달 간 강가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양보해 주고 약식 부부계약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다. 물론 돈을 빼내기 위한 생존전략이라 하겠지만 참담한 삶의 현장이기도 하다. 한국의 뗏군은 별이나 그 규모가 작아 들병아줌마와의 사랑은 한탕 낭만쯤으로 끝나야 했다.

“사랑은 강물처럼 흘러가 버렸다.”라고 미라보다리를 통해 아폴리네르(Apollinaire, G)가 읊었듯이 우리네 뗏군들도 잘 하면 고무신 켜레를 장만할 수 있었고, 못 하면 호된 외도의 뗏가로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 고향으로 도라 갈 수밖에 없었다.

다음의 〈인제 뗏목소리〉 속에서 우리는 뗏길 곳곳의 험난한 못과 여울, 다리밧들, 그리고 뗏군들의 애환과 종교적 심성 등을 잘 살필 수 있다.

〈인제 뗏목소리〉⁷⁹⁾

인제골 합강정 양소 앞에서 뿔 뗏소
귀암 여덟 치올라 가니 뒷다리가 떨리네
귀암 여덟 지나니 신라오가 당해
신라오 당하니 겁이 뚝뚝난다
그 아래 뚝떨어지니 비틀이가 당해
비틀이 산고개 술뵈나라
비틀에 뚝떨어지니 황소못에 당해

황소못 앞에다 술뵈나라
황소못 뚝떨어지니 이막손이 당해
이막손 앞에다 술뵈나라
이막손으로 뚝 떨어지니 까치여울이 당해
까치여울 앞에다 술뵈나라
까치여울은 뚝 떨어지니 화리가 당하네
화리 앞에다 술뵈나라
모래야무지 같으면 우리가 당한다
화리로 뚝 떨어지니 재여울에 당해
재여울에 새순무지 달리가자

79) 이창식, 〈뗏목 관련 민요의 실상과 활성화 방안〉, 《한국민요학》 8집, 민요학회, 2000, pp. 182~183

재여울을 뚝 떨어지니 배소귀리가 당해
 배소귀리 뚝 떨어지니 송산파리가 나온다
 송산파리에 뚝 떨어지니 거무여울이 나오네
 거무여울 그 아래는 개여울이 나온다
 송산파리여 다 지내가니 어디메나 하니
 춘천에 우두구하고 아우구가 나온다
 우두구하고 밑에는 어디가 나오나
 뒤희루 앞에야 모새여울 나온다
 모새여울 뚝 떨어지니 소양강 다리밧이요
 소양강 다리밧에는 봉어여울이 나온다
 소양강 아래서 절별을 하니
 돌아놓고 생각하니 황새여울 무서워
 황새여울 뚝 떨어지니 차돌맹이가 무서워
 차돌맹이가 뚝 떨어지니 양수리 다리빨이야 정말 무서워
 양수리 다리빨 밑을 떨어지니 석정바우로다
 석정바우를 뚝 떨어지니 어디가 당해
 우미네 광나루 다리빨을 뚝 떨어지니
 그 마을에 내려가니 천양산양소라
 그 소를 다 지내니 어디메가 당도하나
 뚝섬을 들어가니 마지막이로다

물길 따라 가는 길이라지만 <정선아라리> 가락처럼 가사 위에 붙이는 후렴은 사뭇 달리 표현되고 있다. <정선아라리> 후렴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고개고개로) 넘어간다

라고 표현하여 유유자적한 소리로 넘쳐난다. 물론 <인제아리랑>에도 이 같은 표현은 나타나지만 <인제아리랑>은,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라고 노래하여 벌써부터 물길의 험난한 정황을 미리 예고하고 있다. 이때의 ‘쓰리쓰리’는 험난하고 쓰라린 물길의 역정을 암유하고 있다.

합강정 양소에서 출발하여, 귀암 - 신라오 - 비틀이 - 황소못 - 이막손 - 까치여울 - 화리 - 재여울 - 배소귀리 - 송산파리 - 거물여울 - 우두구 - 아우구 - 뒤희루 - 소양강 다리밑 - 황새여울 - 차돌맹이 - 양수리 다리빨 - 석정바우 - 광나루 다리빨 - 천양산 양소 - 뚝섬에 이르면 뗏목질이 일단 끝난다.

서울까지 가는 도중 비틀이 산고개에 술 부어 놓고 산치성을 드려야 했고, 황소못과 이막손, 까치여울, 화리에서 용왕제를 지냈음을 내용상 알 수 있다.

술을 부어 놓고 산치성과 용신제를 드리는 이유는 과거 이곳에서 변고가 생겼거나 영험한 산신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용신과 산신 숭배사상을 이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정선아라리〉가 ‘산촌아리랑’ 이라면 〈인제아리랑〉은 ‘강촌아리랑’이라는 점이 상호 준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아라리의 창법과 현장

강의 속성은 굽이쳐 흐르는 데 있다. 강물이 굽이쳐 흐르듯 남한강 민요의 역사도 수 세기를 걸쳐 변화와 굴절을 계속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강원도 민요’ 하면 동강과 서강의 두 줄기 강 문화가 만들어 놓은 ‘아라리’를 연상하게 된다.

우리 민족은 동쪽을 남성으로 서쪽은 여성으로 상징하여 삶의 체계나 놀이 체계를 이해하고 있다. 그리하여 동강은 남성적인 강이요, 서강은 여성적인 강의 이미지로 다가오게 된다. 동강은 흔히 물길이 험하여 숫강, 곧 신랑에 비유하고, 서강은 암강, 곧, 신부에 비유하기도 한다. 물굽이의 꺾임과 휘어짐에 있어서는 동강보다 서강이 훨씬 사납지만 흘러가는 웅장함은 가히 동강이 남성적이다.

서강은 윗줄기인 영월 주천강과 평창강을 에돌아 흘러 온다. 본디 주천강은 영월 수주면과 주천면을 품에 안듯 에돌아 돌면 웅정리에서 평창강과 만나고 서강과 한몸이 된다. 또 평창강은 주천면 판운리를 가로 질러서며 웅정리를 또아리처럼 휘돌아 주천

강과 몸을 섞은 뒤 비로소 서강이 된다. 이렇게 웅정리에서 합수된 물길은 다시 동남 쪽으로 길을 틀어 청령포를 감아안듯 흘러 이윽고 하송리에서 동강을 만나 남한강이라는 큰 가람을 이루게 된다.

한강은 크게 남한강과 북한강으로 나뉜다. 이곳에서는 충청북도까지 뻗어 내려간 아라리 문화의 전파과정과 아라리조의 목(目)과 성(聲), 그리고 강 문화와 아라리와의 접변현상(接變現象)과 굴절현상(屈折現象) 등을 추적해 보고, 현장조사를 통해 살핀 아라리조의 실체를 살펴 볼까 한다.

신라시대 가집(歌集)인 《삼대목 三代目》은 이름만 전할 뿐 가집 속의 가사는 물론 이려니와 '목(目)'이라는 단어조차도 학계에서 구명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필자는 '목'에 관심이 많아 고 장사훈 선생께 여쭙 본 일도 있었지만 국악계에서도 해명되지 않았노라는 답변이었다. 그러나 우견(愚見)으로는 '목(目)'은 한문을 차용한 것일 뿐 감정이나 정서가 흐르는 모습(樣態)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한다.

필자 소장본인 죽포(竹圃)의 《시조창법교본 時調唱法敎本》에 보면 분노목, 구성목, 탄목, 조림목, 허기목, 기목, 호령목 등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들을 '칠종공성목(七種功聲目)'이라 하였다.⁸⁰⁾ 시조를 어느 상황에서는 어떻게 불러야 하고, 또 어느 상황에서는 어떻게 불러야 한다고 하는 시조 창법의 상황인식을 지목하고 있다.

이로 볼 때 강원도 민요도 상황에 따른 민요, 상황에 따른 개사(改詞), 상황에 따른 굴절(屈折)의 역사가 있었음을 인식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올라가 아라리 역사의 효시를 잡는다면 삼국시대 박혁거세 부인 '알렷부인설'이나 그 이전의 '낙랑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알렷부인설'부터 잡는다면 치더라도 아라리의 굴절사는 삼국시대까지 소급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통시적인 면으로 볼 때 크게 삼국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근·현대라고 하는 네 차례의 굴절사를 겪었다 할 것이다.

'신'을 의미하던 '알(아리)'이 시대를 격하면서 위대한 '치자(治者)'를 의미하기도 했고, 인격을 뛰어 넘어 한국인이 원했던 '이상향'을 뜻하기도 했으며, 개인적으로 자기를 보호해 주는 '부적'의 의미로 변하기도 했고, 노래마다 첨가하는 후렴구의 대용으로도 변용되기도 했다.

필자가 영월에서 만난 고 엄기복 옹의 아라리관을 〈영월읍 설화〉를 통해 살펴 보기로 한다.

• 꽃감 대접 받고 부른 아라리(정선아라리 창법)

저 영월 하동을 가면 그 영감이 권 영감이라. 외로와 그 택호가 상촌인데 권상촌, 권상촌 영감이, 이 영감이 참, 인제 참 우스운 영감인데 그래 저 영감이 저 영남으로 소천 저 인제 예, 영주 일러루 인제 늘 택에짐을 많이 저요. 택에짐을 많이 지는데 [조사자 : 뭐라고요?] 택에짐. 짐을 장사꾼들이 이제 짐을 지고 장에 장까지 내다 주고 이래는 영감인데 [조사자 : 그걸 뭐라고 그 래요?] 택에라고 그래. 택에 지고 간다, 택에. [조사자 : 택에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해 지기 전에 지고 가서 이제 돈 받고 이제 저다 주고 이래는데 [조사자 : 그걸 택에짐?] 택에꾼이 라고. [조사자 : 택에꾼.] 이 분이 모룩이라는 델, 데 가서 떡 자게 된다. 여기서 인제 채 넘어 가 면 고돌령이니 여길 넘어 가면 자게 되는데 아, 그 친구들에게 장사꾼들이 수십 명이 모이고 이 래니 아, 저 영감이 아주 '정선 아라리' (아리랑)를 잘 한다고 그러니 그 영감 아라리 좀 들어 보 자구.

“자, 영감 아라리를 좀 하시오.”

하니 생전 하는가 안 하지. 안 하니 아,

“그래면 꼬감(꽃감)을 한 점 사줄 테니 아라리를 좀 하라.”고.

“그럼 사 주면 하지.”

꼬감을 한 점 사서 이제 한 뒤(두) 꼬지 주고 츠(저) 농고(나누어) 먹고 이래구 한 번 하라 이래 니 꼬감 먹구 인제 아라리를 내 놓네. 내 논(놓은) 기 고만 얼마나 잘 하는지 듣기가 싫어서 고만 하란다, 고만.

“고만 하게, 고만 하게.”

자꾸 내 놓아[일동 : 웃음] 자꾸 내 놓아. 자꾸 내 놓으니 한 사람이,

“아, 이제 꼬감을 한 점 사줄 게이니 고만 하지 말라.”고.

그래, 꼬감을 한 점 사준다고 한 점 사주고 또 하지 말라고 한 점 사주고 이런 일이 있어. 이 참, 우습지. 입이 빠죽한 기 앉아서 그 참 남어(남의) 놀림감이 되구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 아라리 로 여 정선 가서 나도 좀 그건 젊어서 봤는데 참 잘하는 이가 있고, 요새 여 지금 서울에서 뭐, 정 선 강원도 아라리니 뭐니 나오는 거, 그 성대는 좋아요, 성대는 좋으나 가사가 그전에 이 혼몽 정 선 지방 하는 그 분들과 아라리가 달라요. [조사자 : 그 좀 해 주세요. 지금 잠깐만.] 그래, 정선 아라리 혼몽으로 하는 걸 보면 그 참 슬프고 또 신음 성조가 있고 이제 탁성이 있고 또 인제 예, 애원성이 있고 슬피하는 것이 또 신음성으로 남이 듣기 좋게 또 탁성으로 또 길게 하는 것 [조사 자 : 탄성으로, 그건 어떻게 달라요?] 탁성은 인제 참 장난꾼에 오입쟁이 소리로 이기 나오고, 신 음성이라는 거는 보통 참 이제 남 듣기도 시원하게 이런 것도 있고, 애원성이라는 건 슬프게 하 는 것이 인제 신음성인데 이 '정선 아라리', '정선 아라리' 도 이 들어 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지. 요새, 요새 하는 거 보면 참 잘 해요. 성대는 좋단 말이야. 그 뭐 잘 하는 때도 있고 정

선서 나오는 것 보면 그 참 어떤 건 참, 제대로 그런대로 잘 하는 패가 많이 있지. [조사자 : 그러면 아무 대목이나 좀 해 주세요.] 예헤, 자,

[노래] 이십영천에 곰새새리는
 곳곳이 나고
 모춘삼월 호시절은
 피리소리로 가네
 노다가 노랑묵새는
 내가 담당하지
 우남한 열두 절답이
 좋기만 하네

[말로] 이게 '정선 아라리' 인데, 인제는 나이 많고 숨이 차고 해서 이렇게 인제 됩니다.

[조사자 : 지금 할아버지가 해 주신 게 신음성이예요, 애원성이예요?]

이게 애원성이지.

[조사자 : 그러면 저 신음성으로 좀 해 주세요.]

[노래] 만경창파에 둥둥뜨는 저배야
 거기잠깐 머물러라 말물어보자

[말로] 이게 신음성이고 요 먼저 한 것은 애원성 이게 다음에는 탁성이라는 거는 이젠 술 먹고 ...

[노래] 노자노자 늪시다 젊어서 노자
 늪구서 병이들면 못노나니

[말로] 이기 인제 보통 인제 탁성이라. 이것도 여러 가지로 나가는데 그 인제 그 고조가 요새 하는 건 자꾸 늘어지기만 늘어지고 성대를 이걸 인제 성대만 자꾸 이제 올리지. 곡이라는 것이 지끔도(지금도) 곡대로 하기는 하나 지금 인제 그전 혼몽과 이기 조금 다르다 이 말이야.

[조사자 : 혼몽이 뭐예요?]

혼몽은 정선 가면 정선 참, 원 지방 본 조종에 아라리 제와 요샌 조금 다르더구만.

[노래] 신 장산 아라리는 구정선조로

[말로] 아주, 이제 슬프게 이게 거기 인제 궁굴마치 되어 가지고 한단 말이야.

[조사자 : 그런 노래 한 번 해 주세요.]

[노래] 신갈보 호려 내기가 망맞었네

[말로] 이러게(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신갈보 호리기가 망맞었던 말이야.

[조사자 : 신갈보 호리기가 망맞었다, 맞었다가 무슨 뜻이에요?]

신갈보 호리기가 마치 맞다라는 말이야.

[조사자 : 됐어요. 계속 그런 것 불러 주세요.]

[노래] 당신도 양심이 있거든

내얼굴을 좀봐요

포근포근 하든 얼굴이

철골이 됐네

[조사자 : 철골이 뭐예요?]

철골이 '뼈가 녹는다.'는 말이야.

[노래] 유정무정은 사귄 탓이요

정들고 못하는 거는

너하구 나하구라

[조사자 : 계속해서 가사 같은 것 말이죠, 해 주세요.]

젊은 사람들이 무슨 미친 영감이라 하겠다. 우리도 젊어서 곧 잘 뭐, 이래 놀았는데.

[노래] 한치 뒷동산 곧드레딱죽이

님에 맛만 같으면

고것만 뜯어 먹어도

올봄 살어나지

[이제 고만 하자 했으나 조사자가 자꾸 졸라서 다시 노래를 시작한다.]

[노래] 강산은 불변 재봉춘이요(江山不變再逢春)

임은 일간 무소식이다

[조사자 : 아, 한문 노래 계속해 주세요.]

[노래] 강초일일이 환추생하니(江草日日喚愁生) 81)

강물만 푸르러도
그대 생각이라

모른 동창에 신작로 난거는
천기 운기로 낳건만
오늘 저녁에
이렇게 모인건
천생연분 아니냐

모른 동창 그 아주 그 산중에 험하기 짝이 없는데, 신작로 난 거는 천지운기 신작로 날 때가 아니다. 모른 동창이라는 데가 정선에 있데, 신작로 난 거는 천지운기로 낳지만, 오늘 저녁 친구들이 모인 것은 천생연분이야.

(덕포 10리, 1983. 5. 25, 엄기복, 남. · 73) 82)

상기 제보자 엄기복 옹은 필자가 강원도에서 만난 최고 양질의 이야기를 들려 준 설화 구연자다. 오후 2시경 방문하여 다음날 3시까지 지칠 줄 모르고 이야기를 들려 주었던 분이다. 구연자보다 조사자의 권유로 후일을 기약하고 그분 댁을 나왔으나 그것이 마지막일 줄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엄 옹 자신이 자랑스레 언급해 주었듯이 젊었을 때는 정선에서 하룻밤에 두 여인을 유혹하여 사랑을 해 보았다는 풍류인이었다. 한마디로 팔도를 돌아다닌 오입장이었기에 그토록 많은 무형문화재급 설화를 구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가 제시해 준 ‘신음성’이나 ‘애원성’, ‘탁성’이라는 ‘성’이라는 용어도 기생방에서 좇아들은 말이라고 한다.

아라리에서의 ‘성’이란 말은 강원도 향토색이 깃든 용어로 시조창에서의 ‘목’에 가깝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점을 아라리 목과 시조창에서 찾게 된다.

죽포(竹圃)는 시조창은 정음(正音)을 요하기 때문에 웅심화평(雄深和平)하여 황종일동(黃鐘一動)으로 해야 하며, 크게 꺼리는 성(聲) 7가지를 ‘대기칠성(大忌七聲)’이라 하여, 겁성(怯聲), 비성(鼻聲), 애원성(哀怨聲), 결령성(結鈴聲 · 노랑목), 요령성(撓鈴聲 · 물내자슴목), 아성(兒聲), 독서성(讀書聲)을 들었다.

애원성을 일러 “궁성(宮聲)에서 실(失)청 되어 간녀(姦女)의 슬픈 소리 같음.”이라고 해석하였는 바 현존 아라리조의 맛이 그것이 아닌가 한다. 엄 옹이 말한 신음성이란

겹성(怯聲)에 해당하는데 죽포는 다음과 같이 겹성을 해석하고 있다.

“한기(寒氣)가 나고 겹이 나서 떠는 소리.”

그렇다고 본다면 시조창에서 금기시했던 애원성과 겹성, 곧 신음성이 주로아라리에 원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아라리의 성목이 <여주아리랑>이나 <양평아리랑> 및 <중원아리랑>에 전파되었을 것으로 확신한다.

(3) 아라리의 접변과 굴절

충청북도에는 <중원성·중원아리랑>이라는 강원도 아라리계의 민요가 있다. ‘성(聲)’으로 볼 때 이 민요는 아라리와의 접변현상에 의한 ‘굴절민요’에 속한다.

마치 입사광선이 어느 경계면에서 굴절되어 굴절광선을 만들 듯이 도와 도 사이 또는 강과 강 사이에서 굴절민요가 발생한다.

강 문화의 연결 고리는 ‘나루’다. 나루를 통해 문화의 수수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충북 중원문화권과 강원도 아라리문화권의 연결 고리는 목계(木溪)나루가 담당하고 있다.

목계나루는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에 자리하고 있다. 목계(木溪)의 옛 지명은 ‘상계’였는데 그 뒤 ‘오목계’였다가 지금의 목계로 바뀌었다.

목계나루(木溪津)는 우리나라 5대 하항(河港)의 하나이다. 특히 영월과 제천 등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중원군에서는 가장 큰 동네였다. 충주시(舊 중원군) 엄정면(嚴政面) 목계리에서 가금면(可金面) 가흥리(可興里)로 건너 양성면(仰城面)을 지나 경기도 장호원(長湖院)으로 이어지던 나루터로, 과거에는 세미(稅米)를 운반하던 가흥창을 끼고 내륙 하항으로 성향을 이루었으나, 내륙교통의 발달 및 다리의 가설로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6·25 때만 해도 큰 항구도시였으나, 6·25 폭격과 그 후 홍수, 다리 가설 등으로 인하여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엄정면의 주요 농산물로는 쌀·보리·콩 기타 잡곡이 생산되며, 특용작물로 깨·담배를 많이 경작한다.

목계나루의 교역 물자는 서울에서 새우젓·조기·소금·미역·고등어·설탕·광목 등이 들어 오고, 목계에서는 쌀·보리·팥·콩·조·담배·고추·배·나무 등이 나갔다. 새우젓과 소금은 마포에서 싣고 왔으며, 한편 목계에서 곡물과 담배 등을 싣은 배는 서울 서빙고로 가고, 나무는 영월과 충주에서 목계로 들어오며, 떼(뗏목)에 실어

서 광나루로 가서 팔았다. 뗏목은 장마가 저서 물이 적절하게 있을 때 많이 내려간다고 한다. 목계에 들어온 물자는 영월·문경·단양·제천 등지로 나갔다. 이처럼 뗏목꾼들은 산업의 유통에 큰 기여를 해 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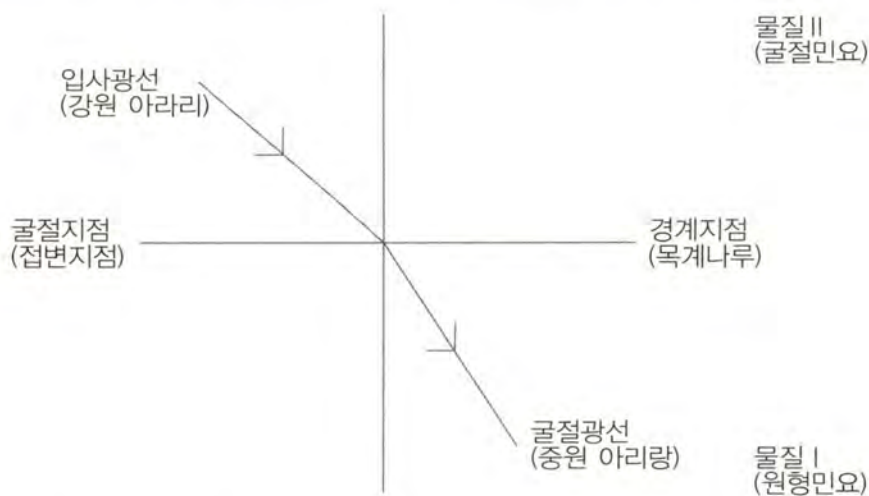
현재 목계나루는 부정기적인 시장이 열리고 있으나 옛날의 성황을 이루었던 모습은 찾을 수 없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목계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는 목계 줄다리기가 있고, 동제로는 서낭제가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별신굿을 벌였다. 또한 줄다리기 때는 부정기적인 난장이 크게 섰다.

목계의 지형은 풍수지리상 삼태기형에 속하므로 이곳에서 돈을 모아서 외지로 나가 쏘아야 잘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목계에서 돈을 벌면 부자가 되지만 그곳에 오래 거주하면 돈이 점점 사라지는 지세이다.

풍성한 물산의 집결지이고, 축제의 난장이 서는 곳에는 으레 풍류가 따르고 민요와 놀이가 수반되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충청북도의 <중원아리랑>은 다음과 같은 굴절도식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면 뗏목을 타고 내려온 뗏목꾼들은 과연 어디까지 갈까?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마지막으로 떼를 푸는 곳은 용산도 마포도 아닌 노들나루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강원도 정선·영월에서 내려오는 뗏목의 길이는 가장 긴 것은 100m가 넘는다. 뗏목이 들어올 때면 동네에서는 난장이 벌어지고 축제분위기에 휩싸이게 된다. 강원도 정선 사람들의 마지막 선착장은 바로 이곳 노량진의 '가칠목'이라는 동네다.

옛 노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옛날 여기가 사형장 자리(새남터)였고 그래서 죄인들이

한 번 들어와 가지고 그냥 간히니까 ‘가칠목’이라고 했다고 한다. 뗏목이 일단 내려오면 노량진 가칠목에 와 닿고 물건은 서울로 가져 가게 된다. 마포의 새우젓배를 만든 이들도 이 마을 사람들이었다.

뗏목꾼들은 시루떡을 해 놓고 뗏목 위에서 용왕제를 지냈으며, 이내 물건을 하역하고 나서 떼 풀기 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노들 용왕당 옆 가칠목 앞강에는 나루터가 있고 빨래터가 있었다. 일단 뗏목 위의 물건을 다 부리고 나서는 강 위에 떠 있는 뗏목을 풀어서 땅 위로 올려 놓아야만 한다. 이때 편을 짜서 चौ으로 감아 놓은 뗏목의 통나무를 하나씩 풀어 가지고 용왕당 옆에 있는 큰 나무까지 메고서 달리는 경주를 하였다. 그야말로 한국적 육상경기의 원초적 모습인 셈이다.

삿대는 도토리나무로 만들고 뗏목은 소나무나 낙엽송을 재료로 쓰기도 하나 주로 참나무로 만드는 게 원칙이다.

원래 한국의 육상경기는 서낭당에서 발생하였다. 최근까지의 민속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서낭당을 돈다든가 서낭수목을 도는 경기 내용을 간혹 발견할 수 있으나, 장애물 경기의 형식을 갖추고 힘을 요구하는 육상경기는 이곳 노량진에서 처음 발견된 셈이다. 과거에 뗏목을 풀어 달린 거리는 약 100m 정도가 되었는데 진흙 밭을 뛰었다고 이곳 김대길은 증언하였다. 또한 용왕당 옆에서 벌어진 달리기 경주라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⁸³⁾

노들나루를 중심으로 민요를 조사해 보았으나 중원아리랑과 같은 굴절민요는 찾을 길 없었다.

떼를 풀고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내 고무신 켜레나 사 가지고 귀향해야 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노래방(풍류방)을 전전할 신세가 못 된다. 귀착지로 향해해 오면서 목계·이포 등 곳곳의 들병장수들에게 털릴 대로 다 털려 신발 몇 켜레 건지기도 어려운 적이 많았다. 더군다나 〈노들강변〉 등 경기민요가 편을 치는 노들나루 민요권을 정선 아라리가 굴절민요화할 잠재력은 이미 쇠잔한 상태다.

(4) 아라리 발생과 상황

노자의 《도덕경》에 ‘상선약수(上善若水)’란 말이 나온다. “가장 좋은 선은 물과 같다.”는 뜻이다. 물의 기(氣)는 산의 기보다 강하다. 그리하여 물은 항시 산을 에돌아 휘

83) 김선봉·김이숙, 《동작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1994, pp. 920~921.

감으며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물의 집합이 강이지만 땅과 같이 모태의 구실을 담당해 왔으며 이 속에서 아라리는 발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수가 된 곳의 물살은 항상 뗏군들을 괴롭혔으니, 영월의 고 박영국 옹이 제공한 옛이야기를 들어보자.

• 오만냥바위 전설

그 금보연이가 동서가 합숙 거리에 도착했을 때, 머리 풀어 산발한 유령이 머리 속을 스쳐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신을 미처 못 차리는 동안에 물살을 헤치고 가니까, 바로 건너가면서 그 영월읍 갈교리 강 건너 마을에 돌풍진 봉우리가 있어요. 돌풍진 응, 산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부닥쳤어요. 그래 부닥치니까 앞서던 게 부닥치니까 뒤에 또 부닥치고, 부닥치고, 부닥치고 해서 배가 내려간 다섯 척이 파산돼. 파산을 해 버렸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그때 그 사람들은 해엄을 칠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해엄을 치고 나와서, 물건을 모두 망가졌긴했지만 사람들은 상하진 않았다. 그래서 오만냥바위라고 그런다.

그 이유는, 배 한 척에 그때 담배 값 조성진이 이런 거 합쳐서 만 냥을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배 다섯 척이 망가졌으니까 오만 냥을 소화할 바위다. 그래서, 그 바위를 오만냥바위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바위를 이제 물이 들어와 가지고 발전소가 들어섰죠. 지금 대단히 컸지만 그러한 이유가 없었죠. 전설인데 그것은 지금 한 칠십 년 전 얘기가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조사자 : 아,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제사를 또 지내고 그러니까. 그 뒤에 바꿨죠. 근데, 그런 전설만 제가 알고 나타나고, 그러니까 소문이 금봉이가 그렇죠. 금봉이라는 곳이 매년 사고가 나요. 거의 예전에 거기서 익사 사고가 나는데, '거기에는 처녀나 무슨 귀신이 있나 보다' 그래서 조심들 하죠. 그 매년에 한 번씩 사고가 나요. (영흥 5리, 1983. 5. 15, 박영국, 남·67.)⁸⁴⁾

이렇게 뗏목꾼들은 〈오만냥바위〉 전설을 만들며 살았고,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인정하여 용왕제와 성황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물 우헛 沙工과 물 알엿 沙工놈들이 三四月 田稅大同 실나 갈제

一千石 싣는 大中船을 작위 다하 쑤여내야 三色實果 멀이 ㄱ즌짓 ㄱ초와 필이 巫鼓를 동동
침여 五江 城隍之神과 南海龍王之神예 손 ㄱ초와 告祀호예 全羅道라 慶尙道라 蔚山밧아
羅州밧아 七山밧아 휘도라 安興목이라 孫夏목 江華스목 감돌아 들예 平盤에 물담듯시 萬頃
滄波를 가는듯 돌라요게 고스레 고스레 所望일게 호오쇼셔
어어라 어어라 저어 어어라 비석여라 至菊叢 南無阿彌陀佛

84) 김선봉, 《한국구비문학대계》 (2-8) 강원도 영월군편 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pp. 274~275

이상의 사실시조의 내용대로 흥겨운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소리에도 '나무아미타 불'이라는 기원문을 잊지 않고 있었다.

앞에서 필자는 멀리 정선·영월·평창으로부터 화천·춘천의 아라리가 충청북도 중원아리랑을 배태하게 한 동인(動因)임을 민속적 상황 중심으로 논증해 보았고, 필자의 현장조사보고서를 통해 아라리의 목(目)을 구명해 보기도 하였다.

중원아리랑은 강원도 원형아라리의 방계형으로 이를 명명하여 '굴절민요'라 하였다. 굴절민요의 초기단계는 한 문화권과 다른 문화권이 이어지는 접변지역, 곧 나루를 통해 발생한다.

그것도 축제라는 바람을 타고 더욱 활성화 되고 가속화 된다. 충청북도의 중원 아리랑은 분명 목계나루를 거쳐 그 일대의 들과 산으로 퍼져 갔던 것이다.

또 한가지는 아라리의 목[聲]에 대한 고찰이다. 강원도의 정선·화천·영월 등지에서 가창되고 있는 아라리의 목에 대한 말을 어느 누구도 언급한 바 없다.

기생방을 드나 들던 풍류 설화구연자 고 엄기복 옹은 '애원성', '신음성', '탁성'을 들었다. 강원도 아라리에서는 시조창에서 금기시했던 '대기칠성(大忌七聲)'에 해당하는 '애원성'과 '신음성'을 가창에 쓰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강원도 요언(謠諺)에,

인제 남박장사 양구 말꾼(馬夫)

화천 뗏꾼 춘천 월급쟁이

홍천 토박장사 정선 갈보

영월 담배장사 양양 머리치 장사

라는 노래가 전하는데 어째서 '정선 갈보'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5) 한강의 민요

한강은 옛부터 주요한 교통로로서 강을 끼고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한강과 나룻배에 관련된 민요가 널리 전해 오고 있다.

• 앞산 타령

나 너 — 니 나 노 에 — 에허에허 에헤야아
 에 — 어허어 어허 이어 허루 산이로구나
 과천 관악산 염불암은 연주대(戀主臺)요
 도봉(道峰) 불성(佛性) 삼막(三幕)으로 돌아든다
 에 — 어디히 이에 어허에헤에야
 에 — 허 에허 이어 어루 산이로구나
 단산봉황(丹山鳳凰)은 죽실(竹實)을 물고
 벽오동(碧梧桐) 속으로 넘나든다
 경상도 태백산은 상주(尙州) 낙동강이 둘러 있고
 전라도 지리산은 하동(河東)이라
 섬진강수(蟾津江水)로만 다 둘러 있다
 동불암(東佛岩) 서진관(西津寬) 남삼막(南三幕)은 북승가(北僧伽)요
 도봉(道峯) 망월(望月) 천축사(天竺寺)라
 해외소상강(海外瀟湘江) 일천리 너른 물에
 굽이 출렁 동정호(洞庭湖)로만 다 둘러 있다
 성(聖)절 덕(德)절 학림암(鶴林庵)을 구경하고
 화계사(華溪寺)로만 돌아든다
 탁자 앞에 앉은 노승 팔대장삼(長衫)을 펼쳐입고
 고부랑 곱빱 염불만 한다
 저 달아 보느냐 임 계신데
 명기(明氣)를 빌려라 나도 보자
 너 오는 길에 약수삼천리(藥水三千里)와 만리장성(萬里長城)이 둘렀더냐
 잠충(蠶叢) 어부후(魚彪後)에 촉도지난(蜀道之難)이 가리웠더냐
 팔도(八道)로 돌아 유산객(遊山客)이요
 여덟도(道) 명산(名山)이 경기(京畿) 삼각산(三角山)이라
 삼각산(三角山) 제일봉(第一峯)에 봉황(鳳凰)이 춤을 추고
 한강수 깊은물에 용마(龍馬) 하도(河圖) 낳단 말가

선소리는 처음부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정해지고 그 다음 소리를 받는 여러 사람으로
 갈린다. 어느 때고 소리를 메기는 것은 혼자며 받는 사람은 여럿이다. 그리고 후렴은
 다 함께 지른다.

여럿의 제창(齊唱)은 노래만 맞으면 되지만 요(要)는 소리를 주는 사람의 재주와 용모

와 나이였다. 여인이 없던 시절에는 얼굴 예쁜 소녀들이 소리를 주었다. 주름 잡힌 얼굴보다는 미목수려(眉目秀麗)한 소년이 한결 환하다. 그러나 역시 나이는 어려도 남자는 남자다.

〈앞산타령〉 사설에 있어서 과천(果川)을 노래할 적에는 과자(果字)를 떼어 버리고 그냥 ‘천관악산(川冠岳山)’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2절의 받는 데서 ‘경상도 태백산은 상주(尙州) 낙동강’을 전에는 ‘떨어진 강’이라고 했다. 이것은 낙수 낙(洛)을 떨어질 낙(落)으로 잘못 안 데서 유인(由因)한 것이다. 또 “전라도 지리산은 하동(河東)이라 섬진강수(蟾津江水)로만 다 돌렸다.” 하는 것을 예전에는 ‘엮어진 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섬진강을 두치강(斗致江)이라고도 하므로 두치는 사투리로 뒤치라고 하나까 뒤친다. 엮어졌다, 자빠졌다, 이렇게 어김말로 한 데서 유인한 것이다.

가사와 사설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하나하나 고치고 바로잡아 이제는 추호도 손색 없는 사설로 되어 있다.

서울을 두고 앞에 있는 여러 산을 부른 것을 〈앞산 타령〉 그리고 그 뒤에 둘러 있는 여러 산을 부른 것이 곧 〈뒷산 타령〉이다. 〈앞산 타령〉은 먼저 “……나 너 —니나노” 하고 그 후렴을 함께 부른다.

한강수라 깊고 맑은 물에
수상선(水上船) 타고서 에루화 뱃놀이 가잔다
아아하 에헤요 에헤요 어허야
얼사함마 등게 디여라 내 사랑아
한강수야 네가 말을 하려마
눈물 둔 영웅이 몇몇 줄을 지은고
멀리 뵈는 관악산(冠岳山) 웅장도 하고
돛단배 두서넛 에루화 한가도 하다
유유히 흐르는 한강물 위에
햇목 위에 노래도 에루화 처량도 하다
조요(照耀)한 월색(月色)은 강심(江心)에 어렸는데
술렁술렁 배 띄워라 에루화 달맞이 가잔다
앞강에 뜬 배는 낚시질 거루요
뒷강에 뜬 배는 임 실러 가는 배란다
푸른 물결에 두둥 뜬 저 백구(白鷗)
날과 같이도 에루화 외롭구나

노들의 버들은 해마다 푸르는데
 한강을 지키던 임 지금은 어디 계신가
 양구(楊口) 화천(華川) 흐르는 물 소양정(昭陽亭)을 감돌아
 양수리(兩水里)를 거쳐서 노들로 흘러만 가누나
 잔잔한 물결에 노 젓는 저 사공
 만단(萬端) 시름 잊고서 배만 저어 가누나
 낚시대 드리우고 즐고 있는 어옹(漁翁)은
 삼공불환차강산(三公不換此江山)은 이를 두고 이름인가
 정선(旌善) 영월(寧越) 지나서 단양(丹陽) 도담(島潭) 감돌아
 여주(驪州) 이천(利川) 광나루 압귀정(鴨歸亭)으로 흐르네
 노을진 저녁별 한강에 배를 띄우고
 유유자적(悠悠自適) 즐기니 이도 멋진 흥취일세
 사풍세우(斜風細雨) 저문 날 저문 줄 모르고
 낚시대 드리우고 근들근들 즐고 있네
 강기슭 찬바람 몸에 스며드는데
 정든 임 그리며 강물만 보고 있누나

이 〈한강수타령〉은 서울 지방에서 성창하는 민요의 하나로서 앉아서 부르는 좌창(坐唱·앉은 소리)보다 서서 부르는 입창(立唱)에 속하는 노래이다. 〈한강수타령〉은 한강을 노래한 것인데 한강은 중부 태백산맥에서 강원·충북·경기도를 동서로 흘러 황해로 들어가는 전장 514km의 한국 제4위의 강이다. 유역 면적 26,270km², 남·북한강의 2대류, 남한강은 강원도 남부, 태백산 북쪽 대덕산(大德山) 북쪽에서 발원, 송천(松川)·평창강(平昌江)이 합류, 단양·영월을 거쳐 충주에서 달천이 합류, 북서류(北西流), 여주(驪州), 양평(楊平)을 거쳐 양주(楊洲)에서 북한강과 합류, 개풍군(開豐郡)에서 임진강과 합류, 강화만(江華灣)으로 흐른다.

북한강은 강원도 금강산 북쪽에서 발원, 남류(南流)의 금성천(金城川)·금강천을 합류, 춘천에서 소양강이 합류, 서류(西流), 양주에서 남한강과 합류한다.

수량(水量)이 풍부하고 유역에 춘천·영월·여주 등 분지를 이루며 하류에 김포평야를 형성하여 국내 줄지의 곡창을 이룬다. 가항거리 330km 관개 지역과 가항거리는 전국 제2위다. 특히 이태조의 한양천도 이래 수도의 수호강(守護江)의 역할을 했다.

이 〈한강수타령〉은 한강의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읊고 한강에 배를 띄우고 유유자적 뱃놀이를 하며 자연을 음미하는 선유(船遊)도 있고, 한강이 변함은 없지만 인심세태(人心世態)는 변했

다고 원망하여 한강의 한스러움을 엮은 사설(辭說)도 있다. 장단은 굵거리 박자이다.

• 한강수타령

한강수라 깊고 맑은 물에
수상선 타고서 에루화
벳놀이 가잔다
아아하 에헤요
에헤요 어허야
얼사함마 둥게 디여라
내 사랑아
한강수야 네가 말을 하렴아
눈물든 영웅이 몇몇줄을 지은고
멀리 뵈는 관악산
웅장도 하고
돛단배 두서넛
에루화 한가도 하다

유유히 흐르는 한강물 위에
뗏목 위의 노래도
에루화 처량도 하다
조용한 월색은
강심에 어렸는데
슬렁슬렁 배 띄어라
에루화 달맞이 가잔다

앞강에 뜬 배는
낚시질 거루요
뒷강에 뜬 배가
임실러 가는 배란다

푸른 물결에
두둥 뜬 저 백구

날과 같이도
에루화 외롭구나

노들의 버들은
해마다 푸르는데
한강을 지키던 임
지금은 어디 계신가
양구하천 흐르는 물
소양정을 감돌아
양수리를 거쳐서
노들로 흘러만 가노라

잔잔한 물결에
노 젓는 저 사공
만단시름 잊고서
배만 저어 가노라

낙숫대 드리우고
줄고 있는 어웅은
삼공불환 저강산은
이를 두고 이름인가
정선 영월 지나서
단양 도담 감돌아
여주 이천 광나루
압구정으로 흐르네

노을진 저녁빛
한강에 배를 띄우고
유유자적 즐기니
이도 멋진 흥취일세
사풍세우 저문날
날저문줄 모르고

낙숫대 드리우고
근들근들 졸고 있네

강기슭 찬바람
몸에 스며드는데
정든 님 그리며
강물만 보고 있노라

〈한강수타령 漢江水打令〉은 한반도의 중부를 동에서 서로 가로 질러 흐르는 한강을 노래한 민요이다. 한강은 수량이 풍부해서 일대의 농업지대에 물을 공급해 주었고, 교통로 역할을 했으며, 민족사의 많은 애환을 지니고 있어 민요로까지 등장했다.

한강의 풍경과 흥취, 그리고 지은이의 심정을 노래한 이 민요는 양구·소양정·양수리를 거쳐 노들나루에 이르는 북한강쪽의 조운로(漕運路)와 정선·영월·단양·도담·여주·이천을 거쳐 압정으로 들어 오는 남한강쪽의 조운로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지난 날 한강의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이와 유사한 민요로 뗏목에 짐을 싣고 양평에서 노량진으로 들어오는 뗏노래로 〈뗏목노래〉가 있다.

• 뗏목노래

에 해에 ~ 해에 ~ 에 ~
뗏목이여 ~ 닻을서라
용산강은 노를건너 ~
약사보살 비칠서라
뗏목이여 ~ 뗏목이여
어기어차 어기어차
뗏목이여 해가 넘어간다 ~
흙이 머리에 받칠세라
칠성이여 칠성이여
칠성단을 어보세 ~
돌머리를 돌려라
노 ~ 자 노 ~ 자
뒷머리를 틀어라

서넛바다 빛이 나고나
서울한강 닿고보니
큰애기 네로구나
금수강산이 좋을시고
금수강산이 좋을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대한동국
금평이가 문힐서라
차 ~ 차리 내려가자
노자꾸나 돌머리야
저기저 들어가니
양평군에 들어서니
바우를 돌어서 흘러가거라
바우가 받치면 파산된다.
돌 ~ 아 돌 ~ 아
부부장구가 돌아라
양산도자 도자기여
도자기 한쌍을 캐구보니
그만두구 돌아왔다
돌돌돌 돌아라
양 ~ 산 합일은
부부일신이 돌아왔네
우리 집이 우리 아가씨
죽은줄을 알건마는
너는 청춘이고
나는 백발
그렇게 죽은줄은
나는 몰라
죽었구나 죽었구나
노량진이 비쳤구나
내고장이 비쳤구나
어린 딸자식을 잘길렀나

어린 자식은 밥달래고
애비의 간장이 또 녹는다
에 ~ 루 돌돌돌 돌아라

- 제보자 : 곽정일 (남, 64.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1993. 4. 5)

한편 노들강변은 노들이(露梁津)의 강변에 늘어 선 수양버들이 명물이어서 흔히 노래로 불리어졌다. 옛날 노들나루는 한강의 나루터 중에서 가장 사람의 왕래가 많았던 곳이고 사람들이 배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쉬고, 술 한 잔 하고 요기를 하기 때문에 주막이 늘어서 있었다고 전한다.

노들나루의 수양버들은 오가는 사람의 마음에 인상이 깊었으며 이곳을 통과해서 입경(入京)하여 행복과 사랑을 꿈꾸는 사람들과, 과거의 급제해서 의기양양하게 금의환향(錦衣還鄉)하는가 하면,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실의에 빠져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각양각색의 제 각기 사념(思念)을 안고 노들강변의 수양버들 밑을 지나갔을 것이다.

• 노들강변

노들강변 봄버들
휘휘 늘어진 가지에다
무정세월 한허리를
칭칭 동여 매어볼까
에헤요 봄버들도
못믿으리로다
푸르른 저기 저 물만
흘러흘러 가노라

노들강변 백사장
모래마다 밝은 자국
만고풍상 비바람에
몇번이나 지여갔다
에헤요 백사장도
못믿으리로다
푸르른 저기 저 물만

흘러 흘러만 가노라

노들강변 푸른 물
네가 무슨 망령으로
재자가인 아까운 몸
몇몇이나 데려갔나
에헤요 네가 진정
마음을 돌려서
이 세상 쌓인 한이나
두둥 싣고서 가거라

경기민요의 하나인 이 노래는 신불출(申不出) 작사, 문호월(文湖月) 작곡의 신민요(新民謠)로 1930년대부터 널리 유행하였다. 장단은 세마치이고, 형식은 3절로 된 유절형식(有節型式)이다. 선율의 구성음은 편의상 서양음악의 계이름으로 표시한다면 '솔·라·도·레·미'로 된 5음 음계로 평조의 선법에 해당한다.⁸⁵⁾ 현재 이 곡은 무용곡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경쾌하면서도 애조가 담백 들어 있어 이 세상 한(恨)을 흐르는 물에다 띄워 보내려는 심정을 읊고 있다. 신민요로 등장한 〈노들강변〉은 오랫동안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민요화하나 노래로 우리와 영원히 길이 남을 동작구의 민요이다.⁸⁶⁾ 이밖에 동작구의 민요로는 부녀요로서 〈베를가〉 등과 주로 잡가가 많이 불리고 있다. 한강변에서 채록한 민요는 다음과 같다.

• 노들강변

노들강변 봄버들
휘휘 늘어진 가지에다가
무정세월 한허리를
칭칭동여서 매어나볼까
에헤요 봄버들도
못잊을 이로다
흐르는 저기저물만
흘러흘러 가노라
노들강변 백사장
모래마다 밟은 자국
만고풍상 비바람에

8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 1991.

86) 동작구, 《내고장 동작》, 1990, p. 147.

몇번이나 지어갔노
에해요 백사장도
못잊을 이로다
푸르른 저기저물만
홀홀러서 가노라
노들강변 푸른물
내가 보고서 망령으로
재자가인 아까운 몸
몇몇이나 데려갔소
에해요 내가진정
먹을 돌려서 이세상
쌓인 한을 똥똥
실코서 가거라

— 제보자 : 전재봉 (남. 77세. 본동 강남노인정. 1993. 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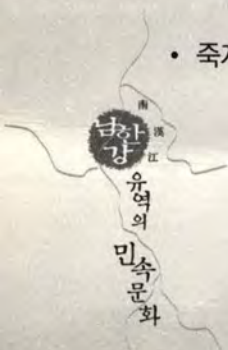
• 금강산 타령

천하명산 어디메뇨
천하명산 구경갈제
송악끼고 솟은산이
일만이천 봉오리가
구름같이 어렸으니
금강산이 분명코나
장안사를 구경하고
명정대에 다리쉬어
만군대를 올라가니
마의태자 어디갔노
바위위에 얹힌꿈은
주모하를 못뵈이로구나
종소리 염불소리
바람결에 쓸려오고

옥류금류 열두담이
 굽이굽이 흘렀으니
 선경인들 극락인들
 만불상이 더욱좋다
 기암괴석 설경속에
 금강수가 샘솟고
 구름천리 몸에감고
 세사들이 보듬어서
 바름끼어 올라가니
 비루봉이 장한쿠나
 만학천봉 층암절벽
 머리숙여 굽어보니
 구만장천 걸린폭포
 은하수를 기울인듯
 세류직하 삼천척은
 이를두고 이름인가
 해금강 총석정에
 죽장놓고 앉아보니
 창파에 나는백구
 쌍거쌍래 한가롭다
 동래방장 영주산을
 구름밖에 솟았구나
 금강아 말물어보자
 고금사를 다예일러라
 영웅호걸 절대가인이
 몇몇이나 다녀갔노
 물음에 대답은 없어도
 나는웅당 알리로다

— 제보자 : 전재봉 (남, 77세, 본동 강남노인정, 1993. 5. 1)

• 죽지사(일명 건곤가)



건곤이 불로 월장재하니
적막강산이 금백년이로구나
어히요 이히요 이히야여
일념정념은 극락남무하
아아아아허 아아마미히 사흐앙이
낙동강상 선주편하니
취적유성이 낙유풍이로구나

— 제보자 : 전재봉 (남, 77세, 본동 강남노인정, 1993. 5. 1)

• 뱃노래

배띠워라 배띠워라
만경창파에 배띠워라
달뜨자 배떠나니
인자가면 언제나와요
오마는한이나 일러주오
모란봉이 변하여
대동강수가 될지라도
너와나와 변치마라
상생락이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기러기
용문화강 음신단허니
북방소식을 뉘전허리
별근대 내글한장
남계신곳에 전코가오

— 제보자 : 강병옥 (여, 80세, 노량진 2동 공원노인정, 1993. 4. 3)

• 권학가

어덜떨떨 궁그러가는
검은기차야
산을넘고 물을넘고

잘도간다야

공부힘쓰소 공부힘쓰소

일석으로 돌아지게 공부힘쓰소

- 제보자 : 안수남 (여, 86세, 노량진 2동 공원노인정, 1993. 4. 3)

• 우민가

고초고초 깊은밤에
하늘은높고 닭밝은데
동수보난 장양리는
일천동서 한곡조로
월하에다 슬피부니
그곡조에 하였으되
팔천제자 들어보소
대궐같은 저집을랑
변질같이 비어두고
태상같은 부모두고
반달같은 처자두고
검사장에 무슨일고
팔은천장 무슨일고
너의부모 생각하니
곧은허리 굽어지고
검은머리 백발되야
오늘올까 내일올까
이마위에 손을얹고
기다리고 바래다가
만봉설움 되었고나
주문잡고 우는형용
차마어찌 볼수없고
너의처자 생각하니
월태항용 좋은얼굴
이별하기 아까와서

인제가마 언제오요
명년추절 돌아오소
떠나올때 배떠나기
허연간에 무성하여
동버선을 옆에끼고
주야장천 공부한다
공부하던 너의아들
엄마하고 하는말이
우리부친 어디가고
이때까진 아니와요
이렇다시 하는말이
굽이굽이 맺힌설움
애척간장 다녹는다
집떠난지 십여년에
일자식들 동절없다
뒷동산에 만조숙녀
명년삼월 되건마는
뒷동산 만족수로
하는장부 막아낼꼬
부모형제 지내간들
어느누가 괴별하나
이소리들은 팔천제자
들어보니 우는줄도 모르오나
자연히 눈물난다
춘풍같이 흩어지니
대왕님은 할일없어
우민이로 불렀단다
산도좋고 물도좋다
안양열녀 죽은곳에
무삼선녀 새로났다
눈썹은 반달이요
머리는 유화같고

만고일색 고운얼굴
주민이가 새로났다
우민이가 새로났다
만고일색 고운얼굴
우민이가 새로났다
우민이가 오색단장
곱게꾸며
우민일랑 영에달고
소상강 기러기로
한쪽끝에 끼어들고
어여집다 하는소리
어느누가 알아실고
우민이야 우민이야
무슨잠을 그리자나
이별주나 먹어보세
우민이 거동보소
자던잠을 놀래깨서
이별주가 웬말이요
대왕님은 천자되고
이내몸은 창포되야
구궐궁궐 좋은집에
부귀영화 사졌더니
오늘이별 웬말이요
천상옥중 깎아내어
옥같이 마주앉아
희희낙락 하잖더니
오만경대 앞에놓고
분성정 하는양은
이내얼굴 곱게꾸며
아방궁녀 불탈적에
임과같이 배를타고
추천으로 귀경가고

원왕침 빈침끝에
오색실을 수놓키나
동지선달 화초방에
임과들이 자랐더니
오늘이별 웬말이요
대왕님의 하신말씀
우민이야 춤을춰라
우민이야 노래하라
막중아문 다시보자
우민이 백옥같은 잔의술을
대왕님을 드릴까요
그술받아 손에들고
맛있게 마신후에
심신이 산란하다
우민이야 우지마라
아니울음 한마디에
철수대장 우곡간장 다녹는다
우지마고 말로해라
유정장가 갈것같으면
부귀영화 살터인데
부귀영화 사더라도
구정을랑 잊지마오
대왕님도 웬말이요
충신은 역사 임금이요
열녀는 불경이부론데
금석같이 굳은절개
비바람에 꺾어질까
나는이제 죽을라요
대왕님네 깔배주소
대왕님 하신말이
추추만세 히란정을
내손으로 일귀줍세

화초장검 드는칼로
 우면이를 주었다
 두손으로 칼을받아
 칼을물고 잊어지니
 꽃같은 붉은피가
 입을쫓아 나고보니
 안홀불견 간데없다
 고금열녀 많다해도
 저런절개 또있든가
 이일경 첫볼쭈라
 대왕님의 분한마음
 장창대검 둘러매고
 느린길 좁은길로
 쓴살같이 달려난다
 홀연히 생각났다
 흥문연 높은잔치
 번지에만 알았다면
 이런일이 없을건데
 서란옥은 물이되고
 깨어나진 거울이라
 다시닫지 못하니
 이거로써 끝이로세

— 제보자 : 이인기 (여, 74세, 노량진 2동 공원노인정, 1993. 4. 3)

• 금강산구경

강원도 금강산
 천하명산 들어가자
 천하명산 구경가자
 동해끼고 솟은산이
 일만이천 봉오리가
 구름같이 버렸으니

금강산이 분명코나
장안사를 구경하고
명경대에 다리쉬어
만군대를 올라가니
마의태자는 어디를갔나
바위위에 얹힌꿈은
귀초하는 눈뿐이로다
종소리 염불소리는
바람결에 들려오고
옥루금루 열두당은
굽이굽이도 흘렀으니
선경이든 금악이든
만불사 은덕좋다
강비석 절경속에
금강수 샘솟고
구름줄기 눈에감고
세사다리 더듬어서
바랑지고 올라가니
만학천봉 층암절벽
머리숙여 굽어 보니
구만장천 걸린폭포는
은하수를 기울인듯
봉래방장 영주산은
구름밖에 솟았구나
비류직하 삼천척은
이를두고 이름인가
해금강 총석정에
죽장을놓고 앉어보니
창가에 나는백구는
쌍거쌍래가 한가롭다
금강아 말물어보자
금강아 여있다 말물어라

영웅호걸 절대가인이
몇몇이나 지나갔노
물음에 대답은 없어도
나는응당 알겠노라

— 제보자 : 강병옥 (여, 80세, 노량진 2동 공원노인정, 1993. 4. 3)

• 베틀가

베틀을 놓세 베틀을 놓아
영랑간에 베틀을 놓세
낮에 짜면은 일광단
밤에 짜면은 야광단
일광단야광단 합해서
우리님의 와이사쓰나
기워볼까
밤에 짜면은 야광단
일광단야광단 합해서
우리 님의 와이사쓰나
지워볼까

— 제보자 : 강병옥 (여, 80세, 노량진 2동 공원노인정, 1993. 4. 3)

• 토끼화상

화상을 그린다
토끼화상을 그린다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렀오
일적선봉 봉황대
봉그리던 환쟁이
남국천자 능연대
일월그리던 환쟁이
동정유라 청파년에

금수주파에 거북연적
어중아 불러 먹 갈어라
양수화풀 부득부어
앵노수라 간지상에
이리저리로 그릴적에
천하명산 성지간에
경기보던 눈그리고
앵무공작 지저울제
소래들던 귀그리고
만화방창 화림중에
냄새맡던 코그리고
동네방네 운무중에
소래들던 귀그리고
허늘허늘이 배그리고
동지섣달 설한풍에
방풍허던 털그리고
우편은 청산이요
좌편은 녹수로다
녹수청산 깊은골에
계수나무 그늘아래로
펼펼뛰던 발그리고
이리저리로 다 그렸습니다

— 제보자 : 강병옥 (여, 80세, 노랑진 2동 공원노인정, 1993. 4. 3)

• 자장가

자장자장 얘기야
우리 얘기 잘도잔다
나라에는 충신동이
부모에게는 효자동이
동기간에 우애동이
집안간이 화목동이

동네간에 귀염둥이
둥둥둥 내사랑아
우리애기 잘도잔다

— 제보자 : 강병옥 (여, 80세, 노량진 2동 공원노인정, 1993. 4. 3)

• 어랑타령

활연춘생 만화방춘
해는좋다고 벗님네야
옛날활량은 활을잘쏘고
지금의활량은 돈잘쓴다
활을잘쏘아야 활량이지
돈잘쓰는게 활량이드냐
뉘라서 장사라드냐
이별이들어서 장사라드냐
명향도 눈물을짓고
항우라도 울었건마는
아마도 장부야
일로무삼 때는좋다
벗님네야 삼수갑산
머루나다래는 얼그럭덜그럭지는데
나는언제 입을만나
얼그럭덜그럭 지느냐
어랑어랑어허라 어느난다 째어라
모두다 내사랑아

— 제보자 : 강병옥 (여, 80세, 노량진 2동 공원로인정, 1993. 4. 3)

• 쌈씨는 노래

자룻아 말놓고
창쏘지 마라
만민이창졸이 다놀랜다

장창은 어데다두고
들오느니 창감이라
아들을 몸에다 품고
돌아드느니 장판교로다

— 제보자 : 강병옥 (여, 80세, 노량진 2동 공원노인정, 1993. 4. 3)

• 이별가

기차는 떠나간다 구슬피를 해치며
저문다 해는 떠나는 임이어
간다고 아주가며 아주간들 잊으랴
밤마다 꽃길속에 울면서 살아요

— 제보자 : 임경수 (여, 71세, 노량진2동 공원노인정, 1993. 4. 3)

5) 남한강의 무가

(1) 한국 무격의 위상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통상 트랜스와 같은 이상심리 상태에 있어서 초자연적 존재 (신·정령·死靈)와 직접 접촉교류하고 이 과정에서 예언·신탁·사제자·치료 행위 등의 역할을 하는 인물(샤먼)을 중심으로 하는 주술종교적 형태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샤먼들의 성격과 특징은 어떠한지를 살펴 보기로 하자.

김태곤은 한국 무당의 성격 한계를 대략 몇 가지로 상론하고 있다.

① 신(神)의 초월적인 힘을 체득하는 신병(神病)의 체험을 거쳐 신권화(神權化)한 사람이어야 한다. 평범하던 한 인간이 신병을 통하여 신을 체험하고 신의 영력(靈力)을

얻어서 신과 교유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신의 소명에 의한 종교현상으로 의식한다.

② 무당은 신병을 통하여 획득한 영통력을 가지고 신과 만나는 종교적 제의인 굿을 주관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굿은 무당들의 정통적인 종교적 표현이며 행위적 현상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그 이유는 신병을 체험하여 영통력을 획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의를 독경식(讀經式)이나 불교의식에 의존한다면 무당 본래의 제의인 굿과는 이질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③ 무당은 민간인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켜 민간층의 지지를 받고 종교적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민간층의 종교적 지도자로 인정되기까지는 민간층의 종교적 지지에 의한 사회적 공인이 전제되며, 무당이 비범한 신권자로서 민간인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때에만 가능하다. ④ 무당의 신앙대상신(信仰對象神)은 신병을 통하여 체험하게 되는 산신·천신·칠성신·용신 등의 자연신 또는 장군신·왕신(王臣) 등이고, 무당이 소망을 비는 신앙의식인 굿은 이들 신을 대상으로 한다.

무당을 이렇게 규정했을 때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성격 차이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무당의 갈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따른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북부지역에서는 신이 내린 강신무가, 남부지역에는 조상 대대로 혈통을 따라 계승되는 세습무(世襲巫)가 분포되어 있다. 세습무는 강신무로부터 분화되어 사회적으로 정착, 제도화하여 영력이 도태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무당을 정리하면, 일차적으로 중부와 북부의 전통적인 강신무인 무당 박수류와 남부의 세습무인 호남의 단골, 영남의 무당, 제주도의 심방이 있고, 이차적 방계무로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는 선무당류와, 호남·영남 등지에 분포되어 있는 명두·동자 등이 있다.

이어서 그는 무의 유형과 지역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속은 중·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이 성무동기(成巫動機)·신관·제의의 세 부분에서 각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세 부분은 어느 것이나 다 서로 유기적인 연대성이 있는 것으로서, 성무동기에 따라 신관이 결정되고 신관에 따라 제의의 양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들 셋을 결정짓는 주요인은 성무동기로 집약시켜 볼 수 있다. 중부지역과 북부지역의 무당은 강신 체험을 통해 무당이 된 강신무가 지배적인 데 비하여 남부지역은 혈통을 따라 무당의 사제권이 세습하여 계승되는 세습무가 지배적이며, 성격상으로 볼 때에는 지역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신무는 성무동기가 강신으로 인한 신의(神意)에 있다고 스스로 믿으며, 무의 주된 기능 또한 강신으로부터 얻은 영력이다. 세습무는 성무동기가 사제권의 인위적 세습인 동시에 무의 주된 기능이 영력과는 관계 없이 제의를 집행하는 사제권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남부지역에도 ‘명두’와 같은 강신무 계열이 분포되어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방계일 뿐 남부지방 무당의 주류는 아니다. 또한 제주도의 심방은 세습무이면서 영력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호남지역의 세습무인 ‘단골’이나 영남지역의 세습무인 ‘무당’과는 성격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세습무와 강신무의 중간형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부와 북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무당형은 ① 강신체험에 의하여 영력을 가지고 있고 ② 강신한 ‘몸주신’과 그 몸주신을 모신 신단이 있으며 ③ 신관이 구체화해서 신의 실재를 확신하며 ④ 가무(歌舞)로 정통 곳을 주관하는 사재인 동시에 영력에 의하여 점을 친다.

단골형은 호남의 ‘단골’과 영남의 세습무 ‘무당’이 이 유형에 해당되는데, 단골형은 ① 혈통에 의한 사제권의 세습, ② 사제권에 의하여 일정지역의 관할권인 단골판이 계승되고, ③ 강신 체험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신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자가의 신단이 없으며, ④ 신을 향하여 일방적인 가무로 정통 곳을 주관하는 사제이다.

제주도에 분포되어 있는 심방형은 ① 혈통에 의한 사제권의 세습이 제도화되고, ② 영력으로 인한 신의 인식이 확고하여 구체화된 신관이 확립되어 있으나 자가의 신단은 없으며, ③ 직접적인 강신영통이 없이 매개물인 무점구(巫占具)를 통해서만 신의 뜻을 물어 점을 칠 수 있고, ④ 신을 향하여 일방적인 가무로 정통 곳을 주관하는 사제이다.

명두형(또는 맹두형)은 죽은 아이의 영의 강신체험을 통해서 된 무인데, 이 죽은 아이의 영은 혈연관계가 있는 아이의 영이다. 여자아이의 영이 내린 무를 ‘명두’, 남자아이의 영이 내린 무를 ‘동자’ 또는 ‘태주’라고도 한다. 이 유형의 무는 중부와 북부지역에도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특히 호남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영남지역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이 명두형의 특징은 ① 죽은 아이의 영이 강신되어, ② 영에 의하여 점을 전문으로 하는 점쟁이며, ③ 초령술(招靈術)을 가지고 있으나 ④ 가무로 정통 곳을 할 수 없다.

무당형과 명두형은 강신에 의한 영통력이 주기능이기 때문에 강신무계통으로 분류되고, 단골형과 심방형은 양자가 모두 사제권이 제도적으로 세습되면서 제의의 사제가 주기능이 되기 때문에 세습무계통으로 구분된다.

제의면에서 볼 때 중·북부지역 강신무의 곳과 남부지역 세습무의 곳에서도 차이가 있다. 강신무가 곳을 할 때는 신이 내려 무와 신이 합일해서 제의형식이 일원화되지만, 세습무는 곳을 할 때 신을 향하여 기원하는 일방적인 사제로서 신과 무가 대치된

이원화현상을 보인다. 또한 세습무는 굿의 의식절차가 강신무보다 체계화된 데 반하여 신복(神服)을 상징하는 무복(巫服)의 수가 극히 적거나 거의 없는 편이지만, 강신무는 영력 위주여서 세습무의 굿에 비하여 의식절차가 유동적인 편이며, 무복의 수가 많고 화려한 편이다. 또 무악(巫樂)에 있어서도 강신무는 타악기 위주이고 세습무는 타악기에 현악기가 첨가되어 있으며, 춤에서도 강신무는 단조로운 춤에 도무(跳舞) 위주이고, 세습무의 춤은 극히 예능하여 영남지역의 경우 1~6장으로 춤이 다양하다.

최길성은 한국적 인물신을 상론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탁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다. 최영은 위기에 있는 국란을 평정하고자 했던 사람이었다. 그것은 그 개인의 차원을 넘은 것은 물론 가족의 차원을 훨씬 넘은 것이다. 흔히 큰일이기는 해도 사회를 위한 것이라 하기보다는 자신이나 가족을 위한 수단으로 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 역사적, 국가적이라는 것이 판단될 때 위대한 사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다.

둘째, 위와 같은 일을 한 것만으로는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않는다.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인간적인 공적일 뿐이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공적은 인간적인 역사책에는 기록될 수 있지만 신앙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그것이 신앙화되기 위해서는 억울하다는 것이 조건이다. 자기가 하자는 일이 크면 클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한은 크고 넓다. 개인 간의 원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상호 간의 폭이 너무 좁다. 어떤 여인이 시집살이가 심해서 우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자. 그런 경우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부계제도에서 생긴 것이라 생각 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개인에 한한 것이 아니고 여성이 남성에게 가지는 여성의 부계제에 대한 한으로 추상화된다. 따라서 여성의 죽음은 남성의 죽음보다 원한이 많은 것이 되고 '한 많은 이 세상'으로 불리게 된다. 이와 같이 한이 깊이와 폭을 가질 때 신앙의 대상이 된다.

셋째, 혈연관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억울하게 죽었을 뿐 아니라 때로는 그의 삼족(三族)을 멸하는 법에 따라 후손이 존재하기 어렵게 된다. 또 혈족이 있다고 해도 조상으로 받들기 어려울 것이다. 적어도 이러한 사람이 시조신으로 받들어진 사례는 보지 못했다. 만일 조상으로 받들어 모시게 되면 사회적 신으로 되기보다는 가족신에 머물러 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족적으로 외로운 유교식으로 말하면 무주고혼(無主孤魂)인 것이다. 그들은 집에서 임종(臨終)하면서 죽은 것이 아니고 객사, 타살 등에 의한 불행한 죽음을 당했다. 그들의 가정환경이나 죽을 당시의 세세한 상황은 모두 원사라는 개념 안에 매몰되어 버려 한(恨)으로밖에는 표현되지 않는다.

이상 3가지를 요약하고 좀더 추상화하면 가족을 떠나서 큰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무속에서 모신다는 것이 된다. 이는 가정을 벗어나서 큰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죽는 것이 바른 삶의 한 가지라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억울하게 죽는 것이 한의 상징이고 한을 푸는 메커니즘이라 보는 것이 현상적인 설명이다. 억울하게 죽는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무속신앙의 근본 구조인 동시에 우리문화의 한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큰일, 위대한 일을 소신대로 밀고 나가다가 억울하게 죽어도 민중의 마음 속에 살 수 있다는 즉 종교적·문화적 영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것이 무속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 심성이라고 논급하고 있다.

최길성의 논지에 한 가지 유형을 덧붙인다면 최영 같이 한에 간 인물이 아닌 김유신 장군이나 김이사부장군신도 하나의 유형에 들어 간다는 점이다. 이를 필자는 한국적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잠정적 결론을 내려 본다.⁸⁷⁾

(2) 노들나루의 새남굿

새남은 서울 지역에 있는 망자를 천도하기 위해 부르는 망자천도(亡者薦度)굿이다. 이능화(李能化)는 《조선무속고 朝鮮巫俗考》 제16장 무행신사명목(巫行神事名目)에서 굿(Kut)이란 대개 우리 속어(俗語)에는 험하고 굿은 일을 굿(Kut)이라고 이룬다고 하면서 비오는 날을 ‘굿은 날’이라 하는데, 상사(喪事)가 났을 때 굿은 일(Kuchinil)이라고 하는 데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새남굿을 ‘지로귀산음신사(指路歸散陰神祀)’라고 표기하면서 속칭 ‘지노귀새남’은 망령(亡靈)의 명복을 비는 신사(神事)로 공계(空界)를 떠돌아다니는 망령(죽은 혼)들을 위한 굿으로 해석하고 있다. 불가에서는 중음신(中陰神)들을 위해 칠칠재(七七齋) 및 현왕재(現王齋)를 베풀어 놓고 그 영혼의 명복을 빌고 속히 왕생하길 비는데 이들 제의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의 시조(時調)에서 우리는 과거 화랑(花郎 : 가무 행악을 주로 하는 광대의 일종)들이 죽은 이의 길을 어떻게 천도시켰는지 그 장면을 상도(想到)해 볼 수 있다.⁸⁸⁾

靑개고리 腹疾호여 주근 날 밤의
 金두텁 花郎이 존호고 새남 갈식
 靑뿔독 겨대는 杖鼓 던더러쿵 호느디 黑뿔독 典樂이 저 힘니리 분다
 어디셔 山진 거북 돌진 가재는 舞鼓를 둥둥 치느니

87) 김선풍 외, '무격과 인물신을 통해 본 한국무교의 특징' 《한국의 무신》,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 예맥출판사, 2004, pp. 151~154.

88) 이능화, 《조선무속고》, 백록출판사, 1983, pp. 151~152

예요(例謠)로 든 시조 속의 '즌호고'는 '지로(指路·길을 인도함)하고'와 같은 뜻이고, '새남갈식'은 '새남굿하러 갈새'라는 뜻이다.

이능화보다 앞선 기록으로는 유만공(柳晩恭)이 지은 《세시풍요 歲時風謠》의 시월 스므날(十月二十日)을 들 수 있다.

처음 추위에 새남신(賽南神)을 맞이해 가니
손석(孫石)의 찬바람이 정히 사람을 괴롭게 한다
다투어 건너가는 여러 아가씨는 무슨 큰일인지
노량진 무당 마을은 시장과 같다

十月二十日

初寒迎去賽南神

孫石罷 風正惱人

競渡群娘胡大事

巫村如市驚梁津

〈賽神日賽南艍 工孫石冤死之日 每多寒風謂之孫石風〉

상기 한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새남굿을 준비하는 소무각시(小巫閣氏)들의 분주한 모습을 일견하여 알 수 있다.

또 할주(割註)에는 “새신(賽神)은 새남(賽南)이라 한다.”고 되어 있어 푸닥거리 굿 따위를 하는 일이 새남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듯하다.

원래 민간에서는 ‘지노귀새남’의 준말로 ‘새남’이란 말을 쓰는데, 그 분명한 어원과 뜻은 분명치 않고 다만 망인천도제의(亡人薦度祭儀)로서 죽은 지 49일 안에 한다. 흔히 칠칠재(七七齋)와 같이 하기도 하며, 또는 지노귀굿과 혼용하기도 한다.

지노귀굿은 매장한 뒤 곧바로 하는 ‘진지노귀’와 탈상 무렵 또는 몇 년 후에 날을 받아서 의식을 거행하는 ‘마른지노귀’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새남을 왜 ‘새남(賽南)’이라고 표기했을까? 이때의 ‘남(南)’은 훈(訓)이 아닌 음차(音借)에 불외하다. 《세시풍요》의 할주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새신을 일컬어 ‘새남’이라 한다.” 했다. 그렇다면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 자못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방위의 개념이 아닌 훈차로 쓰인 탄생(재생)의 뜻인 ‘낳다’의 명사형이 아닐까 일단 추단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망자굿은 사자(死者)가 새로 ‘다시 낳은다(탄생한다)’는 재생놀이가 많다.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 미래에 다시 태어나게 되리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깐 놀이가

주류를 이룬다.

한국의 재생(再生)놀이 중에는 진도의 '다시래기'를 빼놓을 수 없다. 원래 '다시래기'란 재래(再來)[再生], 곧 '다시 태어난다(낳는다)' 또는 '다시 즐긴다', '같이 즐긴다'는 뜻이라고 현지 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씨김굿에서의 다시래기는 죽음을 노는 놀이이다. 다시래기에는 '판수(장님)놀이'와 '해산과장'이 있어 흥을 돋운다. 죽음은 어둠이다. 판수의 어둠의 세계와 사자(死者)의 죽음(어둠의 세계)가 잘 암유화(暗喻化)되어 있다. 죽음의 현장에서 통통한 배불뚝의 여인[알 상징]이 나오고 '아이 낳기 놀이(해산 과장)'으로 끝나는 극적 양식(樣式) 속에서 우리는 재생제의(再生祭儀)를 발견하게 된다.

더군다나 흥이 고조되면 재생의 노래 '진도아리랑'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리(알이) 아리랑쓰리 쓰리랑 아라리(알 낳기가, 알마나)가 났네((시작되었네))"라고 하면서 탄생(알 낳네·탄생하네·부활하네)을 노래로도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이란 평상의 질서가 깨지고 무너지는 일이다. 인간이 죽음을 거쳐 돌아가는 곳은 알(空), 곧 '알집'이라고 믿고 있다. 그곳의 시간은 재생을 위한 인고(忍苦)의 시간이다. 중국 설화가 거인 반고(盤古)는 혼수상태인 알 속에서 1만 8천 년을 지냈다고 한다.

엄청난 시간이다. 알집은 이처럼 고고지성(呱呱之聲)을 지르기 위한 준비과정이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안식처가 된다.

초혼(招魂)할 때 돌아가신 분에게 "복(復)~복~복"이라고 세 번 외치는 이유도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 오십시오(온다)"라고 하는 부활·재래의 의미가 담겨 있다.

또, 관을 들고 문지방을 넘어 밖으로 나올 때 양밥이라고 해서 바가지를 깨고 나오는 것도 벽사기능(辟邪機能)도 있다지만 실은 알을 깨고 나오리라는 재(再)탄생의 실체(實體) 주원성(呪願聲)으로 이해할 수 없을까 추단(推斷)해 보기도 한다.⁸⁹⁾

(3) 한강의 무가

다음은 동작구 노량진 본동 김대길의 집에서 구득한 <대감놀이>와 <바리데기> 2편을 소개하기로 한다.

• 대감놀이(안당제석굿)

아제석 대함대석 켜제석요 불이울사 신에제석 제석님 불공을 할제 골른 쌀로 공양미 짓고 삼

89) 김선몽, 《서울새남굿》, 문화재관리국, 1996, pp. 39~49

색채소에 오색과일에 두부도 짓고 튀각도 놓고 갖은 편들제 향로향에 불뵈히고 소지삼장 올린
후에 오날여기 오신손님 재수소망 번거수소망 생겨주마 어이 - 처라 - 얼수 - 후 - 얼수
(공수)

어허 - 구자 대함은 제석에 젼제석이 아니시라 일월오황 황사제 불사 제불님 수이 아니시라
도와주가 제석님 수이에서, 누린것도 다마시고, 비린것도 다마신다. 해돋아 일광제석 달이돋아
월광제석 아니시라, 우리 제석님 수이에서 - 지씨에 계주야 - 너의안에 안당에 불사가요 바르
고 돛바른 불사가 아니시리 부정한일 많이 놓았구나 손오로 만진 부정도 많아 놓았고 입으로
옴긴 부정도 많아 놓았고 눈으로 본 부정도 많았으나, 귀루다가 들은 부정도 많아 놓았고 산으
로 올라 산부정도 많았고, 들루나려 들부정도 많아 놓았고나, 허지만 불사님 수이에서 한거리
놓고 가겠노라.

(제석굿 노래가락)

그린 늪소와 은허구야 주 - 니오 젼주야 젼추로다
불사제석님 젼추로다 설명 두가살 - 인들 떠나른가
불사제석 자부신잔에 후추삼잔을 맺어 후추차
대추차요 지성이라고 쌍별찬가 제석님 나리신 자취
인간이 몰라 이내 하회 하선이다. 여러분 제 - 석님
하외로다 천세에 빌허를 왔으
부모자손에 만 - 연주
천연산 술을 - 빌러 재수소망 생기소사

(타령)

나미아미타불 나미 아미타불
어떤중생이 내려왔나
어떤중생 이 내려왔나
천금산에 황금산에 황에중생
한산모시 지은 장삼을 입으시고
금낭가사를 어여피고
다홍티를 돌려 매고
새모시 고깔을 숙여 쓰고
바리때는 손수건에 핑쇠 목탁을 지니시고
나미아미타불 육한장을 글머집고
흐늘거려 내려 오실제 바라시주 내려왔오
아침재미 돌아가다 저녁불공을 올리시고

저녁재미 돌아가다 아침불공을 올리시고
제석중생이 내려올때 바라시주를 내려왔오
가진각성 시주님네들 바라시주를 하옵소서
바라사오 바리를 사오 명바라면 북바라오
이바라를 사시오며는 없는 자손을 점지하고
옥동같은 하늘애기 금동같은 따님
아들을 낳면 효자를 낳고
따님을 두시면 열녀를 낳고
나라에 충신둥이요
부모에게 효자둥이 어떤 자손을 점지할까
일가수이에서 소서헌 정성을 태산같이 받드시고
가지를 상뎡무로 도와주마
어이 처라 - 열수 - 허 - 열수
(대감놀이 중 공수)
어허 - 어허구자 욕심많은 내대감
탐심많은 내대감 아니시 랶 -
이골 양상 도감대감
어살용 부근대감 아니시랶 -
대감님 수이에서
욕심 많고 탐심 많아서 원시루 덕반에 차시루 그한에 받으시던 내대감이신데
이것이 다 무엇이나
요지에 일월이요
순지에 죽지사로구나
어허 께쌌허구나
허지만두 우리대감이
욕심 많고 탐심 많아서
대양퐁에 갈비찜에
소양퐁에 제육찜
푸드득이 장끼찜을
받으시던 내대감이신데
이것이 다 무엇이나
얻어다 놓았느냐

손톱으로 박박 할퀴어 놓았느냐

어허 꽤썸하도다

우리 대감이 소서헌 정성을

태산같이 받들어서

가지로 성당무를 도와주마

(공수)

어허 - 어허얼수 - 어허허 -

너의부리 어떤 부리 아니시랴

지씨에 대주야 이것이 다 무엇이나

우리 대감이 욕심많고 탐심이 많아서 술루다가 목욕을 하고

고기루다 고기루다

양치질을 하시던 내대감인데

부연 막걸리 한잔

원소머리 받으시던 내대감이시던데

이집에서 덩덕 쿵덕쿵

니나노 꺽꺽하니

무엇허니 어허 - 허

대감이라니까 벼슬이 높아서

승지참판 대감인줄 알지마라

우리 대감은 대주에 직성대감

계주에 몸주대감이 아니시랴

큰대감 작은대감 그렇지만 우리대감

멋이 멋디로 똑 떨어졌네

어떤 대감이 내대감이냐

일상에 좋은것은 덩덕쿵

평생 좋은것은 꺽꺽꺽꺽

안어들이시던 대감이냐

저들이시던 내대감

여들이시던 내대감이냐

어떤대감이 내대감이여

앞뜰에도 저벽저벽

뒷뜰에도 뚜벅뚜벅

모래도 집어 주루 -루
흔적을 뵈시던 내대감
어떤대감이 내대감이나
어사를 돌던 내대감
낮이면은 어사를 돌고
밤이면은 순력돌아
재수소망을 생겨를 주마
도와를 주시던 내대감
산지조종은 군령산이요
수지조종은 황애수라
문지조종은 남대문이요
대감에 조종은 운연대감
아이조종은 강임도령에
만신에조종은 덕물산
어떤대감이 내대감이나
어떤대감이 내대감
원시루 덕반두 나구 좋구요
뒷다리 후각도 나도 좋아
어떤대감이 내대감이나
어떻게 좋은지도 모르겠네
(창부타령)

어지러운 사바세계
의지할곳 바이없어
모든미련을 다떨치고
산간벽절을 찾아가니
송죽바람은 쓸쓸한데
두견조차 슬피울어
귀촉도 불여귀야
너도울고 나도울어
심야삼경 깊은밤에
같이울어 새어볼까
얼씨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어하 - 어하 둥둥 내사랑아
공들아니 백발이요
면치 못할것 죽음이로다
천왕지왕 인왕이시며
실로황제가 복히씨라
성덕이 없어 봉해시며
말잘하는 소진장도
육국제왕을 다달랬으되
염라대왕을 못달래고
한번죽음을 못면했으며
그러하신 영웅이야
죽어사적이라도 있건마는
우리초로 인생이야
아차한번 죽어지면
움이나나 싹이트나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 잎진다 서러마라
너의명년 춘삼월이면
다시 피워 보건마는
우리인생은 한번늡으면
다시깁소년 어렵도다
어떻게존지도 모르겠구나
어찌나존지도 모르겠네

(공수)

그렇지만 우리대감이
소소헌 정성을 태산같이 받들어서
월래를 생각하고
장래를 길게봐서
상덕무리 도와주시마

(창부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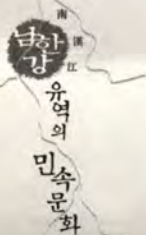
얼씨구나 절씨구나 아니 놀진 못하리라

임과 날과 만날 적에는 백년을 살자고 언약을 해고
산을 두고서 맹세를 하고 물을 두고서 정참이 드니
산수정참을 간곳이없고 다만이 낮이건 이별이라
이별 두자 누가 났가 사랑 두자를 누가 났가
옛날 옛적에 진시왕은 만고서적을 불사를제
이별두자 어이하여 사르지 않고 남겼다가
우리들에 - 못할 노릇을 왜 이다지 시키는가
얼씨구나 절씨구나 아니 놀진 못하리라
다리리 - 리 딛리리 - 리리 아니 놀지 못하리라
섬섬옥수 부여잡고 만단정이 어제런듯 조물이 시기를 하여
이별될 줄을 뉘라 알지 이리생각 저리궁리 생각 끝에는
한숨이라 얄미웁구두 아쉬워라 분하구두 그리워라
아픈 가슴을 움켜쥐고 나만이 혼자서 고통이로다(후렴)
어 - 이 어하둥둥 내사랑아 어 - 이 둥둥 내사랑아
아니노진 못하리라 귀척동방 천리두야 바라보기
모연쿠나 은하작교가 꼭 무너졌으니 나도
차라리 잊을거나
아름다운 자태거동 임에게 매졌으니 잊으리라고
맹세를 해도 참아 진정코 못 잊건네 (후렴)
사랑 사랑이라니 사랑이란게 무엇이나
알다가도 모를사랑 민다가도 속은사랑
오목조목이 알뜰사랑 왈각달각 싸운사랑
무월삼경 깊은사랑에 공산야월 달밝은데
이별한 임도 그린사랑 이내 간장을 다녹이고
지긋지긋이 애띤사랑 남의정만 뺏아가고
줄줄 모르는 알민사랑 이사람 저사랑 다고만두고
아무도 몰래 호젓이 만나 소근소근이 은근사랑
얼시구 좋다 내사랑이지 사랑사랑 참사랑아
아 - 아 텅텅 아니 노진 못하리라
진국명산 만장봉에 청천삭출 금부영은
소색은 반곡응산곡이요 숙이는 종요 줄인결인데
만만세집 금탄이라 태평연월 좋은시절 전조사를 꿈꾸는듯

유유했던 한강물은 말없이 흘러가고
 인왕으로 넘는해는 나의 감회를 돌으는듯
 얼시구나 지화자 좋구려 아니놀진 못하리라
 추강월색 - 달밝은 밤에 벗없는 이내몸이
 어둠침침 빈방안에 외로히도 홀로누워
 밤은 적적 야심현데 침불안석에 잠못자고
 몸부림에 시달리여 꼬꼬 닭은 울었구나
 오늘날 뜬눈으로 새벽맛이를 하였구나
 얼시구나 지화자가 좋아 아니 놀지 못하리라
 디리 - 디루디디루 - 봄들었구나 봄들어와요
 이강산 삼천리 봄들었구나
 방실방실 웃는 꽃들 우줄우줄 능수버들
 지지배배 종달새며 졸졸 흐르는 물소리라
 앞집에 솟닭이 꼬끼여 울고 뒷집 삼살개 경경 짖네
 앞논에 암소가 엄매엄매 뒷뒷 - 산꿩이 끼깅
 물이고 가는 큰애기 걸음 삼춘가절에 흥이겨워 사뿐사뿐
 아기장 아기장 흐늘 - 거려서 온다
 얼시구나 지화자 좋구려 아니 놀진 못하리라
 이밤이 왜 이다지 길어 그임이 그리운가
 그임이 그리워서 이밤이 긴가
 그리워 애달퍼도 부디 - 오지 마옵소서
 만나서 아픈가슴 상사보다 더하오니
 나혼자 기다리면서 남은 일생을 보내리다
 얼씨구 지화자 좋아 아니놀진 못하리라

• 바리데기

나라로 나라로 공심문
 저리로 저리로 남서가보니 우소이다
 지어다 심심산천 내리십소와
 이십팔소스물은 어디땅에
 서리판진이우소이다
 천님이 알우소서 치어나 뵈옵시니



해뜬세계 달뜬세계
사바세계 남서로 비치어서니다
북으로 강남은 대한민국이웁고
이나라 허선국이온데 이씨 주상금마마
변으로 함흥 지닌단천
정산시이 변이웁서이다
양주는 대목안에 경북궁 정덕경
창복궁 창덕궁 정경색경 정매새지기
우패을 박주시지이우성이다
이령성 구루시니 세월이 여류하야
무정세월 양유패라 광풍이 건듯부니
연으로 계와서 아문년웁고
달색조우루는 아무달이웁고
날루공수는 아무날이웁고
우여 슬프다
아무망제 해운에 시절인지
불가에 천술인지 시왕영정 하직없는
기을여위 초단에 선왕자 진부정
마른기자 어예살이 사제삼정 바드시고
이단에 진옥이 삼단법수 새남박에
쇠설문 대설문에 연주당난 살지
그문전 돈전 바드시고 청개 바드시고
지여다백자일때 장재님
천두하고 날이여
유자이에 산인은 성불하고
반구름 재일안에 홍무란 홍산취
백무란 백산취 이밀가 대턱받고
앞으로 영친배살 뒤로 시왕배살
촛불황내 일백곡송 상노상앞 청기름
발심 받으시고 우여 슬프다
아무망제 썩은입 썩은귀로 산우궁
말미를 자자 우왕이 들어다가

열대왕전 위로하고 삼사제 허참하고
 안땅에 물려받고 보양에 하직하고
 만조상에 원근지계 받고
 상산에 살문지계 벗고 칼산지옥 벗고
 불사에 철용지계 벗고
 대감에 협수지계 벗고
 칼산지옥 불산지옥 구렁지옥 배암지옥
 독사지옥 눈지옥 물지옥 불지옥
 억만산천 제지옥 문을 열어
 이구등낙 시왕재천 왕생극락
 서방경투 부처님 귀자되어
 가는 날이로써이다
 이령성 구루시니 세월이 여류하야
 무정세월 양유패라 광풍이 건듯부니
 이때는 어는때야 춘삼월 후시절이
 되었는데 이씨 주상금마마님
 십칠세가 되옵시고
 칠대중궁전 마마님
 정계오신 말씀 세녀삼궁
 삼천궁녀 제주상궁들아
 우리조선국에 영현무녀가 있느냐
 세녀상궁 삼천궁녀 제주상궁들이
 대왕양마마 증전에 도물을 숙배나숙배
 삼삼배 들인후에
 천하로 다지박사 있는니다
 지하로 소스락시 제석궁에
 모란박사 있는니다
 대왕양마마님 정계오신 말씀이야
 그러하면 천하궁에 무복이나 하사이다
 복채를 주시이다 복채가 무엇인고
 금돈닷돈 은돈닷돈 겹수건 석사세치
 거스리 사송을 하옵시니

천하궁에 다지박사
지하궁에 소스락시
제석궁에 모란박사
산우산 배옥반에
쥐오줌 던지시니
천산은 만신에
허튼산이 지구
두번째 상암이 지는이다
세번째는 대왕양마마님
정상이 지는이다
볼레면 보시레나
올해 반길년 피계년에
길예거등 하시며는
칠공주를 보시리라
내년명년에 기래거들 하시며는
세나라 왕을 봉하시리다
세녀상궁 삼천궁녀 제주상궁들여
대왕양마마님 중전에 들어
숙배나 삼삼배 들인후에
글월상달 봉서를 올입니다
대왕양마마님 정계오신 말씀이야
내전이 비였고나 일간이 여삼춘야
하루 열흘갈에 단상감 태기를 봉하시고
간택을 입시에 뽑으라 하옵시니
사월팔일에 초간택 뽑으시고
오월 금단에 이가택 뽑으시고
칠월칠석날 오작교 다리놓아
까막까치 기시석은 아니로서이다
국수덩 싸덩이면 빌한님 설한님
춧불한님 족두리한님
장안안이 꽃백되고
만백성이 천세만세 부르시니

대왕양마마님은 궁경전을 정하시고
 시우안전 하신후에 후렴우녀
 초공주 으다 이령성 구루신이
 세월이 여류하여 무정세월 양유패라
 광풍이 건듯부니 칠대궁중정마마님
 길예하오신지 수삼년이 되셨는데
 이우에 업는 무란이 나누매야
 슬하에 생쌀내 나고
 그수에 해감내 나고
 탕에서 날장내 나고
 금광초예 꽃내 나고
 동창에 건듯부는 찬바람도 연꽃같은
 고운얼굴 새알김니 기는매야
 잔뼈는 녹는듯
 골군뼈 희이는듯 하고
 시를매야 어름거침 준주안석
 잣베게에 급일기도 실은매야
 세녀상궁 삼천궁녀 제주상궁들이
 대왕양마마님 정저 안에 들어
 숙배나숙배 삼상배 들인 후에
 봉서를 올리시니
 대왕양마마님 정계오신 마씀이야
 칠대중궁마마님계옵서 기운이 계시거든
 천하궁에 만복이나 가사이다
 복채를 주서니다 복채가 무엇인가
 은돈닷돈 금돈닷돈 겹수건 석자세치
 거스리 사송을 하옵시여
 천하궁에 다지박사 지하궁에 소스락시
 제석궁에 모란박사 산우산 배옥반에
 쥐오금 던지시니 척사는 만신에
 허튼산이 지구 두번째 사암이
 지는니다

세번째는 대왕양마마님
정산이 지는이다
보려면 보시레나 반길년 피계년에
길예거등 하섰으니
초공주를 보시라다
산길년에 길예거등 하섰으면
제나라 왕을 봉하실
세녀상궁 삼천궁녀 제주상궁들이
대왕양마마님께 들어
숙배나숙배 삼상배 들인후에
봉서를 올리시니
대왕양마마님 정경오신 말씀이야
공주를 나면 서잔들 아니라라
칠대중궁정마마님 삼시문안 끊지마라
한두달에 가출사고 삼아석달 피를모아
뒤동산 후원안에 오백까지 열매랑은
내전을 다드려라 녀달에 자리잡고
다섯달에 반짐받고
여섯달에 연짐받고
일곱달이 되었스니 산수청 배살하고
앞으로 흑사돈을 뒤우로 유사돈을
석민관 칠세하고 센전시전 백묵전
거치시고 아홉달 구색되고
열달십색 단색 채년후에
공중을 돌아보니 안제가 진동하고
산아를 돌아보니 녀니공주
탄생을 했나니다
세녀상궁 삼천궁녀 제주상궁들이
대왕양마마 증전에 들어
숙배나숙배 삼상배 들인후에
글월상달 봉서를 올리시니
대왕양마마님 정계오신 말씀야

칠대중궁정 마마께 몽사를 알아오라
 하옵시니 한억께 해가돈아 베는니다
 또한억께 달이돈아 베는이다
 그애기 애명을랑 바리장수로
 애명짓고 아홉방 십장속에
 고이매거 고이앞에 공기인
 고이고이 길러내라
 우여 으다 이공주
 이령성 구루시니 세월이 여류하여
 무정세월 양유패라
 광풍이 건듯부니 칠대중궁정마마님
 예우예었든 문난이 나누메야
 슬하에 생쌀내 나고
 거수에 해감내나고
 탕에서 날장내 나고
 금광초에 푼내나고 연꽃같은 고운
 얼굴 새알김이 기는매야
 잔뼈는 녹는듯 굴근뼈는 후이는듯
 동창에 건듯부는 찬바람도 싫으메라
 얼음금침 준주안석
 잔베개 금일기도 싫으메야
 세녀상궁 삼천궁녀 제주상궁들아
 대왕양마마 중전 안에들어
 숙배나 숙배 삼상배 들인후에
 글월상달 봉서를 올리시니
 대왕양마마님 정계오신 말씀이야
 칠대중궁정마마님 월역에 계시거든
 천하궁에 문복이나 가사이다
 복채를 주서이다 복채가 무엇인가
 은돈닷돈 금돈닷돈 겹수전 석자세치
 거스리 사송을 하옵시니
 천하궁에 다지박사 지하궁에 소스락시

제석궁에 모란박사 산우산 배옥반에
쥐오금 던지시이 천산은 만신에
허튼 산이 지구 둘째 사암이지느니라
세번째 대왕양마마님
전산이 지는이다
보려면 보시례야 반길년 피계년에
길예거등 하섰으니 이공주 보시리라
산길년에 길예거등 하섰으면
세나라 왕을 봉하실걸
세녀상궁 삼천궁녀 제주상궁들이
대왕양마마 탑전에 들러
숙배나 숙배 삼상배 들인후에
글월상달 봉서를 올리시니
대왕양마마님 정계오신 말씀야
칠대중궁정마마께 삼시문안 끊지마라
한두달에 갓을살아
삼아석달 피를모아
뒤동산 후원안에
오백가지 열매량은
내전으로 다드러라
넉달에 자리잡고
다섯달에 반짐받고
여섯달에 연짐받고
일곱달에 칠색이 되옵시니
산수천 배살하고
앞으로 흑사돈음
뒤우로 철세하고
색민간 철세하고
생전시전 배묵전 거치시고
아홉달 구색되고
열달십색 단색 채년후에
공중을 돌아보니 행내가 진동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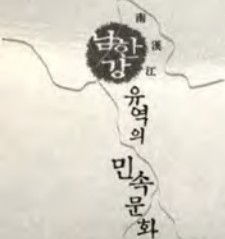
산하를 돌아보니
녀이공주 탄생을 했습니다
세녀상궁 삼천궁녀 제주상궁들이
대왕양마마 중전에 들어
숙배나숙배 삼상배 들인후에
글월상달 봉서를 올립니다
대왕양마마님 정계오신 말씀야
그애기 아홉방 집장속에
고이메거 고이입퍼
안저지면 업저지면
부모상공께 저지면 공기부인
고이고이 길러내라
우여 으라 이령성 구루시니
세월이 여류하야 무정세월 양유패라
광풍이 건듯부니 칠대중궁정마마님에
우여엇든 무난이 나누메라
술하에 생실내 나고
구수에 해감내 나고
금광초에 풋내 나고
탕에서 날장내 나고
동창에 건듯부니 찬바람도 싫으메라
세녀상궁 삼천궁녀 제주상궁들아
대왕양마마 증정에 들어
숙배나숙배 삼상배 들인 후에
글월상달 봉서를 올입시니
대왕양마마님 정계오신 말씀야
몽사를 알고오라 하옵시니
홍도화꽃이 꺾오저 베느니라
별이 쌍쌍이 초마앞에
떠러저 베는이다
대왕양마마님은 한날한시에
몽사를 얻으시니 대명전 대들보에

청룡황룡이 설여 저비느니라
이번 뫼사는 적실하고
태뫼적실하니 천하궁에
문복이나 가사이다
복채를 주서니다
복채가 무엇인고
은돈닷돈 금돈닷돈
겍수건 석자세치
거스리 사송을 하옵시니
천하궁에 다지박사
지하궁에 소스락시
제석궁에 모란박사
산우산 배옥반에
주오금 던지시니
척산은 만신에 허튼산이 짓고
일곱째 공주
두번째 사암이 지느니다
보려면 보시레냐
반길년 피계년에
길예거등 하섰으니
칠공주를 보시리다
산길년에 길예거등 하섰으면
세나라왕을 봉하실걸
세녀상궁 삼천궁녀 제주상궁등이
대왕양마마 탑전에 드러
숙배나숙배 삼상배 들인후에
글월상달 봉서를 올리시니
대왕양마마님 정계오신 말씀야
문복이 영타한들 문복마다 마출소야
행계가 이저 죽을 날을 모른다고
지어무얼 안다더냐
칠대중궁정마마께 삼시무안 끊지마라

한두달에 같이살아
 삼아석달 피를모아
 뒤동산 후원안에
 오백가지 열매랑은
 내전으로 다들여라
 녀달에 자리잡고
 다섯달에 반집받고
 여섯달에 연집받고
 산시청 배살하고
 입곱달이 되옵시니
 앞으로 흑사돋음
 뒤우로 유사돋음
 색민간 철세하고
 세전시전 백문전 거치고
 아홉달 구색되고
 열달십색 단색이 채년후에
 공중을 둘러보니
 행내가 진동하고
 시아를 도라보니
 녀이공주 탄생을 했느니다
 칠대중궁정마마님 연꽃같이
 고운얼굴 옥고름 쌍쌍이
 흘리시면 무사한 면목으로 들으시요
 대왕양마마님께옵서 모이천
 대전별감 정계비서 우이하여
 춘당대를 돌아들어
 공주를 바라보니
 여의소리 웬일인고
 세녀상궁 삼천궁녀 제주상궁들이
 대왕양마마님 중전에 드러
 숙배나숙배 삼상배 들리시면
 대왕양마마께 일옵기로 단백하고

못알옴기로 단박하고
일곱애기 상전 받다느니다
대왕양마마 깜짝 놀라시면
산우산 배옥반을 치시면서
애기내다가 뒤동산 후원안에
버리라 하옵시니
칠대중궁정마마님 정계오신 말씀야
국가에 셀옥을 벌를들언지내다
버리라 하옵시나
세녀상궁 삼천궁녀 제주상궁들아
쉬영자나 해가거라
국가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민조종 시하백관들아
쉬영지나 해가거라
국가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하면 허릴없고 하릴없다
일이 알조고라
이리안 두렁이에 생일생시적에
고루메 채년후에 뒤동산 후원안에
버리다 버리데기 더지다 더지데기
버리고 돌아스니 산천초목이
시는듯하고 물소리로 벼을삼고
두견소리 노래삼고
세월이 여류하여
무정세월 양유패라
광풍이 건듯부니
대왕양마마님 만민조종
신하백관 우헌문 대장정면
내씨 웅이하여 군중을 도라가서
동녁을 바라보니 서기가 웬일이냐
세녀상궁 삼천궁녀 제주상궁들이
대왕양마마님 중전에 들러

숙배나숙배 삼상배 들인후에
 글월상달 봉서를 올리시면
 애기내다 버린지가
 삼아석달이 되셨는데
 애기 울음소리 은은히 들립니다
 대왕양마마님 말씀야
 그애기 데려다가 수중에
 넣으라 하옵시니
 애기를 데려다가 보오시니
 눈에는 실개미가 가득하고
 귀에는 왕개미가 가득하고
 국가에 셀육을 모른듯
 엇지내다 버리라는고
 옥쟁이 불러라 옥함을 짜노시고
 애기 옥함속에 집어넣고
 옥병에 젖을짜
 기우려 대여 주시고
 금거북 잠을쇠로
 어숫비숫 채년후에
 칠대증군정마마님 정계오신 말씀야
 버리는 애기 이름이나 지어주고
 구왕에 칠공주로 금자두자 색엿는니다
 그중에 의대신 함정을 둘러메고
 궐문밖 구아문 나서
 한천리 둘러미고 두천리 둘러메고
 삼아세천리 가느라니
 동해수 서해수 흐르는 장해수에
 함정올집 어더은니
 첫번째는 용소습하고
 두번째는 계소습하고
 세번째는 물빛이 피빛이 지고
 뇌성벽력이 진동하더니



하늘에서 청학이 내려와
한날께 까라주고
한날께 덮어주고
물속으로 금거북이 나와
함정을 안고 도라서니
석가여래 팔만을 거느리시고
인간에도 나오실때
동녘을 바라보니
저기는 서기가 방공했다
무엇이 봅니까
너이는 도가멸의 수술이사바
여일강 못따와 일으면 한곳을
다다르니 난데없는 거품속에
함정이 뇌였고나
남자나 같으면 기자나 삼으려나
녀이공주 무엇하리
금자두자 섹였으니
한곳을 다다르니 산은철이 옥하야
비리공덕 할미하라비
자지궁 노래하고 노감태기 규겨쓰고
유안장 걸터집고 나스니
석가여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 이렇게 생겼는고
이산중 직힘으로 비리공덕
할미 하라비로서이다
무슨 공덕을 했는고
목마르니 물을주어
득수공덕 했는이다
배고프니 밥을주어
기사공덕 했는이다
그중 다리없음은 다리놓아
월천공덕 했는이다

척없는 애기질은
공덕이 제일이로소이다
석가여래 하시는 말씀이
그리 젓업는 애기하나
길르라 하옵시니
비리공덕 할미하라비가 하는말이
이녀는 집도 없사옵고
먹을것도 없사온데
그런 중난한 애기를
어찌갓다 기르라 하옵시나
석가여래 하시는 말씀이
그애기 갓다기르면
없는집도 생길터이고
먹을것도 생길것이니
어서어서 바빠갓다 기르라 하옵시니
십리만큼 애기 울음소리
오리만큼 은은히 들리니
애기 울음소리 차츰차츰 찾아가니
난데없는 산중에
초가산간이 노였고나
팔만경을 읽으니 문이 물리며
극락경을 읽으니 함정문이 열이며
애기나이 일곱살이 접섰는데
천지간에 만물지중 모른것이 없으시고
땅을 주름을 잡으시면
애기하는 말씀
날김생도 버려지도
아마아바가 다있는데
나는 어찌 어마아바가 업는가
하라비는 아바로소이다
땅은 어마로소이다
천지간 만물지중 하늘땅이

제조를 하셨거나
인간 괴로움을 어이 나으리
어서어서 어마아바 찾아주소
절라도 입좁는 왕대밭은 아바시라
하시며는 양끝잘라 집으시고
삼년탄생 애곡하니
그거아바 아니오릿까
뒤동산 입넓은 먹으나무
이모저모 팔모치고
양끝잘라 집으시고
삼년탄생 애곡하니
그거어마 아니오릿까
절라도 입좁은 왕대밭은
멀고멀어 못가이
뒤동산 입넓은 먹으나무에
삼시문안 끊지말라
세월이 여류하여 무장세월양유패라
광풍이 건듯부니 대왕양마마님
이날일시에 몽살를 얻으시니
하늘노서 천애동자 내려와서
대왕양마마 앞에안아 멩패를 주서이다
대왕양마마님 정계오신 말씀야
만민조정에 웬책이 있다드냐
만민백성에 웬문안 있다더냐
그도 아니오라 애기 내다버린 죄로
용궁 기자로소이다
깜짝놀라 깨어나시니
남가는 일몽이라
청에동자 온데간데 없느니라
대왕양마마님 정계오신 말씀야
만민조정 신하백관 우런문
대장뎡겹 내씨드라

애기 찾아들이라 하옵시니
 애기 내다버린 지가
 십오년 열다섯 해가 되었는데
 어부에 밥이되어 소녀는
 껌문밖을 나스면 천끼이 되느니다
 그중에 외대신이 소인이 찾것느이다
 그리하면 오경문을 풀어주라
 가경문을 푸러주라
 그두다 싫으니다
 천리만리 마를 주서이다
 껌문밖 구아문 나서
 한천리 버게타고 두천리 버게타고
 삼아세천리 가느라니 비리공덕
 할미하라비가 대문문에
 우에업는 그동실니 웬일이냐
 외대신 하는말이
 아가공주 대왕양마마님
 무난이 우중하오시니
 애기어서 나스거라
 애기하는 말씀이
 무슨 표적을 가지고 왔는가
 외대신 하는말이 청망중에 잇었느니라
 애기 하시는 말씀이
 오든길 잊지말고 어서바빠 가서이다
 외대신이 한천리 두천리 삼아세천리
 더되달아 껌문밖 구아문 디리다라
 대왕양마마 탑전에 들러
 숙배나숙배 삼상배 들인후에
 글월상달 봉서를 올리시면
 애기 찾엇거니와 대왕양마마님
 엄지찍어 해패받아 주서이다
 생월생시 주서이다

왼손으로 받아 품에 품고
결문박 구아문 나서
한천리 두천리 삼아천리 건느라니
애기가 동해수 서해수 흐르는
장여수를 금장반에 떠다
한가운데 놓고 사방으로 재배하니
대왕양마마 엄지하고
애기 엄지하고 그저께야 응하드군
의대신이 하는말이 국수덩을 대오랏가
싸덩을 대오랏가
애기 하시는 말씀이
국수덩을 내 알드냐
싸덩을 내 알드냐
남북하고 비리공덕 할미아에비더러
잘있으라 당부하고 강님산 넓은뜰에
내리달아 한천리 두천리 삼아세천리
달이달아 결문박 구안문 달이달아
대왕양마마 중전에 드리
숙배나숙배 삼상배 들인후에
글월상달 봉서를 올리시니
대왕양마마 정계오신 말씀야
애기손목을 금쳐 잡으시여
옛정김에 버렸드냐
화김에 버렸드냐
추어서 어찌 살았느냐
더워서 어찌 살았느냐
배꼽파서 어찌 살았느냐
어머님 그리워서 어찌 살았느냐
애기하시는 말씀이
추운것도 어렵셨고
더운것도 어렵셨고
배꼽픈것도 어렵셨고

어머니 그리운것도 어렵셨으니다
 유구약방이 파격을 만나는 때로소이다
 애기하시는 말씀이
 만민조정 신하백관 우륵문 대장들아
 정경내씨드라 무장신 약수언어
 국가부전 하올소야
 이십약이 아니온데 얻소릿까
 세녀삼궁 삼천궁녀 제주상궁들아
 무장싱 약수언어 국가부전 허올소야
 이십약이 아이온데 어찌 엇소릿까
 소녀는 꺾문밖을 나스메는
 천격이 되느니라
 초공주 불러내어 부모시왕 가려느냐
 삼천궁녀 못가는길 소녀가 어찌 가오릿까
 이공주 불러내어 부모시왕 가려느냐
 형님 못가는길 소녀가 어찌 가오릿까
 여섯째 애기 불러내어 부모시왕 가려느냐
 다섯형님 못가는길 소녀어찌 가오릿까
 애기하는 말씀이 소녀는 국가에
 은혜진 것도 없고
 어머니님 배안속에 열달버슬튼 그공으로
 제가 가겠나이다
 우경무를 풀어주라 가경문을 풀어주랴
 그등시외를 느껴주랴
 그두다 싫으시다
 우승패 구이적삼 사승패 두루매기
 입으시고
 무시신 신으시고 무시주령 집으시고
 세페령이 닛죽 씨우시고
 애기말씀이 삼천궁녀 제주상궁들아
 여섯형님들아 대왕양마마님
 한낱한시에 상왕화를 하실지라

나두러오기 기다려라
고름에 투서찍고 문지방에 투서찍고
꺾문박 구아문 나스니
연꽃같이 고운얼굴 준수같은 옥로를
쌍쌍이 집으시니
한천리 가오시고 두번 집으시니
두천리 가오시니 삼아세천리 가느라니
백발노승이 섰다가 허는말이
네가 사람이냐 귀신이냐
무엇이 그렇게 생겼느냐
서자대군으로 부모시왕 가는이다
부모시왕 갈것 같으면
나가화를 가지고 왔느냐
잊어서 못가지고 왔느이다
바랑에서 낫화를 꺼내주니
한번 저으시니 물이 육지가 되고
또한번을 저으시니 산은 평지가 되고
동으로 저으시니 홍유리 잠문이 열려
홍계장군이 서계시고
서으로 저으시니 백유리 자문이 열려
한가운데 저으시니 한유리 자문이 열려
황계장군이 서허시고
우방나그네 죄승하고 십대당이 느려 앉으시고
왼편으로 저으시니
억만산천 제지옥이 문이지며
억만나졸들이 칠팔에 액매구리 울듯하니
지옥가리 지옥 보내시고
시왕가리 시왕 보내시고
우으다
아무망제 바리공주 뒤를따라
이구등락 시왕재천 왕생극락 서방경투
부채님 귀자되어 가는 날이로소이다

한곳을 다다르니
 무장십이 바둑을 둘다 누을 쳐떠보며
 네가 귀신이나 짐승이나
 무엇이 저렇게 생겼느냐
 애기하시는 말씀이
 귀신도 아니옵고 짐승도 아니옵고
 서자대군으로 부모시왕 왔느니라
 부모시왕 왔을것 같으면 물값을 가지구 왔느냐
 청망중에 잊어서 못가지고 왔느니라
 그리하면 앞동산 뒤동산 꽃밭에
 물삼년 길어다 부어 갖추어 주려느냐
 그두부모 시왕같으면 그리하오리다
 나무값을 가지고 왔느냐
 청망중에 잊어서 못가지고 왔는이다
 낫없는 나무삼년 대줄소냐
 그두부모 시왕같으면 그리하오리다
 불값을 가지고 왔느냐
 잊어서 못가지고 왔느니라
 불없는 물삼년 대줄소냐
 그두부모 시왕같으면 그리하오리다
 이일병 부시에 누구심차 돌에아남산
 수리치에 다령을 헛느니라
 제가앞으로 봐도 여자몸 뒤우로 봐도 여자몸
 일곱애기 산천받아 주려느냐
 그두부모 시왕같으면 그리하오리다
 초경을 허락하고 삼아경에 근이맞어
 사해를 집을삼고 등축을 베개삼고
 금잔디를 요를삼고 구름을 제일삼고
 셋별로 촛불삼고 애기 나온지가
 석삼년 아홉해 되었는데
 일곱애기 산전받아 놓았으니
 역수삼천리 어이가오

부모시왕 늦어가니 약수를 주서이다
무장성이 하는 말이
앞강은 황천강 뒷강을 유사강
물구경이나 하고가오
애기하시는 말씀이
물구경도 경이없고
앞동산 뒷동산에 꽃구경이나 하고가오
꽃구경도 경이없고 어서약수를 주서이다
무장성이 하는말이
여덟홀아비를 어찌하랴
일곱애길랑 데리고 가오
애기하시는 말씀이
일곱애기를 데리고 나가면
무장성은 어찌하랴
무장성이 하는말이
이필이종부라 애기뒤를 쫓을서라
애기하시는 말씀이
나올적이 혼자몸이 아홉이 가느라니
자란애기 걸리시고 어린애기 업으시고
어정쩡 머무러 한곳을 다다르니
아우려 올 피바다에 밑없는 배가
없는배 불든배 충든배
칠팔월에 액매구리 올듯하고
가는 저배는 무슨배요
나라의 의족이요 부모엔 불효자요
동기에 우애없고 일가에 화목지 못하고
적은 되로 주고 큰되로 받아먹고
장안진인 우거 더주고
남의말 여드려 씹부치고
억만산천 제지옥으로 가는 배로소이다
또한곳에 다다르니
아우여울 피바다에 머리풀어 발상하고

칠팔월에 액매우리 울듯하고
 가는 저배는 무슨배요
 하탈망재 객사망제
 받을것 못다받고 가는 배로소이다
 또한곳을 다다르니
 초불로 연락하고 풍유가 자자하여
 가는 저배는 무슨배요
 우여 으다 아우망제
 살아생전 선심많이 하고 돌아가서도
 받을것 다받고 가는 배로소이다
 또한곳을 다다르니
 영전섭전 금자두자가 웬일인고
 소애대에 방성수죽 삼마 살빚장안에
 곡성소리가 웬일이냐
 나무베는 목동아이 입을열어 말을 아니하니
 애기 업었던 일곱자 일곱치 수건을 끌려주니
 그적에야 입을열어 말을하고
 배안에는 애기는 인산거동을 모르시고
 배밖에는 애기는 인산거동을 압니다
 그적에야 애기가 깜짝놀라 무장심하고
 일곱애기하고 풀숲에다 숨기시고
 비내뻘 땅에 꽃고 땡기풀어 나무에 걸고
 머리풀어 니치시고 마목마목 다령해라
 증전에 오르시면 천개를 떼구르시고
 지개를 손수굴러 것매 일곱속매
 일곱열네매른 고를푸러 전하시고
 숨자리는 입에넣고 비리용은 눈에넣고
 뼈살이는 살에너니
 대왕양마마뎌 깨어나시며
 초경에 들었던 잠일드냐 삼사경에 드렸던 잠일드냐
 그두 아니오라
 나같은 애기가 국가부전 했느니다

대왕양마마님께옵서 애기 발바닥
손바닥을 만지시면
국을반을 베어주란 소녀가
국도진이 의야국이웁고
사대문에 드는천을 받을주라
소녀가 천도지니위야 천이웁고
소녀가 죄를지고 왔느니다
네죄가 무슨죄냐 무장싱하고 근이맞어
일곱애기 사전 받아 왔느니다
네죄가 아니고 내죄로이다
무장싱 꺾문안에 들라 하옵시니
사무가 걸려 못듭니다
반만혈고 들라 하옵시니
귀는 하늘에 담고 귀는 짚신짜만하고
코는 줄병만하고 눈을 통방울만하고
손은 무릅아래차고 발을 석자세치
삼십팔척 서기 서를세
하늘 바를 응해 치는니다
애기는 삼십삼천 설은여덟땅에
영경 응해 치고이다
너이는 천상배필이다
소녀가 살노릇 하겠나이다
살노릇이 무엇인고
은으왕에 몸이되여
큰머리 단장 입단치마 소뎡에 소조고리
은하뭉두리 쥐세방을 선네부채 넓으나
흥띠 소두령에 대두령에 지어다
백자일에 망제천두하고
나리여 유자일에 산인은 성불하고
반구름 재일안에 홍무란 홍산쥐
백무란 백산쥐 이밀가 대턱받고
앞으로 연천 배살 뒤우로 시왕배살

촛불행래 일백곡성 상노상압
 쟁기름 발심 받으시고
 우여 으다 아무망제
 산우궁 말미를 씹은입 씹은귀로
 자사우왕이 드러다가 열대왕전 위로하고
 삼사배 허참하고 안땅에 물구받고
 보양에 하직하고 상산에 살문벗고
 만조상에 원근벗고 불사에 철용벗고
 대감에 협수벗고
 칼산지옥 불산지옥 눈지옥 얼은지옥
 구렁지옥 배암지옥 독사지옥
 억만산천 제지옥 문을 열어
 이구등락 시왕제천 왕생극락 서방경투
 부채님 귀자되어 염불 받아가는 소이다
 제일절에 진광대왕 제이에 초간대왕
 제삼에 순겨대왕 제사에 온갖대왕
 제오에 변상대왕 제구에 도시대왕
 제십에 철용대왕 열대왕전 불인사제
 일세동방 전투경 이세남방 득중경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억마그천수 나무아미타불
 사십팔일경 나무아미타불
 백마나권수 나무아미타불
 우여 으다 아무망제
 해운에 시절인지 불가에 천술는지
 시왕영검 하직없는 길을여위
 초단에 서왕자 진부전 마는계왕
 여예살이 사제삼성 받으시고
 이단에 진옥이 삼단법수 새남받고
 쇠설문 대설문에 연주당 난살가요
 금문전 돈전 받으시고
 청개홍개 받으시고 지어다

백자일에 망재님 천두하고
나리에 유자일에 산인은 성불하고
반구름 재일안에 홍무란 홍산쥐
백무란 백산쥐 이밀가 대턱받고
앞으로 염친배살 뒤우로 시왕배살
촛불행내 일백곡성 상노상압 쟁기름
발심 받으시고
우여 으다 아무망재
썩은입 썩은귀로 산우군 말미를 자자
우왕니 드러다가 열대왕전 위로하고
삼자재 허참하고 안땅에 물구받고
보양에 하직하고
만조상에 원근지게 벗고
상산에 삶문지게 벗고
불사에 철용지게 벗고
대감에 협수지게 벗고
칼산지옥 불산지옥
구렁지옥 배암지옥 독사지옥
눈지옥 불지옥 물지옥
억만산천 제지옥 문을열어
이구등락 시왕재천 왕생극락 서방경투
부채님 귀자되여 가는 날이로서이다
이령성 구루시니 90)

90) 김선몽, 《銅雀區의 祝祭와 놀이》, 中央大學校 韓國民俗學研究所(프린트본), 1992, pp. 1~28

여 백

南

漢

江

남한강

유역의

민속문화

7. 남한강 유역의 시문학



7. 남한강 유역의 시문학

(1) 한강과 시조

멋이란 말은 본래 맛에서 나왔다고 한다. 굳이 멋과 맛이 어원을 달리해서 출발했다 해도 그 두 말의 속성은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다.

멋과 맛은 맛이 먼저 생겼고, 멋이 뒤에 생겼으니 이음동근(異音同根)의 관계에 놓여 있다. 맛은 개별적(個別的)이고, 개성적(個性的)이나 멋은 종합적이고, 보편적이다. 멋은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맛이라 할 수 있고, 여러 소규모적이고 지엽적인 맛과 맛의 종합성에서 멋이 산출된다 할 것이다.

모든 음식은 그 음식대로 맛이 다른 법이다. 그 음식들의 하나 하나는 더 넓게 한국 사람만이 갖는 반찬의 맛을 종합적으로 창조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 그 맛은 맛이로되 진미(眞味)를 뜻한다.

문학에서 말하는 멋은 그 작품의 개별적 창조성과 그 작품을 산출하게 된 사회적 특수성이 이해될 때 종합적으로 멋이란 운치(韻致)가 일어나는 것이다.

문학에서는 ‘운치라는 멋’이 일어난다.

황진이(黃眞伊) 시조문학에 나타난 시정신은 자유분방한 직선은 있으나 표현 기교는

곡선적이고 완곡한 멋으로 나타난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놓었다가
어룬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굵이굵이 퍼리라

황진이의 한(恨)은 원(怨)을 초월한 한(恨)의 문학이었다. 그러나 원한을 원한으로만 두지 않고 한을 풀어 나갔다. 그 한은 황진이 자신 때문에 죽게 된 어느 총각에 대한 보상심리 관계에서 출발한다. 그녀가 한을 하나 하나 풀어 나가는 수단은 멋진 음악과 문학을 통한 예술적 행위였고, 그 위에 녹아나고 희롱 당한 대상은 허세 떠는 높으신 남성네들이었다.

한국 시가(詩歌)의 멋은 풍류(風流 · dilettantism)이라는 말 속에서 찾을 수 있다. 풍류란 원래 숙된 일을 떠나 멋스럽고 예스럽게 노는 일이나 운치스러운 일 등을 종합한 개념이다. 그러기 때문에 풍치가 있고 멋있는 남자를 세칭 풍류남자 · 풍류랑 · 풍류가 등으로 부른다.

고대로부터 한국 민족은 환경 탓인지 몰라도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자연을 무척 사랑했고 그 속에서 살고자 했으며 자기 자신을 신선(神仙)으로 탈바꿈 시키기를 즐겨했다.

한 마디로 한국 고전시가는 당시 시인들의 자연 탐구의 도구로 이용되었고, 자연 예찬과 더불어 자연을 조건 없는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황홀경(ecstasy)에 몰입하였고 그를 통해 자연 발견의 비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

말 없는 淸山이요 態 없는 流水로다
값 없는 淸風이요 임자 없는 淸月이라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우리 선민(先民)의 시를 우리는 시라 하지 않고 '시가(詩歌)' 문학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곧, 시이면서 가도 되고 가이면서 시가 되는, 이를테면 시와 노래가 혼연일체된 시이자 노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신라 향가가 그러했고, 고려 속요나 경기체가

가, 그리고 조선조 시조나 가사 역시 마찬가지 성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와 노래는 공생·공존의 운명을 항상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시가는 시의 맛을 창조하기 위해 동원된 풍류 곧 음악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에 그 맛의 참다움을 맛보게 된다.

앞의 예요(例謠)에 나타났듯이 한국인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대상이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다. '동짓달 지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서 충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을 수 있는' 여인의 배포가 넓은 시상과 발상을 상상해 보면 알 것이다.

또한 청산과 강·바람·달을 벗 삼아 살아가려 했던 남아의 호연지기를 상상해 보라. 서양 문학적 가치 판단의 세계와는 달리 우리 시가문학 속에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학적 가치판단의 기준이 있었으니, 곧 '풍류 = 음악 = 음악과 문학 = 멋의 세계'라는 중의법적(重義法的)인식 하에 시를 이해·생산하였던 것이 그것이다.

시조뿐 아니라 가사(歌辭)문학에서도 자연예찬은 이어졌으니 《한양오백년가사 漢陽五百年歌史》에서 그 예요를 찾기로 한다.

정삼봉(鄭三峯) 거동보소
남산잠두(南山蠶頭) 주작(朱雀)되고
광(廣)나루가 수궁(水宮)되어
이렇듯이 향배(向背)놓고
인의예지(仁義禮智) 이네자(字)로
동대문은 흥인(興仁)이요
서대문은 돈의(敦義)오며

대궐(大闕)을 지을적에
무학(無學)재가 현무(玄武)로다
임진강(臨津江)이 인후(咽喉)로다
동서남북(東西南北) 사대문(四大門)에
서로연(連)해 지어노니
북대문은 광해(廣海)로다

이처럼 한양을 건설하는 데도 민족고유의 사고법와 유교사상을 적절히 원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광진(廣津)은 이처럼 정도전이 설정했듯이 서울의 수궁(水宮) 역을 담당한 곳이고, 한편 동작진도 〈노들강변〉 노래를 낳게 한 문화의 텃밭이었다.

한강과 관련된 시조는 다음과 같이 약 20여 수가 발견된다.

· 가노라 三角山 다시 보자 漢江水야
故國山川은 써나고자 하리마는
時節이 하 珠常하니 올동 말동 하여라.
(金尙憲)

· 道先이 碑峯에 올라 國都를 定호을씩
子坐 午向으로 城郭을 일잇는디 左龍 右白虎
와 南朱雀 北玄武는 貴格으로 벌어 잇고
前帶河 漢江水는 與天地 根源이라
太廟는 可左호고 社稷은 可右로다
三峯이 秀麗호니 人傑이 豪俊호고
臥牛山 有德호니 民食이 豐足이라
聖繼神承호야 億萬年之無疆이갓다
하늘이 金壽長 주오신 뜻을 받들어 萬萬歲를 누리소서

· 삼각산 비 추천 곳의 한강수 푸루렀다
턱산으로 증인삼고 녹수로 언약이라
지금의 산무궁 슈부진호니 네나 너나

· 임 니별 호든 날 밤에 나는 어히 못 죽었노
한강수 깊은 물에 풍덩실 싸지련만
지금의 사라 잇기는 임보라고

· 春風杖策 上巔頭호야 漢陽城裏를 歷歷히 둘러보니
仁王山 三角峯은 虎距龍蟠勢로 北極을 꺾야 잇고 終南
漢水는 襟帶相連호야 久遠호 氣象이 萬千歲之無
疆이로다
君修德 臣修政호니 禮義東方이 堯之日月이요 舜之
乾坤이로다

· 잘 잇거라 三角山야 다시 보자 漢江水야
우리 疆土 써나가니 춤아 잇지 안갓스리
到處에 無數호 더 魔鬼를 다 잡고야
(捉魔生) 1909, 4, 15, 대한매일신보 제1071號

· 남산에 눈 놀니는 양은 白松鵲이 죽지 찌고 당도는 듯
漢江에 빙 쓴 양은 江上 두루미 고기 물고 넘노는 듯
우리도 남의 넘 거리 두고 넘노라 불가 호노라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 상 · 하, 아세아문화사, 1992.

- 漢成에 春樹綠하고 漢水에 春光開라
一葉片舟 흘러 저허 十里 沙場 내려갈 제
問노라 無綿巨 송사리를 一網打取

(大韓民報, 1910, 3, 23. 제229號)

- 漢江水 넓은 물에 一葉 漁船 흘러 즈어
굴근 고기 잔 고기 함불 낙가다가
저 건너 柳橋邊에 막저로니 집으로

- 술 먹지 마자 하고 漢水 두고 갑흔 盟誓
님 이별 마자 하고 春山 갖치 곳은 언약
두어라 多情 楊柳 章臺路에 美人盃야

(大韓民報, 1910, 4, 16. 제249號)

- 白岳峯石은 巖巖 磊磊 漢江 流水는 溶溶 양양
此石氣 此水勢는 우리 民族 活畫일세
두어라 疾風 暴雨인들 於余何傷

(大韓民報, 1910, 5, 1. 제212號)

- 腹中에 쌓인 懷抱 누를다려 說話하리
三角山 筆峰되고 漢江水로 삼아
오늘날 青天 一張紙에 그려다가 우리 님께

- 終南山이 砥礪 되고 漢江水가 如帶토록
山萬歲 水萬歲에 萬萬歲之 皇基로다
그 中間 二千萬 우리 萬姓 與國萬萬歲

(대한 1919, 7, 30. 제 337호)

- 언덕 문히여 조본 길 메오지 말며
두던이나 문히여 너를 구멍 좁히려는 水口門
드라 豆毛浦 漢江 露梁 銅雀 龍山
廟浦 열흘묵 든니며 누리 두저 먹고 치두저
먹는 바올히 목이 힘금커라 말고 大牧官 女妓와
小各官 酒拏년들이 와당탕 내다라
두 손으로 붓잡고
와드드 써느니 내 무스 거시나 힘금코야자
眞實로 그러곳 홀작시면 愛夫될가 호노라

· 偶然이 잠두에 올라 漢陽 城內를 구버보니
 인왕 삼각은 虎踞 龍蟠勢로 北極을 꺾어 있고 漢江
 終南은 與天地無窮이라
 지금의 우리도 聖君 만나 安過 泰平

· 이 몸 허러내여 낸 물의 썩오고저
 이 물이 우러 네어 漢江 여흘 되다 흐면
 그제야 님 그린 내 병이 헐헐 법도 있느니
 (鄭澈)

· 南山 松柏 鬱鬱蔥蔥 漢江流水 浩浩洋洋
 聖世子 萬年壽 가지스 太平으로 누리실 제
 우리는 康衢의 逸民되야 擊壤歌로 질길져

· 남산은 천연산이요 한강수넌 만연수라
 북악은 억만봉이요 금주임은 만만세라
 우리도 승주님 뵈압고 동낙틱평 91)

(2) 남한강과 한시

본장(本章)에서는 《여주군사》(2005)에 수록된 〈문학에 나타난 남한강〉 중에서 남한강 나무의 삶과 뱃놀이, 풍류, 기녀 등을 노래한 한시만을 취사선택해 부연·보첩하기로 한다.

원래 여강은 시인 묵객들이나 명유·정치인들이 이곳 산천과 명승을 즐겨 찾았다. 그러나 우리는 한강의 수세(水勢)를 이용한 장한 전투역사 곧, 임진왜란 때의 여강전투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강전투는 강원도조방장(江原道助防將) 원호(元豪)가 여강에서 일본군을 격퇴시킨 싸움을 말한다. 일본군이 침입하자 원호는 수하의 병력을 이끌고 평해에 다다랐으나 적병이 이미 조령을 넘어 섰다는 소식을 듣고 회군하여 여주에서 향병을 모집한 뒤, 1592년(선조 25) 5월 여강 벽사(신록사·벽절)에 둔진하고 나루를 왕래하는 일본군을 차단하고, 그들의 장물(裝物)을 빼앗아 행제소(行在所)에 보냈다. 6월에는 구미포(龜尾浦)에 둔진한 일본군이 민간인을 약탈하자 주병(州兵)을 초집(招集), 그들을 급습하여

91)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 아세아문화사, 1992, 상·하 참조.

많은 일본군을 사살하였다.

이 같은 전공으로 원호는 여주목사 겸 경기·강원도방어사로 승진하였다. 그 뒤 마탄(馬灘) 방면에서 일본군이 출몰하여 약탈과 방화를 자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천부사 변응성(邊應星)과 모의하여 마탄에 주둔한 적을 다수 살해하여 승리를 거둠으로써, 원주의 적로(賊路)를 봉쇄할 수 있었고, 이천·여주·양근·지평 사람들이 적의 예봉에서 살아 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뒤 원호가 강원도순찰사 유영길(柳永吉)의 명을 받고 김화싸움에 참가했다가 전사하니 여강의 방어선은 이때부터 무너지게 되었다.⁹²⁾

강원도방어사 원호의 공훈이야말로 가히 권율장군의 행주산성대첩에 비견할 만한 것이려면 역사의 뒀안길에 묻혀버린 인물이 되어 안타깝기만 하다.

그러면, 여강의 호국적 역할을 여기 잠시 접어 두고 여강에 우거했던 이들이나 유배자, 명유들의 한시를 더듬어 보기로 한다.

원래 여강은 원주의 섬강이 충주의 달천과 만나는 자산(紫山)의 근처에서 시작하여 금당천·양화천·곡수천·북하천·품실천 등을 받아 안은 채 유유히 흘러 산북리 앞까지 흐르는 강을 일컫는다.

여강은 자연풍광이 아름다워 중국의 서호에 비유하기도 했고, 국내적으로는 평양의 대동강에 비유하기도 하였으니, 여강의 여주는 소위 대동강의 평양, 서양강의 춘천과 더불어 3대강촌의 하나로 손꼽혀 왔다.

그런데, 강의 상류(上流)를 단강(丹江)이라 호칭했고, 중간을 여강(驪江), 하류(下流)를 기류(沂流)로 부르고 있는데 이들을 총칭하여 여강이라 한다.

단강의 애칭은 단암과 자산에서 유래한 것인데 자산의 위치는 섬강과 달천이 만나서 강천리로 향하는 합류 지점에 있는 곳으로 산이 작지만 험준하고 산 아래 합류하는 곳이 물이 깊어서 경관이 아주 수려하다.

이곳 사람들이 전하는 전설에 의하면 산 그림자가 잠겨 있는 물속을 자세히 살펴 보면 천도복숭아가 빨갭게 달린 나무들이 산 가득하여 붉은 산이라 부르고 있으며 그 복숭아는 이 산에 살고 있는 신선이 양식으로 하기 위해 심어 둔 것인 바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물속에서만 그림자로 나타나서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숭아를 따서 먹기만 하면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욕심을 내다가 결국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미루어 볼진대 경관이 수려하니 신선이 살았다 할 수 있는 것이 석복의 시 속에 신선이 살고 있는 곳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도화수(桃花水)로 올라가다.”, “도화수가 불어나다.”, “빨리 봄이 되면 도화수에 놀고 싶다.” 등 복사꽃 이야기가 많이 나

92) 이장희, 「여강전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p. 98.

온다. 그리고 옛 사람들의 말에 신선이 사는 곳에는 좋은 약을 항상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불그스름한 구름 같은 연기가 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신선이 사는 곳은 자운동천(紫雲洞天), 단산(丹山), 단구(丹丘) 등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 산을 신성시하여 자산이라 부르게 되었고 단강이란 이름도 자연스럽게 붙여진 것이다.

충주시 양성면 단암(옷바위)리가 있다. 그곳 사람은 그곳 앞에 있는 작은 산을 공양왕산이라 부르는데 공양왕이 피난을 가고 있는 중에 추격이 급하자 붉은 옷을 입은 신하가 옷을 벗어 바위에 걸어 두고 위장을 하였기 때문에 추격을 따돌리고 급함을 모면할 수 있었다 하여 그 후로 옷바위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 단암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부론면 단강리가 있다. 그곳 노인들은 단종이 영월로 갈 때 이곳에 쉬어 가며 물을 마셨다 하여 단정(端井)이라 하였는데 마을이 통폐합되면서 단정의 단 자와 강촌의 강 자를 합하여 단강이 되었지만 단(端)자가 단(丹)자로 변하여 단강이 되었다고 한다.

아무튼 자산에서 이호리까지를 단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민진원이 우만리 출신인데 호를 단암으로 하였고,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의 시 중에 <강천을 지나 여주로 가다>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상류로 올라가니 한 도시가 있는데	上流一都會
두 강 사이에 천 실은 됴직 하네	千室兩江間
큰 골짜기는 정기를 모 아 두었고	大壑函元氣
중류에는 잘려진 듯한 산이 있네	中流有斷山
밝은 노을은 학수(鶴岵)에 떠 있고	晴霞浮鶴岵
병풍 같은 돌은 우만을 감싸고 있네	奇石抱牛巒
문득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便欲携家入
풍선 가득 봄바람 안고 돌아오네	春風掛帆還

다른 선인들의 시제에는 단강을 노래한 것들이 별로 많지 않은 반면 석북은 단강을 노래한 시제가 아주 많다. 그 이유는 법정과 만날 수 있는 약속 장소가 주로 단포이기 때문이다. “단암의 주중에서”, “단포로 향하다.”, “단포에서 법정과 약속했는데 오지 않다.”, “돌아 오면서 섬강을 돌아 보다.” 등등 이밖에도 수없이 많다.

석북은 영조 때의 시·서·화로 유명한 풍류객인데 영릉 참봉으로 제수되어 와서 3년이란 임기 동안 오갑산의 고승 법정(法正)와 시주(詩酒)의 벗이 되어 단강을 무대로

자주 선유(船遊)를 즐기며 노래한 시만도 수십 편이다.
그럼 법정과 주고받은 시 몇 수를 옮겨 보기로 한다.

법정을 보내고 관사에 돌아와 생각한다

소를 타고 온 법정이여	騎牛丁法正
하루만 자고 충주로 가버렸네	一宿向忠州
수목이 많은 속에서 이별했는데	萬木深中別
홀로 등불 앞에서 시름 하네	孤燈見始愁
언제나 꽃이 피고 풀이 피면서	何時化滿樹
얼음 풀어지고 배가 다니게 되면	倒處水通舟
벽절과 청심루에서	壁寺淸樓興
그대와 같이 한 열흘 놀고 싶다네	携君十日遊

이 시에서 두 사람의 사이를 짐작할 만하다. 이 두 사람은 잠시라도 보지 못하면 몸살이 나서 살 맛이 없을 정도의 지기 중의 지기라 말할 수 있다. 강이 얼어서 배가 다닐 수 없자 소를 타고 찾아 오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하루 빨리 얼음이 풀어져서 배를 타고 오기가 수월하기를 바라며 하루 빨리 둘이 만나 시 짓고, 술 마시며 한 열흘 즐길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법정의 화답하는 시를 보자.

〈섬강에서 법정을 만나 같이 배를 타고 신륵사로 내려오다〉의 시제로 주고받은 것들이 많은데 그 중 한 수를 소개해 본다.

섬강에 돛 높이 달고	蟾江浮夜榜
멀리서 온 친구 싣고 오네	遠載故人歸
벽절에 오니 처음 종이 울고	到寺初動鍾
누에 오르니 비는 그치려 하네	登樓雨欲稀
늙어 갈수록 호해의 뜻을 거두고	老將湖海志
봄이 오면 같이 벽나의를 입세나	春共薜蘿衣
낙숫대나 하나 구하여 가지고	行買一竿竹
동대에 앉아서 낚시나 했으면	東臺上釣磯

신록사에서 놀기를 약속하고 배를 가지고 단포까지 가서 법정을 만나 같이 오고 있다. 이 주고 받은 시에서도 두 사람은 하늘이 주신 맞수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

“석복의 시에 벽절에 오니 처음 종이 울고”는 밤중임을 알 수 있고 “누에 오르니 비는 걷히려 하다.”에는 새벽이 다가 온다는 의미를 암시한 것이다.

밤을 지새우며 놀고서도 모자라서 벼슬이고 명예고 잡다한 것들은 모두 걷어치우고 봄옷을 같이 입고 동대에서 낚시나 하면서 같이 있기를 원하고 있고 법정도 이 땅에 우리가 없다면 이 같은 자리는 찾아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쉬워하고 있으니 아마도 두 사람 사이는 죽고 못 사는 20대 연인들보다 한층 더 간절한 것 같다.

두 사람이 남긴 걸작은 수 없이 많지만 단포에서 애타게 기다리다가 혹은 만나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기도 하고 혹은 법정이 오지 않아서 못내 아쉬워하며 쓸쓸히 돌아오는 두 편을 골라 보았다.

〈법정을 단포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기에 관부를 대동하고 눈길을 뚫고 가다〉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누렁이 소와 누렁이 말을 타고 온 것은
산음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요
십리 단암에 눈을 밝고 온 이 풍류는
옛사람 풍류집에 올려도 무방하리

黃牛黃馬兩翁騎
爲有山陰昨夜期
十里丹巖江上雪
此行應入古人詩

소타고 말타고 눈길을 달려와 만나는 이러한 풍류는 옛 사람들이 모아둔 풍류집에 올려 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다.

법정과 약속을 했는데 오지 아니하다

그대와 만나기로 단포로 약속했기에
눈을 뚫고 단포까지 달려 왔는데
단포에 와도 그대가 보이질 않아서
저무는 강으로 쓸쓸히 돌아가고 있다네

與君期丹浦
雪中丹浦來
丹浦不見君
日暮江上回

법정이 오기를 고대 하다가 오지 못하자 만나고 싶은 심정을 시에 담아 두고 저물어 가는 강으로 쓸쓸히 배를 타고 가는 그 모습과 그 심정이 지금도 눈 앞에 그림처럼 펴

쳐진다.

여강이란 이호리에서 양화나루까지를 이름이지만 시제에 자주 등장하는 풍광들을 살펴 보면 청심루, 신록사, 동대, 마암 순이다.

여강을 노래한 시선(詩仙)들이 너무 많지만 여주 출신으로 고금과 자타가 인정하는 백운거사 이규보를 빼놓을 수는 없다.

고향에 돌아오니 후배인 향교 유생들이 선생을 위해 배도 준비하고 기생도 동원하여 뱃놀이에 나갔다. 선생은 술 있고 벗 있고 거기에다 기생까지 있으니 시선의 본색인 끼가 발동한다.

계도 난주로 푸른물 가르는데
창공을 배경한 여인이 더욱 아름답구나
쟁반에는 배가 둥그런 게도 잡아 놓고
그물 속에 목 없는 병어 같은 놈도 있네
십리 꽃길인 한 폭의 그림인데
이 풍경이야 어찌 값으로 논하겠소
풍악 소리에 익숙해진 갈매기들이
배 가까이 와도 피할 줄 모르네

桂棹蘭舟截碧漣
紅粧明媚水中天
釘盤纔見團臍蟹
掛網還看縮項鰻
十里煙花真似畫
一江風月不論錢
沙鷗熟聽笙歌響
飛到灘前莫避船

선생은 당신의 명망과 지위로 제도권 속에서 숙박되어 있다가 자연으로 돌아와 보니 너무도 좋았다. 예쁘게 하고 간드러지게 노래하며 춤추는 여인들이 어찌면 당신이 제도권 속에 있을 때와 너무도 같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대단하고 예뻐서 선망의 대상이 되었기에 정일품 종일품 하면서 품계를 매길 수 있었지만, 저 강 언덕에 흐드러지게 핀 꽃이라든가 자기 영역으로 침입한 인간에게도 아무 거리낌 없이 날고 있는 갈매기들, 멋대로 피고 멋대로 나는 이 풍경이야 어찌 값으로 논할 수 있으리요 하고 노래하는 그 심정을 많은 위선으로 포장된 우리들이 한번쯤 음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다음은 목은의 시로써 서두에서 반만을 소개한 바 있지만 한 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면 이렇게 좋은 여주로 낙향해야겠다는 강한 뜻을 내재하고 있다. 세상의 잡다한 미련을 버리고자 한 몸부림의 흔적이다.

우주는 무한하지만 인생은 끝이 있는 법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려고 망설이고 있소

天地無涯生有涯
浩然歸去欲何之

여강의 굽이굽이 산이 그림 같은데
반은 단청 같고 반은 시와 같은 것을

驪江一曲山如畫
半似丹青半似詩

다음은 모재 김안국(金安國) 선생의 시를 선택해 보았다.

모재는 여주에서 태어났다는 설도 있고 서울에서 출생했다는 설도 있으나 이천에서 10년, 이포에서 9년 해서 인생의 반을 이곳에서 우거하였고 많은 후진을 양성하였기에 여주 최초의 서원인 마암서원을 지어 선생을 모셨다.

지금은 물론 이포의 기천서원에 주향으로 모셔져 있지만 선생의 부조위(不祧位)가 이포에 있고 선생의 종택이 이포에 살고 있으니 여주 사람이라 하여도 무방하다. 선생의 시 중에 여강을 노래한 시제가 많지만 두 편만 골라 보았다.

봄 늦은 강 언덕에 철쭉이 만발한데
누구를 위하여 교태를 부리며 웃는고
시인은 술에 취해 별로 흥미가 없었는데
바람을 안고 별안간 지나가 버렸네

春後江邊虫躑躅花
爲誰容冶暎平沙
詩人醉臥無餘興
不覺風帆瞥眼過

강 언덕에 흐드러지게 핀 철쭉이 저마다 한껏 뽐내고 있는 것이, 마치 세상에 득세했다는 사람들이 방약무인으로 아첨하며 뽐내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연상되었을 것이다.

모재는 사화(士禍)와 권력 싸움에 환멸을 느끼고 한적한 시골에 낙향하여 후진을 교육하고 소학을 실행하며 소학동자라 자처하신 분이니 화려한 싸움판이 관심이 있을 턱이 없다. 그래서 살다 보니 세월이 사정 없이 지나갔다고 당신의 처지를 노래한 것이다.

가을바람 강상에 옥피리 들려오는데
붉은 단풍 황색 국화가 창파에 비치네
옛날에 보던 경광들이 그대로 있는데
이 몸은 백발로 변해가는 것을 어찌랴

江上秋風吹玉笛
赤楓黃菊映清波
舊時景物依然在
白首塵途奈老何

이 시는 영릉에 제관으로 왔다가 뱃길로 돌아가면서 읊은 시다. 세상이 바로잡혀지면서 옛 먼 날에 아는 얼굴들이 조정에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당신은 늙어서 쓸모가 없다고 자조하는 시다.

청심루는 여주를 대표하는 관루이기 때문에 명인들의 시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고려 문신 주열의 시를 우선 옮겨 보기로 한다.

한바퀴 밝은 달이 구름 끝에 솟았는데	一輪明月湧雲端
강 속에 비친 모습이 많이 본 얼굴이네	鏡裏如逢舊識顏
쌍으로 선 나무는 보개가 기운 듯하고	寶蓋影傾雙立樹
사방으로 둘러있는 산은 미녀의 눈썹 같네	修眉暈倒四回山
잉어는 용왕님께 편지를 전하고	鯉傳尺素滄茫外
검은 용은 굴속에서 여의주를 기르네	驪養明珠墨暗間
시를 짓기는 밤중이 지나서 더욱 좋으니	吟到五更更奇絕
시제 없다 핑계로 쉬지는 말게나	莫教風物片時閑

구름 끝으로 솟아오르는 달이 강 속에 비쳐 왔을 때 옛부터 안면이 많이 있는 사이다. 그리고 곁에 쌍으로 서 있는 나무는 마치 임금이 행차할 때 사용하는 일산처럼 기울어 있고 뺨 둘러 있는 산들은 꼭 미녀의 눈썹 같다고 묘사하고 있다. 잉어는 편지를 전하고 검은 용은 여의주를 품고 있다는 말은 물이 깊고 많아서 그럴 것이란 추상이다. 이태백이 죽자 강남에 풍월이 없어졌다고 송나라 사람들이 말했는데 여기 올라 오는 사람들은 시 지을 소재가 다 하였다고 쉬지를 말고 밤중이 되면 다시 새로운 소재가 더욱 많아질 것이니 소재가 다 했다는 핑계로 쉬게 되면 청심루에 시의 소재가 없다는 소문이 두려우니 잠시도 놀지 말고 시를 지으란 뜻이다.

다음은 점필제 김종직의 시 중에 〈청심루 운을 차운하다〉가 있다.

초가집 울타리에 배를 매어 두었는데	維舟茅舍棘籬端
물고기 산새가 나를 알아보겠나	漁鳥何曾識我顏
병 후에도 충분히 나들이할 만한데	病後猶能撰杖屨
유배길에 겨우 이 좋은 강산을 구경하네	謫來纔得賞江山
십 년 동안의 세상사는 괴롭고 고단한 것이	十年世事孤吟裏
가을의 잡목 숲처럼 얼룩얼룩 하다네	八月秋容亂樹間
잠시 난간을 기대고 북쪽을 바라보는데	一篙倚欄仍北望
사공의 재촉이 잠시의 한가도 봐주지 않네	霎師催載不教閑

제목의 부제를 읽어 보면 “병후에 선산으로 부처되어 가면서 배로 여주를 지나가는 중에 나막신으로 청심루에 올라갔다가 주인을 만나지 못한 채 배로 돌아와서 충충히

쓴다”로 되어 있다.

다음은 우암 송시열의 시를 옮겨 보기로 한다. <깊은 밤 청심루에 앉아 념릉(寧陵)을
침망하면서>라는 시에는 효종(孝宗)에 대한 애절한 충정이 배어있다.

우리 님 덕의를 누가 능히 따르고	吾君德義孰能追
밤 깊은 차가운 강루에서 이야기하는 중이요	江閣寒宵晤語時
백발 구신 중에 오직 신이 남았는데	白首舊臣惟我在
창오의 고목들이 누구를 위하여 슬퍼하고	蒼梧古木爲誰悲
하느님은 인자하신데 재요가 거듭되니	天心仁愛災妖薦
나이 많은 구신들은 피눈물을 흘린다오	古老憂傷血淚滋
밤 깊어 달이 지나 님의 능침이 보이질 않아서	坐久月沈陵柩暗
어디를 향해 아뢰어 올릴지 알지 못하겠소	不知何處詭陳辭

우암이 예송으로 유배 가는 길에 청심루에 자면서 우리 임금님의 덕의는 누구도 따를 자 없다고 밤을 지새우며 말하고 있다. 당시 중요 참모들이 모두 죽고 나 하나만 남았다고 슬퍼하면서 오창의 고목들이 누구를 위하여 슬퍼하느냐고 묻고 있다. 오창이란 순임금이 죽은 곳인데, 효종의 죽음을 지금의 집권 세력들은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느님의 본마음이 인자한 법인데 현 정국이 비정상으로 엉켜 돌아 가고 있으니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모두 늙은 사람들인데 하나 같이 피눈물을 흘린다고 말한다. 오래 앉아 있자니 달은 지고 능침이 캄캄해서 보이질 않으니 어디를 향하여 아뢰야 할지 알 수가 없다고 한다.

점점 압박해 오고 있는 것이 죽음을 직감하였기에 앞으로는 이렇게 앉아서 아뢴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한탄이다. 천고의 한을 안고 유명을 달리한 군신간의 애절함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권수암(權遂庵) 선생의 <청심루>를 보자.

강루의 맑은 시야 십분 기이한데	江樓淸眺十分明
저 멀리 용문산이 술잔에 들어왔네	天外龍門影到
가랑비 잠깐 추녀 끝을 지나고 나니	微雨乍從巒角過
한조각 봄소식을 살구꽃은 알겠지	一春消息杏花知

수암 선생은 우암의 수제자로 영의정을 지내셨다. 이 시 외에도 여주에 대한 많은 명작을 남겼다.

맑게 갠 날 시야가 분명한데 용문산 그림자가 술잔에 거꾸로 들어와 잠겼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봄비가 살짝 지나갔나 했는데 살구꽃이 벌써 알고 터지고 있다는 것이다. 표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퇴계 선생의 시를 들어 본다.

여주 목사 이공순 · 훈도 이번과 같이 신록사에서 노닐다

서울의 풍진이야 꿈같은 근심인데	京洛風塵一夢悠
그대들 덕분에 잠깐 청류를 즐기고 있네	從公聊作精中遊
강산의 새벽 경치는 두 눈의 그림이요	江山曉作雙眸畫
누각의 시원한 바람은 유월에도 가을이네	樓閣清生六月秋
수리로 찾으면 이치의 근본을 알 것 같고	問數可能探理窟
신선을 말하자니 시류는 말하기도 싫어지네	談仙直欲謝時流
가벼운 배로 조용히 돌아오는 길에	歸來穩放輕舟下
나도 백구 같아진 것을 한없이 기뻐하네	自喜猶能追白鷗

퇴계는 서울의 복잡한 곳에 있다가 친구의 덕분에 신록사 맑은 경치에 놀고 있으니 한없이 좋다. 새벽에 두 눈에 비치는 것은 모두 그림 같고 누각에는 하도 시원해서 유월인데도 가을 같다고 했다. 주역으로 숫자를 잘 추산하면 이치의 근본을 알 수 있는 것 같고 신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니 잡다한 세속사는 도무지 생각하기조차 싫다. 돌아오는 길에 조용히 배를 타고 오는데 자연과 같이 갈매기와 같이 자연속의 한 덩어리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몹시 기쁘다고 하였다.

다음은 율곡 선생의 <밤의 동대에 앉아 이산해의 운을 차운한다>를 들어 본다.

조용한 밤 맑은 하늘에 갠 달이 걸렸는데	夜靜江天霽月懸
풀에는 벌레 우는데 물새는 자고 있네	蟲音在草水禽眠
가을의 시객이라 만감이 교차하는데	騷人自是秋感多
소나무 아래 바위에 쓸쓸히 앉아 있네	松下寒巖坐悄然

율곡은 십만 양병을 권하다가 아무도 동조하는 이 없자 벼슬을 버리고 선산으로 동

생을 찾아가는 길에 이곳에서 밤을 새우며 나라의 앞날을 근심하고 있다. 한없이 조용한 밤 끝없이 맑은 하늘에 둥글고 밝은 달이 휘영청 중천에 와 있다. 풀벌레는 우는데 물새는 자고 있는 것이 당신은 혼자서 십만 대병을 기르자고 우는데 명색이 대신들은 자고 있으니 답답하고 복잡한 생각을 아마 가을이라서 그렇겠지 하고 자위하고 있다.

다음으로 <강월헌>이란 시제로 노래한 서산대사의 시를 보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왼손으로 나는 번개를 잡고	左手捉飛電
오른손으로 바늘귀에 실을 꿰네	右手能穿鐵
산 구름은 안정을 낳게 하고	山雲生定眼
강달은 선심으로 들어가게 하네	江月入禪心

대사는 법력이 높은 분이지만 눈을 감고도 자연의 법칙을 볼 수 있다고 노래한다. 구름이 뭉개뭉개 피어나는 것을 보고 도를 보는데 의심이 없는 눈을 가질 수 있고 강달을 보다보면 둥글게 밝아오는 마음, 즉 선으로 들어가는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단한 경지의 수련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대 하면 이제 홍양호의 시를 뺄 수 없다.

닷을 끌고 아름다운 곳을 찾아서	曳纜遵芳渚
배를 묶어두고 옛 대에 오르네	維舟上古臺
강촌의 집은 모두 북쪽으로 향했는데	江村皆北向
강물은 동쪽에서부터 흘러나오네	春水自東來
돌문이 열리며 이도가 나왔는데	石破驪圖出
산은 북두자루에 연하여 열었네	山連斗尾開
가슴에 속진을 씻어버리고 나서	胸襟聊一濯
가벼운 기분으로 술잔을 깊이 들어 마시네	隨意倒沈杯

강촌이 북으로 향했다는 것은, 강 건너 집들이 북향집이 많지만 나라님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돌문이 열리며 이도가 나왔다는 말은 마암의 전설을 인용한 것이다. 여도를 왜 이도라고 했느냐고 하겠지만 이로 읽어야 맞다. 이제 시는 그 격조가 높히 평가된다.

팔대숲[八藪]

옛부터 패강에 숲이 많다 들었는데
강가 호반에 좋은 숲이 울창하네
오래 전에 배를 타고 여강으로 가다가
오래된 괴목에다 배를 매어 두었지
위에는 신선의 궁이 있고
아래에는 용왕부가 자리하고 있다하네
멀리 운몽수를 상상해보니
서로 비슷해서 겨를 만하겠네
나는 초나라 굴원은 아니지만
어부를 보지 못하란 법은 없지

泚多古名藪
盤鬱江之潯
昔我揚船過
繫纜古槐樹
上有神仙宮
下有蛟龍府
緬憶雲夢樹
佰仲可誇
我非楚醒者詡
獨不見漁父

한강을 패강 또는 열수라 부르기도 한다. 운몽수는 중국 양자강의 동정호 남쪽인데 강가로 우거진 괴목들이 팔구백 리 정도로 울창하게 서 있다는 것이다. 여강에도 수십 리 울창한 숲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콘크리트 옹벽으로 변하고 말았다.

연촌(煙村)

그대가 미처 살아보지 못해서
시골의 풍치를 알지 못하였네
그대가 지금 이곳에 오자마자
저녁연기가 풍성하게 나오고 있네
좌우에 죽도 있고 밥도 있고
농요와 회적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네
지난달에는 세금도 감했고
이달에는 부역도 면해주었네
격양가 부르며 고사터에서 마시는 것이
순수한 농민의 즐거움이라네

使君昔未來
田里不土着
使君既下車
豐穰煙火夕
左右殖又粥
村謳雜農笛
去月減官租
今月蠲軍役
擊壤歌衢樽
愷悌民所樂

그대가 농촌에 살아보지 못해서 농촌 맛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대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대접하고 싶어 굴뚝에 연기가 풍성하게 피어오르고 상에는 죽

도 있고 밥도 있고 농악이 한바탕 어우러지는데 북소리 쟁과리 소리에 회적소리까지 한데 어우러져 멋진 한마당이 연출되었다. 거기에 맞춰 격양가 부르며 마당에 둘러 앉아 권하고 마시는 맛이란 세상에 이보다 더 이상 좋은 잔치는 없다는 것이다.

옛날에 어진 사람이 사는 마을에는 세금도 감면하고 부역도 감해 주었다는 데서 당시의 실상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기류(沂流)는 양화나루에서 전북리까지를 이름이다. 그 증거로 모재 김안국 시에 〈양화나루에서부터 여흥의 경계이네〉라는 시가 있다.

본래 천령현으로 군세와 인물들이 대단하였는데 당시 영릉이 여흥으로 옮겨 오면서 합병되어 여주가 되었지만 이곳 사람들이 합병 초기에는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기류에는 많은 유적이 있었으나 모두 인물하여 없어지고 전설에 의해 조금씩 전하고 있다.

이곳에는 팔영이 아주 많은 편이다. 〈금사팔영〉이 두 편이나 되고 〈이포팔영〉, 〈궁촌팔영〉, 〈사전팔경〉 등이 있고 누대로는 침류정, 옥우당, 봉서정, 범사정, 망포정, 금강루, 침벽루 등이 있었다고 전하지만 지금은 없다.

다음은 모재 김안국의 〈금사팔영〉을 살펴 보자. 모재가 윤서파에게 준 팔영만도 두 편 이상이 있는데 그 중 하나만 옮긴다.

동호범장(東湖帆檣)

범선이 매일같이 가볍게 오가는데
서계에 은자 있는 곳을 다투어 알려하네
복사꽃일랑 부디 물 따라 보내지 마라
고기잡는 어부들이 찾아올까 두렵다네

風帆日日過如奔
爭識西溪有隱村
莫遺桃花流水出
怕逢漁客解尋源

동호란 금사리 앞 한강을 말함인데, 무릉도원을 빗대어 어부들이 복사꽃을 따라 찾아올까 두렵다고 하였다. 이런 고사는 도연명의 무릉도원에서 나오는 말이다. 세상에 알려지면 별의별 속객이 모두 찾아움을 경계하는 말이다.

남계수조(南溪垂釣)

고기 맛은 알아도 미처 어구를 준비하지 못해서
뛰노는 고기무리를 정신없이 보고만 있네

知魚未暇辦漁梁
耽看遊鱗耀鏡光

장난삼아 낚시줄을 물속으로 던졌더니 戲把織綸投日夕
우연히 올라온 은빛이 술상을 돕고 있네 偶然銀絲佐賓觴

고기를 먹을 줄은 아는데 투망이나 통사리 같은 어구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낚시를 무슨 놈이나 잡아먹지 그물이나 통사리로 싹쓸이 식으로 잡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고기를 먹는 것은 탐을 낼지 몰라도 잡는 데는 별로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봉암조망(鳳岩眺望)

층층바위 그림같이 천길이나 솟았는데 層巖如畫聳千尋
한구비 돌아앉으니 난세가 푸른 못을 굽어보네 一曲鸞環俯碧深
구름 걷히고 뾰족한 산들이 하늘가에 둘러섰는데 雲盡山尖天宇迴
몇 번이나 돌아와야 깊은 회포를 풀 수 있을고 幾回凝立山幽懷

용담욕영(龍潭浴泳)

가벼운 봄옷 입고 망건을 벗어버리고 輕衫初試岸輪巾
맑은 물 하나 가득 꽃 비친 모춘일세 花覆澄潭正暮春
돌아오면서 긴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欲罷歸來空浩詠
다시는 진흙탕 속으로 가지 말아야지 此身寧更漚街塵

이 시는 《논어》의 “욕호기 풍호무우(浴乎沂 風乎舞雩)”에서 나온 말이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뜻을 물었다. 모두가 대답하기를 어려운 정국을 만난 나라에 가서 정치를 맡아 한바탕 잘 해보겠다고 하는데 중점만은 다르다. “늦은 봄 봄옷을 갈아입고 기수에 가서 목욕하고 무우에 가서 바람 쏘이고 노래하며 돌아오겠다.” 하였다. 공자도 “나도 너와 같이 하리라.” 하여 유명하다.

모춘에 가벼운 봄옷 입고 망건을 벗어버리고 용담에 목욕하고 노래 부르며 돌아오면서 다시는 진흙탕 정치판에는 가지 않겠노라고 다짐한다. 기류(沂流)라는 ‘기(沂)’자도 여기서 나왔다.

대숲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옷깃을 헤치고 낮잠을 즐기는 이 신선 같은 재미를 서울에서 체면 때문에 정장을 하고 땀을 흘리고 있는 벼슬아치들이 어찌 짐작이나 하

겠느냐고 “진짜의 멋이 이것이다.”라고 노래한다. 다음은 범사정을 보자.

범사정(泛槎亭)

한가롭게 둥둥 떠 있는 범사정은	閑閑泛泛一仙槎
가야할 곳도 없어서 창파에 맡겨 두었네	無滯無心任碧波
아무 것도 실은 것이 없으니 풍랑도 걱정도 없고	虛載豈虞驚浪覆
동풍만 불어주면 은하수에나 가볼까 하네	東風輕颺上天河

범사정은 모재 선생의 정자로 이포 농협 앞 느티나무 근처라 짐작된다. 기천서원지에 “모재서원을 범사정 우록에다 옮겨 세운다.”라고 하였으니 말이다. 예전에는 강물이 이곳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완전한 호수 같아서 물이 넓고 깊었다 한다.

선사란 신선이 타고 다니는 떼배를 말함인데 물에 떠 있는 떼배 같은 정자는 어디로 가겠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물결의 출렁임에 따라 흔들흔들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 인간세상에는 가볼 만한 곳이 없고 동남풍이 불어주기만 하면 하늘의 은하수에나 가볼까 한다고 하였다. 이쯤 되면 고인들의 풍류가 어디까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시의 문맥으로 보아 강상 누각으로 생각된다.

서애 유성룡과 파사성은 남다른 감회가 있다. 임진란 당시 왜군의 일대는 죽산·용인을 거쳐 서울로 향했고, 일대는 충주·여주로 해서 서울로 집결했다. 그 후 경기감사 변응성이 파사성을 견고하게 수리하여 수도방어에 써야 한다고 주청하였다. 서애는 당시 영의정으로 그 계책에 찬성을 하면서도 전쟁 후라 힘이 부족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러나 황해도 승병총섭인 의암이 전쟁이 끝나 갈 곳이 없는 승병들을 모아 이 성을 수리하여 제법 규모가 완전하였다. 그 소식을 듣고 서애가 달려와 보니 고맙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의암과 하룻밤 같이 자고 지은 시이다.

자이호소양화(自梨湖遡楊花)

노를 두드리며 양화나루를 지나는데	鼓棹楊花去
일엽편주가 봄바람에 가볍구려	微風一葉輕
고기 잡는 일도 생업일 바에는	捕魚元可業
하필 벼슬만이 영화스러운 일인가	結駟豈專榮
여울이 서둘러 흐르니 비오는 소리 급하고	灘轉雨聲急

못은 비었기에 산 그림자 가득하네
 방초 우거진 쪽을 구경하노라니
 나는 왜가리 배 돛대를 치고 가네

潭虛山色盈
 忽看芳草外
 飛鷺掠舟楫

풍고는 안동 김씨 세도의 시호가 되는 분이다. 순원왕후의 아버지로 영안부원군을 봉 받았고 현암서원에 봉안되어 있다. 원채 문호의 집안에서 성장하였기에 시법이 아주 포괄적이다. 여울이 급하게 흐르니까 물소리가 마치 아우성 같고 못이 비어 있으니 까 모든 산 그림자가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 한 세상을 요리한 정치인다운 말이다. 민심이란 급하게 몰아 부치면 반드시 저항의 아우성이 있게 마련이니 비우고 겸손해야 민심이 모여 온다는 교육적인 뜻이 숨어 있고,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왜가리가 돛대를 치고 갔다는 뜻은 잠시 자만에 빠져 한눈 팔다보면 치고 들어오는 허점이 있다는 아주 정치적인 뜻이 담겨 있다.

다음에는 여강 다음에 나오는 광진나루와 동작나루에 관한 한시를 최완수의 《겸재의 한양진경》에 수록된 겸재의 산수화 비평을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 광진(廣津)

현재 위커힐 호텔과 위커힐 아파트 등이 들어서 있는 광진구 광장동 아차산 일대에는 한강을 건너는 큰 나루 중 하나인 광나루가 있었다. 광나루가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의정부·동두천·포천 쪽에서 내려와 한강을 건너 광주·여주·충주·원주 쪽으로 가려면 이 나루를 건너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니 우리 역사가 시작될 무렵 이 나루도 함께 생겨났을 듯하다

이곳 풍납토성이 하남위례성이었다면 백제시조 온조왕(溫祚王·서기 18~서기 27)이 백제를 건국하면서부터 광나루는 한강나루 중 가장 큰 나루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큰 나루 또는 너른 나루라는 뜻으로 광나루라 부르지 않았나 한다. 이로 말미암아 백제 개로왕 21년(475)에 고구려 장수왕(413~491)이 하남위례성을 함락하여 백제가 도읍을 공주로 옮긴 뒤에도 나루 이름만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물론 광주(廣州)라는 지명도 백제 때 서울이 있던 큰 고을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에 광주로 건너가는 나루라는 뜻도 겸할 수 있었다.

조선왕조가 한양을 수도로 정하면서 이 광나루의 기능이 되살아나게 되었으니 광주를 거쳐 충청좌도와 강원·경상도를 잇는 교통의 요지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아차산과 한강이 어우러지는 아리따운 경치와 함께 이곳은 별장지대로 각광을 받게 되

어 권문세가들이 다투어 아차산 기슭에 별장을 지었다.

특히 검재가 살던 진경시대는 평화와 안락이 절정에 이르러 서울의 상류층이 아취있는 풍류생활을 맘껏 누리고 있었다. 검재는 그런 시대 상황을 광나루진경에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금도 한강 유람선을 타거나 천호동 쪽에서 바라보면 아차산의 층진 모습이 이와 똑같다. 다만 이 그림에서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운치 있는 한식 기와집들이 크고 볼품 없는 현대식 고층건물로 바 것이 다를 뿐이다. 당시도 세력 있는 집안의 별서(別墅)들이 각기 터 잡고 있었던 듯 몇 구역으로 나뉘어 혹은 노송(老松)에 둘러 싸이고 혹은 잡수림에 둘러 싸여 고루거각(高樓巨閣)을 자랑한다. 이곳에서 검재와 친분이 두터웠던 소론 탕평(蕩平) 재상(宰相) 학암(鶴巖) 조문명(趙文命, 1680~1732) · 귀록(歸鹿) 조현명(趙顯命, 1691~1752) 형제의 부친 백분당(白賁堂) 조인수(趙仁壽, 1648~1692)가 살며 정관재(靜觀齋) 문하에서 배웠다 했으니 등성이 위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혹시 그의 별서였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백분당의 장자로 학암과 귀록의 백씨(伯氏)인 귀락정(歸樂亭) 조경명(趙景命, 1674~1726)이 이곳을 자주 드나들었던듯, 삼연(三淵)의 문인(門人)으로 진경시(眞景詩)의 의발(衣鉢)을 전수 받았던 모주(茅洲) 김시보(金時保, 1658~1734)는 그가 52세 나던 숙종 35년(1709) 기축(己丑)에 광나루 배 안에서 귀락정(歸樂亭)과 이별하며 이런 시를 남긴다,

돛단배 바람 따라 굽비굽비 돌아가니
가는 손 오는 이 함께 이별 아낀다
술잔 들고 뒤채어 놀랄 적에 광나루 다가오고
어린 종은 벌써 물가 갈대밭에 서 있구나
(帆隨風轉去 逶迤行客歸人共惜離
把酒醺驚廣津近 小奴已復立蘆碕)

《茅洲集》卷三, 廣陵舟中 別趙君錫景命

모주가 귀락정과 이별을 이토록 아쉬워한 것은 귀락정이 모주의 백씨(伯氏) 난곡(蘭谷) 김시걸(金時傑, 1653~1701)의 큰사위로 모주에게는 조카사위가 될 뿐만 아니라 농암(農巖), 삼연(三淵) 문하의 동문사우(同門士友)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림을 그려 그 우의를 드러냈던 것이다.⁹³⁾

93) 최완수, 《검재의 한양진경》, 동아일보사, 2004, pp. 212~215.

• 동작진(銅雀津)

지금 지하철 굴길이 뚫려 있는 동작봉 제일 높은 봉우리 밑으로는 과거에도 과천 가는 큰 길이 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강변 쪽을 작은 산언덕 하나가 봉긋 솟아나서 운치를 더해 준다. 그 위에 해묵은 노송들이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있음에서랴!

지나온 경치를 못 잊는 듯 시선을 뒤에 준 과객 하나가 아이가 끄는 당나귀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쪽 강변 백사장에는 말 타고 앞뒤로 거느린 선비행차가 사공을 소리쳐 부르고 있다.

당시는 승방천(僧房川)이라 부르던 반포천(盤浦川)이 한강으로 흘러드는 이수교(梨水橋) 일대는 저지대라 그런지 버드나무 숲이 가득 우거지고 흑석 동쪽 강변마을 역시 버들 숲으로 가득 가려져 있다. 버드나무가 많기로는 동작리 마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노들 강변 봄 버들’이란 노랫말이 생겼나 보다. 이때 동작리는 거의 서울 세가 들 별장으로 가득 차 있었던 듯 번듯번듯한 기와집이 즐비하다.

동작봉 산 중턱에도 큰 기와집을 지은 것을 보면 이 일대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개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물은 이때의 개발은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그와 조화시키는 일을 했으므로 오히려 집이 들어서면 더 그림 같아질 뿐이었다.

그래서 겸재 만년기(晩年期)의 역제자(易弟子)로 순조대왕의 외백조(外伯祖)가 되는 근재(近齋) 박윤원(朴胤源, 1734~1799)도 이런 시를 남겨 놓았다.

성곽 나서자 티끌 같은 세상일 없고 강물빛 비 맞아 다시 새롭다
 배에 앉으니 산은 저절로 오가고 물에 나앉자 백로와 서로 친한다
 물위에 정자 많으나 누각엔 주인이 적다
 누가 능히 내게 빌려줘 살게 하려나 꽃과 대나무에 경륜(經輪)을 붙여 보겠네
 (出郭無塵事 江光雨更新 坐船山自動 臨水鷺相親
 湖上多亭子 樓中少主人 誰能借我佳 花竹寄經綸)

《近齋集》卷一, 過銅津

겸재가 6세 나던 해인 숙종 7년(1681)에 예조판서 신정(申晷, 1628~1687)이 왕명을 받들어 지은 <창빈안씨신도비명병서 昌嬪安氏神道碑銘并序>에 이렇게 기록돼 있다.

“창빈 안씨는 본관이 안산(安山)이며 적순부위(迪順副提) 안탄대(安坦大)의 따님으로 중종 2년(1507) 7세로 입궁(入宮)하는데 중종 모후인 정현대비(貞顯大妃) 파평 윤씨의 사랑을 받아 서사(書史)를 익히고 중종(1518) 20세 때는 후궁으로 뽑힌다. 이어 중종

24년에 숙원(淑媛)이 되고 35년(1540)에는 숙용(淑容)으로 지위가 오르며 그 사이 2왕자 1옹주를 두게 된다.

중종이 승하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명종 4년(1549) 사가(私家)에 나갔다가 홀연히 앓지 않고 돌아가니 나이는 51세였다. 처음에는 양주읍 서쪽 장흥리(長興里)에 장사 지냈는데 택조(宅兆)가 불길(不吉)하다 하여 뒤에 과천 동작리(銅雀里)로 이장했다.”⁹⁴⁾

필자는 이미 7장에서 악장(樂章)이나 비사(秘詞)에 나타난 민속문학적 정황을 언급한 바 있기에 이곳에서는 동작과 광진나루 한시를 통해 당시 생활상황이나 민속적 분위기를 더듬어 보기로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난 한성 초기의 ‘한성팔영(漢城八詠)’은 서울의 산세, 도성과 궁궐 및 관청 건물의 위엄, 바둑판 같은 동리 배포, 동대문훈련장, 서강의 뱃길 운수, 한강나루터의 행인, 북교 교외의 목장이었고, 성종 때의 ‘한성십영(漢城十詠)’으로는 장의사의 불당, 제청정의 달구경, 반송정의 이별, 양화별의 눈구경, 남산의 꽃구경, 전교별의 새봄맞이, 마포의 뱃놀이, 흥덕사의 연꽃구경, 종로의 연등구경, 입석포의 낚시질 등을 손꼽고 있다.

한성팔영과 한송십영 안에는 서강의 뱃길 운수, 한강나루터의 행인, 마포의 뱃놀이, 입석포의 낚시질 등이 나오고 있어, 한수장강(漢水長江)에서 물길질을 해 오면서 물길의 삶을 즐겼던 서중(庶衆)들의 족적을 이해할 만하며 양반들의 도법자연(道法自然)했던 지고한 삶의 투영도 상상할 만하다.

94) 최완수, 전계서, 동아일보사, 2004, pp. 345~348.

여 백

南

漢

江

남한강

유역의

민속문화

8. 마무리



8. 마무리

박제가는 그의 《북학의 北學議》 〈배(船)의 사칙(四則) 조에서 “대략 중국의 배는 장기관 같고 우리의 배는 쌍륙(雙六)판 같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배의 단처(短處)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배는 화물을 운반하는 배나 나룻배를 막론하고 틈으로 새어드는 물이 항상 배 가운데에 그득하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종아리는 냇물을 건느는 꼴이고, 그 물을 퍼 버리는 데 한 사람의 힘이 날마다 소비된다. 또 곡식을 실을 때에는 반드시 나무를 엮어서 바닥에 깔지만 밑에 있는 것은 오히려 젖어서 썩을까 걱정이다. 그리고 마루 밑을 광으로 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사람과 물건을 뱃전을 한정으로 하여 태우는 수밖에 없다. 곡식은 짚섬에 담고 새끼로 묶었으므로, 한 섬을 실을 만한 면적을 차지한다. 또 배를 대는 언덕에 다리를 놓지 않고, 벌거벗은 사람 한 떼가 물로 들어가서 젖다 나르며 나룻배에서는 사람도 업어 건넨다. 물은 뛰어서 건느게 하는데 뱃전이 이미 문지방과 같아서 다리를 놓아야 할 높이에서 문지방 같은 깊이에 뛰게 하니, 자칫 하면 발의 다리가 부러질 지경이다. 이것은 모두 가로판자를 갖추지 않은 까닭이다.

위에서 박제가는 우리나라 나룻배나 여러 배가 운송수단으로나 교역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해내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당시 나룻배의 형태와 교역의 대상 등을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어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데 박제가는 풍파에 표류된 중국배가 있으면 그 안에 배 만드는 공인이 있을 터이니 그들로부터 배의 제도를 본뜨고 그 방법을 배우면 좋을 것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심지어 그 지방 관원에게 즉시 배를 불태워 버리게 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했다.

그런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배는 부정탄다는 관념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 박제가는 다리를 놓지 않은 점과 가로판자를 갖추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또한 외부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했던 우리민족의 지혜와 전략이 숨겨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소금이나 땀감 및 곡물을 실어 날랐고, 문화까지 실어나르는 역할을 했음을 주목해야 한다. 배를 단순히 물물교환의 제도나 도구로 생각하지 말고, 살아 있는 문화의 전파자 기능도 같이 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남한강은 배가 있어 교역이 시작되었고, 각종 민속행사까지 배태하게 되었으니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과 2장에서는 한국인이 어째서 유독 산과 강에 집착하였고, 조선왕조 시대 한강의 시원을 밝히는 데 그토록 심각하게 관심을 두었던 까닭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 보았다. 삼국시대부터 주산과 주천을 설정하고 나서 나라를 건설하였던 풍수사상 등도 일별하였다.

제3장에서는 남한강의 여러 나루와 교역품목 등을 살펴 보았다.

제4장에서는 남한강 유역 중 나루가 있었던 마을의 민속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그곳의 생활과 민속신앙, 세시풍속, 민속놀이 및 축제 등을 살펴 보았다.

북한강 유역과는 달리 즐편한 평야지대가 전개되는 곳이 많아 풍농과 풍어, 뱃길의 안전을 기원하는 세시풍속과 놀이가 발달하였음을 찾을 수 있었다. 예컨대 혼암리의 거줄다리기나 거북놀이, 낙화놀이, 그리고 뱃고사나 강고사 등이 그것이다. 특히 낙화놀이와 뱃고사나 강고사가 많이 행해진 것은 강마을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그리고 현재 남한강 유역의 나루가 거의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권에서는 유

일하게 살아 있는 청탄나루가 있는 큰청탄마을을 현장조사한 것도 의미있는 일이 아니었나 한다. 그 중 큰청탄마을의 활쏘기놀이는 강변에서 돛에 과녁을 표시해 걸어놓고 활을 쏘는 놀이로 강촌 민속에서 보기 드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밖에 혼암리는 보리웃놀이와 같은 특이한 율놀이를 발굴한 것도 하나의 작은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현재 행정구역이 서울특별시에 속하지만 과거에는 경기도 시흥군·과천군에 속했고 또 남한강 수운이 연결되는 노들나루와 충청북도 목계나루 등 두 나루를 집중 조사하여 경기권 민속과의 민속적 접촉·접합 관계 등을 살펴 보았다. 노들나루에서는 국행제의나 산신제, 용왕제 및 놀이·민요 등을 통해서, 그리고 목계나루에서는 줄다리기, 낙화놀이, 서낭당 등을 통해서 경기권 민속문화와 대비·연구하였다.

제6장에서는 민속문화에 나타난 물의 상징성을 주로 신화를 통해 고찰해 보았다. 또한 남한강 유역의 민속문화적 배경은 어디로 설정하고 있는 지를 추구해 본 후, 각론으로 남한강 설화, 남한강 민요, 남한강 무가 및 고전시가 및 한시를 통해 고찰해 보았다.



【참고문헌】

▶ 원전

- 權丘, 陽村集
- 金正浩, 大東地志
- 成俔, 慵齋叢話
- 尹廷琦, 東寶錄
- 李萬敷, 地行錄
- 李重煥, 擇里志
- 李肯翊, 燃藜室記述 別集
- 許穆, 眉叟全集 記言
- 東湖勝覽
- 輿地圖書
- 臨瀛誌(單)
- 竹圃, 《時調唱法教本》, 筆寫本, 丁酉八月

▶ 단행본

- 김선풍 외, 《태백산천제》, 태백시, 2009.
- 양효성, 《나의 옛길 탐사기 남한강》, 박이정, 2009.10.
- 여주군, 《여주군사 驪州郡史》, 여주군사편찬위원회, 누리미디어 제작, 2005.12.
- 한국문화유산답사회, 《경기남부와 남한강》, 돌베개, 2004.
- 경기도박물관,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Ⅱ 한강》, 2002.
- 최상일,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1(농요, 어로요, 기타 노동요)》, 돌베개, 2002.7.10.
- 김선풍 · 장정룡 · 김경남, 《평창군의 설화》, 평창군, 2002.
- 황패강 ·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 인제문화원, 《인제뗏목》, 2002.
- (사)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한강유역사 연구》, (사)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9.
- 강재철 외, 《김포의 설화》, 김포문화원, 1999.
- 김선풍 · 김이숙, 《동작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1994.

- 平昌文化院, 《珍富面誌》, 1993.
-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 아세아문화사, 199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 신경림, 《南漢江：倉批全作詩》, 창작사, 1987.
- 김연갑 편, 《아리랑》, 현대문예사, 1986.
- 김선풍, 《한국구비문학대계》(2-8) 강원도 영월군편 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 金榮振, 《韓國自然信仰研究》, 淸州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85.
- 김열규, 《한국의 전설》, 중앙일보 동양방송, 1980.
- 崔吉城 (巫俗言語),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제10책(서울 篇),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9.
- 최승순, 《太白의 山河》, 강원일보사, 1973.
- 민족학교 편, 《항일민족시집》, 사상사, 1971.
- 경기도지편찬위원회, 《京畿道誌》, 경기도, 1955.
- 李丙燾, 《韓國史》 古代篇, 乙酉文化社, 1959.
- 최남선, 《朝鮮의 山水》, 동명사, 1947.
- 한국컨텐츠진흥원,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문화콘텐츠개발》
(<http://hanriver.culturecontent.com>)

▶ 논문

- 김선풍, 〈강 문화를 통해 본 민요의 접변현상(接變現象)과 굴절현상(屈折現象) - 강원도 '아리리'와 '중원아리랑'을 중심으로 -〉, 《江文化 國際學術大會》(화천, 강원도민속학회, 2007.
- 김선풍, 〈한국의 강과 민속문화〉, 《江文化 國際學術大會》, 국제아세아민속학회, 2006.
- 이정재, 《남한강 수운의 전통과 민속-장터와 별신판을 중심으로》, 2002년도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 인문사회분야, 2002.
- 김선풍, 〈양구 아리랑 얼러지 小考〉, 《강원민속학》, 강원도민속학회, 2004.
- 김선풍,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 축제〉 개발의 활성화 방안, 《오대제(五臺祭) 발전 학술회의》, 오대제위원회, 2000.
- 전상호, 〈한강발원지의 역사성 및 현대적 의미 고찰〉, 《한강의 발원지와 강원도》, 강원개발연구원, 2000.

- 이창식, 〈뗏목관련 민요의 실상과 활성화 방안〉, 《한국민요학》 8집, 한국민요학회, 2000.
- 이창식, 〈남한강 유역의 전승문화 연구〉, 《서울문화연구》 제2집, 서울문화사학회, 1999.
- 조규익, 〈鮮初 新都市歌의 문학적 성격〉, 《문학작품에 나타난 서울의 형상》, 1994, 한샘출판사.



南 漢 江
유역의
민속문화

발행인 : 오용원

저 자 : 김 선 풍 (중앙대 교수)

편집인 : 김 성 문 · 나 명 철 · 진 숙

발행처 :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제동 1116-1 (경기문화재단 6층)

Tel. 031)239-1020

Fax. 031)239-3785

인 쇄 : 2009년 12월 20일

발 행 : 2009년 12월 31일

인쇄처 : 연세기획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34-3 전진빌딩 3층

Tel. 031)655-9360

Fax. 031)657-8747

* 이 책자는 경기도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음 <비매품>



남강

江

유역의
민속문화